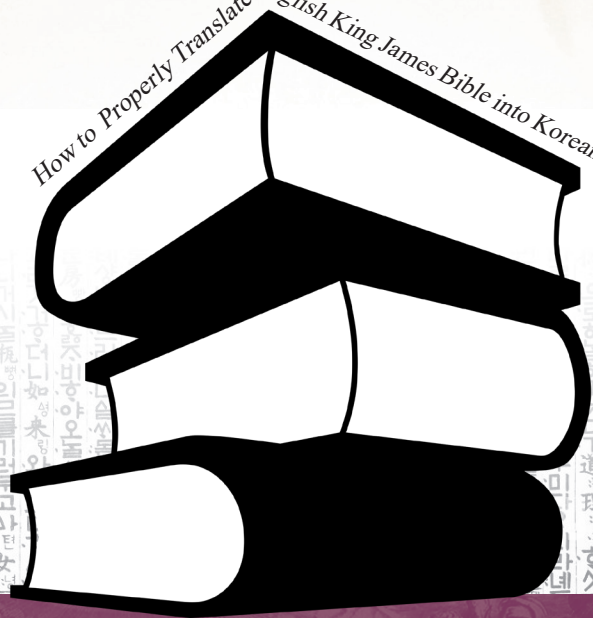


한국어판 킹제임스 성경 분별하기

정동수 지음

How to Properly Translate English King James Bible into Korean

국어 파괴와
자의적 해석도
'표준'이고
'근본'인가?



한국어 킹제임스 성경, 이대로 좋은가?

모국어의 문법을 무시한 성경, 번역의 참뜻을 저버린 성경들의 문제를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판으로 철저히 비교 분석했다.



도서출판 '그리스도예수안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하는 성경 전문 출판사로서 하나님의 은혜와 성령님의 인도를 힘입어 주 예수 그리스도의 유일한 복음과 진리가 훼손되지 않고 성경에 기록된 대로 보존되고 전파되는 일에 주력하고 있습니다.

The King James Bible publishing company, 'In Christ Jesus,' makes all efforts through the grace of God and the leading of the Holy Ghost to preserve and spread the only gospel and truth of the Lord Jesus Christ as revealed in the New Testament without any defect.



한국어판 킹제임스 성경 분별하기

지은이 / 정동수

Copyright ©

2024년 7월 10일 발행

발행처 / 그리스도예수안에

발행인 / 정동수

인천광역시 남동구 서창방산로 83

웹사이트: www.KeepBible.com

전자우편: webmaster@KeepBible.com

비매품(www.KeepBible.com에서 무료 다운로드)

이 책의 내용 일부를 인용하는 것 이상으로 무단으로 인쇄해 판매하거나 온라인에 업로드하는 것은 불법입니다.

*“How to Properly Translate
English King James Bible into Korean”*

— D. S. Jung —



머리말 6

저자 약력/ 일러두기 11

- 1.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대하여: 오류도 표준인가? 12
- 2. 비둘기, 나귀, 개미 등은 여자이고 등잔대, 언약궤, 까마귀 등은 남자인가? 25
- 3. 무덤인가, 음부(陰府)인가? 39
- 4. 여자들의 연설(?), 돕는 배필(?), 학관(?)이라 45
- 5. 칭의는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교리 문제 52
- 6.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 표준역 영어 본문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니다! 55
- 7.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수많은 번역 오류 61
- 8.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소문자 spirit은 오류이고 신성을 약화시키는가?: 부당한 주장 66
- 9. 한국에서 표준 1769년 영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만들기 77
- 10. 킹제임스 흠정역의 퓨어 케임브리지 영어 본문은 미국 최대 성경 출판사가 쓰는 베스트 본문 79
- 11. And를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주장 87
- 12. 부정 관사 a를 '한'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그릇되게 표현한 치명적 오류 98
- 13. 표준역의 내로남불: '산당'은 절대 쓰면 안 된다더니... 105
- 14. 영감과 보존과 번역, 그리고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111
- 15. 사람을 살해하는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 또 다른 표준역의 오류 128
- 16. 영어 단어를 단순히 영한사전에서 찾아 번역하면 수준 낮은 번역이 된다 132
- 17. 1769년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138
- 18. 오장육부를 굽는다는 표준역의 난센스 141
- 19. 1769년 가짜 케임브리지판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 144
- 20. 영어 관용구의 God을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표준역의 난센스 148
- 21. 히브리식 표현과 우리말 번역을 착각하는 일 154

22. ‘좀’과 ‘좀나방’의 차이를 무시한 오류 161
23. 영어 본문으로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영에 직격탄을 쓰는 대니얼스 164
24.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은 허구이다: 이런 허구에 직격탄을 쓰는 대니얼스 169
25.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 드디어 팩트 폭격으로 쓰러지다 174
26. 악마의 편집을 멈추라 182
27. 케임브리지 출판사의 공식 답변: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은 없다. 188
28. 개정(Revision)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 192
29.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 시 단수 복수 처리 197
30.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 시 수동태 문제 202
31. 영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로막는 것이 진짜 문제다 209
32.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의 목적과 원칙에 대하여 214
33. 원어 성경의 도움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220
34. 첫 열매들(복수)은 오역... 첫 열매(단수)가 맞는다: 동격도 구분 못하는 성경(고전 15:23) 233
35. 피터 럭크만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238
36. 나는 말씀보존학회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253
37. 왜 말씀보존학회는 이단 판결을 받았는가? 256
38. 말씀보존학회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질문 63〉 266
39. 영어 단어 win은 ‘이겨 오다’인가? 270
40.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단복수 번역 274
4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등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가? 279
42. 히브리서 2장 4절 물음표, 영어가 안 되는데 왜 영어 성경을 읽으려고 할까? 286
43. [막 1:4]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289
44. 창 1:28은 재창조 이론(갭 이론)을 말하지 않나요? 티모티 모튼의 〈겉길로 빠진 재창조〉 294
45. 딤편 3:16의 godliness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경건인가? 297
46. 도치를 살리면 우리말이 안 되는 사례: 디모데전서 6장 5-6절 302
47. 킹제임스 성경을 근본적으로 개악(改惡)한 근본역 308
48. 근본역의 부실한 번역과 과도한 한자어 사용, 그리고 노력 부족 316



30년간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며 접한 수많은 번역 오류 사례들에 대하여

1885년 4월 5일, 동방의 고요한 아침의 나라에 미국 선교사들을 통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들어왔다. 한국의 초기 그리스도인들은 복음을 전달받은 다른 나라 성도들처럼 참되신 한 하나님을 믿는다는 이유로 큰 고난과 핍박과 위협을 당하였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목숨을 내걸고 복음을 선포하며 선한 싸움을 싸웠다.

복음을 널리 전하기 위해서는 성경이 필요하므로 1877년부터 로스 등을 필두로 하여 여러 외국인 선교사들이 성경 번역 작업을 시작하였다. 그 결과 1911년에는 신구약을 완역한 성경전서가 출간되었고 그 뒤 1938년에 성경전서의 개정판인 성경개역이 출간되었으며 1961년도에는 성경개역의 개정판인 성경전서 개역한글판(이하 개역성경)이 출간되었다(이 책에서 언급하는 개역성경은 2011년 말에 저작권이 소멸되어 누구나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다).

한국에서는 초기 장로교 선교사들의 집중적인 노력으로 장로교회가 가장 큰 교세를 형성하였으며 초기 장로교인들은 성경에 관한 한 아주 보수적인 믿음을 고수해 왔다. 그 결과 그들은 개역성경에 단 한 점의 실수도 없음을 성도들에게 주지시켰고 지난 수십 년 동안 개역성경에 대해서는 누구 하나 제대로 입을 열어 그 문제점을 지적하려 하지 않았는데 이것은 성도들의 믿음이 좋아

서라기보다는 성경의 보존과 번역에 대한 성도들의 인식이 부족하고 대다수 성도들이 교회나 교단에게 맹목적으로 순종했기 때문에 발생한 결과이다.

다른 대안이 전무한 상태에서 그나마도 개역성경이 복음의 빛을 비추어 주었으며 이 성경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영광을 누렸다는 것은 어느 누구도 부인할 수 없는 사실이다. 그러나 동시에 성경을 믿음과 실행의 최종 권위로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로마 카톨릭교회의 사본에서 나와 프로테스탄트들의 교리와 실행에 여러 문제를 안겨 준 성경, 삭제 구절을 다수 포함하고 있는 성경, 국문법 오류를 수없이 포함하고 있는 성경을 무오한 성경이라고 주장하며 100여 년을 버텨 왔으므로 이로 인해 신학, 교리, 실행 등의 문제가 매우 컸음도 부인할 수 없다.

킹제임스 성경 이슈

국내에서는 1611년에 영국에서 출간되어 영어의 발흥과 함께 전 세계적인 성경이 되고 모든 기독교 교리를 확립하며 수많은 신학 교재 및 일반 크리스천 교양서적의 근간이 되고 500여 개 이상의 언어로 번역이 되어 권위를 자랑하는 킹제임스 성경(King James Bible, KJB)이 단지 문헌을 통해 '제임스 왕이 제정한 성경', 즉 '흠정역 성경'으로 알려져 왔다. 그것은 영미 문학에 가장 큰 공헌을 끼치고 문장이 수려하며 보수적인 성경 정도로만 인식되었고 그것을 소장하여 공부한 사람은 많지 않았다. 그래서 1980년대 후반까지는 개역성경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큰 차이점이 존재한다는 것을 아는 사람이 거의 없었다.

바로 그때에 성경대로 믿기를 원하는 성도들 가운데 몇 사람들이 주로 미국에서 출간된 문헌들을 통해서 신국제역(New International Version, NIV), 신미국표준역(New American Standard Bible, NASB) 같은 현대 역본들과 킹제임스 성경 사이에 엄청난 교리적 차이가 있음을 알게 되었고 개역성경이나 공동번역 그리고 표준새번역 등의 한글 성경들을 비교한 결과 대다수 한

글 성경들도 다른 현대 영어 역본들과 내용 면에서 거의 동일함을 알게 되었다. 이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사실을 어느 정도 알고 있었을 학계나 출판계는 이에 대해 제대로 된 설명을 하나도 내놓지 않았다.

실제로 미국 등의 영어권 국가에서 성경 논쟁이 일어난 것도 그리 오래된 일이 아니다. 1969-78년에 NIV가 출간되기 전까지 전 세계에 영어 성경은 킹제임스 성경 하나였다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즉 1611년 이후로 약 400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전 세계의 유일무이한 ‘거룩한 성경’(Holy Bible)으로 확고히 자리를 잡았다. 그러나 1960-70년대 이후에 NIV, NASB, NKJV, Living Bible 등의 현대 역본들이 광고의 홍수 속에 우후죽순 쏟아져 나오면서 한결 같이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였고 이것들의 맹공에 맞서기 위해 급기야 성경을 사랑하는 사람들이 NIV 등의 현대 역본들의 오류를 지적하고 반격에 나서기 시작했다.

1881년 영국에서 웨스트코트(B. F. Westcott)와 호르트(F. J. A. Hort)가 전통적인 프로테스탄트 공인 본문(Textus Receptus, TR)을 대적하며 로마 카톨릭교회 사본에 근거한 영국개역성경(English Revised Version, ERV 혹은 짧게 RV)을 들고 나온 이래로 성경학자들 사이에서는 성경 본문 논쟁이 늘 있어 왔다. 그러나 미국에서 일반 성도들에게까지 성경 본문 논쟁이 확산된 것은 1980년대 중반 이후의 일이다. 한마디로 미국의 성경 논쟁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공격과 변호라고 규정지을 수 있다.

한국에서도 깨어 있는 성도들이 개역성경의 문제가 심각하다는 것을 인식하고 있던 차에 미국의 자료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알게 되었고 이 사실을 알리려 노력했다. 그러나 안타깝게도 ‘극단적 킹제임스 성경 유일주의자’ 피터 러크만(Peter Ruckman)의 영향을 받아 무례하고 과도한 생각을 가진 사람들이 등장해 “개역성경은 사탄 성경이다.”,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 “우리아말로 한국에서 처음으로 세워진 신약교회이다.” 등과

같은 비상식적이고도 비논리적인 발언을 함으로써 한국에서 어렵게 쌓여가던 킹제임스 성경의 명성과 권위가 하루아침에 추락하는 불상사가 생기고 말았다.

킹제임스 성경 번역 문제

국내에서는 1990년대 중반부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성경들이 나오기 시작하였다. 그런데 피터 릭크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설’, ‘영어로 원어를 교정하거나 향상시킬 수 있다는 교리’ 등을 주장하면서 많은 문제를 일으켜 왔다. 번역이란 수용 언어의 틀 안에서 번역 대상 본문을 번역해야만 하는데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다는 생각이 번역을 지배하다 보니 영어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강박 관념에 의해 우리말이 전혀 허용하지 않는 어휘, 문장, 정관사, 부정 관사, 전치사 등이 번역에 유입되어 우리말 어법, 문법을 망치는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생겨났다.

또 성도들을 부추겨서 자기들만의 고유한 역본을 내려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그대로 카피해서 낼 수 없으므로 거의 베끼는 수준에서 자기들이 원하는 방향으로 특정 단어들을 바꾸어 번역본을 내면서 필연적으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원래 뜻에서 멀어지는 사례들이 발생하였다.

이 책은 저자가 2023년 중반부터 이런 문제들을 지적하며 우리말답게 성경을 번역해야 하다는 것을 킵바이블 사이트에 기록한 글들을 모아서 편집한 것이다. 이것은 한마디로 피터 릭크만이 끼친 해악이 얼마나 큰가를 보여 주는 시창각 자료이며 이런 식의 번역은 우리글과 말을 망친다는 것을 보여 주는 사례들의 모음이다.

자유 민주주의 국가 대한민국에서 누구라도 원하면 충분한 시간을 들여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할 수 있다. 다만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 진영 성도들과 일반 크리스천들에게 유익한 저작물이 되려면, 또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

을 조롱거리로 만들지 않으려면 우리나라 말의 용례와 원어 단어의 뜻 그대로 번역해야 함을 다시 한번 강조하고 싶다. 그래야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내린 '번역의 정의'에 합당한 글이 나올 것이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 내고 물을 길어 그것으로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요4:12)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우리말 표준 어법에 어긋난 글을 내면서 그것을 '표준'이라 하고 '근본'이라 하면 말이 되겠는가?

열성을 다해 이 책을 꼼꼼히 교정해 주신 김지훈 형제님에게 말할 수 없는 감사를 드린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번역하고 교정하는 지난 30년 동안 심히 풍성한 은혜와 긍휼을 베풀어 주신 주 하나님께 모든 영광을 돌리고, 성경 말씀을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에게 그리스도의 진리와 화평이 충만히 부어지기를 기도한다.

2024년 7월

사랑침례교회 정동수 목사



저자 약력

- 1982년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학사
- 1984년 캐나다 뉴브런즈윅 주립대학 기계공학과 석사
- 1988년 미국 메릴랜드 주립대학교 기계공학과 박사
- 2001년 미국 펜사콜라 크리스천 대학 신학원 석사
- 1992-2024년, 인하대학교 기계공학과 교수(열전달, 에너지/열공학)
- 2008년부터 현재: 사랑침례교회 목사
- 2000년부터 현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주 번역자



일러두기

- 붉은색 고딕체 성경 발췌문은 모두 그리스도예수안애가 발간한 킹제임스 흠정역(마제스티 에디션)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KJB 1611)입니다.
- 파란색 고딕체 성경 본문은 표준역, 근본역, 한글 개역성경과 기타 모든 성경의 발췌문이며 역본 표기를 했습니다.
- 각 페이지의 주석 부분과 본문에 있는 QR 코드를 촬영하면 해당 페이지와 동영상 링크로 이동합니다. 보통 스마트폰 상단 알림창을 두 번 내리면 나오는 메뉴에 QR 코드 스캐너(카메라)가 있습니다. PDF로 읽고 있는 중에 나오는 QR 코드는 ① 화면 캡처, ② QR 코드 스캐너 실행 ③ 하단의 촬영(📷) 포토(📷) 아이콘 중 오른쪽 포토(📷) 아이콘을 눌러 캡처한 이미지를 선택합니다.

1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대하여: 오류도 표준인가?

영어권에서는 화이트(James White), 카슨(D. A. Carlson) 등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사람들이 주로 영어 성경 본문을 가지고 이슈를 삼아 왔습니다. 이에 대해서는 사무엘 킵(Samuel Gipp) 박사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의 글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를 인용하여 잘 설명하였습니다.



사무엘 킵

킵 박사의 글은 다음과 같이 시작됩니다.

1611년에 탄생된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심하게 흔들려는 비평가들의 최후 배수진 가운데 하나는 소위 개정(改正)이라는 문제로 시비를 거는 것이다.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 곧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역사적 사실과 사본학적 증거와 성령님께서 이루신 명백한 증거들을 내보이며 자기들의 빈약한 주장을 뒤엎어 버리자 궁극적인 패배를 맞보지 않으려고 그럴듯해 보이는 이 요새로 도피한다. 일단 이 요새에 들어서면 그들은 자기들의 대적들에 대해 자신만만해하고 다음과 같이 묻는다.

“여러분은 어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십니까? 1611년판입니까, 1629년판입니까? 아니면 1769년판입니까?”

이 같은 공격에 대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신자들이 충격을 받고 잠시 어리둥절해하면 그들은 이 혼란한 틈을 타서 재빨리 도망쳐 버린다. 그러나 불행히도 자기들의 성안에 들어가 성문을 걸어 닫는 순간 그들은 자기들의 요새가 리건(David F. Reagan) 박사라는 사람에 의해 이미 조직적으로 파괴되어 완전히 허물어져 있음을 발견하게 된다. 리건 박사는 미국 테네시주 낙스빌에 있는 트리니티 침례교회의 목사이다. 그는 1611년 킹제임스 성경, 초기 개정 신화(The King James Version of 1611, The Myth of Early Revisions)라는 책자를 저술하여 ‘킹제임스 성경’의 초기 수정판에 얽힌 신화, 즉 꾸며 낸 이야기의 허구성을 통렬하게 폭로했다. 다시 말해 리건 박사는 ‘킹제임스 성경’ 비평가들의 마지막 피난처를 파괴하는 일을 훌륭히 수행해 냈던 것이다. 이에 필자는 그가 발견한 것을 좀 더 개선하려고 노력해야 할 이유나 필요성을 전혀 느끼지 않으므로 그의 허락을 받아 그의 소책자 전편을 여기에 소개하고자 한다.¹

즉,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가지고 시비를 거는 사람들은 마치 영어 성경 본문이 정말로 개정되었다고 주장하기 위해 이 이슈를 꺼냅니다. 그러나 리건 박사가 보여 주듯이 1611년, 1629년, 1645년, 1760년, 1769년판 등은 본문 개정이 아니라 철자법, 인쇄술이 바뀐에 따라 17세기의 영어를 18, 19세기의 영어로 바꾼 것에 불과합니다.

이것은 1900년대 초반에 조선을 Core아로 표기하다가 후에 Korea로 바꾼 뒤 지금은 모두가 Korea라고 쓰고 있는 것과 비슷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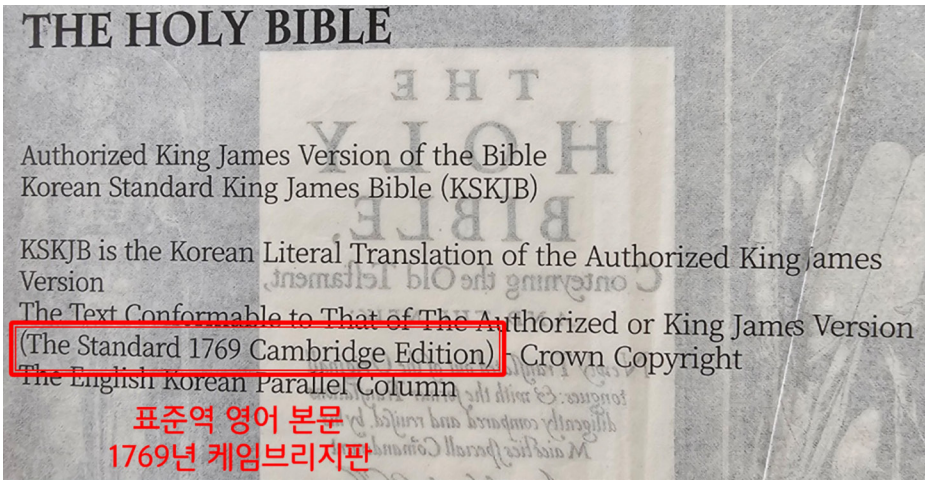
또 이것은 조금 더 압축하면 영어 성경 본문이 옥스퍼드판이나, 케임브리지

1. 리건 박사의 원본 글은 이 기사 밑에 있는 PDF 파일을 다운받으면 되고 이것을 번역한 글은 다음 링크에서 볼 수 있습니다.



판이냐는 문제로 귀결됩니다. 이에 대해서도 지금까지 여러 사람들이 글을 썼고 적어도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고 지지하는 사람들 중에서는 옥스퍼드판이나, 케임브리지판이냐를 두고 설전을 벌이지는 않습니다. 사무엘 킵, 피터 러크만, D. A. 웨이트 등 킹제임스 성경 진영 내에 알려진 거의 대부분의 성도들이 같은 의견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런데 2023년도에 출간된 표준 킹제임스 성경 진영의 사람들은 본인들이 1769년 케임브리지판을 영어 저본으로 썼고 이것이 가장 확실한 영어 본문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다음 블로그 링크를 보기 바랍니다. 반면에 흠정역 성경은 1909년경에 발표된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을 쓰고 있는데 그래서 이들은 영어 본문 차이로 인해 번역상의 엄청난 문제가 있는 것으로 선전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²



먼저 이에 대해 결론을 내리고 글을 전개하겠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영어 성경 본문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닙니다.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영어 성경 본문에는 오류들이 있고 그 외의 다른 부분



2. 표준 킹제임스 저본의 출처가 어디입니까?

들은 거의 다 흠정역 성경이 채택한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표준 킹제임스 역본 번역자들은 그것의 영어 성경 본문이 1769년 케임브리지판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즉, 어디에서 영어 성경 본문을 구했는지 독자들에게 알려 주기 바랍니다.

1611년판 킹제임스 영어 성경 교정 역사

1611년판 킹제임스 영어 성경 교정은 주로 세 가지 이유에서 이루어졌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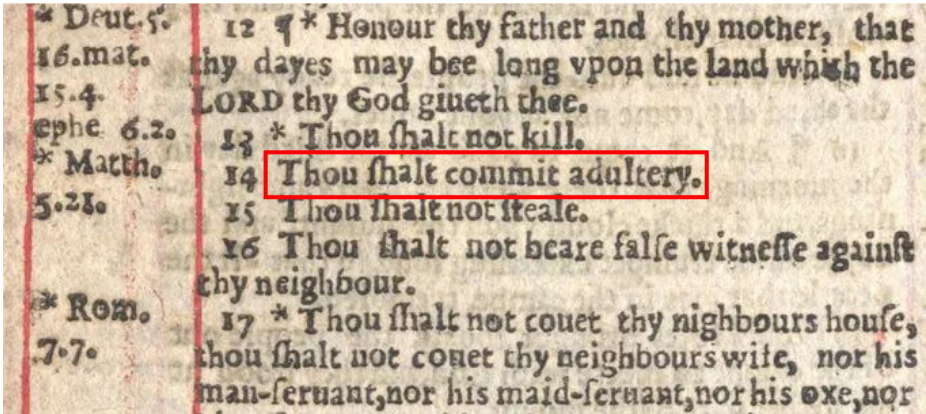
1.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철자법의 변화(리건 박사의 글에서 인용함)

고딕체 s는 단어의 첫머리나 단어의 중간에서 소문자 s로 쓰일 때는 마치 f처럼 보인다. 그러므로 also는 alfo가 되고, set는 fet가 된다. 또 다른 변화는 독일체 v와 u에서 발견된다. 고딕체 u가 로마체 v처럼 보이지만 고딕체 v는 로마체 u처럼 보인다. 이것은 우리가 왜 w를 '더블브이'라 하지 않고 '더블유'라고 부르는지를 잘 설명해 준다. 좀 혼란스러워 보이지 않는가? 그러나 익숙해지면 괜찮다. 따라서 1611년판을 보면 love는 loue로, us는 vs로, 그리고 ever는 euer로 쓰여 있다. 그러나 이런 것들은 사실 철자상의 변화도 아니라는 것을 기억하기 바란다. 이것은 단순히 활자체의 변화일 뿐이다.

2. 인쇄상의 명백한 오류들 교정

당시에는 활판 인쇄를 위해 식자공이 일일이 모든 단어의 알파벳, 콤마, 하이픈, 마침표, 물음표 등을 손으로 심어야 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약 500만 개의 활자가 쓰였습니다. 그러므로 식자공이 500만 개 활자를 심다가 실수할 수 있습니다. 대문자를 소문자로 할 때도 있고 not을 넣어야 하는데 넣지 못한 경우도 있습니다. 대표적인 것이 Wicked bible로 알려진 1631년판입니다.

원래 출애굽기 20장 14절은 ‘너는 간음하지 말라.’이고 영어로는 ‘Thou shalt not commit adultery.’입니다. 그런데 식자공의 실수로 not이 빠지면 서 ‘Thou shalt commit adultery.’가 되어 ‘너는 간음하라.’가 되었습니다.³ 그래서 이 1631년판은 나오자마자 모두 폐기되었고 인쇄소는 많은 벌금을 내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인쇄상의 이런 실수들은 너무나도 명백한 것들이라 시간이 얼마 지나지 않아서 모두 교정되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은 성경을 개정한 것이 아닙니다.

3. 시간이 지나가면서 영어 단어들이 좀 더 정교하게 고정됨

영어 위키백과 King James Version 항목에 가면 중간에 **‘1769년 표준 본문’(Standard text of 1769)**이라는 부분이 나오는데 바로 이 부분이 이에 대해 잘 설명을 합니다.⁴

먼저 이 부분의 제목을 잘 보아야 합니다. 이 제목은 ‘1769년의 표준 본문’이라고 말하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 본문’이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러

3. Wicked Bible(왼쪽)

4. 위키백과 King James version 항목(오른쪽)



므로 이것을 가지고 1769년의 본문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 본문이라고 주장하면 안 됩니다. 곧 보게 되겠지만 1769년 이후에도 철자법과 아포스트로피 등이 변하면서 지금 인쇄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들은 1769년 본문 그대로가 아닙니다. 참고로 아포스트로피는 하나 이상의 문자 생략(이를테면 do not과 don't)이나 소유격의 표시(이를테면 cat's whiskers) 등에 사용되는 부호입니다. 위키백과의 이 부분을 요약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케임브리지판은 파리스(Francis Sawyer Parris)라는 사람에 의해 편집되어 1760, 1762년에 출간되었습니다. 앞으로 편집이란 말은 본문 개정이 아니라 철자법, 인쇄상 실수 등을 고친 것을 뜻합니다.

반면에 옥스퍼드판은 1769년에 블레이니(Benjamin Blayney)에 의해 편집된 것을 말합니다. **그러므로 1769년 본문이란 옥스퍼드판 본문을 말하는 것이며 1769년에 출간된 케임브리지판 본문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이것은 역사적인 사실입니다. 그러므로 표준 킹제임스 성경 제작자들은 자기들이 말하는 '1769년 케임브리지 영어 본문'이 어디에 있는지 밝혀야 합니다.

그런데 시간이 지나면서(기간은 모름)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부는 1769년에 블레이니가 만든 옥스퍼드판을 쓰기로 하였는데 그것을 그대로 100% 쓰는 것이 아니라 여러 군데를 고쳐서 쓰기로 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블레이니가 만든 1769년판에서도 역시 원어와 비교하였을 때 단복수 문제(예를 들어 (대하 33:19) sin, sins), 철자 문제가 여전히 남아 있었기 때문입니다.

위키백과는 마태복음 5장 13절을 한 예로 보여 주고 있습니다.

1760년 케임브리지판: *Ye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ve lost his savour, wherewith shall it be salted? it is t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o be troden under foot of men.*

1769년 옥스퍼드판: Ye are the salt of the earth: but if the salt have lost its savour, wherewith shall it be salted? it is thenceforth good for nothing but to be cast out, and to be trodden under foot of men.

이 둘의 차이는 다음과 같습니다.

- 1760 케임브리지판: lost his savour, troden
- 1769 옥스퍼드판: lost its savour, trodden

그러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본문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 표준: lost his savour, trodden

이것을 보면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그들의 주장대로 1769년판을 그대로 따르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lost his savour는 케임브리지판, trodden은 옥스퍼드판을 따르고 있습니다. 반면에 흠정역은 lost his savour, trodden으로 되어 있어 표준역과 동일하고 이것은 troden을 trodden으로 고친 1909년경의 퓨어 케임브리지판을 따르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표준역은 케임브리지판도 아니고 옥스퍼드판도 아니며 정확하게 흠정역이 사용한 퓨어 케임브리지판을 따르고 있습니다.

표준역은 오류도 표준으로 만드는가?

표준역을 만든 사람들은 자기들의 영어 본문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제로는 그렇지 않습니다. 이제 아포스트로피에 대해 이야기하겠습니다. 표준역에는 you, we, they의 소유대명사가 your's, our's, their's로 되어 있습니다. 예를 들어 누가복음 6장 20절과 고린도전서 1장 2

절을 보겠습니다.

표준역 눅6:20, And he lifted up his eyes on his disciples, and said, Blessed be y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표준역 고전1:2, Un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to them that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with all that in every place call upo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both their's and our's:

표준역에는 분명히 눅6:20에 your's, 고전1:2에 their's, our's로 표기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누가 보아도 명백한 오류입니다. 이것들은 당연히 yours, theirs, ours로 표기되어야 합니다.

고린도전서 1장 2절

Unto the church of God which is at Corinth, to them that are sanctified in Christ Jesus, called *to be* saints, with all that in every place call upon the name of Jesus Christ our Lord, both **their's** and **our's**: [표준역 영어 본문]

누가복음 6장 20절

And he lifted up his eyes on his disciples, and said, Blessed be ye poor: for **your's** is the kingdom of God. [표준역 영어 본문]

their's, our's, your's :

- 표준역 영어 본문에 인쇄된 아포스트로피 (')를 찍은 소유대명사 형태는 부주의한 영어 사용자가 종종 저지르는 오류이다.

표준역은 이런 부분이 적어도 **45군데**나 있습니다(창15:13의 their's, 창26:20의 our's, 신11:24의 your's 등).

물론 흠정역 성경은 당연히 이런 단어들을 yours, theirs, ours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것이 맞는지는 독자 여러분이 판단하면 될 것입니다.

그런데 더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1769년판에서 창15:1의 their's, 창26:20의 our's, 신11:24의 your's 등을 1769년판 원본 성경에 가서 보면 theirs(33쪽), 창26:20의 ours(45쪽), 신11:24의 your's(201쪽) 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표준역은 실제로 1769년판을 따른 것이 아닙니다. 또 한 가지 확실한 것은 1769년판에는 여전히 your's 같은 오류들이 있었다는 것입니다.

표준역 번역자들은 1769년 옥스퍼드 에디션(Benjamin Blayney)을 저본으로 사용했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의 원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위의 구절 옆의 쪽 번호를 넣으면 금세 확인할 수 있습니다.⁵

표준역은 정말로 1769년 옥스퍼드(케임브리지?)판을 저본으로 사용했나?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어떤 독자께서 표준역 지지자들이 영어 성경 저본을 꺼내 문제를 일으키자 이것을 확인하기 위해 직접 1769년 옥스퍼드판과 1909년 퓨어 케임브리지판을 비교하였습니다.

흠정역은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정확해서 1909년경에 출간된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저본으로 사용했습니다. 이 원본은 다음에서 볼 수 있습니다.⁶

이 표에는 몇몇 구절에 대한 비교가 나와 있습니다.

여기서 각각 사용된 저본의 원문과 한영대역 성경의 영어 본문이 같을 때는 녹색으로 되어 있고 다를 때는 노란색으로 되어 있습니다.

흠정역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사용했다고 했고 실제 비교해 보면 이것

5. 1769년 옥스퍼드 에디션 원본(왼쪽)

6. 1909년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원본(오른쪽)



구절	원문	차이점	역본	사용	원문페이지
수 19:2	옥스포드	Sheba	표준역	or Sheba	243
	캠브릿지	or Sheba	흠정역	or Sheba	581
대하 33:19	옥스포드	sins	표준역	sin	461
	캠브릿지	sin(sinne)	흠정역	sin	1072
시편 148:8	옥스포드	vapours	표준역	vapour	588
	캠브릿지	vapour	흠정역	vapour	1377
렘 34:16	옥스포드	whom he	표준역	whom ye	705
	캠브릿지	whom ye	흠정역	whom ye	1643
창 15:13	옥스포드	theirs	표준역	their's	33
	캠브릿지	theirs	흠정역	theirs	89
창:26:20	옥스포드	ours	표준역	our's	45
	캠브릿지	ours	흠정역	ours	115
창 46:12	옥스포드	Zarah	표준역	Zarah	67
	캠브릿지	Zarah	흠정역	Zarah	140
신명기 11:24	옥스포드	your's	표준역	your's	201
	캠브릿지	yours	흠정역	yours	471
수 13:18	옥스포드	Jahaza	표준역	Jahazah	238
	캠브릿지	Jahazah	흠정역	Jahazah	570
수 19:19	옥스포드	Haphraim	표준역	Haphraim	244
	캠브릿지	Hapharaim	흠정역	Hapharaim	
삼상 31:2	옥스포드	Melchi-shua	표준역	Malchishua	311
	캠브릿지	Malchi-shua	흠정역	Malchishua	
삼하 21:21	옥스포드	Shimeah	표준역	Shimea	335
	캠브릿지	Shimea	흠정역	Shimea	
에스라 2:2	옥스포드	Mizpar	표준역	Mispar	466
	캠브릿지	Mispar	흠정역	Mispar	
에스라 4:10	옥스포드	Asnapper	표준역	Asnappar	469
	캠브릿지	Asnappar	흠정역	Asnappar	

이 맞음을 알 수 있습니다(녹색).

반면에 표준역은 1769년 옥스포드(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사용했다고 주장 하지만 실제로는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주로 사용하고 있고 일부 구절에서만 옥스포드 에디션을 사용한 것으로 보입니다(주로 노란색).

참고로 이 표에서 원본 성경을 보여 주는 위의 두 링크로 들어가서 각각의 성경 보기에서 이 표의 원문 페이지 번호를 넣으면 원래 본문을 볼 수 있습니다. 오래된 성경들이라 스캔해서 성경을 볼 수 있게 하였습니다.

표준역 번역자들은 1769년 옥스퍼드판 영어 성경이 표준이요, 저본이라고 말하지만 실제로는 퓨어 케임브리지판을 쓰고 있으니 이 어찌된 일입니까?

그러므로 이제 표준 킹제임스 성경을 만든 사람들은 대체 어떤 영어 성경 본문을 썼는지 밝히기 바랍니다. 부디 오류를 표준으로 만드는 일을 하지 말기 바랍니다.

1769년 이후로도 1884년에 스크리브너(F. H. A. Scrivener)는 권위역 영어 성경(1611): 그 이후의 재판(再版)과 현대 판들(The Authorized Edition of the English Bible(1611): Its Subsequent Reprints and Modern Representatives)이라는 제목으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 교정에 대해 책을 저술하였고 1769년판에서 찾아내지 못한 것들을 찾아내어 분류하였습니다.

사실 파리스, 블레인, 스크리브너 등은 이 모든 일을 수작업으로 하였으니 얼마나 고된 시간을 보냈을지 짐작이 갑니다. 이런 사람들의 노력을 통해 현재 우리가 쓰고 있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인쇄되어 오고 있습니다.

최근에는 킹제임스 성경 에디션 변화를 자세히 기록한 400쪽의 책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Illustrated Edition이 나왔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⁷ 이 책의 뒤에는 각각의 판에서 변화된 내용들이 분류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2011년에는 킹제임스 성경 400주년을 기념하기 위해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1611년판을 인쇄하되 명백한 오류들(철자, 인쇄 등)을 교정하여 인쇄한 성경이 나왔습니다. 이것은 1611년판 거의 그대로라고 보면 되고 뒤에는 역시 G. Campbell이라는 저자가 에디션 변화에 대해 쓴 글이 있으며 1611년판의 철자 오류 등의 리스트가 있습니다.⁸

7. A Textual History of the King James Bible Illustrated Edition(왼쪽)

8. King James Bible (text only) 400th anniversary ed edition by G. Campbell(오른쪽)



결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1611년에 인쇄된 본문, 1769년에 인쇄된 본문, 1909년에 인쇄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611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선물의 의미에 어떤 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1611년 성경 발행 이후의 본문 변화는 인간의 언어(철자법)가 변하거나 인쇄 기술이 변하면서 이것을 교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아포스트로피, 하이픈, 대소문자 등은 원래 원문에 없던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설사 판별로 미세하게 몇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어떤 문제를 결코 가져오지 않습니다.

G. Campbell은 400주년 기념판 성경의 뒤에 쓴 글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변화 등을 다 설명한 뒤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역본들 - 이 중 어떤 것들은 정말로 좋은 역본일 수 있다 - 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끝까지 존속할 것이다.”

“Other translations, some of them very good indeed, have come and will go, but the King James Version will endure.”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건 박사가 지은 글의 끝맺는 말이 그 이유를 잘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

판 인쇄본 - 여기다 더하면 1760년판, 1769년판, 1909년판, 케임브리지판 혹은 옥스퍼드판 - 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2

비둘기, 나귀, 개미 등은 여자이고 등잔대, 언약궤, 까마귀 등은 남자인가?

대한민국 국민이라면 누구나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무엇이든 할 수 있는 자유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사람이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는 것도 자유이고 읽는 것도 자유입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본을 출간하면서 보통 사람들이 받아들일 수 없는 논리로 번역을 하면 모든 사람에게 킹제임스 성경 자체가 우스갯거리가 될 수 있습니다. 즉, 우리말을 사용하는 사람들이 납득할 만한 수준의 번역이 이루어져야 한다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다른 나라말로 된 원문을 우리말로 번역한다는 것은 우리나라 사람들에게 일종의 서비스를 하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도무지 말이 안 되게 번역하고 이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글자 그대로 번역한 것이니 다른 번역은 틀리고 자기들 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면 대다수 성경 신자들을 조롱하는 일이 될 수도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서문에서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겼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

은,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 내고 물을 길어 그것으로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요4:12)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이처럼 번역은 글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통해 글에 생명력을 넣으려면 문맥에 따라 단어들의 뜻을 잘 고려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처음에 표준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역본이 나왔다고 해서 그런가 보다 하고 신경 쓰지 않고 가만히 있었습니다. 그런데 번역이 너무나 비상식적인 데가 많다는 이야기를 듣고 오늘은 한 가지를 이야기하려고 합니다.

표준역의 문제: 비둘기, 나귀, 개미 등은 여자이고 등잔대, 언약궤, 까마귀, 돌출 단 등은 남자인가?

창세기 8장에는 노아가 방주 밖으로 비둘기를 내보내는 것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역은 비둘기를 ‘그 여자’, 즉 ‘그녀’로 표현하고 있습니다.

표준역 이윅고 저녁 때 비둘기가 그에게 돌아왔더라. 그리고 보라, 그녀의 입안에는 뜯겨진 올리브 잎사귀 하나가 있더라(창8:11).

And the dove came in to him in the evening; and, lo, in her mouth was an olive leaf pluckt off: so Noah knew that the waters were abated from off the earth.

표준역은 이 비둘기가 암컷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녀의 입안에는’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바로 이것이 표준역만이 보여 주는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이것에 대해 지적을 하면 이것이 의인화한 것이라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표준역은 이런 곳이 한두 군데가 아닙니다.

민수기 19장 25절에는 붉은 암송아지로 정결례를 행하는 것에 대한 기록이 있는데 표준역은 암송아지를 ‘그 여자’(그녀)로 번역하였습니다.

- 2 이스라엘 자녀들에게 일러 그 위에 걸코 멩예를 메지 아니였고, 점도 없고 흠도 없는 붉은 암송아지 한 마리를 그들이 너에게 데려오게 하라.
- 3 그리하면 너희는 제사장 엘르아잘에게 그녀를 주어 그가 그녀를 진영 밖으로 데려가게 하고, 한 명이 그의 얼굴 앞에서 그녀를 도살하게 할지니라.
- 4 그리고 나서 제사장 엘르아잘은 그의 손가락으로 그녀의 피를 취하고, 회중의 앞을 향하여 똑바로 그녀의 피를 일곱 번 뿌릴지니라.
- 5 그런 다음에 한 명이 그 암송아지를 그의 목전에서 태울지니, 그는 그녀의 가죽과 그녀의 고기와 그녀의 피를 그녀의 똥과 함께 태울지니라.

민수기 22장에는 발람의 나귀가 말을 하는 장면이 나오는데 표준역은 나귀를 ‘그 여자’(그녀)로 번역하였습니다.

- 25 그런즉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자신을 벽에 밀어붙여 발라암의 발을 벽에 맞대어 뭉겼더라. 이에 그가 그녀를 다시 쳤더라.
- 27 그런즉 그 나귀가 주의 천사를 보자 그녀가 발라암 아래에서 엎드렸더라. 이에 발라암의 분노가 타오르기 시작하였으니, 그가 그 나귀를 한 지팡이로 쳤더라.

과연 아이들과 함께 이런 성경으로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성경 번역은 한글을 읽을 수 있는 모든 사람을 위한 작업입니다. 특별한 일이 없는 한 초등학교 중학교 아이들이 한글로 읽어서 이해한 내용이 성경에 기

록된 바로 그 내용이라야 합니다. 비둘기, 나귀, 암송아지 등을 다 ‘그 여자’(그녀)로 번역하고 이것만이 옳고 ‘그것’으로 번역하면 틀리다고 말하는 것은 혹세무민(惑世誣民), 즉 세상을 어지럽히고 백성을 속이는 일입니다.

다음은 등잔대 등을 ‘그 남자’(그)로 번역한 사례입니다. 출애굽기 25장 31절을 보면 표준역은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다음으로 너는 순금으로 등잔대 하나를 만들지니라. 그 등잔대는 두들겨 펴진 작업물로 만들어져야 하리라. 그의 대와 그의 가지들과 그의 대접들과 그의 꽃받침들과 그의 꽃들을 같은 것으로 이루어지게 할지니라.

And thou shalt make a candlestick of pure gold: of beaten work shall the candlestick be made: his shaft, and his branches, his bowls, his knops, and his flowers, shall be of the same.

등잔대가 어떻게 ‘그 남자’(그)가 될 수 있습니까?

킹제임스 성경 문법 초급 내용: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his는 두 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his와 its. 즉, his는 남성 대명사의 소유격이거나 중성 대명사의 소유격입니다.

셰익스피어(킹 제임스) 시대 영어에는 아직 its가 활성화되지 않았습니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구약 성경 레위기 25장 5절에 단 한 번 its가 사용되었습니다.

여기서 등잔대를 가리키는 his는 수컷(남자)을 의미하는 his가 아니라 중성 대명사 it의 소유격입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밑에서 설명할 것입니다. 그래서 ‘그의 꽃들’이 아니라 ‘그것의 꽃들’로 해야 합니다.

등잔대가 수컷이라서 **his가 아니다**

에스겔서 43장 17절도 동일합니다.

표준역 그리고 그 단은 길이가 십사 큐빗이요... 그리고 그것의 바닥은 주위가 일 큐빗이 되리라. 그리고 그의 계단들은 동쪽을 바라보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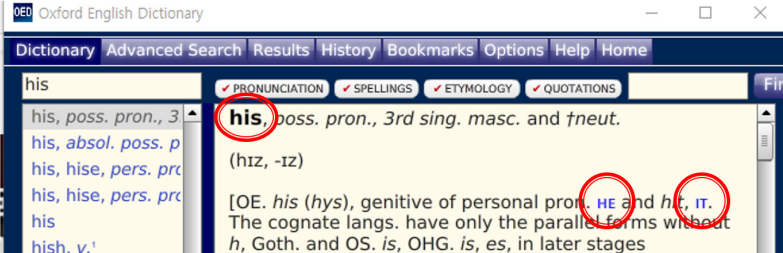
And the settle shall be fourteen cubits long and fourteen broad in the four squares thereof; and the border about it shall be half a cubit; and the bottom thereof shall be a cubit about; and his stairs shall look toward the east.

여기서도 'his stairs'는 돌출된 단이 수컷(남자)이라는 의미가 아닙니다. thereof 또는 his는 둘 다 중성 대명사의 소유격이며 따라서 '그것의 바닥... 그것의 계단들'로 번역해야 합니다. 즉,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거나 개인적으로 읽을 때 우리는 그 안에 5,001번 나오는 his, 1,994번 나오는 her가 남성 대명사나 여성 대명사의 소유격인지, 중성 대명사의 소유격인지 구분해야 합니다.

옥스퍼드 사전의 증거

옥스퍼드 사전 his

his는 대명사 **he**와 그것(**it**)의 소유격이다.
 [OE. **his** (hys), genitive of personal pron. **he** and **it**.



The screenshot shows the OED entry for 'his'. The word 'his' is circled in red. The definition states: 'his, poss. pron., 3rd sing. masc. and fneut. (hɪz, -ɪz)'. Below this, the etymology is given: '[OE. his (hys), genitive of personal pron. **he** and **it**. The cognate langs. have only the parallel forms without h, Goth. and OS. is, OHG. is, es, in later stages]'. The words 'he' and 'it' in the etymology are also circled in red.

위의 옥스퍼드 사전 오른쪽 박스에서 세 번째 줄을 보면 파란색으로 He와 It이 표시되어 있습니다.

또 his의 용례를 보면 생명이 없는 물체의 중성 명사를 언급한다고 하고 구체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의 출39:33을 예로 듭니다.

3.B.3 Referring to neuter nouns or things inanimate.

옥스퍼드 사전 his

c. c1250 *Gen. & Ex.* 327 Is fruit sired mannes mood, To witen boðen iwel and good. **c1325** *Prose Psalter* ciii[i]. 19 Be sonne knewe hys going down. **1382** *Wyclif Matt.* vi. 34 It sufficith to the day his malice. **c1386** CHAUCER *Prof.* 1 Aprille with hise shoures soote. **c1405** *Bidding Prayer in Lay Folks Mass Bk.* 65 That the erthe may bring forthe his fruyt. **c1449** *PECOCK Repr.* i. ii. 10 It longith not to Holi Scripture, neither it is his office. **1523** LD. BERNERS *Froiss.* I. ccx. 251 Euery batayle had his vawarde. **1526** TINDALE *John* iii. 8 And thou hearest his sounde [**1539** (Great Bible), the sounde therof]. **1561** J. DAUS tr. *Bullinger on Apoc.* (1573) 47 b, It seemeth to haue kept his olde wonte. **1563** *Homilies II. Whitsunday 1.* (1059) 454 This feast hath his name, to be called Pentecost. **1611 BIBLE Exod.** xxxix. 33 The tent, and all his furniture, his taches, his boards, his barres, and his pillars, and his sockets. **1612** BRINSLEY *Lud. Lit.* 93 The Preposition must be ioined with his case. **1634** W. Wood *New Eng. Prosp.* (1865) 41 Boston is two miles North-east from Roxberry: His situation is very pleasant. **1644** NYE *Gunnery Contents*, How to

위의 옥스퍼드 사전에서 빨간색 원 1611 Bible Exod. 39:33을 참고하세요.

출39:33 And they brought the tabernacle unto Moses, the tent, and all his furniture, his taches, his boards, his bars, and hiss pillars, and his sockets,

즉, 출39:33의 his는 ‘그 남자의(그의)’가 아니라 ‘그것의’라고 옥스퍼드 사전 자체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다음과 같이 번역된 표준역은 오역입니다(사실 있을 수 없는 번역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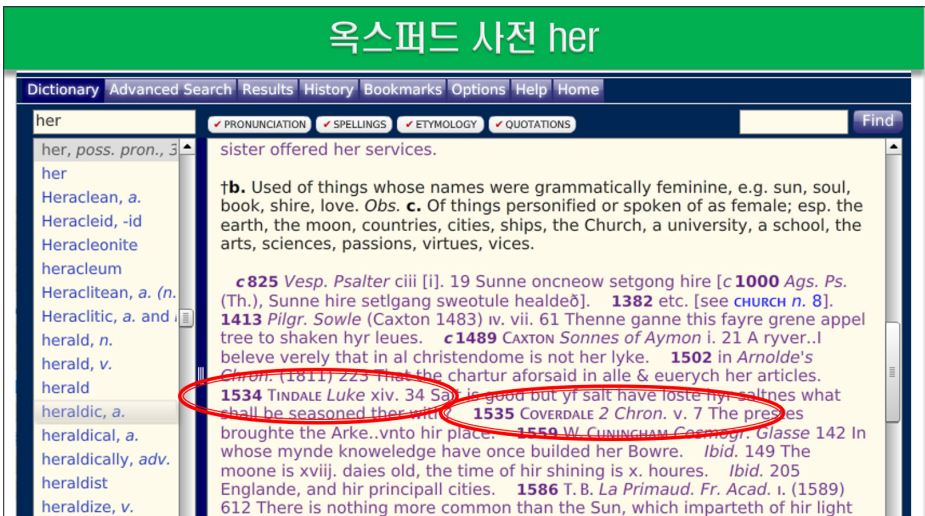
천막과, 그의 모든 용구와, 그의 걸쇠들과, 그의 판자들과, 그의 가로대들과...

her에 대해서도 옥스퍼드 사전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이것은 해, 혼, 책, 사랑 등과 같이 문법적으로 여성인 것들에 적용된다. 또 땅, 달, 나라, 도시, 배, 교회, 대학, 학교처럼 여성으로 언급되는 명사에 사용된다.

Used of things whose names were grammatically feminine, e.g. sun, soul, book, shire, love. Obs. c.2.c Of things personified or spoken of as female: esp. the earth, the moon, countries, cities, ships, the Church, a university, a school, the arts, sciences, passions, virtues, vices.

이에 대한 구체적인 예로 옥스퍼드 사전은 1534년의 틴데일 성경 눅14:34와 1535년의 커버데일 성경 대하5:7을 보여 줍니다.



틴데일 눅14:34 Salt is good: but if salt have lost her saltnes what shall it be seasoned therewith?

커버데일 대하5:7 And the priests brought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into her place,

틴데일 성경과 커버데일 성경의 her는 다음에서 보듯이 시간이 지나면서 KJV에서는 모두 his로 바뀌었습니다. 그래서 이런 구절들의 her나 his는 ‘그 여자’나 ‘그 남자’가 아니라 ‘그것’입니다.

KJV 눅14:34 Salt is good: but if the salt have lost his savour, wherewith shall it be seasoned?

KJV 대하5:7 And the priests brought in the ark of the covenant of the LORD unto his place,

그러므로 눅14:34의 his savour를 ‘그의 맛’으로 하면 안 됩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표준역은 여기서는 ‘자기 향미’라고 썼습니다.

또한 대하5:7의 경우 표준역처럼 ‘제사장들이 주의 언약궤를 그의 위치로 들였다’라고 번역하면 오역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은 성에 상관없이 고양이, 토끼, 쥐 등에 대해서는 her를 사용한다고 기록하며 그 예로 1535년 커버데일 성경의 잠언 6장 6절을 보여 줍니다.

커버데일 잠6:6 Of animals regarded as feminine, irrespectively of sex; e.g. a cat, hare, rabbit, mouse, etc.

영어 킹제임스 잠6:6 Go to the ant, thou sluggard: consider her ways, and be wise:

이것도 표준역처럼 ‘개미에게 가서 그녀의 길들을 숙고하라’로 하면 오역입니다. 이렇게 사실을 이야기해도 이미 **확증 편향¹**에 사로잡힌 사람들은 이것들

1. confirmation bias. 자신의 견해 또는 주장에 도움이 되는 정보만(그것의 사실 여부를 떠나) 선택적으로 취하고, 자신이 믿고 싶지 않은 정보는 의도적으로 외면하는 성향을 말한다. 다른 말로 자기중심적 왜곡(myside bias)이라 부르기도 한다.

이 의인화한 것이라고 주장합니다. 아닙니다. 이것은 흑세무민입니다. 이것은 의인화가 아니라 치명적인 오역입니다.

왜 이런 일이 발생할까요?

히브리어와 영어(또는 우리말)는 구조가 많이 다릅니다.

1. 히브리어는 자음(22)만으로 글자가 구성된다(영어는 자음과 모음으로 구성된다).
2. 히브리어는 관사(the)는 있지만 부정 관사(a, an)가 없다(영어는 정관사와 부정 관사 모두 있다).
3. 히브리어는 대문자 소문자 구별이 없다(영어는 대문자와 소문자 구별이 아주 중요하다. 뜻이 달라진다. God와 god. 그러나 히브리의 '엘로힘'은 대소문자 구별이 없기 때문에 두 가지 뜻이 모두 포함된다).
4. 히브리어는 'be' 동사가 없고 다만 '존재하다'는 특별 동사가 있다(영어는 be 동사가 없이 문장을 구성할 수 없다. ex) I am Ruth. Be 동사가 없기 때문에 킹제임스 성경은 am, are, is를 이탤릭체로 처리하였다. 그러나 존재의 의미를 표현해야 할 때에는 그대로 사용했다. ex) I AM THAT I AM.
5. 히브리어에는 현재형이 없다. 오직 '완료'와 '미완료'밖에 없다. 엄밀하게 말해서 '시제' 자체가 없다. 동작의 속성이나 성질에 따라서 완료와 미완료를 사용하기 때문에 실제로 'I AM THAT I AM'은 현재형을 나타내는 'am'이 아니다. 달리 표현하자면, 히브리어의 완료와 미완료를 영어로 완벽하게 표현하는 것은 불가능하다. 일반적으로 영어는 12가지 시제가 시간의 흐름에 따라 분리되지만 히브리어의 시제는 동작의 상태나 속성에 따라 분류되기 때문이다.
6. 히브리어는 소유(have) 동사가 없다. 그래서 항상 누구누구에게 속했다는 표현을 쓴다.

7. 히브리어는 단어의 기본형은 항상 3인칭이다.
8. 히브리어의 명사에는 남성과 여성은 있지만 중성이 없다.
9. 히브리어에는 복수 대명사도 남성과 여성이 구별되어 있다(영어로 they는 남성인지 여성인지 모르지만 히브리어로는 알 수 있다).
10. 히브리어에는 하나의 접속사밖에 없다. 그 하나가 'and'도 되고 'but'도 되고 'therefore'도 된다. 문장의 상황에 따라서 접속사의 의미가 달라진다.
11. 히브리어는 형용사가 발달되어 있지 않다. 그래서 명사 안에 2차적인 뜻을 많이 내포하고 있다. ex) 코는 단순히 코가 아니라 분노를 나타내는 말로도 쓰인다.

여기서 8번 항목을 유의해서 보기 바랍니다.

다음 링크에서 보듯이 히브리어 명사는 격이 없으므로 따라서 문맥에서 판독해야 합니다. 또한 성과 수만 있는데 성은 중성은 없고 남성과 여성만 있고 명사 자체가 성을 타고납니다. 참고로 '격'이란 문장 속에서 체언이나 체언 구실을 하는 말이 서술어에 대하여 가지는 자격을 뜻하며 주격, 서술격, 목적격, 보격, 관형격, 부사격, 호격 따위가 있습니다.²

표준역은 자기들이 성을 모두 살렸다고 주장하지만, 그것은 위에 있는 것처럼 히브리어를 모르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혹시 안다고 해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영감을 받았기에 무조건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난센스 때문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일이 생깁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영감을 받은 것이 아니라 영감을 받은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한 성경입니다. 영감은 자필 원본에만 한 차례 주어졌고 그 뒤에는 보존이 됩니다.

그래서 표준역에서는 위에서 보여 준 대로 비둘기, 나귀, 개미 등은 그 여자(그녀)가 되고 등잔대, 들출 단 등은 그 남자(그)가 됩니다.



2. 히브리어의 특징

창8:11에서서 표준역은 이 비둘기가 암컷이었다고 주장하며 그래서 ‘그녀의 입안에는’으로 번역하였고 바로 이것이 표준역만이 보여 주는 진리라고 주장합니다. 다른 성경으로는 하나님이 내보내신 비둘기가 암컷임을 알 수 없다는 것입니다.

그런데 바로 위(창8:7)에는 하나님께서 먼저 까마귀를 내보내는 내용이 있습니다. 히브리어로 보면 여기의 까마귀는 남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남자(수컷)를 보내셨을까요?

8:6, 사십 일이 끝날 때에 노아가 자기가 만든 방주의 창을 열고

8:7, 까마귀를 내보냈는데 그 까마귀가 물들이 땅에서 떠나 바삭 마를 때까지 이리저리 나다녔더라.

까마귀(스트롱 번호 6158)는 구약 성경에서 단수로 6회, 복수로 4회 나옵니다. 물론 모두 남성입니다. 자, 그러면 다음을 보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수컷 까마귀에게만 먹을 것을 주실까요?

욥38:41, Who provideth for the raven his food? when his young ones cry unto God, they wander for lack of meat.

표준역: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양식을 제공하느냐? 그의 어린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그들이 방황할 때...

표준역에서 ‘그 남자’를 뜻하는 ‘그의’는 오역입니다. 그리고 어린 짐승들이 영어 본문 어디에 나오니까? 까마귀는 날짐승입니다. 더욱이 맨 뒤의 they는 ‘그것들’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They’를 ‘그들’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표준역에는 짐승, 날짐승, 나무 같은 것들의 대명사 They를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로 한 데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번역한 것이 옳습니다. 우리말의 모든 성경이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흠정역: 까마귀 새끼들이 하나님께 울부짖으며 먹을 것이 없어 헤멜 때에 누가 까마귀를 위해 그것의 먹을 것을 마련해 주느냐?

창세기 8장 말씀에서는 까마귀나 비둘기의 성을 알려 주는 것이 초점이 아닙니다. 까마귀라는 새와 비둘기라는 새를 방주 밖으로 내보냈다는 것이 초점입니다. 창1:21의 고래들을 보기 바랍니다. 고래들은 히브리 말로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수컷 고래들만 창조하셨단 말인가요?

창1:24에 보면 ‘땅은 살이 있는 모든 창조물’을 내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의 ‘창조물’은 여성 단수입니다. 그러면 땅은 암컷들만 내어야 할까요?

창1:24, 하나님께서 이르시되, 땅은 살아 있는 창조물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되 가축과 기는 것과 땅의 짐승을 그것의 종류대로 내라, 하시니 그대로 되니라.

창1:24, And God said, Let the earth(여성 단수) bring forth the living creature(여성 단수) after his kind(남성 단수), cattle(여성 단수), and creeping thing(남성 단수), and beast(여성 단수) of the earth after his kind(남성 단수): and it was so.

마지막 부분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서 짐승은 여성 단수인데 그것의 소유격은 남성 단수(his)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his kind는 표준역처럼 ‘그의 종류’가 되면 안 됩니다. 그것은 명백한 오역입니다. ‘그것의 종류’로 해야 맞는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에서 성은 중성이 없고 남성과 여성만 있으며 명사 자체가 성을 타고난다는 것을 기억해야 합니다.

영어 킹제임스 구약 성경은 히브리어의 이런 특성을 최대한 반영하였습니다.

이것은 매우 잘한 것이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다만 다른 말로 번역할 때는 히브리어의 특징 및 히브리어를 제대로 반영한 영어의 특징을 고려해서 번역해야 합니다.

구약 성경에 시온, 이스라엘, 바빌론 등은 여성으로 표현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스라엘, 바빌론이라는 국가는 다 여자들로만 구성되어 있던 말인가요?

다음 구절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는 이미 제물이 숫양(Ram)이라고 명시되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16절의 his blood는 ‘**그것의 피**’로 번역되어야지 ‘**그의 피**’로 번역하면 명백한 오역입니다. 우리말은 ‘그’(남자)와 ‘그것’의 차이가 명백하므로 ‘그의 피’를 ‘사람의 피’로 읽을 확률이 거의 100%입니다. 그러면 그의 피의 ‘그’는 누구인가요? 앞에 있는 아론이 되지 않겠습니까? 그러면 아론의 피를 뿌린단 말입니까?

출29:15, Thou shalt also take one ram; and Aaron and his sons shall put their hands upon the head of the ram.

출29:16, And thou shalt slay the ram, and thou shalt take his blood, and sprinkle it round about upon the altar.

표준역: 출29:15, 너는 또한 숫양 한 마리를 취할지니라. 그리고 아론과 그의 아들 들은 그 숫양의 머리 위에 그들의 손을 얹을지니라.

출29:16, 그런 다음에 너는 그 숫양을 도축할지니, 너는 그의 피를 취하여 그것을 제단 위 둘레에 뿌릴지니라(출29:15-16).

결론

그래도 표준역 같은 번역이 옳다고 하고 그것을 따라가면 누가 그것을 막겠습니까? 그 사람의 자유인데... 하지만 과연 이런 번역을 가지고 아이들과 같이 성경을 읽을 수 있을까요? 강단에서 이것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면서 같이 낭독할 수 있을까요?

이런 것에 현혹되어 넘어가도 어쩔 수 없지만 63세를 먹은 제가 그런 분들과 그분들의 아이들을 머릿속으로 그려 보면 그냥 앞이 캄캄합니다. 이런 것들은 다 헛된 말장난입니다.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딤후2:16).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말이 무엇입니까?

“참으로 한 나라의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만 한다.”

표준역처럼 어처구니없는 번역만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하게 번역한 것이라고 누가 주장한다면 교회 밖에 있는 사람들이 고린도전서 14장 23절 말씀처럼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이 다 미쳤다고 하지 않을까요?

그러므로 온 교회가 한 곳에 함께 모여 모두 타 언어들로 말하면 배우지 못한 자들이나 믿지 않는 자들이 들어와서 너희가 미쳤다고 하지 아니하겠느냐?

끝으로 부탁의 말씀을 드립니다.

형제들아, 이해하는 일에는 아이가 되지 말라. 오히려 악한 일에는 너희가 아이가 되더라도 이해하는 일에는 어른이 되라(고전14:20).

모든 것을 품위 있고 질서 있게 할지니라(고전14:40). 

3

무덤인가, 음부(陰府)인가?

표준 킹제임스역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무덤(grave)으로 표기된 단어들 가운데 상당수를 '성경적으로 존재하지도 않는 공간'인 음부(陰府)라는 불교 용어로 번역하였습니다. 참고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서 grave는 단수로 67회, 복수로 21회, 총 88회 나옵니다. 사실 grave라는 단어는 중학교 아이들도 무덤으로 알고 있는 쉬운 말입니다.

일단 '음부'에 대해 살펴보겠습니다. 표준국어대사전은 음부에 대해 이렇게 정의합니다.

음부(陰府): 사람이 죽은 뒤에 그 혼이 가서 산다고 하는 세상 = 저승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은 저승에 대해 이렇게 설명합니다.¹

이승이 이생(此生)에 어원을 두고 있듯이 저승은 차생(彼生)에서 유래하였다. 저승은 후생(後生), 타계(他界), 명부(冥府), 음부(陰府), 명도(冥途), 명토(冥土), 황천(黃泉), 유계(幽界), 유명(幽冥) 등으로 부르기도 한다.



1. 한국민족문화대백과사전 '저승'

'무덤(the grave)'에 대한 역본별 비교

	kjb	흠정역	개역 개정	개역 한글	표준역	가톨릭
창세기 37장 35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창세기 44장 29절	the grave	무덤	지옥	음부	음부	저승
창세기 44장 31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사무엘기상 2장 6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열왕기상 2장 6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열왕기상 2장 9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욥기 7장 9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욥기 14장 13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욥기 17장 13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욥기 21장 13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욥기 24장 19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욥기 33장 22절	the grave	무덤	구덩이	구덩이	음부	구렁
시편 6편 5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30편 3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31편 17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49편 14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49편 15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88편 3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89편 48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시편 141편 7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잠언 1장 12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잠언 30장 16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전도서 9장 10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솔로몬의 아가 8장 6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이사야서 14장 11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이사야서 38장 10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이사야서 38절 18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에스겔서 31장 15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호세아 13장 14절	the grave	무덤	스울	음부	음부	저승
고린도전서 15장 55절	the grave	무덤	사망	사망	음부	죽음

이 가운데 명부와 음부는 이승의 관부(官府, 정부나 관철)와 같은 개념을 저승에 상정한 것이다. 저승에 극락과 지옥이 있다는 관념은 도교와 불교의 저승관이 한국에 도입된 이래 통용된 것이고, 극락과 지옥은 저승의 하위 개념이 된다.

종교마다 나름의 저승관을 갖고 있다. 한국 종교는 다종교 공존의 특성을 지닌다. 여러 종교가 동시에 함께 사회에 존재하면서 신앙이 되기에 한국에는 여러 종류의 저승이 공존하는 셈이다.

즉, 우리말에서 음부는 죽은 뒤에 모든 사람의 혼이 가서 사는 것으로 알려진 불교의 저승을 말합니다. 다음 표에서 보듯이 음부는 개역성경(개정), 카톨릭 성경 등에 주로 사용된 단어인데 표준역 역시 이런 성경들과 궤를 같이하며 음부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음부와 저승

말씀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성경도 표준역과 거의 동일하게 30여 차례나 음부라는 말을 사용합니다.

한글 킹제임스 창37:35, 그러자 그의 모든 아들과 그의 모든 딸들이 일어나서 그를 위로하나 그가 위로 받기를 거절하고 말하기를 “내가 내 아들을 애도하며 음부로 내려가리라.” 하며 그의 아버가 그를 위하여 울었더라.

왜 **grave**를 무덤으로 하지 않고 이렇게 음부로 했는지 아무도 모릅니다.

종교 개혁 이전에 카톨릭교회는 사후 세계(공간)를 천국, 지옥, 연옥의 셋으로 구분하였습니다. 그런데 종교 개혁과 함께, 특히 영어가 만국의 공용어로 발전하며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면서 사후 세계는 유대인들의 성경 개념대로 천국과 지옥, 단 두 곳으로 확정되었습니다. 이 두 개의 장소 말고 죽은 사람의 혼이 가는 데는 없습니다. 이것이 성경이 말하는 사후 세계입니다.

개역성경의 음부는 샤머니즘(불교) 전통에서 나온 것입니다.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다고 하는 사람들이 사후 세계를 셋으로 구분하는 것은 성경적으로 있어서는 안 되는 일입니다.

그런데 더 큰 문제가 있습니다. 창세기 42, 44장에는 야곱과 그의 아들 베냐민에 대한 기사가 있고 야곱이 베냐민이 죽을까 봐 염려하는 장면이 있습니다. 창세기 42장 3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 if mischief befall him by the way in the which ye go, then shall ye bring down my gray hairs with sorrow to the grave.

표준역: … 만일 너희가 가는 도중에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그때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으로 무덤에 끌고 내려가리라.

표준역은 여기서 grave를 ‘무덤’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창세기 44장 29절에는 동일한 내용을 두고 grave를 ‘음부’라고 번역하였습니다.

And if ye take this also from me, and mischief befall him, ye shall bring down my gray hairs with sorrow to the grave.

표준역: 그런데 만일 너희가 이 아이마저 나에게서 빼앗고 그에게 위해가 가해진다면 너희는 나의 백발들을 슬픔과 함께 음부까지 데리고 내려가게 하리라.

아니 이게 어찌 된 일입니까?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들은 grave가 무덤이라는 것을 알면서도 창세기 42장 38절에서만 이것을 무덤으로 번역하고 다른 데서는 음부로 번역하였습니다. 아니면 부실한 번역으로 인해 같은 단어를 통일시키지 못했을지도 모릅니다.

우리는 야곱이 의인이며 분명히 구원받은 성도라고 믿습니다. 그런데 표준

역에 따르면 의인인 야곱은 음부로 갑니다.

다윗이 기록한 시편 31편 17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Let me not be ashamed, O LORD; for I have called upon thee: let the wicked be ashamed, and let them be silent in the grave.

표준역: 오, 주여,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제가 당신을 불렀기 때문 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음부 가운데 잠잠히 있게 하소서.

표준역에 따르면 여기에서 다윗은 구원받지 못한 사악한 자들이 음부에 거 한다고 말합니다. 그러면 의인과 악인, 즉 구원받은 자와 구원받지 못한 자가 동시에 거하는, 음부라는 공간이 있단 말입니까? 그런 곳은 성경에 없습니다.

특히 표준역 시편 31편 17절을 그대로 읽으면 천주교의 연옥 교리가 되지 않습니다니까?

표준역: 오, 주여, 제가 부끄러워하지 않게 하소서. 이는 제가 당신을 불렀기 때문 이니이다. 사악한 자들을 부끄럽게 하시고, 그들이 음부 가운데 잠잠히 있게 하소서.

한글 킹제임스: 오 주여, 나로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내가 주를 불렀나이다. 악한 자들로 수치를 당하게 하시고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개역: 여호와여 내가 주를 불렀사오니 나로 부끄럽게 마시고 악인을 부끄럽게 하사 음부에서 잠잠케 하소서

카톨릭: 주님, 제가 당신을 불렀으니 수치를 당하지 않게 하소서. 악인들이나 수치를 당하여 말없이 저승으로 사라지게 하소서.

결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처럼 gave를 다 정직하게 무덤으로 통일해서 번역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야 성경 내장 사전(Concordance)이 작동을 하면서 무덤의 의미가 무엇인지 누구라도 스스로 공부할 수 있습니다. 같은 단어 grave를 무덤과 음부로 번역자가 자의적으로 나누면 성경이 스스로 성경을 해석하게 하는 일이 불가능해집니다. 이것은 특별히 사후 세계 같이 교리적으로 중요한 단어들에 대해 번역자가 일관성 있게 지켜야 하는 번역의 원칙입니다.

물론 무덤은 죽은 사람이 묻히는 장소이지만 은유로는 사망 등을 나타낼 수 있습니다. 그러함에도 불구하고 grave를 그대로 무덤으로 번역하고 독자들이 앞뒤 문맥을 통해 스스로 이런 것을 알게 하는 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자들의 의도라고 생각합니다. ☞

4

여자들의 연설(?), 돕는 배필(?), 학관(?)이라

어떤 분이 표준역의 이상한 부분을 알려 주며 이것에 대해 어떻게 생각하느냐고 물어 왔습니다.

1. 여자들의 연설(?)

고전14:34는 다음과 같습니다.

Let your women keep silence in the churches: for it is not permitted unto them to speak; but they are commanded to be under obedience, as also saith the law.

표준역: 교회들 안에서 너희의 여자들을 잠잠하게 하라. 이는 그들에게 연설하는 것이 허락되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라. 율법도 말씀하시는 것처럼 다만 그들은 순종 아래 있으라는 명령을 받았느니라

그분이 말하는 요지는 지금까지 개역성경, 흠정역 성경 등이 이 구절을 다음과 같이 잘못 번역해서 교회에서 여자들이 말을 할 수 없었다는 것입니다.

흥정역: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이라.

개역: 모든 성도의 교회에서 함과 같이 여자는 교회에서 잠잠하라 저희의 말하는 것을 허락함이 없나니 율법에 이른 것 같이 오직 복종할 것이요

표준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여자들의 이 답답함을 해결해 주려고 34절의 speak라는 말을 연설하다로 번역했다고 합니다. 그리고 이를 뒷받침하기 위해 영어 사전을 보면 speak가 speech, 즉 연설하다는 뜻이 있다고 주장합니다. 사실 성경 번역이 이 정도 되면 이것은 궤변입니다. 여기서 사도 바울은 타 언어(방언)를 말하는 것에 대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영어로 이것은 ‘speak in tongues’라고 말합니다. 27-28을 보면 타 언어는 남자들만 하는 것이 원칙입니다.

고전14:27-28,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if any man speak in an unknown tongue,)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두 남자(two), 세 남자(three) 등을 그리스어로 가서 보면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바울은 여기서 여자들이 타 언어로 말하면 안 되는 것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교회에서 자매님들도 얼마든지 말(say)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문맥은 남자들 위에(혹은 앞에) 서서 말로 남자들을 가르치는 것을 말합니다. 이렇게 어떤 특정 사례를 해결하기 위해 성경을 왜곡하면 성경의 교리를 가르칠 수 없습니다. 여기의 핵심은 여자들이 연설하지 말라는 것이 아니고 타 언어를

말하면서 남자들을 가르치지 말라는 것입니다. 딤편2:11-12가 이를 잘 알려 줍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그래서 미국 침례교회에는 여자 목사가 없습니다.

Speak를 연설하다로 바꾼다면 성경에 하나님 혹은 예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라는 말이 매우 많이 나오는데 이것들도 모두 ‘연설하여 이르시되’로 바꾸어야 하지 않겠습니까? 여기의 ‘말씀하다’는 모두 speak이니깐요.

창8:15, 하나님께서 노아에게 말씀하여(연설하여?) 이르시되,
And God spake unto Noah, saying,

2. 합당한 조력자인가, 돕는 배필인가?

창세기 2장 18절과 20절에는 help meet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An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n help meet for him.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남자를 위해 help meet를 만들겠다고 하십니다. 영어를 자세히 보면 이것은 helpmeet, helpmate처럼 한 단어가 아니라 help meet라는 두 단어로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표준역을 번역한 사람들은 help meet을 helpmate로 설명하며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고는 그것이 맞는다고 주장합니다. 그러나 이것 역시 그들만의 억지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으로 가서 helpmeet 찾으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helpmeet('helpmi:t)

이것은 창2:18, 20에 나오는 두 단어 용어인 'help meet'에서 형성된 것이다. 이 뜻은 '그를 위해 합당한 도움을 주는 자'로 번역되고 19세기경에 가서야 helpmeet라는 한 단어로 굳어졌다.

A compound absurdly formed by taking the two words help meet in Gen. ii. 18, 20 ('an help meet for him', i.e. a help (help n. 2) suitable for him) as one word. Already in the 17th c. the Scripture phrase is found with the two words improperly hyphenated; which led the way to the use of help-meet, helpmeet, without 'for him'. But its recognition as a 'word' is chiefly of the 19th c.: it is unknown to Johnson, Todd, Richardson, and to Webster 1832. In the 17th c. they used more grammatically meet help, meet-help: cf. sweet heart, sweetheart.

뜻: 적합한, 합당한 조력자, 대개 아내나 남편에게 적용됨

A fitting or suitable helper; a helpmate: usually applied to a wife or husband.

용례: 이것은 같은 구절에서 1382년의 위클리프 성경, 1535년의 카버테일 성경, 1611 킹제임스 성경에 용례가 있다.

[1382 Wyclif Gen. ii. 18 Make we to hym help like hym. [1388 an help lijk to hym silf]. ibid. 20 an helper like hym. 1535 Coverd. ibid. an helpe, to beare him company. 1611 Bible ibid. I will make him an helpe meet for him (marg. Hebr. as before him). 1885 (R.V.) an help meet for (or answering to) him.]

이런 명백한 증거에도 불구하고 이것을 돕는 배필이라고 번역하는 것은 개역 성경이나 NIV를 그대로 따른 것이라 할 수 있습니다.

개역: 여호와 하나님이 가라사대 사람의 독처하는 것이 좋지 못하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배필을 지으리라 하시니라

한편 한글 킹제임스는 ‘합당한’을 빼고 돕는 자라고 하였습니다.

한킹: 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내가 그를 위하여 돕는 자를 지으리라.” 하시며

심지어 카톨릭 성경이 이런 것들보다 훨씬 더 바르지 않습니까? 이것은 아주 정확히 번역하였습니다.

카톨릭: 주 하느님께서 말씀하셨다. “사람이 혼자 있는 것이 좋지 않으니, 그에게 알맞은 협력자를 만들어 주겠다.”

내 생각을 버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무엇보다 중요합니다.

3. 학관이 무엇인가?

대하 34장 22절에는 college라는 말이 나옵니다.

And Hilkiah, and they that the king had appointed, went to Huldah the prophetess, the wife of Shallum the son of Tikvath, the son of Hasrah, keeper of the wardrobe; (now she dwelt in Jerusalem in the college;) and they spake to her to that effect.

표준역은 college를 ‘학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힐기야와, 왕이 임명한 자들이 여예언자 홀다에게로 갔는데, 그녀는 살룸의 아내로, 살룸은 의례복의 관리인이자 하스라의 자손이요, 틱왓의 아들이었다. (이때 그녀가 예루살렘에 있는 학관 안에서 기거하였더라.) 그리고 그들은 그러한 요지로 그녀에게 말하였더라.

학관이라는 말을 한 번도 들어 본 적이 없어서 표준국어대사전에 가서 학관이 무엇인지 보니 다음과 같이 정의되어 있습니다.

학관(學館): ‘학교’를 달리 이르는 말.

그러니까 표준역에 따르면 홀다는 학교에 기거한 셈이 됩니다. 이것은 college를 지금 식으로 대학교로 생각하기 때문에 나온 발상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college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종교적인 섬김을 위해 함께 모여 사는 성직자들의 공동체

3.3 A community or corporation of clergy living together on a foundation for religious service, etc. Now chiefly Hist.

영한사전에서 college를 보면 ‘⑧ 집합, 떼’가 있습니다(예: a college of bees = 벌떼). 이 구절에 나오는 college는 예복을 관리하는 성직을 맡은 자들이 거하는 공동체 혹은 구역을 뜻합니다. college는 결코 학교가 아닙니다.

흠정역 대하34:22, 힐기야와 또 왕이 지정한 자들이 여대언자 홀다에게 갔는데 그녀는 하스라의 손자이자 디그바의 아들로서 예복을 관리하는 자인 살룸의 아

내었으며 (당시 예루살렘에서 그 일에 종사하는 사람들 구역에 거하였더라.) 그들이 그녀에게 그런 취지로 말하매

옥스퍼드 사전을 보면 대학을 말할 때의 college도 공부하려는 같은 목적으로 모인 집합체를 말합니다. 학교가 아닙니다.

college of cardinals, 추기경들의 모임(추기경 대학 x)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17세기 영어 그대로 번역하려고 모두 노력해야 합니다. 이를 위해 영어 옥스퍼드 사전이 필요합니다. 그런 노력 없이 현대 영한사전을 가지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그러면 오역을 무마하거나 변명하기 위해 자꾸 거짓말을 할 수밖에 없게 됩니다. ☹

5

칭의는 ‘정당함을 입증받는 것’이 아니다: 심각한 교리 문제

한 분이 표준역의 심각한 교리 문제를 알려 주셔서 몇 자 적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성경은 justify, justified 등을 ‘정당함을 입증하다’, ‘정당함을 입증받다’로 번역했습니다. 예를 들어 로마서 5장 1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Therefore being justified by faith, we have peace with God through our Lord Jesus Christ:

표준역 롬5:1, 그러므로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은 우리는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하나님과 화평을 갖느니라.

표준역에 따르면 우리는 믿음으로 정당함을 입증받습니다. 국어사전을 보면 ‘입증하다’는 ‘어떤 증거 따위를 내세워 증명하다.’를 뜻합니다. 또 ‘정당하다’는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를 뜻합니다.

따라서 표준역처럼 justify를 ‘정당함을 입증하다’로 번역하면 ‘죄인이 원래 이치에 맞아 올바르고 마땅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거를 내세워 증명하다’라는 뜻이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역식의 justify는 죄인인 사람이 원래 정당하다는 것을 하나님이 증명해 주신다는 말입니다. 이것은 그리스도의 칭의 사역을 완전히 뒤집는 것, 즉 정반대로 만드는 것입니다.

성경의 칭의는 죄가 있는 사람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은 명백한 신학적 정의이며 전 세계 영어권 사람들의 표준 사전인 옥스퍼드 사전 역시 동일하게 정의를 내리고 있습니다. 즉, 사람이 원래 죄가 없다고 그의 정당성을 하나님이 증명하시는 것이 아니라 사람이 원래 죄가 있지만 예수 그리스도의 피를 통해 하나님께서 그를 의롭다고 여겨 주시는 것이 칭의입니다.

칭의(옥스퍼드 사전)

프로테스탄트 신학자들은 칭의란 하나님의 은혜의 행동인데 이것을 통해 하나님은 사람의 어떤 장점(선행 등) 때문이 아니라 그리스도의 전가된 의를 통해 사람을 의롭다고 간주하신다. 이것은 믿음에 의해 이루어진다.

Justification(옥스퍼드 사전)

4.4 Theol. The action whereby man is justified, or freed from the penalty of sin, and accounted or made righteous by God; the fact or condition of being so justified. Protestant theologians regard justification as an act of grace in which God accounts man righteous, not owing to any merit of his own, but through imputation of Christ's righteousness, as apprehended and received by faith.

칭의(라이프성경사전, 稱義, justification)

‘의롭다고 간주하다’라는 뜻. 자연인은 누구든지 죄인이므로(롬 9:2; 롬 3:10) 죄의 문제를 스스로 해결할 수 없고 죽음의 형벌을 면할 수 없다(롬 3:10, 23; 6:23). 그러나 하나님은 그리스도로 하여금 우리 죄인을 대신하여 죄값을 치르

게 하였고(롬 3:25) 또 그 피 공로를 믿는 모든 자들로 하여금 죄 없다고 선언 하셨습니다(롬 3:24-26; 4:3). 이것이 곧 칭의다. 칭의에는 예수로부터 전가된 의로써 과거 현재 미래의 모든 죄를 용서받는 소극적 요소가 있고(사 44:22; 롬 5:21; 히 10:14), 또한 하나님의 자녀되고 영생하는 적극적인 요소가 포함되어 있다(요 1:12-13; 롬 8:15-16; 벰전 1:4). → ‘의’를 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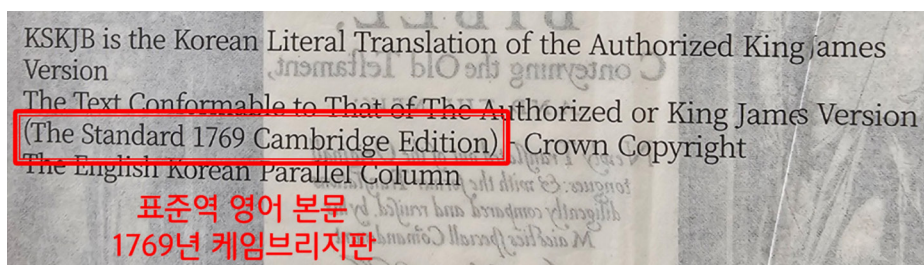
칭의의 교리는 구원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그런데 이 칭의를 사람이 원래 정당한 존재임을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입증받은 것이라고 하니 이런 주장은 어느 면에서 심각한 이단 교리입니다. 대체 이런 사상이 어디서 왔는지 표준역 번역자들은 밝혀야 할 것입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이었을 때에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 죽으심으로써 하나님께서 우리를 향한 자신의 사랑을 당당히 제시하시느니라(롬5:8). 📖

6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 표준역 영어 본문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니다!

표준 킹제임스 역본이 여러 가지 이상한 것들을 주장하고 있습니다. 어떤 사람이 선한 목적을 가지고 열심히 일하는 것은 매우 좋은 일입니다. 그런데 자기의 목적을 성취하기 위해 거짓말까지 써서 무리한 것을 주장하면 결국 거짓말이 드러나게 됩니다.



표준역 번역자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표준 본문이라고 주장하며 자기가 이 본문을 사용하였으므로 자기 역본의 이름이 표준 역본이고 이 본문을 사용하지 않은 다른 역본들(예를 들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에는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다음의 글을 써서 이 주장이 거짓임을 반박하였습니다.¹

1.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대하여: 오류도 표준인가?(1번 글 참고)

이 글에서 우리는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렸습니다.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영어 성경 본문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닙니다.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라는 것 자체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더욱이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영어 성경 본문에는 오류들이 있고 그 외의 다른 부분들은 거의 다 흠정역 성경이 채택한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과 동일합니다. 그러므로 표준 킹제임스 역본 번역자들은 그것의 영어 성경 본문이 1769년 케임브리지판임을 제시하기 바랍니다. 즉, 어디에서 영어 성경 본문을 구했는지 독자들에게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러자 표준역 번역자로 알려진 분은 해명 동영상 올렸는데 그 안에서 그 분은 다음과 같이 직접 자기 말로 명백하게 자기가 거짓말을 했음을 시인하였습니다. 그런데 그러고도 여전히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있다고 주장을 하는 것 같습니다. 어떤 분이 그분의 영상과 영상의 그 부분 녹취록을 보내 주셔서 여기에 녹취 부분을 증거로 제시합니다. 영상 링크는 밑에 있습니다.

영상 내용 녹취록

자 이전 오류일까요? 아니에요. 정말 1769년판에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1769년판 옥스퍼드판에 그렇게 되어 있어요. 볼게요. 실제로 옥스퍼드 디셔너리에 theirs를 치면요. 이 예시로 19세기에 썼던 것들을 보여 주는데요. 그때는 소유 대명사를 Their's라고 아포스트로피 s('s)로 썼다라는 것을 예시로 들어 줍니다. 그래서 1769년판 나올 당시에는 오류가 아니었어요. 그런데 지금은 그렇게 안 쓰니까 캠브리지에서 업데이트해서 아포스트로피 s('s)를 뺐죠.

자, 이게 왜 이렇게 된 건지는 제가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케임브리지판은 케임브리지는 텍스트를 잘 안 줘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자꾸 긁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삼만 천백두 구절, 삼만 번을 못하기 때문에 1769년판 텍스트는 있어요. 옥스퍼드판.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해서 이 케임브리지판에 맞춰서 수정할 부분을 다 수정했어요. 그런데 하나 제가 간과했던 게 아

포스트로피 s('s)를 빼는 거였네요. 이거는 잘 찾아 주셨습니다. 3판 나올 때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원래 이 19세기의 문법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위에서 보듯이 표준역 번역자는 자기가 '1769년 옥스퍼드판'을 구해서 그 안의 영어 단어들을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닙니다. 더욱이 케임브리지 출판사는 영어 본문을 주지 않는 데 무엇을 근거로 1769년 옥스퍼드판을 고칠 수 있을까요?

표준역 번역자는 자기의 영어 본문이 완전하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45군데나 아포스트로피를 틀리게 표기하였습니다. 그리고도 오류가 아니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면 본문의 나머지에 다른 오류가 있을지 어떻게 확인할 수 있을까요? 자기가 스스로 본문을 고쳤다고 하니까요.

그래서 표준역 번역자는 급하게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낸 것으로 보입니다. 그랬더니 거기에서 온 답변은 2023년 현재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가 만드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은 <1769년 옥스퍼드판 + 자기들이 고친 것들>이라고 글을 보냈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답변: 우리가 펴내는 킹제임스 성경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소하게 업데이트된 것들을 포함한 1769년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Our 1769 albeit with some minor updates over the year.

케임브리지 대학 답변에서 1769년판이란, 표준역 번역자가 말했듯이 당연히 1769년 옥스퍼드판입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반박하였듯이 표준역 번역자가 주장하는 1769년 케임브리지판은 이 세상에 없습니다. 그러므로 표준역 번역자는 하나님과 사람들에게 심각한 거짓말을 하였습니다.

더욱이 표준역 번역자는 케임브리지 대학 답변에 있는 명단, 즉 '시간이 경과

하면서 소소하게 업데이트된 것들의 명단'을 갖고 있지 않습니다. 그것은 본인 이야기했듯이 그 출판사에서 주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자신이 스스로 본문을 고치다가 45군데나 오류를 남겨 놓았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표준역 영어 본문이 다른 오류들을 담고 있다고 의심할 수밖에 없습니다.

표준역의 명백한 오류

그 예로 여호수아기 19장 19절을 들 수 있습니다.

표준역은 And Haphraim으로 표기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것을 마치 a가 있는 것처럼 한글은 ‘하파라임’으로 번역하였습니다(영어에는 a가 없으니 ‘하프라임’이 되어야 하지 않습니까?).

18 And their border was toward Jezreel, and Chesulloth, and Shunem,	슈넴과
19 And <u>Haphraim</u> , and Shion, and Anaharath,	19 <u>하파라임</u> 과 쉬온과 아나하랏과
20 And Rabbith, and Kishion, and Abez,	20 랍빗과 키시온과 아베즈와
21 And Beroi, and Nebo, and Beerothai,	21 레벳과 예가님과 예하다와 베로이와

반면에 바른 성경들은 And Hapharaim으로 표기해 중간에 a가 있습니다.

- 1611 오리지널 에디션, Hendrickson
- 1611 오리지널 에디션, Zondervan
- 케임브리지 에디션, Trinitarian 성경공회
- The Defined KJB, D. A 웨이트
-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
- 퓨어 케임브리지

물론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도 Hapharaim으로 표기하고 하바라임이라고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래서 위의 글에서 결론을 내렸듯이 표준역 킹제임스

스 영어 본문은 우리가 사용한 퓨어 케임브리지판보다 훨씬 열등한 본문이고 어디에 오류들이 있는지 아무도 알 수 없는 본문입니다.

여호수아 19장 19절

And Haphraim [표준역,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하 파 라 임 [표준역,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 **Haphraim** : a 철자 있음

- 1611 오리지널 에디션, Hendrickson
- 1611 오리지널 에디션, Zondervan
- 케임브리지 에디션, Trinitarian 성경공회
- The Defined KJB, DA 웨이트
-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 <http://www.churchesofchrist.net/bibles/KJV/kivindex.htm>
- 퓨어 케임브리지
- 흠정역 한영대역

● **Haphraim** : a 철자 없음

- 올드 스코필드 관주 성경
- 1953 옥스포드 에디션,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성경
- 1769 옥스포드 에디션, <https://textusreceptusbibles.com/KJV1769>
- 표준역 한영대역

표준역처럼 a 철자가 없는 성경들은 올드 스코필드 관주성경, 1953 옥스퍼드 에디션 엘리자베스 여왕 대관식 성경, 1769 옥스퍼드 에디션 등이 있습니다.

결론

표준역 번역자가 영어 본문을 만든 과정을 정리하면 이렇습니다.

- ① 1769 옥스퍼드 에디션을 입수한다.
- ② 자기가 소유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에디션(?)과 비교하면서 옥스퍼드 에디션의 영어 단어들을 바꾼다.
- ③ 이때 아포스트로피(')s는 실수로 남겨 둔다.
- ④ 그러면 ‘약간 오류는 있어도’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이라고 우길 수 있는 표준 영어 본문이 세상에 나온다.
- ⑤ 그래도 몇 가지 오류가 더 발견된다면 다음 판 한영대역 재인쇄 전에 그 영어 단어도 바꾸면 된다. 그렇게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은 완성된다.

아무리 선한 일을 한다고 해도 거짓말을 동원하여 사람들을 속이면 안 됩니다. 사람들은 잠시 잠깐 속아 넘어갈 수 있지만 하나님 앞에 서면 모든 것이 명명백백하게 드러날 것입니다. ☞

※ 참고 : 표준역 내지의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Crown Copyright 을 사실대로 고치지 않으면 판권 문제로 케임브리지 출판사에 의해 고소당할 수 있음을 알아야 한다. 판권은 보통 중요한 것이 아니므로.²



2. 표준역 번역자 해명 영상(38:43부터 39:45)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수많은 번역 오류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나온 표준역은 오류들도 표준으로(?) 만드는 심각한 오류의 표준을 세우고 있습니다.¹ 표준역이 비둘기를 ‘그녀’로 번역한 난센스를 보고 어떤 분이 이런 시구를 보내 주었습니다.²

“오늘은 비둘기들이 유난히 많이 보인다. 아름다운 그녀들을 보니 아침이 매우 상쾌하다. 그녀들의 아름다운 날개...”

표준역에는 영어 본문은 물론이고 번역에도 수없이 많은 오류들이 있습니다. 이런 것들을 다 고치느니 차라라 다시 번역하는 것이 나올지도 모릅니다.

1. Children, 자녀들, 아이들, 자손들, 자식들

출1:1을 보겠습니다.

Now these are the names of the children of Israel, which came into Egypt; every man and his household came with Jacob.

1. 오류도 표준인가?(1번 글 참고)

2. 비둘기는 여자인가?(2번 글 참고)

표준역 1 이제 이것들이 이집트로 들어온 이스라엘 자녀들의 이름들이니, 모든 남자가 저마다 그의 집안과 더불어 야곱과 함께 왔더라. 2 르우벤과 시므온과 레위와 유다요, 3 잇사갈과 스불론과 베냐민이요, 4 단과 납탈리와 갓과 아셀이라.

여기에는 이스라엘, 즉 야곱의 아들들의 이름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녀(子女)라는 말은 **아들딸**이라는 말입니다. 그러면 출1:1-4 어디에 여자가 있습니까? 1절 끝은 분명히 모든 남자라고 기록하고 2-4절은 모두 남자들 이름만 나옵니다. 표준역은 Children of Israel을 모두 **이스라엘 자녀들**로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출1:7, 이후에 이스라엘 자녀들이 다산하고 풍성히 증가하며 번성하고 지극히 막강해졌더라.

출1:9, 그리고 그가 그의 백성에게 이같이 말하였더라. “보라, 이스라엘 자녀들의 백성이 우리보다 많고 막강하도다.

창36:31, 그런즉 아직 어떤 왕도 이스라엘 자녀들을 통치하기 전에 이들은 에돔 지역 가운데 통치하던 왕들이라.

여기서 children에 해당하는 히브리말은 ‘벤’(스트롱 번호 1121)이며 히브리어 사전을 찾아보면 분명하게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어 성경에는 children이 무려 1,803회가 나옵니다. 그러므로 표준역 번역자는 1,803회 전부를 일일이 살펴보고 자녀들로 해서는 안 되는 남성 복수 children을 모두 바꾸어야 합니다. 창10:21을 보기 바랍니다.

Unto Shem also, the father of all the children of Eber, the brother of Japheth the elder, even to him were children born.

표준역은 여기의 children을 **자녀들**이라고 하기도 하고 **자식들**이라고도 하였습니다.

창10:21 에벨의 모든 자녀들의 조상이며, 형 야벳의 동생인 셈에게도, 곧 그에게도 자식들이 태어났더라.

표준역은 이런 것들을 모두 고쳐야 합니다.

2. 명백한 중성 명사들의 대명사인 they를 ‘그들’로 번역

욥38:41은 다음과 같습니다.

Who they wander for lack of meat.

표준역: 누가 까마귀를 위하여 그의 양식을 제공하느냐? 그의 어린 짐승들이 하나님을 향하여 울고 그들이 음식의 부족으로 인하여 방황할 때...

여기의 they는 까마귀 새끼들을 가리키므로 당연히 그것들이지 그들이 아닙니다. ‘They’를 ‘그들’로 번역한 것으로 보아 표준역에는 짐승, 날짐승, 나무 같은 것들의 대명사 They를 ‘그것들’이 아니라 ‘그들’로 한 데가 여기 말고도 많이 있을 것으로 보입니다.

영어 성경에서 they는 무려 5,000번이나 나옵니다. them, theirs 등도 모두 보아야 하므로 적어도 10,000번 이상 나오는 대명사 they를 **일일이 찾아 교정해야 할** 것입니다.

3. 잉태된 분? No!

마1:20은 다음과 같습니다.

...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 is of the Holy Ghost.

그러나 그가 이런 일들을 생각하는 동안, 보라, 주의 천사가 그에게 한 꿈속에 나타나서 이같이 말하였다. “너, 다윗의 자손 요셉이여, 너의 아내 마리아를 네게로 데려오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 이는 그녀 안에 잉태된 분은 성령님으로 된 것이기 때문이다.

표준역은 뒷부분에서 ‘for **that** which is conceived in her’를 ‘**그녀 안에 잉태된 분**’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여기의 that은 그리스어 원문을 보든지 영어를 보든지 중성 단수입니다. 교리적으로 이것은 ‘씨’를 뜻합니다. 즉, 창세기 3장의 ‘여자의 씨’를 가리킵니다.

흠정역 창3:15, 내가 너와 여자 사이에 또 네 씨와 그녀의 씨 사이에 적개심을 두리니 그 씨는 네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요, 너는 그의 발꿈치를 상하게 할 것이니라, 하시고

And I will put enmity between thee and the woman, and between thy seed and her seed; it shall bruise thy head, and thou shalt bruise his heel.

이런 오역들도 속히 고쳐야 합니다.

4. He, 그인가? 그분인가?

고후9:9는 다음과 같습니다.

(As it is written, He hath dispersed abroad; he hath given to the poor: his righteousness remaineth for ever).

표준역: 그분께서 널리 흠으시고 친히 가난한 자들에게 주셨으니, 그분의 의가 영원토록 남아 있음이라. 하였도다.

이것은 거의 모든 주석자들이 동의하듯이 시112:9를 이용한 것입니다. 즉, 여기의 그는 다른 사람에게 인정을 베푸는 선한 사람을 말하지 하나님을 뜻하지 않습니다.³

5. 번역 누락

겔1:24는 다음과 같습니다.

And when they went, I heard the noise of their wings, like the noise of great waters, as the voice of the Almighty, the voice of speech, as the noise of an host:

표준역: 그리고 그들이 갈 때면 나는 그들의 날개들의 소음을 들었는데 많은 물들의 요란한 소리와도 같고, 전능하신 분의 음성^{과도} 같으며, 어느 군의 요란한 소리와도 같았더라.

영어에는 중간에 **the voice of speech**가 있는데 표준역은 이것을 누락하였습니다.

흠정역: 그들이 갈 때에 내가 그들의 날개 소리를 들었는데 그것은 큰물들의 소리와도 같고 전능자의 음성 곧 말하는 음성^{과도} 같으며 군대의 떠드는 소리와도 같더니...

이처럼 수많은 오류들을 가진 것을 표준이라고 부르는 것은 아마 어불성설일 것입니다. 📖



3. 고후9:9가 시112:9를 인용한 것에 동의하는 주석들

8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소문자 spirit은 오류이고 신성을 약화시키는가?: 부당한 주장

킹제임스 성경의 표준을 제시하겠다고 나온 표준역은 킹제임스 흠정역 등의 영어 본문이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더니 결국 표준역의 영어 본문은 거짓으로 드러났고, 심지어 그 안에 적어도 46개의 오류가 있음이 판명 났습니다.

자기들 것이 케임브리지 출판사 표준 본문이라고 주장하다가 잘못하면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판권 문제로 시비를 걸 가능성까지 생겼습니다.¹

표준역 진영 사람들이 자기들 영어 본문만이 옳다고 주장하면서 킹제임스 흠정역 영어 본문에서 오류라고 하며 찾아낸 것이 지금까지 고작 단 하나입니다. 그것은 요한일서 5장 8절의 spirit에 대한 것입니다. 설명을 위해 요한일서 5장 7-8절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7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8**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1.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 표준역 영어 본문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니다(6번 글 참고).

흠정역: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흠정역 성경은 8절의 the spirit을 소문자로 표기했고 표준역은 그것을 대문자 the Spirit으로 표기하였습니다. 이것을 놓고 표준역 진영 사람들은 흠정역 성경이 소문자 spirit을 썼으므로 하나님의 신성을 약화시키거나 모독한다고 주장하는 것 같습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하나님의 영을 무조건 대문자 Spirit으로 표기해야만 할까요? 그래야만 하나님의 신성을 높이는 것이 될까요? 성경 이슈에 대해 잘 모르는 대다수 사람들을 이런 쓸데없는 주장으로 현혹하여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성령님은 항상 영어 대문자 S로 표기되어야만 하는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다 보면 하나님(God), 성령님(Holy Ghost), 말씀(Word), 성령(Spirit) 등이 대문자로 표현된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분들은 이 단어들의 원어인 히브리어, 그리스어 단어들도 대문자로 표기된 줄로 압니다. 그러나 이것은 사실이 아닙니다. 예를 들어 소문자 spirit과 대문자 Spirit을 보도록 하겠습니다. 물론 대문자 Spirit은 하나님의 영 혹은 그리스도의 영, 즉 성령님을 나타냅니다.

구약의 경우 소문자 spirit과 대문자 Spirit은 다 스트롱 번호 7307인 ‘루아흐’로 되어 있습니다(창1:2의 하나님의 영, 창45:27의 야곱의 영 참조).

신약의 경우 소문자 spirit과 대문자 Spirit은 다 스트롱 번호 4152인 ‘프뉴마’로 되어 있습니다(마3:16; 4:1의 성령, 마5:3; 22:43의 사람의 영, 마12:43의 부정한 영 등).

즉, 동일한 ‘루아흐’ 혹은 ‘(프)뉴마’를 번역하면서 영어 성경 역자들은 그것이 성령님을 뜻한다고 동의한 경우 대문자 S를 쓰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대개 소문자 s를 썼습니다. 그런데 이 규칙은 100% 항상 이렇지는 않습니다.

시편 51편 11절을 보겠습니다.

나를 주의 얼굴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고 주의 거룩한 영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Cast me not away from thy presence; and take not thy holy spirit from me.

시51:11에서 소문자로 기록된 ‘거룩한 영’(holy spirit)은 당연히 성령님이지만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요한일서 4장 6절을 보겠습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속하므로 하나님을 아는 자는 우리의 말을 듣고 하나님께 속하지 아니한 자는 우리의 말을 듣지 아니하니 이것에 의해 우리가 진리의 영과 오류의 영을 아느니라.

We are of God: he that knoweth God heareth us; he that is not of God heareth not us. Hereby know we the spirit of truth, and the spirit of error.

요일4:6에서도 소문자로 기록된 ‘진리의 영’(the spirit of truth)은 성령님입니다. 이 진리의 영은 요한복음 14:17; 15:26; 16:13 등에서는 대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습니다.

요14:17 Even the Spirit of truth; whom the world cannot receive, because it seeth him not, neither knoweth him: but ye know him; for

he dwelleth with you, and shall be in you.

이 외에도 마태복음 12장 18절처럼 하나님께서 내 영(my spirit)을 누구에게 준다고 할 때도 다 소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내가 택한 나의 종, 내 혼이 매우 기뻐하는 자 곧 내 사랑하는 자를 보라. 내가 내 영을 그 위에 두리니 그가 이방인들에게 판단의 공의를 보이리라(마12:18).

Behold my servant, whom I have chosen; my beloved, in whom my soul is well pleased: I will put my spirit upon him, and he shall shew judgment to the Gentiles.

위에서 제시한 시51:11; 요일4:6; 마12:18의 경우 영을 소문자 spirit으로 써도 누구나 그것이 하나님의 영인 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소문자 spirit은 다 하나님의 영을 가리키는 것이 아니라고 말하면 큰 잘못입니다.

요한일서 5장 8절 설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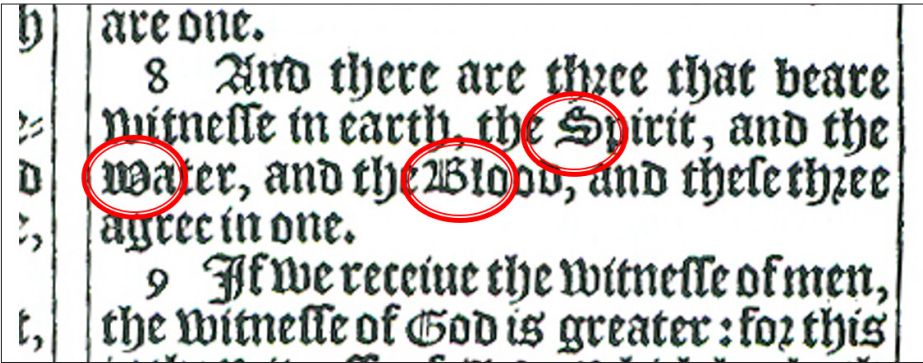
요한일서 5장 7-8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8** 땅에 증언하는 셋이 있으니 영과 물과 피라. 또 이 셋은 하나로 일치하느니라.

7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8**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일단 문맥을 보면 7절은 하늘과 관련되어 있고 8절은 땅과 관련되어 있습니다. 먼저 8절의 영이 대문자 Spirit이 아니라 소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다고 해서 문제가 될 것은 하나도 없습니다. 거기에 정관사 the가 붙어 있으므로 7절을 보고 앞뒤 문맥상 그 영(the spirit)이 성령님을 가리킨다고 보아도 전혀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다음 그림은 1611년 초판의 요일5:8을 보여 줍니다.



보시다시피 요일5:8의 경우 ‘영’은 1611년 초판에는 대문자 Spirit으로 되어 있고 동시에 그다음에 나오는 Water와 Blood도 대문자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Water와 Blood도 첫 글자가 대문자이므로 신성을 가진 존재일까요?

결코 아닙니다!

그 당시에는 로마체가 쓰이지 않았고 고딕체가 쓰였습니다. 고딕체의 경우 이런 사례에서는 종종 같은 구절에서 몇 단어를 연거푸 대문자로 표기하는 경우가 있었습니다. 아마도 이것은 독일어의 영향으로 보입니다. **그러므로 요일5:8에서 반드시 대문자 Spirit을 써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다음의 Water와 Blood도 대문자로 써야 합니다.** 그러면 말이 안 되지 않습니까?

따라서 1611년 당시 식자공의 실수로 Water와 Blood가 대문자로 되었으므로 이것들을 소문자로 교정하면 당연히 Spirit도 소문자로 교정해야 하지 않겠습니까?

나무위키에서 ‘식자’를 찾으니 다음과 같은 설명이 있습니다.

프린터나 복사기가 없었던 옛날에는, 문서를 여러 부 인쇄하려면 목판이나 활판을 만들어야 했습니다. 활판을 만들려면, 우선 인쇄할 문단 모양의 틀을 준비한 뒤, 문서의 글자 하나하나에 해당되는 활자를 틀에 끼워 넣어야 했습니다. 이렇게 틀에 활자를 끼워 넣는 과정을 글자(字)를 심는다(植)고 해서 식자(植字)라고 합니다.

활판 인쇄의 식자는 굉장히 손이 많이 가는 작업이었습니다. 예를 들어 10포인트 크기의 글자 1천 자가 들어간, A4 종이 1페이지 분량의 문서를 인쇄한다고 해 봅시다. 단 1페이지 분량의 이 문서를 인쇄하기 위해, 활판 인쇄에서는 1천 개의 활자를 일일이 끼워 넣는 식자 작업이 필요했습니다. 게다가 글자 간격이나 행 간격을 조절하고 싶다면 활자를 일일이 이동시켜 줘야 했고, 폰트 크기를 바꾸려면 다른 크기의 활자를 준비해서 끼워야 했습니다. 게다가 활자들은 도장처럼 좌우가 뒤집혀 있기 때문에, 작업자가 숙련되지 않았다면 실수하기 십상이었습니다. 이 모든 과정이 사람 손을 엄청나게 타는 일이었고, 때문에 옛날에는 식자 작업만 담당하는 식자공(植字工)이라는 직업이 있었습니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을 찍을 때는 무려 500만 개의 활자가 필요했습니다. 그러다 보니 대소문자 s의 경우 요일5:8과 같이 실수로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의 s, w, b를 다 대문자 활자를 썼습니다. 그러나 이것은 너무나 명백한 실수이므로 나중에 모두 소문자로 바뀌었습니다. 한편 어떤 판에는 s는 대문자로 두고 w와 b는 소문자로 두었습니다.

사실 s가 대문자든 소문자든 앞뒤 문맥으로 보면 그것이 무엇을 뜻하는지 누구나 알 수 있으므로 이런 것을 가지고 문제를 삼는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거의 없습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을 믿지 않는 James White 등이 꼬투리를 잡기 위해 이런 것 몇 가지를 지적할 뿐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성을 주장하는 러크만 박사 등도 이런 문제를 말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라고

생각합니다.

오히려 여호수아 19장 2절 등이 오역이냐, 아니냐를 판별하는 기준입니다.

And they had in their inheritance Beer-sheba, or Sheba, and Moladah(수19:2),

케임브리지판에는 ‘Beer-sheba, or Sheba’로 되어 있는데 다른 판에는 ‘Beer-sheba, and Sheba’로 되어 있습니다. 같은 킹제임스 성경이라도 or와 and, 즉 두 개의 번역이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or가 맞는다고 믿습니다.

어떤 사람이 케임브리지판대로 본문을 or로 취했다면 당연히 이 구절은 다음과 같이 번역되어야 합니다.

흥정역: 그들이 자기들의 상속재산으로 차지한 것은 브엘세바 혹은 세바와 몰라다와(수19:2)

그런데 표준역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표준역: 그리하여 그들이 그들의 유산으로 얻은 것은 베르세바, 곧 세바와 몰라다와(수19:2)

참고로 표준역의 영어 본문은 ‘Beer-sheba, or Sheba’입니다. 누구나 알듯이 or는 일차적으로 ‘혹은’이지 ‘곧’이 아닙니다. 어떤 번역이 오류인지는 독자들이 보면 쉽게 알 수 있습니다.

그리고 현재 출간되는 어떤 영어 킹제임스 성경들에는 이 구절의 Beer-sheba를 하이픈이 없이 Beersheba로 적었습니다. 저희는 당연히 하이픈이 있는 것이 맞는다고 생각하지만 번역에서는 하이픈이 있고 없고가 전혀 문제 되지 않습니다. 심지어 영어권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도 하이

픈의 유무가 성경 번역의 오류/무오류를 결정하는 요소로 보지 않습니다.

심지어 ‘Beer-sheba, **or** Sheba’든 ‘Beer-sheba, **and** Sheba’든 의미에는 차이가 없습니다. 하도 표준역 사람들이 이런 것들을 가지고 자기들만의 특별한 진리라고 주장하기에 예로 언급하였을 뿐입니다.

이처럼 하이픈이 있어야만 바른 번역이라고 생각하면 한국어 번역도 브엘-세바로 해야 합니다. 그러나 그런 성경은 단 하나도 없습니다.

그러므로 하이픈, 쉼표, 콜론, 세미콜론 등이 있느냐 없느냐를 가지고 우리 것이 번역을 위한 올바른 저본이다, 아니다를 논하는 것 자체가 난센스입니다. 물론 히브리어, 그리스어에도 하이픈, 쉼표, 콜론, 세미콜론 등이 없습니다. 이것들은 번역자들이 독자들의 이해를 위해 자기들 나라(영국)의 문법에 맞게 추가한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말 성경 번역에서는 거의 모든 경우 하이픈, 쉼표, 콜론, 세미콜론을 번역하지 않습니다.

표준역이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 등은 인용문에 따옴표(“...”)를 수천 군데 집어넣었습니다. 그러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따옴표(“...”)가 하나도 없습니다. 어떤 문장에서는 누가 말하였는지 구분하기 쉽지 않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어떤 것들을 추구하고 어떤 것들은 빼고 하는 것은 번역자의 의도에 달려 있지 번역의 옳고 그름을 결정하는 요소가 아닙니다.

다만 번역 시에는 다음과 같이 일관성이 전혀 없는 ‘이상한 번역’을 하면 안 됩니다. 마태복음 25장에는 달란트 비유가 나옵니다.

마25:23, His lord said unto him, Well done, good and faithful servant; thou hast been faithful over a few things, I will make thee ruler over many things: enter thou into the joy of thy lord.

흠정역: 그의 주인이 그에게 이르되, 잘하였도다. 선하고 신실한 종아, 네가 적은 것에 신실하였으므로 내가 너를 많은 것을 다스릴 치리자로 삼으리니 너는 네 주인의 기쁨에 참여하라, 하니라.

여기에는 lord가 2번 나옵니다. lord는 종의 주인을 가리키니 당연히 주인으로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표준역은 이 두 번을 다 소유주라고 번역합니다.

표준역: 그의 소유주(lord)가 그에게 말하기를… 너의 소유주(lord)의 즐거움에 참여하라.

그런데 22, 24절에도 동일한 lord가 나옵니다.

표준역: 이 달란트 받은 자도 와서 이르되, 주인이여(Lord), 주께서 내게 이 달란트를 맡기셨는데, 보소서, 내가 그것들 외에 이 달란트를 더 벌었나이다, 하매(22, 24절)

그런데 표준역은 이것을 ‘소유주여’라고 번역하지 않고 ‘주인이여’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같은 장면에서 동일한 말 lord를 주인으로 하고 동시에 소유주로 하면 될까요?

22, 24절의 Lord는 대문자 Lord이니 주인으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사실 모든 구절에서 동일한 lord인데 22, 24절에서는 문장이 시작되는 부분에 lord가 있으니까 대문자로 했을 뿐입니다. 서로 다른 lord가 아닙니다.

영한사전을 찾아보면 lord의 1차 뜻이 주(주인)임을 초등학교 아이들도 알 수 있습니다. 소유주라고 하는 경우는 landlord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역에는 번역자가 마음대로 추가하고 바꾼 이런 사례들이 매우 많습니다.

로마서 5장 2절을 보겠습니다.

By whom also we have access by faith into this grace wherein we stand, and rejoice in hope of the glory of God.

표준역: 또한 우리가 그분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하여 이 은혜 안으로 다가갈 수 있는 권한(right)을 가지느니라.

‘권한’이라는 말이 영어 본문에 어디 있습니까?

흥정역: 우리가 또한 그분으로 말미암아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은혜에 믿음으로 들어감을 얻었고 하나님의 영광의 소망을 기뻐하느니라.

이처럼 자기 마음대로 단어를 추가하면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기 어렵습니다. 더욱이 그들은 이탤릭 표시도 하지 않았습니다.

여하튼 우리는 이런 이유로 인해 요일5:8에서 소문자 spirit이 맞다고 믿습니다. 즉, 하늘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7절에는 다 대문자, 땅에 있는 것들을 말하는 8절에는 다 소문자가 옳다고 생각합니다.

7(하늘) For there are three that bear record in heaven, the Father, the Word, and the Holy Ghost: and these three are one.

8(땅) And there are three that bear witness in earth, the spirit, and the water, and the blood: and these three agree in one.

그러나 누가 8절의 영이 대문자 Spirit이 되어야 한다고 주장해도 큰 문제를 삼지 않습니다.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나 하나님의 신성과 아무 상관이 없기 때문입니다.

결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1611년에 인쇄된 본문, 1769년에 인쇄된 본문, 1909년에 인쇄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611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

스 성경이라는 선물의 의미에 어떤 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1611년 성경 발행 이후의 본문 변화는 인간의 언어(철자법)가 변하거나 인쇄 기술이 변하면서 이것을 교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아포스트로피, 하이픈, 대소문자 등은 원래 원문에 없던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설사 판별로 미세하게 몇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어떤 문제를 결코 가져오지 않습니다.

미국에서 가장 오래되고 가장 큰 침례교 성경 출판사인 홀맨 성경 출판사를 포함해서 다수의 출판사가 흙정역 성경의 영어 본문인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을 사용하고 있습니다.² 아마존에 가서 'Pure Cambridge Edition king james version'으로 검색하면 여러 출판사들이 Pure Cambridge Edition KJV를 출간하고 있음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부당한 주장이나 혹은 거짓 주장으로 순진한 성도들을 유혹해서 넘어지게 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일이 아닙니다. ㉔



2. 홀맨 출판사 킹제임스 성경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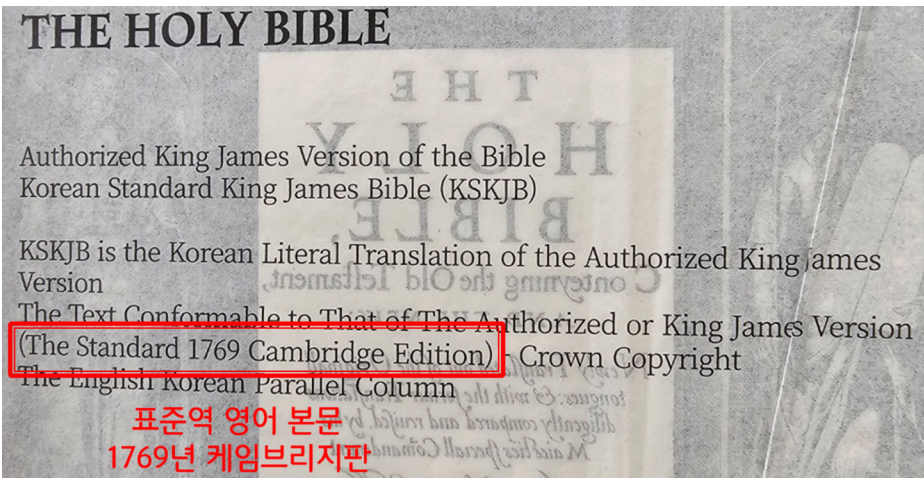
9

한국에서 표준 1769년 영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만들기

어떤 분이 표준 킹제임스의 자체 영어 본문 제조 과정을 쉽게 이해할 수 있는 글을 주어서 올립니다.

표준역의 주장

표준역은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본문을 써서 오류가 없고, 다른 역본들(예를 들어 흠정역 성경)은 열등한 영어 본문을 써서 오류가 많다.



한국에서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 만들기

1. 1769 옥스포드 에디션을 입수한다.
2. 소유하고 있는 케임브리지 에디션(?)과 비교하면서 옥스포드 에디션의 영어 단어들을 바꾼다.
3. 이때 아포스트로피(') s는 실수로 남겨 둔다.
4. 그러면 약간 오류는 있어도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이라고 우길 수 있는 표준 영어 본문이 세상에 나온다.
5. 그래도 몇 가지 오류가 발견된다면 다음 판 한영대역 재인쇄 전에 그 영어 단어도 바꾸면 된다. 그렇게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은 완성된다.

※ 위 제조 과정에서 거짓말이나 진실 여부, 영어 단어를 고치는 일 따위는 중요하지 않다.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스스로 만들어서 이미 킹제임스 성경을 믿고 읽고 신앙생활하지만 무지한 성도를 일깨워줘야 하니까. ☹

킹제임스 흠정역의 퓨어 케임브리지 영어 본문은 미국 최대 성경 출판사가 쓰는 베스트 본문

표준역 쪽에서는 자기들이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 본문을 쓰고 있다고 하며 흠정역같이 다른 본문을 쓰는 역본들은 오류가 많다고 주장합니다. 그런데 거짓말이 오래가면 결국 탄로가 나게 되어 있습니다. 드디어 표준역 번역자는 자기가 스스로 영어 본문을 제조해서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 본문이라고 했음을 실토하였고 적어도 45개의 오류가 있음을 시인하였습니다.¹

사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 본문을 이야기하는 것은 거의 의미가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시간이 지나며 철자법이 고정되면서 그에 따라 올바르게 교정되었습니다. 그래서 예를 들어 troden이 trodden이 되었습니다. 이것은 개정이 아닙니다. 또한 한 군데(대하33:19)에서 all his sins가 all his sin으로 교정되었습니다. 그 이유는 sin이 원어에 단수이기 때문입니다.

His prayer also, and how God was intreated of him, and all his sin, and his trespass, and the places wherein he built high places, and set up groves and graven images, before he was humbled: behold, they are written among the sayings of the seers.

1.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6번 글 참고)

이런 것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 개정이 아니라 교정(정화)에 지나지 않습니다. 영어 본문 변천 과정은 다음을 보기 바랍니다.²

현재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퓨어 케임브리지판의 영어 본문 거의 99.9% 동일하고 12구절에서 심히 단순한 차이들만 있습니다(대소문자, a냐 e냐, and냐 or냐 등).³ 다시 말씀드립니다.

- ① 표준역이 주장하는 <1769 표준 케임브리지 에디션>은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것은 그들이 자가 제조한 것입니다.
- ②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퓨어 케임브리지판은 거의 동일하고 차이가 없습니다.

그래서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자들이 이런 것을 가지고 논쟁하는 것은 성도들에게 의심만 불러일으키는 악한 행위입니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 12구절 미세한 차이들> 글에서 저자는 맨 마지막에 이렇게 말합니다.

나의 형제들이여, 당신이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대문자나 소문자 's'에 대해 논쟁할 때 학자들과 KJV 비평가들이 메모를 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하십시오. 당신의 말이 감시되고 기록되고 당신 자신의 의심과 질문이 성경 불가지론자들에게 미래에 당신에게 불리하게 사용될 더 좋은 자료를 주고 있습니다. 그들이 당신과 KJV에 대해 당신 자신의 주장을 사용할 때 당신은 어떻게 하시겠습니까?

그리고 마지막으로 하나님은 우리의 믿음을 지켜보고 기록하고 시험하고 계십니다. 그러한 사소한 문제에 대해 의문을 제기하기보다는 그분과 그분의 인도를 구하십시오. 당신이 왜 그렇게 해야 하는가 그 이유는 스스로 찾아보기 바랍니다. 진리를 찾고자 하는 당신에게 하나님께서 복을 주시기를 바랍니다.

2.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에 대하여: 오류도 표준인가?(1번 글 참조)

3. The Cambridge vs. the Oxford Fallacy!(케임브리지판과 옥스퍼드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 12개 미세 차이) (QR 코드 참조)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본문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본문이 1909년경에 나와 가장 최근의 철자법 등을 반영하고 미국 최대 성경 출판사가 그것을 사용하기에 영어 본문으로 채택하였습니다. 표준역처럼 수제 본문을 마음대로 제조할 수는 없으니까요. 이것 말고 다른 이유는 없습니다.

이에 대해 표준역 진영 사람들은 “그것은 1인이 만든 것이다.”, “그것은 은사주의자가 만든 것이다.” 등의 말을 하면서 비방을 합니다. 하나님은 불신자도 하나님의 일을 위해 얼마든지 쓰십니다.

- ① 대표적인 예가 페르시아의 고레스 대왕입니다. 그는 하나님을 알지도 못하였는데 유다 사람들을 그들의 땅으로 돌려보내는 위대한 일을 했습니다.
- ② 또 에라스무스는 킹제임스 성경의 저본인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만들어 준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는 개종하지 않고 평생 천주교도로 살았습니다. 그가 천주교도라는 것이 공인 본문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 ③ 1760년 케임브리지판은 파리스가 홀로 만들었습니다(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모름).
- ④ 1769년 옥스퍼드판 본문도 블레이니가 홀로 만들었습니다(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모름).
- ⑤ 1884년 스크리브너판은 스크리브너가 홀로 만들었습니다(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모름). 그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면서 영어 개역성경 번역 위원회의 위원으로 일한 사람입니다.

지금 우리는 번역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번역 이후 철자법의 변화에 따른 교정을 말합니다.

이런 식으로 우리가 알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영어 본문은 대개 개인이 홀로 시간의 변화에 따른 철자법 등을 고친 것에 불과합니다.

1909년경의 Pure Cambridge Edition 본문도 역시 한 개인이 전체적인 교정 일을 하였습니다(여러 사람들의 도움이 있었지만 그들이 누구인지 모름). 그리고 교정의 양도 얼마 안 됩니다. 이미 스크리브너까지 오면서 거의 다 교정되었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이것은 후대의 것이니 당연히 1769년 옥스퍼드판보다 철자법 등 모든 면에서 향상이 되었습니다.


누가 혹은 몇 명이 일을 했느냐가 중요한 것이 아니라 그 작업이 사람들에게 인정을 받으며 실수가 없는 것으로 판명이 나서 여러 사람들이 지금까지 그것을 쓰느냐가 가장 중요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세상에는 지금 여러 종류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들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다 1769년 옥스퍼드판에서 나온 것이고 거의 다 동일합니다. 요일5:8의 s, S 정도의 차이를 빼고.

미국 최대 성경 출판사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 사용

그러면 Pure Cambridge Edition 본문을 누가 사용해서 지금까지 성경을 출간하고 있는지 보겠습니다.

 <p>HOLMAN KJV</p>	<p>King James Version</p> <p>The King James Version is one of the oldest and most popular translations of the Bible of all time. The KJV provides a stylistic beauty in the text while at the same time maintaining strong accuracy for the reader. The beauty and majesty of God's Word can be found whether you are enjoying the poetic beauty of the Psalm or diving into the various theological discourses. This Bible uses the Pure Cambridge Edi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accurate editions of the KJV.</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Pure Cambridge Edition • High Quality Bibles • Breadth of Bible Covers and Options 	<p>HOLMAN®</p> <p>Holman Bibles is the oldest Bible publisher in North America dating back to 1743 and is committed to publish Bibles and reference products of the highest quality that are trustworthy, accessible, and useful for the pursuit of lifelong discipleship. Just a few of our resources include:</p> <ul style="list-style-type: none"> • Reference and Text Bibles • Study Bibles • Kids and Student Bibles • Pew, Outreach, and Gift and Award Bibles
---	---	---

현재 미국 홀맨 성경 출판사(Holman Bible Publisher)는 퓨어 케임브리지판의 KJV를 출간합니다. 이 출판사는 미국 남침례교 소속 출판사(Lifeway의 자매 회사)이고 미국에서 가장 오래된 성경 출판사로서 1743년부터 영어 성경을 출간해 오고 있습니다(앞의 그림 오른쪽 설명 글).

Holman Bibles is the oldest Bible publisher in North America dating back to 1743 and is committed to publish Bibles and reference products of the highest quality that are trustworthy, accessible, and useful for the pursuit of lifelong discipleship. Just a few of our resources include:

이들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에 대해 이렇게 말합니다.

홀맨 출판사의 이 킹제임스 성경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사용하는데 이 에디션은 킹제임스 성경의 정확한 판들 중 가장 널리 인정된 판들 가운데 하나이다(앞의 그림 왼쪽 설명 글).

This Bible uses the Pure Cambridge Edition, which is one of the most widely recognized accurate editions of the KJV.

아마존에 가서 'Pure Cambridge Edition king james version'으로 검색하면 여러 출판사들이 지금도 여전히 Pure Cambridge Edition KJV를 출간하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⁴

왜 이렇게 미국에서 가장 큰 성경 출판사와 다른 출판사들이 퓨어 케임브리지판을 써서 성경을 출간할까요? 그것이 공신력 있는 베스트 본문이기 때문입니다.



4. 홀맨 출판사 킹제임스 성경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역시 자기들의 본문을 사용해서 성경을 출판하고 있습니다. 이들의 본문은 다음과 같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답변: 우리가 현재 출간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시간이 경과하면서 소소하게 업데이트된 것들을 포함한 1769년판'에 기초를 두고 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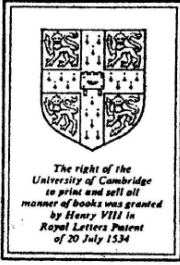
Our KJV is based on the 1769 albeit with some minor updates over the year.

케임브리지 대학 답변에서 1769년판이란 표준역 번역자가 말했듯이 당연히 1769년 옥스퍼드판입니다. 그러면 **흠정역 성경의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과 케임브리지 출판사의 본문과는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제가 알기로는 요한일서 5장 8절의 영이 대문자(the Spirit)인가, 소문자(the spirit)인가의 차이밖에 없습니다.

다음 편지를 보면 심지어 케임브리지 출판사도 1985년 6월 3일 이전까지는 요일5:8에 소문자 spirit을 쓴 것으로 보입니다. 그러다가 이 편지를 받고 그 이후 출간되는 성경부터 대문자 Spirit으로 임의로 바꾼 것 같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미국에서 훨씬 더 많이 사용되므로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성경보다는 홀맨 출판사 성경이 더 많이 출간되고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영국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성경은 최고급 재질로 만들어져서 매우 비싸며(평균 100-150달러) 홀맨 출판사 성경은 보통 재질로 만들어져서 가격이 저렴하기 때문입니다(평균 40-50달러). 차이는 요한일서 5장 8절의 대소문자 spirit 정도입니다. 다음 페이지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온 편지를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또한 요한일서 5장 8절의 진실에 대해서는 8번 글을 보십시오.



CAMBRIDGE UNIVERSITY PRESS

32 EAST 57TH STREET, NEW YORK, N.Y. 10022

Telephone 212 688 8888 Cables Cantaber

Director Alan Winter

Editorial Director Colin Day

Distribution Director Richard A. Gerweck, Jr.

Production Director Richard J. Hollick

Bible Director Jerry L. Hooper

Controller Richard Koenig

Marketing Director Mark Sexton

June 3, 1985

Dear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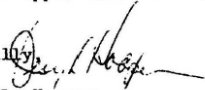
I don't know how to say this to you other than to be perfectly honest. We are very grateful to you even though you have put your finger on a matter of some embarrassment regarding **the lower case 's' in Spirit, reference 1Jn.,5:8.**

There is no way of knowing how many years this particular edition has carried the misprint. Our Bible department in England was astounded that this has never been noticed before. I assumed some mysterious theological question was involved and overlooked the obvious in my search of commentaries.

This error of course, will be corrected in subsequent printings thanks to your sharp eyes. Again, we are very grateful.

In appreciation, I am sending you a copy of our Concord KJV Bible which does use the upper case 'S' correctly.

Cordially,


Jerry L. Hooper
Bible Director

결론

표준역 영어 본문에는 오류가 적어도 45개 됩니다. 흠정역 영어 본문에는 오류가 없습니다(혹시 있으면 알려 주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앞으로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을 가지고 성도들을 우롱하는 일을 해서는 안 됩니다. 그것은 마귀를 돕는 일입니다.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1611년에 인쇄된 본문, 1769년에 인쇄된 본문, 1909년에 인쇄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611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옥

스퍼드, 케임브리지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선물의 의미에 어떤 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1611년 성경 발행 이후의 본문 변화는 인간의 언어(철자법)가 변하거나 인쇄 기술이 변하면서 이것을 교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아포스트로피, 하이픈, 대소문자 등은 원래 원문에 없던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설사 판별로 미세하게 몇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어떤 문제를 결코 가져오지 않습니다.

리건 박사의 다음 글이 모든 문제의 결론을 이야기해 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 - 여기다 더하면 1760년판, 1769년판, 1909년판, 케임브리지판 혹은 옥스퍼드판 - 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

11

And를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주장

표준역 번역자는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등이 무려 10,000-20,000개 정도의 영어 단어를 번역하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이를 듣고 귀가 얇은 분들은 우르르 몰려가서 자신의 미래를 어둡게 만드는데, 실상 그들이 말하는 삭제란 영어의 And와 콤마(,) 등을 번역하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표준역은 이미 수천 군데에서 번역 오류를 보이고 있습니다.¹ 또한 영어 본문은 아무도 인정하지 않는 **자가 수제 본문**입니다.²

이것은 번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무지한 일입니다. 우리는 다시 한번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말한 번역의 정의를 되새겨 보아야 합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 내고 물을 길어 그것으로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

1.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수많은 번역 오류 표준(7번 글 참고)

2.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6번 글 참고)

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요4:12)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이처럼 번역은 글에 생명을 불어넣고 그것을 남에게 전달하는 일입니다. 그런데 번역을 통해 글에 생명력을 넣으려면 문맥에 따라 단어들의 뜻을 잘 고려해서 합당하고 적절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번역은 원어에서 수용 언어로 옮기는 것이므로 수용 언어답게 번역해야 합니다.

1. That is a flower. 저것은 꽃이다(‘저것은 한 꽃이다.’라고 하면 오역 내지는 줄역).
2. That is a beautiful lily. 저것은 아름다운 백합이다(‘저것은 한 아름다운 백합이다.’라고 하면 오역 내지는 줄역).
3. 오늘 갯벌에는 백로들이 많다, 그녀들이 얼마나 희고 아름다운지(오역). 실제로 저는 어제 갯벌에 갔습니다. 거기에는 백로의 일종인 왜가리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표준역 표현대로 하면) 그녀들 가운데 하나는 그녀의 머리를 그녀의 몸속으로 숨기고 그녀의 두 발을 모은 채 홀로 서 있어서 아무도 그녀가 새인지 잘 몰랐습니다.
4. 예수님께서서 한 병든 소년을 불러(오역 내지는 줄역)



And의 용례

접속사 And는 뜻이 여러 가지입니다. 그것을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영한사전 용례를 보면 and가 적어도 15개의 뜻을 가지고 있음을 알 수 있습니다.

① [나란히 어·구·절을 이음] …와 —, … 및 —, …이나 —; 그리고, …또(한)

- John ~ Mary are great friends. 존과 메리는 아주 친하다(단짝이다).
- He is a novelist ~ poet. 그는 소설가이자 시인이다.

② a) [동시성을 나타내어] (…와 동시에) 또, …하면서

- We walked ~ talked. 우리는 걸으면서 이야기했다.

b) [앞뒤의 관계를 보여서] …하고 (나서), 그리고 나서

- He took off his hat ~ bowed. 그는 모자를 벗고 인사를 했다.

③ [보통 ən] [하나로 된 것; 단수 취급] …와 —이 (합하여 일체가 된 것)

- bread ~ butter [br dn-bʌtər] 버터 바른 빵
- a carriage ~ four 사두(四頭)마차

④ a) [반복·중복] …(한) 위에 또 —, …이고 (—이고), 더욱더; 씩(짝을 지어)

- again ~ again 몇 번이고, 재삼재사
- for ever ~ ever 영원히

b) [비교급과 함께 써서] 점점 더, 더욱더

- more ~ more 점점 (더)

⑤ [강조] 더구나, 그뿐이랴

- He, ~ he alone can do the work. 그 사람, 그것도 그만이 그 일을 할 수 있다.

⑥ [의외·비난] 더욱이, 더구나 …인데(…한 터에), …한데

- How could you talk like that, ~ your father present? 아버지도 계신 데 어떻게 그와 같이 말할 수 있었는가?

⑦ [이유·결과] 그래서, 그러자

- He is very kind, ~ I like him very much. 그는 대단히 친절해서, 나는 그를 매우 좋아한다.

⑧ [명령법 또는 그 상당어구 뒤에서] 그렇게 하면, 그러면

- Turn to the left, ~ you will see the post office. 왼쪽으로 돌면 우체국이 나올 것입니다.

⑨ a) [대립적인 내용을 보여] ...이긴 하나, ...인(한)데도, ...이면서도

- He promised to come, ~ didn't. 그는 오겠다고 약속을 했으면서도 오지 않았다.

b) [추가적으로 덧붙여] 그것도, 게다가

- He did it, ~ did it well. 그는 그것을 했다, 그것도 썩 잘.

⑩ [부정사의 to 대신] 《구어》 ...하러, ...하기 위해

- Come (~) see me. 만나러 오시오.

⑪ [두 개의 형용사를 연결하여 앞의 형용사를 부사적으로 함; 종종 단순한 강조]

- It is nice ~ cool. 기분 좋을 만큼 시원하다.

⑫ [두 개의 동사를 이어서 뒤의 동사가 현재분사적인 뜻을 나타내어] ...하면서

- He sat ~ looked at the picture for hours. 그는 몇 시간이나 그 그림을 보면서 앉아 있었다.

⑬ [도입적] 그리고 (또), 그뿐 아니라(게다가) 또; 그런데; 그래

- How are you?—Fine, thank you. And (how are) you? 안녕하세요
까.— 네, 잘 있습니다. 당신은?

⑭ [and를 사이에, 같은 명사를 반복하여] 여러 (가지)

- There are books ~ books. 책에도 여러 가지가 있다.

⑮ [수사를 연결하여] …과, …에 더하여

- Two ~ two make(s) four. 2 더하기 2는 4

이것을 머릿속에 넣고 이제 창세기 1장 1-5절을 보겠습니다.

1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2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3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4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5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표준역) **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더라.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3 그리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빛이 있으라.” 하셨느니라. 그러자 빛이 있었더라.

4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보셨으니, 그것이 좋았더라. 그런즉 하나님께서 그 빛을 어둠에서 나누셨더라.

5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 빛을 낮이라 부르셨으며

표준역은 이런 식으로 그리고를 수천 번 성경에 넣고는 자기들이 본문을 그대로 번역했다고 의기양양합니다. 자기들 성경만이 온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고, 그러면서 ‘그리고’를 뺀 성경은 영어 성경대로 안 했으니 오역이나 부실한 것이라는 주장을 펍니다.

우리는 이런 흑세무민하는 사람들을 조심해야 합니다. 세상의 모든 말은 구조가 다 다릅니다. 그래서 번역은 수용 언어의 구조를 최대한 살려서 수용 언어를 읽는 일반 사람들이 이해할 수 있게 번역해야 합니다. 즉, 번역의 글은 초중고 학생들이 읽는 교과서의 문법에 맞아야 합니다. 그래야 진정으로 그 나라의 표준을 갖춘 성경이 될 수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을 주장하는 다수의 러크만주의자들의 착각은 다음과 같습니다.

영어의 모든 단어가 하나님의 입에서 나왔다. 그래서 “영어에 있는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 그러니까 창세기 1장의 예처럼 2-4절의 and를 다 ‘그리고’로 번역해야 한다. 심지어 하이픈, 세미콜론, 콜론까지.

이것은 듣기에 매우 좋은 말 같지만 여기에 큰 속임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사실 번역에 대해 잘 알지 못하는 사람들은 이런 주장에 쉽게 현혹될 수 있습니다.

중요한 것을 말씀드리겠습니다. and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접속사 와우(혹은 바우)는 명사와 붙어 있고 영어는 이런 접속사를 거의 다 and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면 왜 히브리어와 영어는 접속사 와우나 and를 수천 번 넣었을까요? 그렇게 and를 넣어야만 이 두 말은 말이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and를 그리고로 다 번역하면 심히 이상한 말이 됩니다. 말이 안 됩니다.

우리말로 예를 들어 보겠습니다.

오늘 나는 오전에 서울에 가서 몇몇 친구들을 만나 함께 스파게티 점심을 하고 5시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Today I went to Seoul in the morning **and** met some friends **and** had spaghetti lunch together **and** I came back to Incheon at five o'clock.

보시다시피 영어는 글을 만들려면 반드시 중간에 and와 주어(주어는 매번 들어가는 경우도 많고 안 들어가는 경우도 있음)가 들어가야 합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그렇게 하면 다음과 같이 심히 이상하게 됩니다.

오늘 나는 오전에 서울에 갔다. **그리고** 나는 몇몇 친구들을 만났다. **그리고** 나는 함께 점심을 했다. **그리고** 나는 5시에 인천으로 돌아왔다.

그러면 이제 창세기 1장 1-5절에서 절 번호를 빼고 문장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원래 히브리어 성경에는 절 번호가 없었으므로 다음과 같은 구조로 됩니다.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the earth. And the earth was without form, and void; and darkness was upon the face of the deep. And the Spirit of God moved upon the face of the waters. And God said, Let there be light: and there was light. And God saw the light, that it was good: and God divided the light from the darkness. And God called the light Day, and the darkness he called Night. And the evening and the morning were the first day.

그러면 보시다시피 1-5절은 계속해서 **and**로 연결되는 보통의 평범한 영어 문장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곳을 다 '**그리고**'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됩니다.

‘그리고’는 대개 같은 주어가 이어지면서 어떤 일이 끝난 뒤에 다음에 무슨 일이 일어났는가를 보여 주는 데 사용됩니다. 표준역의 1절과 2절을 보기 바랍니다.

1 태초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느니라.

2 그리고 땅은 형체가 없고 공허하였으며 어둠이 깊음의 표면 위에 있었다. 그리고 하나님의 영께서 물들의 표면 위에 움직이셨더라.

1절은 주어가 하나님이고 2절은 주어가 땅과 어둠입니다. 이처럼 1절과 2절이 주어가 다를 때 and를 ‘그리고’로 번역하면 말 자체가 안 됩니다.

그러면 이제 흠정역으로 1-2절을 보겠습니다.

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2 땅은 형태가 없고 비어 있었으며 어둠은 깊음의 표면 위에 있고 하나님의 영은 물들의 표면 위에서 움직이셨더라.

1절 끝의 마침표와 2절의 ‘고’, ‘며’가 우리말에서는 and의 역할을 합니다. 사실 1절은 하나님께서 우주 공간과 그것의 센터인 지구를 무에서 유로 창조하셨다는 선언입니다. 그래서 2절에 ‘그리고’가 나오면 말이 꼬이게 됩니다.

예를 들어 황영조 선수가 올림픽 마라톤에서 1등을 하면 신문 기사에 이런 제목과 글이 뜹니다.

제목: 황영조, 마라톤 경주에서 세계를 제패하다!

기사: 우리나라의 황영조 선수가 자랑스럽게도 올림픽에서 다른 모든 유명한 선수들을 제치고 2시간 몇 분의 기록으로 1등을 하였습니다....

이 경우 제패한 것은 이미 과거의 일이지만 ‘제패하다’로 써야 합니다. 이것은

결코 현재를 묘사하는 것이 아닙니다.

마찬가지로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는 현재 시제가 아니라 제목처럼 하나님께서 하신 일을 선포하는 것입니다. 현재 시제가 되려면 ‘하시느니라’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영어 단어들이 다 영감을 받았으니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입니다. 우리말답게 번역해야 합니다.

사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히브리어를 그대로 살려서 가장 **영어답게**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영어는 and가 없으면 말이 안 되니까 계속해서 and가 나옵니다. 그런데 우리말은 대부분의 경우 and를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이 불필요하고 번역하면 오히려 줄역이 됩니다. 우리말에서는 이미 ‘고’, ‘며’, 마침표 등에 and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가복음 19장 1-4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1 And Jesus entered and passed through Jericho.

2 And, behold, there was a man named Zacchaeus, which was the chief among the publicans, and he was rich.

3 And he sought to see Jesus who he was; and could not for the press, because he was little of stature.

4 And he ran before, and climbed up into a sycomore tree to see him: for he was to pass that way.

(표준역) **1** 이후에 예수님께서 예리코로 들어가시어 그곳을 지나가셨더라.

2 그리고 보라, 삭개오란 이름으로 불리는 한 남자가 있었으니,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자였고 그가 부유하였더라.

3 그리고 그가 예수님께서 어떤 분이신지 그분을 보고자 하였더라. 그런데 인파로 인하여 볼 수 없었으니, 그의 키가 작았기 때문이라.

4 그러자 그가 앞으로 달려가서 그분을 보려고 뽕나무 하나에 올라갔더라.

표준역은 1절 시작의 and를 ‘이후에’라고 임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2절 시작의 and를 ‘그리고’로 번역하였습니다. 위에서 말씀드린 대로 1절과 2절의 주어는 다르기 때문에 2절의 and는 ‘그리고’로 하면 안 됩니다. 우리말로 굳이 하지만 ‘그런데’ 정도가 가능할 것입니다. 또 2절 중간에 세리들 사이에서 앞에는 which가 있으므로 이것을 ‘그가’로 번역해야 두 번째 문장의 주어가 있게 됩니다. ‘세리들 사이에서 우두머리인 자였고 그가 부유하였더라.’로 하면 우리말이 아닙니다.

3절 첫 부분의 ‘그리고’도 심히 어색함을 누구라도 느낄 것입니다. 표준역 번역자는 뒤에서 그런데를 자기 마음대로 추가하였습니다.

4절 첫 부분에서 and를 그들은 ‘그러자’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자’는 ‘어떤 일을 하고 나니까’의 뜻입니다. 그런데 3절 끝은 삭개오의 키가 작다는 상태를 보여 주므로 여기서 ‘그러자’는 문맥에 맞지 않는 접속사입니다. 그리고 표준역은 4절 중간의 콜론(:)을 번역하지 않았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그대로 한 것이 아닙니다.

이런 식으로 그리고, 그러자를 자기들 마음대로 넣고 말이 안 되니까 그런데를 마음대로 추가하면 이것은 올바른 성경 번역이 될 수 없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이 이것을 보면 무슨 뜻인지 머릿속에 들어올까요?

흠정역을 보겠습니다.

- 1 예수님께서 여리고로 들어가 거기를 지나가시더라.
- 2 보라, 삭개오라 하는 사람이 있었는데 그는 세리들 가운데 우두머리요 또 부자더라.
- 3 그가 예수님이 어떤 분이신지 보려고 애쓰되 키가 작으므로 밀려드는 무리로 인해 볼 수 없어서
- 4 앞으로 달려가 그분을 보려고 돌무화과나무에 올라가니 이는 그분께서 그 길을 지나셔야 하기 때문이더라.

흡정역처럼 1절 처음의 and는 그 전의 18장 마지막 절의 마침표로 이미 번역이 된 것입니다.

2절 처음의 and도 1절 끝의 마침표로 번역이 되었습니다. 그리고 which를 미리 살려서 ‘그는’이 먼저 나오므로 주어가 살아서 온전한 문장이 됩니다.

3절 첫 부분의 and도 2절 마침표로 번역이 되었고 4절 첫 부분의 and는 3절 끝부분에 ‘볼 수 없어서’로 알맞게 번역이 되었습니다.

이런 식으로 and를 위의 15가지 용례에 맞게 번역해서 우리말답게 만들어야 합니다. 물론 여기서도 sycomore tree는 뽕나무가 아니라 돌무화과나무지요.

결론

영어 성경의 and를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하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그렇게 하면 도저히 읽을 수 없는 줄역 내지는 오역이 나옵니다. 우리말 번역 시 and는 마침표, ‘고’, ‘며’, ‘과(와)’(사과와 배, ‘사과 그리고 배’ 아님)와 위의 15가지 용례 중 하나로 우리말답게 번역해야 합니다.

말이 안 되는 번역을 해놓고 단순한 사람들을 미혹에 빠지게 하는 일을 하면 하나님의 엄중한 심판을 받을 것입니다. ☹

부정 관사 a를 ‘한’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그릇되게 표현한 치명적 오류

표준역 번역자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등이 무려 10,000-20,000개 정도를 영어에서 삭제하였다고 주장하는 또 다른 이유는 영어의 부정 관사 a 등을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이것은 번역이 무엇인지 전혀 알지 못하기에 발생하는 무지한 일입니다. 몇 가지 예를 보면 자명해집니다.

1. My father is a farmer. 제 아버지는 농부입니다(‘한 농부입니다’는 오역 내지는 졸역...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음).
2. My brother is a wrestler. 제 형은 레슬링 선수입니다(‘한 레슬링 선수’는 오역 내지는 졸역...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음).
3. “It is a book about Korean histor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그것은 한국 역사에 대한 책이다.”가 됩니다. “그것은 한국 역사에 대한 한 책이다.”로 하면 이것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우리말에서는 ‘그것’이라는 말에 이미 단수를 뜻하는 ‘한’이 들어가 있습니다. 즉, 우리말은 대부분의 경우 부정 관사를 글로 표현하지 않습니다. ‘It is a

rose.’는 ‘그것은 장미이다.’이며 ‘그것은 한 장미이다.’는 오역입니다. 말이 안 되는 번역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부정 관사 a(an)가 수만 번 나오는데 표준역은 부정 관사 a의 다수를 ‘한’으로 번역하는 난센스를 범하고는 그 번역이 영어 단어를 거의 다 빼지 않고 다 번역한 것이니 가장 좋은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다음은 표준역이 부정 관사 ‘a’의 다수를 ‘한’으로 번역한 사례입니다.

창1:18, And the LORD God said, It is not good that the man should be alone; I will make him an help meet for him.

그런 다음에 주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기를, “남자가 홀로 있게 되는 것이 좋지 않다. 내가 그를 위하여 한 돕는 배필을 그에게 만들어 주겠노라.” 하셨느니라.

창3:24, So he drove out the man; and he placed at the east of the garden of Eden Cherubims, and a flaming sword which turned every way, to keep the way of the tree of life.

그렇게 하여 그분께서 그 남자를 몰아내셨으며, 그분께서 에덴의 동산의 동쪽에 그룹들과 각각의 모든 길로 회전하고 불타오르는 칼 한 자루¹를 배치하셨으니, 생명나무의 길을 지키게 하려 하심이라.

요1:7, The same came for a witness, to bear witness of the Light, that all men through him might believe.

바로 그가 빛에 관하여 증거하기 위해 한 증인으로 왔으니, 그를 통하여 모든 사람들이 믿게 하려 함이라.

1. 임의로 ‘자루’를 추가함

요1:32, And John bare record, saying, I saw the Spirit descending from heaven like a dove, and it abode upon him.

그리고 요한이 확증하며 이같이 말하였더라. “내가 한 비둘기같이 하늘로부터 내려오시는 성령님과 그 영이 그분 위에 거하신 것을 보았노라.

보시다시피 이런 식으로 성경을 번역하면 정상적인 우리말이 됩니까?

그런데 부정 관사 a를 다 번역한 것도 아닙니다. 여기서는 ‘한 훌륭한 군인’으로 옮기지 않았습니다.

딤후2:3, Thou therefore endure hardness, as a good soldier of Jesus Christ.

그러므로 너는 예수 그리스도의 훌륭한 군인으로서 어려움을 견디어 내라

여기도 그들의 주장대로 하려면 ‘훌륭한 군인’이 아니라 ‘한 훌륭한 군인’이 되어야 합니다. 더욱이 여기 good은 ‘좋은 군사’가 되어야지 ‘훌륭한 군인’은 아닙니다.

딤후2:9, Wherein I suffer trouble, as an evil doer, even unto bonds; but the word of God is not bound.

이 복음으로 말미암아 내가 마치 악을 행하는 자처럼 심지어 결박들을 당하기까지 곤란을 감내하고 있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의 말씀은 매이지 아니하느니라.

여기 ‘악을 행하는 자’도 ‘한 악을 행하는 자’가 되어야 합니다. 이렇게 표준역은 일관성 없게 부정 관사 a를 번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에 대한 심각한 오류

표준역은 하나님과 관련해서 심각하고도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고 있습니다.

창17:7, And I will establish my covenant between me and thee and thy seed after thee in their generations for an everlasting covenant, to be a God unto thee, and to thy seed after thee.

그리고 내가 하나의 영원한 언약으로 나와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 사이에 그들 대대로 나의 언약을 확립하겠으니, 너에게 그리고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그들은 ‘a God’을 ‘한 하나님’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요4:24, God is a Spirit: and they that worship him must worship him in spirit and in truth.

하나님은 한 영이시니, 그분께 경배하는 자들은 반드시 영과 진리 안에서 그분께 경배해야만 하느니라.”

그들은 ‘a Spirit’을 ‘한 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이렇게 부정 관사 a를 ‘한’으로 하다 보니 진짜로 ‘한’을 써야 할 데 가서는 ‘한’을 쓸 수 없으므로 ‘유일한’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신6:4, Hear, O Israel: The LORD our God is one LORD: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유일하신 주로다.

표준역은 ‘a God’을 ‘한 하나님’이라고 번역하고는 ‘one LORD’는 ‘유일하

신 주'로 번역해 놓았습니다. 여기의 one(히브리어 에카드)은 하나를 뜻하는 말이지 결코 성경 어디에서도 유일함을 뜻하지 않습니다. 유일하다는 '오직 하나밖에 없음'을 말합니다.

1. 그는 마을에서 유일하게 나와 동갑내기였다.
2. 그 할아버지께는 철이가 유일한 혈육이다.

'유일하다'는 절대로 성경의 one LORD를 표현할 때 쓸 수 있는 말이 아닙니다. 이것은 기초적인 조직 신학, 히브리어를 공부하지 않은 데서 발생하는 무지입니다. 우리의 삼위일체 하나님은 영어로 three persons in one God입니다. 즉, 여기의 one은 복수가 하나가 되는 것을 표현하는 에카드입니다. 계속해서 창2:24를 보겠습니다.

Therefore shall a man leave his father and his mother, and shall cleave unto his wife: and they shall be one flesh.

그러므로 한 남자가 자기 아버지와 자기 어머니를 떠날 것이요, 자기 아내와 결합하리라. 그리하여 그들이 한 육체가 되리라.

여기서 표준역은 'one flesh'를 '한 육체'로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경우의 one을 '한'으로 번역해야 함을 그들은 알고 있다는 뜻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복수)가 한 육체(one flesh)가 되는 것을 표현할 때 히브리어 에카드가 사용되었습니다. 신명기 6장 4절의 에카드도 여기에 쓰인 에카드와 동일합니다. 이런 식으로 한 하나님 안에 세 인격체가 있음을 보여 주는 one LORD의 one을 '유일한'으로 번역하는 것은 번역이 아니라 반역 그 자체입니다.

개역 개정이 이렇게 하였습니다.

개역 개정: 이스라엘아 들으라 우리 하나님 여호와와는 오직 유일한 여호와이시니

한글 킹제임스는 여호와와 증인들이 좋아하는 번역이 되게 하였습니다,

한강: 오 이스라엘아, 들으라. 주 우리 하나님은 한 분 주시니

하나님은 한 분이 아닙니다. ‘한 하나님’입니다. 참으로 신학적 무지가 하늘을 찌릅니다. monotheism은 대개 유일신을 믿는 것으로 알려져 있지만 사실 이것은 우주 공간에 한 하나님(one God)만 존재한다는 믿음입니다. 이렇게 심각한 오역을 하고도 그것을 표준이라고 주장하니 오호통재!

‘유일하다’는 절대로 성경의 one LORD, one flesh 등을 표현하는 말이 아닙니다. 표준역은 ‘a God’을 이미 ‘한 하나님’으로 했으므로 ‘one LORD’의 one과 a를 구분하려다 보니 이런 어처구니없는 치명적인 오류를 범하는 자충수를 둔 것입니다. 이런 곳들을 모두 고치려면 사실 몇 년 동안 다시 번역하는 것이 더 빠를 것입니다.

영한사전은 one에 대해 다음과 같이 첫 번째 용례를 말합니다.

one

① [흔히 한정]

- a) 한 사람의, 하나의, 한 개의(single)
 - ~ pound 1파운드
 - ~ dollar and a half 1달러 50센트 《~ and a half dollars보다 일반적》
 - ~ or two days 하루나 이틀, 극히 짧은 날수(=a day or two)
 - ~ man ~ vote 1인 1표(제)
 - ~ man in twenty 20인에 한 사람
 - No ~ man can do it. 누구든 한 사람으로는 할 수 없다
 - One man is no man. 《속담》 세상은 혼자 살 수 없다.

보시다시피 one은 명백히 하나를 표현해야 할 때 쓰는 말입니다. 더욱이 영한사전은 다음의 중요한 말을 덧붙이고 있습니다.

★ '1'의 뜻을 강조할 때에는 부정 관사 a, an을 쓰지 않고 one을 씀

또 위에서 언급한 창17:7의 끝부분을 보겠습니다.

... to be a God unto thee, and to thy seed after thee.

너에게 그리고 너희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

이것 역시 우리말의 구조를 전혀 파악하지 못한 번역입니다. 마치 외국인이 우리말을 배울 때 문법을 몰라서 저지르는 실수와 비슷합니다. 매끈한 우리말 번역은 '너와 너의 뒤를 잇는 너의 씨에게 한 하나님이 되고자 함이라.'입니다.

and를 살린다고 이런 식으로 번역하면 줄역이 됩니다. '와'가 곧 'and'이며 '에게'는 끝에 한 번만 붙여야 합니다.²

“대통령은 오늘 내무부 장관과 외무부 장관과 내각의 모든 관료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이것을 다음과 같이 쓰면 얼마나 어설픈 문장이 될까요?

“대통령은 오늘 내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외무부 장관에게 그리고 내각의 모든 관료들에게 특별한 지시를 내렸다.”

이런 말은 한국 사람 누구도 쓰지 않습니다. 번역은 수용 언어의 구조와 용례에 맞게 해야 합니다. 이렇게 멋대로 번역하는 자들은 돈과 명예를 얻기 위해 순진한 이들의 마음을 도둑질합니다. 속아 넘어가는 사람들만 비참하게 된다는 것을 반드시 기억하기 바랍니다. ☹

2. And를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주장(11번 글 참고)

13

표준역의 내로남불: ‘산당’은 절대 쓰면 안 된다더니...

요즘 ‘내로남불’이라는 말이 유행하고 있습니다. 미국 일간지 뉴욕타임스에도 언급될 정도로 이 말은 온 세상에 널리 퍼져 나가고 있습니다.¹

South Koreans expressed their growing cynicism over what they considered the hypocritical practices of Mr. Moon’s progressive allies with a popular saying: **naeronambul**. It roughly translates to, “If they do it, it’s a romance; if others do it, they call it an extramarital affair.”

한국인들은 문 대통령의 측근들이 행하는 것을 위선적인 행태로 여기며, 그들에 대해 느끼는 반감을 ‘내로남불’이라는 유행어로 표현했다. 이를 대략 번역하면 ‘내가 하면 로맨스, 남이 하면 불륜’에 해당한다.

성경은 옳은 것(right)을 추구하라고 말합니다. 즉, 성도들은 예수 그리스도의 피로 구원받아 그분의 의(righteousness, 올바름)가 전가되어 정치관, 세계관, 인생관 등 인생의 모든 영역에서 옳은쪽(Right)을 추구하



1. 한국에서 유행하는 신조어 ‘내로남불’을 인용한 해외 뉴스

는 사람들입니다. 마귀와 그에게 속한 자들은 여전히 왼쪽을 사랑하지요(낙태, 동성애, 트랜스젠더, 무상 급식, 무상 의료, 사회주의, 공산주의 주창자들에게 표를 던지는 무지한 자들).

마태복음 25장의 양과 염소 비유를 잘 보기 바랍니다.

34 그때에 왕이 자기 오른쪽에 있는 자들에게 이르되, 오라, 내 아버지께 복받은 자들아, 너희는 세상의 창건 때부터 너희를 위해 예비된 왕국을 상속받으라.

41 그때에 그가 왼쪽에 있는 자들에게도 이르되, 저주를 받은 자들아, 너희는 내게서 떠나 마귀와 그의 천사들을 위해 예비된 영존하는 불에 들어가라.

전도서 10장 2절도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오른쪽에 있으나 어리석은 자의 마음은 그의 왼쪽에 있느니라(전10:2).

A wise man's heart is at his right hand; but a fool's heart at his left.

그런데 표준역 번역자 역시 내로남불의 극치를 보이는 것 같아 안타까운 마음으로 실상을 보여 드리려 합니다.

high place 산당

성경에는 high place라는 말이 단수로 22번, 복수로 98번 총 120번 나옵니다. 영어 high place는 단순하게 높은 곳으로 번역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실상 high place를 단순하게 높은 곳으로 번역하면 우리나라 사람들에게는 전혀 뜻이 통하지 않을 수 있습니다. 그래서 대다수 우리말 성경들은 높은 산에 있는 high place는 산당(山堂)으로 번역하였고 실제로 거리 등에 있는 높은

곳은 높은 곳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레26:30, And I will destroy your high places, and cut down your images, and cast your carcasses upon the carcasses of your idols, and my soul shall abhor you.

말씀드린 대로 제가 살펴보니 한국의 거의 모든 역본들(개역, 카톨릭, 공동, 한킹, 바른, 현대어, 쉬운 등)은 이것을 흠정역처럼 산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흠정역: 내가 너희 산당들을 헐고 너희 형상들을 베어 넘어뜨리며 너희 사체를 너희 우상들의 사체 위에 던지고 내 혼이 너희를 혐오하리라.

그런데 유독 표준역은 이것을 높은 처소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리고 내가 너희의 높은 처소들을 멸망시키고 너희의 형상들을 절단하여 쓰러뜨리며 너희의 사체들을 너희의 우상들의 사체들 위에 던지겠노라. 그런즉 나의 혼이 너희를 혐오하리라.

사전들의 정의

넬슨 사전 등은 high place에 대해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 이교도들의 신을 섬기기 위해 마련된 높은 곳의 장소 혹은 언덕에 있는 장소
Elevated or hilltop sites dedicated to worship of pagan gods. Ancient peoples often built their shrines on hilltops.

사실 이것은 히브리 사람들이나 영어를 사용하는 사람들에게 산당의 의미

로 이미 확고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위키 백과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

산당(山堂, high place)은 성경 문맥에서 항상 ‘예배의 장소’를 의미한다. 이것은 마을보다 높은 곳에 있는 작은 산이나 언덕에 놓여 있었다.

그러므로 이교도들이 산이나 언덕 등의 높은 곳에 마련한 예배 처소를 그냥 ‘높은 처소’ 혹은 높은 곳으로 번역하면 ‘이교도들의 예배 처소’라는 개념이 우리말에서는 전혀 들어오지 않습니다. 영어에서는 당연히 기독교인들이 그런 의미로 그 단어를 사용하므로 문제가 없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장소를 단순히 높은 곳 혹은 높은 처소로 번역하면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집이나 건물이다 해당됩니다.

그러나 레위기를 비롯한 성경의 문맥은 high place의 대다수가 당연히 이교도들의 산당(山堂)을 의미하지 세상에 있는 모든 높은 곳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우리나라의 대다수 성경들이 이것을 산당(山堂), 즉 ‘산에 있는 집’이라고 정확한 의미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를 두고 표준역 번역자는 산당이 산신을 모시는 집이므로 이곳에서는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다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등을 섬겼지 산신을 섬지 않았다고 주장합니다.

자, 이것은 꼬투리를 잡기 위한 심히 부당한 주장입니다. 문자 그대로 산당(山堂)은 ‘산에 있는 집’입니다. 어떤 한글 성경도 사람들이 산당에서 산신을 섬겼다고 말

산당

단어-속어 1 글로벌 발음듣기

산당 山堂 +

종교 high place

뜻풀이 5

high place +

1. 성서 산꼭대기의 예배소[신전, 제단], 산당(山堂)
2. 중요한 지위, 요직; [pl.] 고관

하지 않습니다. 보시다시피 두산백과, 동아 프라임 영한사전 등도 산당은 종교에서 high place라고 말합니다.

이스라엘 백성은 산당에서 하나님께 경배할 수 없습니다. 해서는 안 됩니다. 표준역 번역자는 이런 당연한 말을 왜 하는지 모르겠습니다. 그리고 이스라엘 사람들은 산당에서 바알과 아스다롯 등을 섬겼지 산신을 섬기지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들이 산당에서 산신을 섬겼다고 말한 적이 없습니다. 표준역처럼 자기들 마음대로 상상해서 추측한 뒤 남을 비방하면 안 됩니다.

표준역 번역자의 심각한 내로남불

이렇게 산당이라는 단어를 쓰면 안 된다고 거품 물고 이야기하던 표준역 번역자는 자기가 high place를 산당으로 번역해 놓은 것을 모르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번역자는 자가당착에 빠졌고, 요셋말로 우리는 이런 것을 내로남불이라고 말합니다. 겔16:24-25, 31을 보겠습니다.

24 That thou hast also built unto thee an eminent place, and hast made thee an high place in every street. **25** Thou hast built thy high place at every head of the way, and hast made thy beauty to be abhorred, and hast opened thy feet to every one that passed by, and multiplied thy whoredoms. **31** In that thou buildest thine eminent place in the head of every way, and makest thine high place in every street: and hast not been as an harlot, in that thou scornest hire:

24 너는 너에게 한 우뚝 솟은 처소를 지어 두었고, 모든 거리마다 너에게 산당을 만들어 두었도다. **25** 너는 너의 높은 처소를 모든 길머리마다 지었고 너의 아름다움을 혐오스러운 것으로 만들었으며 지나가는 모든 이에게 저마다 너의 발들을 벌려 너의 행음들을 가중시켰도다. **31** 네가 모든 길머리마다 너의 우뚝한 처소를

건축하고 모든 거리마다 너의 높은 처소를 지으면서도 네가 화대를 경멸하니, 어느 창녀 같지 아니하였도다.

표준역 번역자는 24절에서 **'high place'**를 분명히 **'산당'**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바로 밑의 25절과 31절에서는 이것을 '높은 처소'로 번역하였습니다. 24, 25, 31절의 high place는 히브리어, 영어 모두 같은 말입니다. 이제 번역자는 솔직하게 답해 보시기 바랍니다.

산당이 맞습니까? 높은 처소가 맞습니까?

이렇게 부조리한 번역, 즉 앞뒤가 맞지 않는 번역을 하고는 다른 사람들이 가장 올바르게 번역한 것을 죄다 오역이라고 하는 **내로남불**이 어디에 있습니까?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high place가 산당인지, 단순히 높은 처소인지 120번을 모두 올바르게 구분하여 번역하였습니다. 맞지 않는 데가 있으면 알려 주기 바랍니다.

흠정역 24절: 네가 또한 너를 위해 우뚝 솟은 처소를 짓고 모든 거리에 너를 위해 높은 처소를 만들었도다.

개역 24절: 너를 위하여 누를 건축하며 모든 거리에 높은 대를 쌓았도다

표준역 번역자는 수천 군데 오역을 해놓고 다른 성경들을 비방하고 있습니다.² 사람들을 잠시 잠깐 속일 수 있어도 진실 앞에서는 어둠이 빛 앞에서 물러가듯이 표준역은 슬금슬금 자취를 감출 수밖에 없습니다. 다음 블로그를 늘 보시기 바랍니다. 표준역의 거짓이 모두 들어 있습니다.³

하나님의 말씀을 가지고 혼동을 만들어내는 자들을 주님께서 공의로 판단해 주실 것입니다. 🙏

2. 표준 킹제임스 역본의 수많은 번역 오류(7번 글 참고)

3. 표준역 내로남불, 오역 퇴치 블로그 QR 코드



14

영감과 보존과 번역, 그리고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우선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과 번역에 대해 가장 정확하게 정의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을 보겠습니다. 이것이 성경 신자들의 성경에 대한 바른 견해라고 믿고 이것을 설명하려 합니다.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8항¹

우리는 ①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② 사상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③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영감이란 무엇인가?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딤후3:16)

성경대로 믿는 신자라면 누구나 성경의 영감을 믿을 것입니다. 영감이란 하

1. 이것은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도 100%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

나님의 특별 계시인 성경을 문자들을 써서 단어들로 기록하는 과정을 뜻합니다. 그리스 말로 영감(inspiration)은 ‘숨을 불어 내어 쉬다’를 뜻합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께서 숨을 불어 내어 쉬셨음’을 뜻합니다.

영어 ‘inspiration’에서 중간에 있는 ‘spir’는 영을 뜻하는 ‘spirit’에서 나왔습니다. 또 앞의 ‘in’은 들어갔다라는 뜻입니다. 따라서 하나님의 영감은 ‘**하나님의 영(숨)이 직접 들어갔다**’는 것으로 이해하면 됩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는 과연 무엇에 숨(혹은 영)을 불어 넣으셨을까요?

그분은 ‘모든 성경기록’에 그리하셨습니다. 여기서 성경기록으로 번역된 그리스어 그라페는 기록하는 것을 말합니다. 즉, 하나님은 완전한 성경기록의 모든 단어에 자신의 숨을 불어 내심으로써 그 단어들이 살아 있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이것 없이는 아무도 살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말씀(단어)은 살아 있고 권능이 있으며 양날 달린 어떤 검보다도 예리하여 혼과 영 및 관절과 골수를 찢러 돌로 나누기까지 하고 또 마음의 생각과 의도를 분별하는 분이시니 그분의 눈앞에서 드러나지 아니하는 창조물이 하나도 없고 모든 것이 우리와 상관하시는 분의 눈에 벌거벗은 채 드러나 있느니라(히4:12-13).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단어)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마4:4).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영감은 몇 차례 있었나?

그런데 문제는 하나님의 영감 과정이 과거에 몇 차례 있었느냐, 또 지금도 있느냐는 것입니다. 영감이 과거에 한 차례만 있었을까요, 여러 차례 있었을까요? 즉, 원본의 단어들만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아니면 사본의 단어들도 여러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혹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나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어떤가요? 그것들도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을까요?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성경 영감 과정이 과거에만 있었을까요, 아니면 현재에도 있을까요? 바로 이것이 여러 사람을 혼란에 빠뜨립니다. 여기서 잘못 나가면 **릭크만주의의 킹제임스 성경 이중 영감설(double inspiration)**이 나옵니다. 일단 분명한 것은 딤후3:16에 나오는 영감이 자필 원본의 단어들을 기록할 때에 사용된 영감이라는 점입니다. 구약 성경은 하나님의 입에서 히브리 말(약간의 아람어)로, 신약 성경은 그리스 말로 나왔습니다. 그 단어들을 인간 기록자들이 기록하였습니다.

먼저 이것을 알라. 즉 성경기록의 대언은 결코 어떤 사적인 해석에서 나지 아니하였나니 대언은 옛적에 사람의 뜻에 의해 나오지 아니하였고 오히려 하나님의 거룩한 사람들은 성령님께서 자기들을 움직이시는 대로 말하였느니라(벰후1:20-21).

분명한 점은 처음에 자필 원본 성경기록들이 주어질 때 영어나 우리말로 단어들 주어지지 않았다는 것입니다.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기록되었습니다).

그 이후에는 하나님께서 섭리를 통해 자신의 입에서 나온 단어들을 보존하십니다. 이렇게 치밀하게 완벽하게 보존되면 그 성경은 사본이든 역본이든 자필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영감)이 살아서 움직입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읽고 사람이 구원받을 수 있습니다.

다시 한번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8항을 보기 바랍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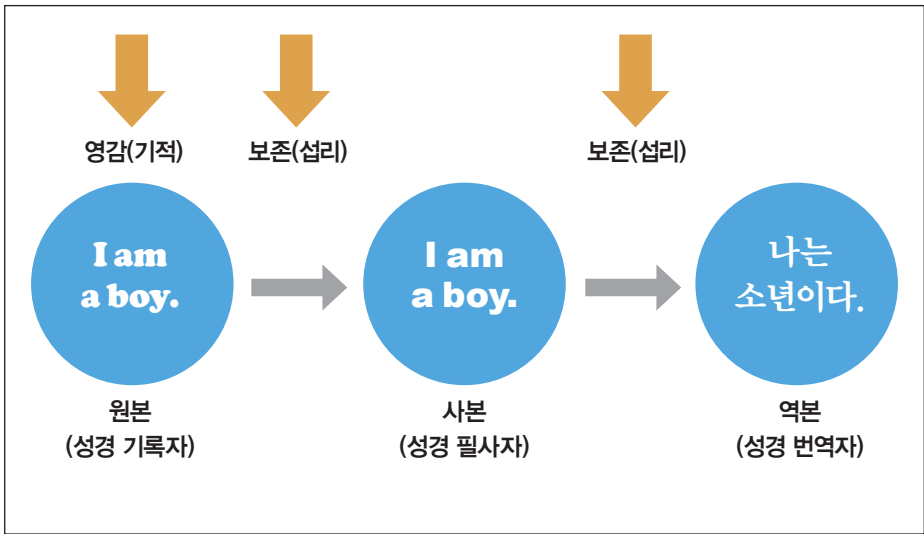
우리는 ①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② 사상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③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이 문제를 잘 이해하지 않거나 표현하지 않으면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영감과 보존 설명

이제 우리가 잘 아는 영어와 한국어를 가지고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일단 하나님의 입에서 영어로 다음과 같은 단어들이 나와서 인간 기록자가 완벽하게 기록했다고 가정해 봅시다.



- 자필 원본: I am a boy.

자, 시간이 지나면서 'I am a boy.'가 담긴 자필 원본이 헤어져서 어쩔 수 없이 사본을 만들게 되었습니다. 이때 어떤 사람이 이것을 정확하게 다른 사본에 다음과 같이 기록했다고 생각해 봅시다.

- 사본: I am a boy(필사자와 필체는 다르지만 네 단어는 정확하게 같음).

이 문제의 이해를 돕기 위해 비유로 말하자면 자필 원본의 'I am a boy.'는 뎀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 이후에 자필 원본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그대로 옮겨 놓은 사본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이 아니라 보존에 의해 주어진 것입니다. 다만 둘이 정확히 일치하므로 원본과 사본은 동일한 효력을 가지며 하나님의 숨(영감)이 동일하게 살아 움직입니다.

과거의 유대인들은 피땀 흘려가며 구약의 히브리 성경을 처음의 원본과 동일하게 기록하였습니다. 1960년, 밀러(H. S. Miller)가 지은 『일반 성경 입문 (General Biblical Introduction)』에는 유대인들이 구약 시대 회당에 있던 두루마리들을 복사하면서 지킨 여덟 가지 준수 사항이 있습니다.

1. 양피지는 정결한 짐승의 가죽으로 만들어 오직 유대인만이 만들 수 있으며 정결한 짐승으로부터 만든 끈으로 묶어야만 한다.
2. 두루마리의 각 난에는 48줄에서 60줄이 들어가야만 한다.
3. 잉크는 반드시 검은색이어야만 하고 특별한 방법으로 제조해야만 한다.
4. 어떤 단어나 글자도 머리로 외워 적어서는 안 된다. 서기관은 반드시 자기 앞에 정통 복사본을 놓고 기록하기 전에 먼저 각 단어를 큰 소리로 읽고 발음해야 한다.
5. 하나님의 말씀을 기록하기 전에 그는 반드시 두려운 마음으로 펜을 닦아야만 하며 여호와(Jehovah)라는 이름을 적기 전에는 그 거룩한 이름을 더럽히지 않도록 하기 위해 반드시 온몸을 씻어야만 한다. 이 단어는 영어 성경에서 주(主), 즉 전체가 대문자로 된 'LORD'로 번역되었는데 따라서 그는 필사 과정에서 수도 없이 많이 몸을 씻어야만 했다.
6. 글자의 형태, 글자와 단어 사이의 간격, 펜을 사용하는 방법, 양피지 색깔 등에 대해서도 매우 엄격한 규례들이 있었다.

7. 두루마리를 수정하려면 그것이 완성된 후 30일이 지나기 전에 해야 한다. 그렇지 않으면 그 두루마리는 무효가 된다. 또한 한 장에 단 한 개의 실수라도 있으면 그 장은 버려야만 했으며 전체 필사본에서 세 개의 실수가 발견되면 전체를 버려야만 했다. 다시 말해 창세기부터 말라기까지 다 기록했는데 그중에 단 세 개의 실수가 나오면 다시 처음으로 돌아가 창세기부터 필사해야 한다. 이런 것을 통해 우리는 유대인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다루는 일에 어느 정도 신중을 기했는지 알 수 있다. 사실 그들은 자기들이 필사하는 말씀들이 거룩한 하나님의 말씀들임을 믿었으며 따라서 이런 철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들을 완전하게 보존해 왔던 것이다. 이런 점에서 그들은 자기들 마음대로 본문에서 빼거나 본문에다 첨가하거나 본문을 바꾸거나 하는 NIV, NASB, NKJV 등의 현대 역본 기록관들과는 판이하게 달랐다. 이런 치밀한 과정을 통해 하나님께서는 자신의 말씀을 완전하게 보존해 오셨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회당에서 친히 읽으신 말씀이 자필 원본이 아님에도 불구하고 그것을 스스럼없이 성경이라고 부르셨다.
8. 그들은 글자와 단어 수를 세었으며, 만일 글자가 삭제 혹은 첨가되었거나 다른 글자와 붙어 있으면 필사한 사본 전체를 버렸다.

이 같은 규칙들을 소개한 뒤 밀러는 이렇게 덧붙여 말합니다.

이런 규칙들이 좀 부조리하거나 너무 극단적인 것이 아니냐고 말할지도 모르지만, 이것들은 유대인들이 얼마나 성경을 거룩하게 여겼는지 잘 보여 준다. 따라서 우리는 우리 주 예수님께서 읽으셨던 성경, 즉 처음에 하나님께서 영감을 불어넣으신 성경을 지금 이 시간에 우리 손안에 가지고 있다고 확신해도 된다.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자신이 읽은 성경 말씀이 비록 자필 원본의 말씀이 아니고 필사본의 말씀이었지만 그것을 100%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인정하시며 기록된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해 주셨습니다. 단 한 번도 우리 주님은 사본 탓

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분의 손에 있는 필사본 두루마리가 곧 원본과 같았기 때문입니다.

그분께서 응답하여 이르시되, 기록된 바, 사람이 빵으로만 살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입에서 나오는 모든 말씀(every word)으로 살 것이라, 하였느니라, 하시더라 (마4:4).

분명히 위 구절에 있는 구약 성경 말씀은 주전 1500년경에 모세가 기록한 것입니다. 그런데 예수님께서 '기록된 바'(it is written)라고 현재형으로 말씀하신 것을 보면, 모세의 자필 원본이 아니고 모세로부터 예수님 시대까지 약 1,500년 동안 필사되어 보존된 성경(사본)이 있음을 의미합니다. 과거의 원본만 옳았다면 'it was written'으로, 과거 시제로 기록되었어야 합니다. 참고로 여기의 현재형은 예수님 당시도 그렇고 지금도 그렇다는 것을 뜻하는 현재형입니다.

또한 '모든 말씀'(every word)이란 것은 말 그대로 모든 말씀(단어)이 보존되지 않는 한 아무 의미가 없습니다. 즉, 우리 주님께서 자신의 손안에 들어 있는 필사본 성경이 자필 원본과 똑같음을 증명해 주셨으며 그 필사본에 권위를 부여하셨습니다. 이 사실을 확인하려면 이 외에도 다른 구절들을 참고하기 바랍니다(마5:17-18; 눅24:27, 44 등).

번역본의 영감 문제

자, 그러면 번역본은 어떨까요? 자필 원본을 그대로 동일하게 베껴 쓴 사본의 'I am a boy.'를 우리말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 **번역본: 나는 소년입니다**(참고로 우리말은 존칭이 있으므로 '나는 소년이다', '저는 소년입니다'도 다 맞는 번역임).

하나님의 입에서는 분명히 처음에 'I am a boy.'가 나왔고 인간 기록자는 그것을 원본에 기록하였으며 이 네 단어는 사본에 그대로 정확하게 보존되었습니다. 이 보존된 사본에서 정확하게 '나는 소년입니다.'라는 역본이 나왔습니다. 그러면 이 역본도 최초에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원본과 동일한 효력을 지닐까요? 물론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역본에는 하나님의 진리가 100%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영감이 보존되어 있음). 그래서 이 역본의 단어들이 역시 사람을 살리며 하나님의 사람을 완전하게 하기에 충분합니다.

예수님 십자가 사건 이후 신약 성경이 완성된 뒤로 실제로 이방 사람들을 구원한 것은 다 역본이었습니다. 즉, AD 100년 이후에는 원본이나 사본의 시대가 아니라 역본의 시대가 왔습니다. 그리고 역본들을 통해 이방인들이 구원받았습니다.

지금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 손에 들린 성경(역본)에 하나님의 숨(영감)이 없다면 그것으로는 사람을 구원할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우리는 번역 성경의 단어들이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영감은 단 한 차례, 자필 원본이 기록될 때만 하나님이 사용하신 과정이기 때문입니다.

요약하면,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 그런데 그 원본이 정확하게 필사되었고 그 필사본에서 지금의 역본이 정확하게 나왔으면, 지금의 역본에도 하나님의 모든 단어가 동일한 효력을 갖습니다(영감이 보존되어 살아 있음). 우리는 이것을 잘 구분해야 합니다.

자, 이제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비교해 봅시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단어는 원본을 정확하게 보존한 사본의 원어들에서 나왔습니다. 신약 성경의 경우 이러한 사본에는 성경기록 필사본, 성경기록을 담고 있는 성구집 등이 포함됩니다. 물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사본의 모든 단어를 가능하면 일대일 대응이 되게 하려고 노력하였으며 심지어 원어의 문장의 구조까지도 영어로 그대로 표현하였습니다.

그러나 다른 언어로 번역하면 당연히 언어의 차이로 인해 무언가를 첨가해야만 합니다. 번역을 해 본 사람이면 누구라도 이것을 잘 압니다.

예를 들어 다시 딘후3:16을 보도록 합시다.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and is profitable for doctrine, for reproof, for correction, for instruction in righteousness:

여기서 우리는 두 개의 is가 이탤릭체로 되어 있음을 볼 수 있습니다. 이것은 역자들이 번역을 위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스어 성경에서는 is가 없어도 말이 되지만, 영어에서는 is가 없으면 말이 안 되기 때문에 역자들이 집어넣은 것입니다. 그리고 역자들은 정직하게 이것을 이탤릭체로 표시함으로써 독자들에게 하여금 이것은 원래 원본에 없었으나 번역을 위해 첨가되었음을 알 수 있게 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이 구절에서 두 개의 is를 제외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사본)을 있는 그대로 영어의 구조 안에서 가능한 한 일대일 대응이 되게 정확하게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이것을 ‘형식적 일치’ 번역이라고 말합니다. 이렇게 번역되었기에 우리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온전히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이 성경을 들고 “이것은 하나님의 ‘오류가 없는 완전한 말씀’입니다.”라고 외칩니다.

세상에 수많은 성경이 있지만 이런 식으로 거의 완벽한 형식적 일치를 보이는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1611년 이래로 이 성경에 복을 주셔서 이 세상 모든 교회와 신학교의 교리, 신앙신조 등을 정리하며 5대양 6대주에서 사람을 구원하기 위해 이 성경을 쓰셨습니다. 온 세상의 복음화를 위해서는 여러 나라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어야 하는데 이를 위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수백 개 나라 성경의 번역 대본으로, 표준 잣대로 쓰였습니다. 그런데 렉크만주의자들 - 무조건 피터 렉크만을 따르는자들

- 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우수성을 너무 과장한 나머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본에서 향상된 계시’ 혹은 ‘원본보다 더 좋은 계시’ 혹은 ‘영감을 받은 성경’이라고 주장합니다.

여기서 다시 한번 강조하지만 **원본보다 더 좋은 역본은 있을 수 없습니다.** 그것은 불가능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가 아닙니다. 이것은 완전하게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들(단어들)을 형식적 일치로 통해 정확하게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옮긴 것입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니고 ‘정확하게 보존되어 영감이 살아 있는 성경’입니다.

앞에 제시한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8항을 다시 보기 바랍니다. 그러므로 전 세계 모든 성경 신자들은 이런 고백에 따라 영감과 보존, 그리고 정확한 번역을 구분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온전하게 보존된 사본들에서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된 완벽한 영어 성경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미국(영국) 사람들은 킹제임스 성경을 ‘**inspired words of God**’이라고 부릅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inspired**’라는 말은 최초의 영감을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최초의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기록되었습니다. 이런 데 사용되는 ‘**inspired**’라는 말은 ‘영감이 보존되어 그대로 살아 있다’는 의미로 받아들여야 합니다. 이것을 잘못 이해하면 이중 영감설이라는 오류에 빠집니다. 물론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영감을 받은’ 정도로 할 수밖에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

그런데 왜 우리는 원본이 아니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최종 권위라고 부를까요? 다음의 예를 보겠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향상된 계시’의 한 예로 행 12:4를 드는 분들이 있습니다.

헤롯이 베드로를 붙잡아 감옥에 넣고 군사가 넷씩인 네 소대에 맡겨 지키게 하였으니 이것은 이스터가 지난 뒤에 그를 백성에게 끌어내려 함이더라(행12:4).

And when he had apprehended him, he put *him* in prison, and delivered *him* to four quaternions of soldiers to keep him; intending after Easter to bring him forth to the people.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제외한 다른 성경들은 여기의 ‘이스터’를 유월절로 번역하였습니다. 루터 성경같이 바른 본문에서 나온 성경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아마도 전 세계 성경 중에 유일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이것을 ‘이스터’라고 바르게 번역한 것으로 보입니다.

그런데 이 정도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우수하므로 이 성경은 원본을 뛰어넘으며 그래서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거나 영어 성경의 단어들도 딤후3:16의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이중 영감설’을 펴는 이들이 있습니다. 여기의 대표적인 사람이 피터 러크만(Peter Ruckman)과 그를 따르는 사람들입니다.

이들의 주장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거나 이중 영감을 받으면, 원본에 없던 무엇인가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있어야만 합니다.

자, 그러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이스터’라고 번역한 그리스 말이 원어에 있습니까? 물론 있습니다. 그것이 없는데 영어 성경이 그것을 번역해서 집어넣었다면 그것은 첨가이고 그러면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이스터’에 해당하는 그리스 말은 ‘파스카’입니다. 그런데 그리스 말 ‘파스카’는 명절의 경우 크게 둘을 뜻합니다. 하나는 **유월절**이고 다른 하나는 ‘이스터’(이교도들의 부활절 축제)입니다. 파스카는 Oxford English Dictionary에도 정확하게 이 두 개의 명절로 나옵니다. 그러므로 파스카는 이 둘 중 하나로 번역될 수 있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은 행12장의 때가 이미 무교절 기간이라 유월절은 지났으므로 무교절 다음에 오는 이교도들의 부활절인 ‘이스

터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므로 원어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나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또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나 딘후3:16의 영감에 의해 기록된 성경이 아니라 하나님의 진리가 100% 보존된 바른 사본의 단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그 안에는 처음에 원본이 주어졌을 때와 동일하게 하나님의 진리가 살아서 숨 쉬고 있습니다(영감이 그대로 살아 있음). 이것이 바로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8항의 의미입니다.

다시 한번 말씀드리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단어 중 원어들을 담은 사본에서 나오지 않은 단어는 없습니다. 그러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향상된 계시나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만일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이 사실이라면, 하나님께서는 처음에 구약과 신약 성경의 자필 원본을 주신 뒤(BC 1500 - AD 100) 약 1,500-3,000년이 지난 뒤인 1611년에 영어로 또다시 원본을 주신 것입니다. 그러나 그런 일은 결코 발생하지 않았습니니다.

전도서에는 “헛되고 헛되니 모든 것이 헛되다.”라는 유명한 구절이 있습니다. 선포자 솔로몬은 다음과 같은 고백을 합니다.

흠정역: 내가 해 아래에서 이루어진 모든 일을 보았노니, 보라, 모든 것이 헛되며 영을 괴롭게 하는 것이니라(전1:14).

킹제임스 성경은 분명하게 “모든 것이 헛되어 영을 괴롭게 한다(vexation of spirit).”라고 전도서에서 무려 10번이나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성경, NIV를 포함한 대부분의 현대 역본은 이것을 전적으로 달리 표현하고 있습니다.

개역: 내가 해 아래서 행하는 모든 일을 본즉 다 헛되어 바람을 잡으려는 것이로다

‘영을 괴롭게 하는 것’과 ‘바람을 잡는 것’(grasping of the wind)은 너무나 큰 차이가 있습니다. ‘영’ 혹은 ‘바람’에 해당하는 히브리 말은 ‘루아흐’입니다. 이 경우 킹제임스 성경이나 개역성경의 대본이 된 원어 성경의 원어가 동일하므로 이 같은 차이가 생긴 데 대해 원어를 탓할 수는 없습니다. 이 예를 통해 우리는 성경 번역자가 같은 단어를 문맥에 따라 어떻게 번역하는가가 얼마나 중요한 일인가를 알 수 있습니다.

자, 그러면 전도서의 문맥상 어느 번역이 맞을까요? 우리는 전도서 기자가 말하려는 요점이, 킹제임스 성경의 번역자들이 번역한 대로, 해 아래 있는 모든 것이 헛되어 우리의 영을 괴롭게 하는 것임을 보여 주는 것이라고 확신합니다. 그래서 결국 전도서 기자는 마무리를 하면서 12장 13절에서 ‘사람의 온전한 의무가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것’이라고 결론을 내립니다. 즉, 이 모든 것이 영의 문제지 결코 뜬구름 잡는 것 같이 바람을 붙잡는 문제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이런 번역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자 한 의미를 제대로 전달해 주는 번역이라고 믿으며 이런 의미에서 킹제임스 성경이 옳다고 믿습니다.

그러면 이것 역시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임을 보여 주는 증거입니까? 아닙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원어를 정확하게 번역했음을 보여 줄 뿐입니다. 그러므로 이제 우리는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원본보다 낫다는 주장을 펴서는 안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께서 온전하게 보존해 주신 사본들의 모든 단어를 정확하게 번역해서 하나님의 이 단어들을 이방인들의 공통 언어인 영어로 보존한 성경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라고 주장하는 분들은 그런 진술을 수정하는 것이 좋습니다. 반대편 진영에서 무식하다고 조롱하기 때문입니다.

이처럼 우리는 원어의 중요성을 인정하면서도 원어가 최종 권위라고 말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이 시간에 우리가 원본의 모든 단어를 가지고 있다 해도

그것들이 바르게 번역되지 않으면 최종 권위가 될 수 없기 때문입니다. ‘파스카’, ‘루아흐’, ‘하데스’ 등의 원어들은 다 여러 개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 말들이 하나님께서 주신 의도대로 번역되지 않으면 원어들만으로는 최종적인 표준 잣대가 될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께서 섭리(providence)라는 돌보심을 통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역자들을 인도하셔서 각각의 원어 단어가 뜻하는 바를 정확하게 영어로 번역하게 해주셨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원본의 모든 단어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기록된 대로 번역되어야만 맞다고 믿습니다.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를 택하셔서 지난 400년 동안 하나님이 하신 일의 핵심이 바로 이것입니다.

현대 역본들의 역자들은 원본의 원어들의 뜻을 이 세상 문학가나 철학자의 글을 통해 전달하려고 합니다. 원어 사전들의 저자들 가운데는 불신자가 많으며, 심지어 썬이어(J. H. Thayer) 같은 유니테리안 이단도 있습니다. 그러나 성경의 언어는 성경의 언어로 해석해야 합니다. 이런 점에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지금의 번역본 시대에 하나님의 원어 단어들을 100% 정확하게 영어로 옮긴 보존된 성경입니다.

그러면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어떨까요?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리말이 허락하는 범위 안에서 일대일 대응이 되게 형식적 일치**를 유지하면서 **정직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그래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교리와 특징이 우리말의 테두리 안에서 그대로 살아 있습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말 흠정역 성경에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담겨 있다고 당연히 주장하며 “이것이 하나님의 말씀이다”라고 외칠 수 있습니다.

물론 딤후3:17의 진리가 흠정역 성경에 그대로 적용될 수 있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7).

우리말 번역의 문제

한편 'I am a boy.'를 '나는 소년입니다.'로 하지 않고 '나는 아이입니다.'로 하면 반만 맞습니다. 아이에는 남자아이, 여자아이가 있기 때문입니다. 또한 일대일 대응을 시켜야 한다는 명분을 내걸고 '나는 한 소년입니다.'로 하면 우스운 번역이 됩니다. 한국 사람은 아무도 이런 말을 쓰지 않기 때문입니다.²

이런 주장을 펴는 이들은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창1:1)라는 말씀을 '그 시작 안에서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다.'라고 번역하고는 이 외의 다른 번역은 다 틀렸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무지에서 나오는 만용입니다.

'In the beginning'은 관용구로서 '처음에'라는 뜻입니다. 이것을 '그 처음(시작) 안에서'로 번역하는 것은 영어와 우리말을 망치는 것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머릿속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생각(이중 영감론)이 들어 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다른 말로 표현하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향상된 계시'이므로 그 안에 있는 정관사, 부정 관사, 하이픈, 세미콜론, 콜론, 콤마를 번역할 때 수용 언어(한국어)의 용례를 무시하고 단어 대 단어로 번역해야 한다고 이들은 주장하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극단을 피해야 합니다.**

다시 강조하지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향상된 계시'가 아니며, 이중 영감을 받은 성경이 아닙니다. 원본의 모든 단어들을 하나님이 의도하신 그대로 형식적 일치만을 취하면서 정확하게 번역하여 그대로 보존한 성경, 이것이 바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그러므로 하나님의 모든 진리가 처음에 원본이 주어질 때와 마찬가지로 100% 그대로 살아 있는 성경입니다. **결코 100%를 넘을 수는 없습니다.** 원본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관계는 다음과 같이 비유로 설명드릴 수 있습니다.

2. 부정 관사 a를 '한'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그릇되게 표현한 치명적 오류 (12번 글 참고)

(요한복음 14장 7-11절)

7 너희가 나를 알았더라면 내 아버지도 알았으리라. 이제부터는 너희가 그분을 알고 또 보았느니라, 하시니라.

8 빌립이 그분께 이르되, 주여,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그러면 우리에게 족하겠나이다, 하니

9 예수님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빌립아, 내가 이렇게 오랫동안 너희와 함께 있었는데도 네가 아직 나를 알지 못하느냐?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는데 어찌 네가 말하기를, 우리에게 아버지를 보여 주소서, 하느냐?

10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 것을 네가 믿지 아니하느냐? 내가 너희에게 하는 말들은 내가 스스로 하지 아니하며 오히려 내 안에 거하시는 아버지 곧 그분께서 그 일들을 하시느니라.

11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는 내 말을 믿으라. 그러지 못하겠거든 바로 그 일들로 인해 나를 믿으라.

예수님께서 십자가로 가시기 전에 빌립은 아버지 하나님을 보여 달라고 예수님께 부탁합니다. 그러자 우리 주님은 “나를 본 자는 아버지를 보았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은 비록 아버지와 아들이 서로 다른 인격체이지만 성육신하신 예수님이 하신 말씀, 행동, 생각이 아버지 하나님과 100% 같다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우리 주님은 “내가 아버지 안에 있고 아버지께서 내 안에 계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즉, 예수님을 통해 알지 않은 아버지 하나님은 다 거짓이라고 우리 주님은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바로 삼위일체 하나님의 특징입니다.

여기서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를 우리는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으로 비유해 볼 수 있습니다. 사람들은 자꾸 원본을 보여 달라고 합니다. 혹은 원본이 우월하다고 하거나 그런 주장에 세뇌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아들을 통해 보거나 아는 아버지만이 참 하나님이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통해 보는 원어의 뜻만이 옳은 뜻입니다. 이 외에는 다른 데서 옳은 뜻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들이 아버지보다 우월하지 못합니다. 요10:30에서 아들이 “나와 내 아버지는 하나이니라.”라고 말씀하셨듯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입니다. 둘이 아닙니다.**

모든 이방인들에게 자신의 말씀들(단어들)을 온전히 전해 주시려고 하나님께서는 만국의 공통어인 영어로 원본의 원어들을 정확하게 번역한 ‘완전한 성경인 킹제임스 성경’을 주셨습니다. 이 성경을 본문으로 해서 지난 400년간 수백 개의 성경이 번역되었고 그것으로 인해 많은 사람들이 구원받고 바른 교리를 깨달으며 교회를 세웠습니다.

그러나 이제 마지막 배도의 때에 마귀가 세상 무대에 등장해서 성경의 예언을 이루기 위해서는 뜻이나 단어가 변경된 성경의 등장이 필수 요건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마귀라 가정한다 해도 가장 먼저 해야 할 일은 성경에 무언가 변경을 가져오는 일일 것입니다. 마귀는 과거에 이집트에서부터 이 사악한 일을 주도하였고 주후 200년을 넘기면서 그 일은 카톨릭교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현대 역본들은 한결같이 카톨릭교회의 사본들만을 번역의 대본으로 쓰고 있습니다.³

성경대로 믿고자 하는 성도들은 하나님의 영감과 보존, 원본과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바른 개념을 정립하여 다른 성도들에게 비방의 빌미를 주지 않으면서 지혜롭게 바른 성경을 전달해야 할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이 나라에 성경 신자들을 많이 불러 주시고 이들로 하여금 바른 교회를 세우게 하셔서 많은 혼들을 수확하게 되기를 기도합니다. ☞

3. 현대 신학자의 안타까운 주장



15

사람을 살해하는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 또 다른 표준역의 오류

여기서는 도저히 하나님께 쓸 수 없는 단어들을 사용하여 신성모독을 범하는 오류의 표준, 표준 킹제임스의 사례들을 알아봅니다.

1. 사람을 살해하시는 하나님?

‘살해’는 친족 살해, 영아 살해, 존속 살해 등 반인륜적인 살인을 말할 때 사용되는 말입니다.

창38:7, 그런데 유다의 첫 태생인 엘은 주의 목전에 사악하였더라. 그리하여 주께서 그를 살해하셨더라.

창38:10, 그러자 그가 행한 그 일이 주를 불쾌하게 하였더라. 이러한 이유로 그분께서 그 역시 살해하셨더라.

출13:15, 그런즉 파라오가 우리를 전혀 가게 하려 하지 않았을 때 이러한 일이 있었으니, 주께서 이집트 지역 가운데서 첫 태생들을 모두 살해하셨는데 사람의 첫 태생과 짐승의 첫 태생을 모두 살해하셨도다.

민14:16, ‘주께서 이 백성에게 맹세한 지역으로 그분이 그들을 데리고 들어갈 수 없었기에 그분이 그들을 광야 가운데서 살해하셨도다.’ 하리이다.

대상10:14, 그런데 주께서는 여쭙지 아니하였더라. 그러므로 그분께서 그를 살해하셨고 왕국을 이새의 아들 다윗에게로 돌이키셨더라.

시78:31, 하나님의 진노가 그들 위에 임하였고 그들 중 가장 살진 자들을 살해하셨고 이스라엘 가운데 선택된 사람들을 쳐서 쓰러뜨리셨도다.

2. 섬뜩한 하나님, 살벌한 주의 날?

‘섬뜩하다’는 갑자기 소름이 끼치도록 무섭고 끔찍하다, 등골이 섬뜩하다 등의 뜻입니다. 장소나 소리가 섬뜩하다고 하는 경우는 없으며, 더욱이 섬뜩하신 하나님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찾아볼 수 없습니다.

창28:17, 그리고 나서 그가 무서워하여 말하기를, “이 얼마나 섬뜩한 곳인가! 이곳은 다름 아닌 하나님의 집이요, 이곳은 하늘의 대문이로다.” 하였더라.

욥15:21, 한 섬뜩한 소리가 그의 두 귀에 있도다. 번영 속에서 멸망시키는 자가 그의 위에 임하리라.

단9:4, 그리고 나는 주 나의 하나님께 기도하고 나의 자백을 드리며 이같이 말씀드렸더라. “오, 주여, 위대하시고 섬뜩하신 하나님, 곧 그분을 사랑하는 자들에게와 그분의 명령들을 지키는 자들에게 언약과 자비를 간직하시는 분이여,

‘살벌하다’는 행동이나 분위기가 거칠고 무시무시하다, 분위기가 살벌하다 등의 뜻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이 살벌하다거나 주의 날이 살벌하다거나 사람들이 살벌하다는 것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말1:14, 그러나 자기 양 떼 가운데 수컷이 있는데도 서원한 뒤에 부패한 것을 주께 희생 제물로 바치는 자, 바로 그 속이는 자는 저주받기를 바라노라. 이는 내가 한 위대한 왕이요, 나의 이름이 이교도들 가운데서 살벌하기 때문이라.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말4:5, 보라, 위대하고 살벌한 주의 날이 오기 전에 내가 예언자 엘리야를 너희에게 보내겠노라.

합1:7, 그들은 공포스러우며 살벌하도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그들 자신에게서 표출되리라

3. 하나님이 공포스럽다?

‘공포스럽다’는 말은 우리말의 잘못된 사용입니다. ‘스럽다’는 ‘사랑스럽다’, ‘걱정스럽다’, ‘탐스럽다’ 등 주로 느낌이나 감정을 나타내는 추상 명사의 뒤에 붙는 말입니다. 영어 킹제임스에 55회 등장하는 terrible을 번역한 이 말을 표준역이 ‘공포스럽다’로 번역했습니다.

신1:19, 그러고 나서 우리가 호렘에서 출발하였을 때 우리는 주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령하신 대로 너희가 목격한 그 거대하고 공포스러운 광야를 아모리족들의 산길로 다 거쳐 갔느니라. 그런 다음에 우리가 카데시바네아에 왔느니라.

신7:21, 너는 그들에게 겁먹지 말지니라. 이는 주 너의 하나님, 곧 막강하고 공포스러운 한 하나님께서 너희 가운데 계시기 때문이라.

신10:17, 이는 주 너희 하나님께서는 신들의 하나님이시요, 주들의 주시요, 한 위대한 하나님이시요, 한 막강한 분이시요, 한 공포스러운 분이시요, 외모들을 유념하지 아니하시고 보수를 받지도 아니하시는 분이시기 때문이라.

합1:7, 그들은 공포스러우며 살벌하다. 그들의 심판과 그들의 위엄이 그들 자신에게서 표출되리라.

히2:21, 그런즉 그 광경이 이처럼 공포스러웠기에 모세도 말하기를, “내가 극도로 두렵고 전율하노라.” 하였느니라.

특히 하나님에 대해 공포스럽다고 번역한 부분은 의미상으로도 문제가 있습니다. 흠정역에서 ‘두렵다’로 번역한 이 단어는 하나님을 단지 공포의 대상으로만 이해하게 합니다.

표준역은 살해하다, 살벌하다, 공포스럽다 등 하나님의 성품과 속성을 오해할 수 있는 번역을 아무렇지 않게 해 놓고 있는데, 번역자는 성경의 기품을 지킬 의무가 있습니다. 한 예로 킹제임스 성경은 남녀의 육체 관계를 함께 ‘눕다’ 정도로 표현하지만 현대 역본 등은 ‘동침하다’ 등으로 원색적으로 번역하였습니다. 어느 것이 번역의 바른 방향입니까? 표준역은 직설적인 단어들인 바른 번역이라고 여기는 모양이지만 이것이 과연 상식입니까? 이래서 표준역이 구글 번역기를 돌린 것이라는 의심을 보내는 이유이기도 한데, 번역자는 책임을 느껴야 하지 않을까요? 🙏

영어 단어를 단순히 영한사전에서 찾아 번역하면 수준 낮은 번역이 된다

우리는 다 초등학교에서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한사전만 있으면 쉽게 영어 문장을 번역할 수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더러 있습니다. 특히 영어 성경을 번역하는 일에 미숙한 사람들이 영한사전으로 번역하다가 줄역을 만드는 사례들이 많습니다. 표준 킹제임스역이 그런 줄역의 대표적인 사례인데, 몇 가지 줄역의 사례를 알아봅니다.

1. 약속인가, 약속하신 것인가?

중고등학교에 가면 promise라는 단어를 배웁니다. 누구나 다 그것이 약속이라고 생각합니다. 히11:13은 영어로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These all died in faith,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s, but having seen them afar off, and were persuaded of them, and embraced them, and confessed that they were strangers and pilgrims on the earth.

흥정역: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자임을 고백하였으니

여기에 보면 그들이 promises를 받지 못한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표준역: 이들 모두가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한 채 믿음 안에서 죽었으나 아득히 떨어져 있는 그것들을 보았고

한강: ... 그 약속들...

개역: 약속...

카톨릭: 약속된 것(Good)

표준역처럼 영어 번역의 초짜가 만든 책들은 이런 것을 번역하면서 ‘그들이 그 약속들을 받지 못하였다.’라고 번역했습니다. 그리고는 이것이 직역으로 가장 우수한 번역이라고 주장합니다.

히11:39에도 promise를 받지 못했다는 동일한 말씀이 있습니다.

And these all, having obtained a good report through faith, received not the promise:

흠정역: 이들은 다 믿음을 통해 좋은 평판을 얻었으나 약속하신 것을 받지는 못하였으니

표준역은 여기도 역시 그들이 그 약속을 받지 못하였다고 오역을 하였다.

표준역: 그리하여 이들 모두가 믿음을 통하여 하나의 좋은 평판을 얻었으면서도 그 약속을 받지는 못하였느니라.

한강: 그 약속, 개역: 약속

카톨릭: 약속된 것(Good)

반즈 주석 등이 말하는 것을 보겠습니다.

[Not having received the promises] That is, not having received the ‘fulfillment’ of the promises. The promises themselves they ‘had’ received. The word ‘promise’ is used by metonymy ‘for the thing promised’.

이 말은 약속들의 성취를 받지 못했다는 것입니다. 그들은 약속들 그 자체는 이미 받았습니다. 여기의 ‘약속’은 ‘약속된 것들’을 뜻하는 수사학적 환유 표현입니다. 그러므로 흠정역처럼 번역해야 올바른 것입니다.

흠정역 히11:13, 이들은 다 믿음 안에서 죽었고 약속하신 것들을 받지 못하였으나 멀리서 그것들을 보고 확신하며 끌어안았고 또 땅에서는 자기들이 나그네와 순례 자임을 고백하였으니

눅24:49; 행1:4; 히11:33, 39 등의 promise도 같은 식으로 ‘약속하신 것’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표준역은 이 모든 곳을 다 약속으로 번역하여 오역을 하였습니다. 눅24:49; 행1:4 등에서는 약속을 기다리는 것이 아니라 약속하신 것을 기다려야 합니다.

2. 정죄인가, 정죄의 근거인가?

요3:19에는 condemnation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And this is the condemnation, that light is come into the world, and men loved darkness rather than light, because their deeds were evil.

흠정역: 정죄의 근거는 이것이니 곧 빛이 세상에 왔으나 사람들이 자기 행위들이 악하므로 빛보다 오히려 어둠을 사랑한 것이니라.

단순하게 영한사전에 가서 condemnation을 찾으면 뜻이 그 뜻이 ‘정죄’로

되어 있습니다. 구글 번역기도 당연히 이렇게 번역합니다. 그래서 표준역은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그런즉 이것이 정죄니 곧 빛이 세상 속으로 왔으나 그런데도 사람들이 그들의 행
실들이 악하므로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라.

표킹에 있는 대로 읽으면 정죄란 그들이 빛보다는 어두움을 사랑한 것이 되고 맙니다. 이러면 말이 꼬이고 앞뒤 연결이 되지 않습니다. 이것은 영어 초짜가 1차원적인 번역을 한 것입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condemnation을 찾으면 세 번째 뜻으로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3.3 The ground or reason for condemning. 정죄의 근거 혹은 이유

즉, 이런 경우의 condemnation은 정죄가 아니라 정죄의 근거 혹은 이유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흠정역은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들이 빛이 아니라 어둠을 사랑한 것이 정죄의 근거입니다.

3. 수고인가, 수고의 열매인가?

잡언, 전도서 등에는 labour라는 말이 여러 차례 나옵니다. 역시 영한사전으로 이 말을 찾아보면 뜻이 ‘수고, 애씀, 노동’ 등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므로 labour를 모두 수고로 번역하면 역시 줄역이 됩니다. 전2:18을 봅시다.

Yea, I hated all my labour which I had taken under the sun: because I should leave it unto the man that shall be after me.

표준역은 이를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표준역: “내가 나의 모든 수고를 증오하였도다. 이는 내가 내 뒤를 이을 사람에게 그것을 남겨 주어야만 하기 때문이라”

이대로 읽으면 수고를 남겨 준다는 말이 됩니다. 그러나 어떻게 수고를 남겨 줄 수 있습니까? 옥스퍼드 영어 사전에 가서 labour를 찾으면 네 번째 뜻으로 다음과 같은 내용이 나와 있습니다.

4.4 The outcome, product, or result of toil. 수고의 결과, 산물, 열매 등

그러므로 같은 labour라도 전2:18 같은 곳은 흠정역처럼 번역해야 합니다.

흠정역: 참으로 내가 해 아래에서 행한 내 모든 수고의 산물을 미워하였으니 이는 내가 그것을 내 뒤에 올 사람에게 남겨야 하기 때문이라.

카톨릭 성경, 공동 번역도 이런 부분을 제대로 번역하였습니다.

카톨릭: 나는 또 태양 아래에서 내가 애써 얻었건만 내 뒤에 오는 인간에게 물려주어야 하는 내 모든 노고의 결실을 싫어하게 되었다.

이런 데가 잠언 전도서 등에는 여러 차례 나옵니다. 신28:33을 한 번 더 보면, 여기에도 labour가 나옵니다.

The fruit of thy land, and all thy labours, shall a nation which thou knowest not eat up; and thou shalt be only oppressed and crushed alway:


표준역은 네 모든 수고들을 다른 민족이 먹어 치울 것이라고 말합니다. 어떻

계 사람들이 수고를 먹어 치울 수 있겠습니까? 흠정역처럼 되어야 마땅한 번역입니다.

흠정역: 네 땅의 열매와 네 모든 수고의 산물을 네가 알지 못하는 민족이 먹고 너는 항상 억눌리고 짓밟힐 뿐이리니

카톨릭: 너희 땅의 소출과 너희가 일하여 얻은 모든 것을 너희가 알지도 못하는 백성이 먹어 버리며, 너희는 언제나 억압을 받고 짓밟히기만 할 것이다.

그래서 영한사전만 있으면 성경을 쉽게 번역할 수 있다고 오해하거나 착각하면 안 됩니다. 또 그런 초짜들의 꾀에 속아 넘어가서도 안 됩니다. 그런 속임수에 넘어가면 그자들의 배만 불러 주는 꼴이 될 수도 있습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으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롬16:17-18). 

17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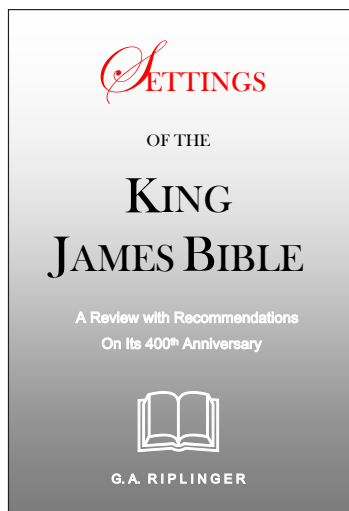
1769년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

킹제임스 성경 옹호에 큰 기여를 하고 있는 리플링거 자매님이 1611년 이후의 킹제임스 성경 본문 변천에 대해 다루면서 영어 KJV를 출간하는 출판사들이 부주의하게 인쇄하는 과정 중에 만든 인쇄상 실수를 지적하면서 성경 출판사들이 단어 하나하나의 조판에 신경을 쓸 것을 주문하는 글을 썼습니다.

그 팸플릿의 제목은 <Settings of the King James Bible>입니다. 구글에 가서 Settings of the King James Bible Riplinger로 검색하면 몇 쪽으로 된 PDF 파일을 볼 수 있습니다. 성경 신자 중 한 분이 이 글을 읽고 리플링거의 말을 그대로 번역하고 설명하였습니다.

...여기서 리플링거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The 1769 edition, done by Blayney, also had its own typos. The name '1769' is frequently and wrongly applied to digital editions on the internet, which are simply a digitization of the Cambridge Concord edition, a singular



variety of the Cambridge text. No one has digitized the actual 1769 and it would be pointless to do so. The '1769' banner is a straw man, created by KJB critics, and unwisely adopted by KJB users. – G. A. Riplinger

블레이니가 편집한 1769년판에도 오자가 있었습니다. '1769년판'이라는 이름은 인터넷의 디지털판에 종종 잘못 적용되는데, 이는 케임브리지 본문의 단일 변종인 케임브리지 콩코드판을 디지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실제 '1769년판'을 디지털화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1769년판'이라는 것발은 KJB 비평가들이 잘못된 의도로 만든 것인데 KJB 사용자들이 어리석게 채택한 허상일 뿐입니다. – G. A. 리플링거

해설: 킹제임스 성경의 판본들 중 1769년 옥스퍼드판이 표준판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판에도 오자가 있으며 이후에 더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1769년 케임브리지 스탠다드판(표준 킹제임스 측 주장)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여러 케임브리지판 중에 하나인 케임브리지 콩코드판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공격하는 비평가들(배교자들)은 주로 킹제임스 성경의 특징한 판을 들어 다른 판들을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769년판만 내세우며 강조하는 것도 바이블 빌리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 교회를 분열시켜 자신들만을 따르게 하기 위한 미혹에 불과합니다.¹

이미 잘 알려진 대로 표준 킹제임스 역자는 자기가 저본으로 삼았다는 소위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 에디션(이런 에디션은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이라 불리는 영어 본문을 스스로 셀프 제조하였다고 실토했습니다. 앞서 소개한 대로 그 안에는 이미 46개의 명백한 오류들이 있습니다.² ☹

-
1. 게일 리플링거(『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저자) 웹사이트(QR 코드 참고)
 2.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6번 글 참고)



“The 1769 edition, done by Blayney, also had its own typos. The name ‘1769’ is frequently and wrongly applied to digital editions on the internet, which are simply a digitization of the Cambridge Concord edition, a singular variety of the Cambridge text. No one has digitized the actual 1769 and it would be pointless to do so. The ‘1769’ banner is a straw man, created by KJB critics, and unwisely adopted by KJB users.”

Settings of the King James Bible, G. A. Riplinger

“블레이니가 편집한 1769년 판에도 오자가 있었습니다. ‘1769년 판’이라는 이름은 인터넷의 디지털 판에 종종 잘못 적용되는데, 이는 캠브리지 본문의 단일 변종인 캠브리지 콩코드 판을 디지털화한 것에 불과합니다. 아무도 실제 1769년 판을 디지털화하지 않았고 그렇게 하는 것도 무의미합니다. ‘1769년 판’이라는 것말은 KJB 비평가들이 잘못된 의도로 만든 것인데 KJB 사용자들이 어리석게 채택한 허상일 뿐입니다.”

G.A. 리플링거 (저자,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해설: 킹제임스성경의 판본들 중 1769년 옥스포드 판이 표준 판으로 불리기는 하지만 사실상 큰 의미가 없습니다. 그 판에도 오자가 있으며 이후에 더 수정되었습니다. 또한 지금 1769년 캠브리지 스탠다드 판이라 불리는 것은 사실 여러 캠브리지 판 중에 하나인 캠브리지 콩코드 판을 디지털화한 것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을 공격하는 비평가들(배교자들)은 주로 킹제임스성경의 특정한 판을 들어 다른 판들을 공격하는 자료로 사용합니다. 어떤 사람들이 1769년 판만 내세우며 강조하는 것도 바이블 빌리버들을 혼란스럽게 하고 지역교회를 분열시켜 자신들만을 따르게 하기 위한 미혹에 불과합니다.

18

오장육부를 굽는다는 표준역의 난센스

출애굽기 12장 9절에는 유월절 어린양을 구워서 먹는 방법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Eat not of it raw, nor sodden at all with water, but roast with fire; his head with his legs, and with the purtenance thereof.

표준역: 그것을 날것으로 먹지 말고 일절 물에 삶지 말며 오직 불에 직접 구우라. 그의 머리를 그의 다리들과 함께 그리고 그것의 오장육부와 함께 구우라.

일단 표준역은 어린양을 남자로 표현하는 난센스를 보이고 있습니다. 뒤에 보면 purtenance라는 말이 나오는데 이것은 도살되는 짐승의 내장을 뜻합니다.

흠정역: 그것을 날로 먹거나 결코 물에 삶지 말고 그것의 머리와 다리와 내장을 불에 구우라.

오장육부란 무엇일까요? 오장육부에서 ‘오장’은 간장, 심장, 비장, 폐장, 신

장 다섯 가지를 말하며, ‘육부’는 위, 큰창자, 작은창자, 쓸개, 방광, 삼초를 말합니다. 자, 이스라엘 사람들은 어린양의 오장육부를 다 먹었을까요? 허파와 심장과 콩팥까지? 이런 것을 먹었다는 기록이 있나요?

레위기의 제물들을 보면 반복해서 ‘두 콩팥과 그것들 위의 기름 곧 옆구리 곁에 있는 것과 간 위의 꺼풀을 콩팥들과 함께 떼어 내라’라는 말이 있습니다. 이런 것을 종합적으로 볼 때 오장육부가 아니라 내장으로 표현하는 것이 옳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육신을 뜻하는 flesh를 표준역은 혈육인가, 골육인가, 육친 등으로 엉뚱하게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준역 창37:27: 오라. 그런즉 우리가 이스므엘족들에게 그를 팔고 우리 손이 그의 위에 있게 하지 말자. 이는 그가 우리의 형제요, 우리의 혈육(flesh)이기 때문이라.” 그러자 그의 형제들이 만족해 하였더라.

왜 ‘혈’을 더하는 것일까요?

표준역 사58:7: 그것은 배고픈 자들에게 너의 빵을 나누어 주며 네가 쫓겨난 가난한 자들을 너의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 네가 그를 덮어 주는 것이요, 네가 너 자신의 골육(flesh)으로부터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왜 ‘골’을 더하는 것일까요?

표준역 롬11:14: 혹 내가 어떻게 해서든지 나의 육친(flesh)인 자들에게 경쟁심을 유발하여 그들 중 일부를 구원할 수 있을까 함이라.

왜 ‘친’을 더하는 것일까요?


전혀 일관성을 찾아볼 수 없는 번역입니다. 무엇을 잡다하게 더하지 말고 이런 경우의 flesh는 살붙이로 통일하는 것이 옳습니다.

흠정역 창37:27: 오라, 우리가 그를 이스마엘 족속에게 팔고 우리 손을 그에게 대지 말자. 그는 우리 동생이요, 우리 살붙이(flesh)니라, 하니 그의 형제들이 흡족히 여기더라.

사58:7 그것은 굶주린 자에게 네 빵을 나누어 주고 내쫓긴 가난한 자들을 네가 네 집으로 데려오는 것이 아니냐? 네가 벌거벗은 자를 볼 때에 그를 덮어 주며 네가 네 살붙이(flesh)를 피하여 숨지 아니하는 것이 아니냐?

롬11:14 이것은 어찌하든지 내가 내 살붙이(flesh)인 그들을 경쟁하게 하여 그들 중 얼마를 구원하려 함이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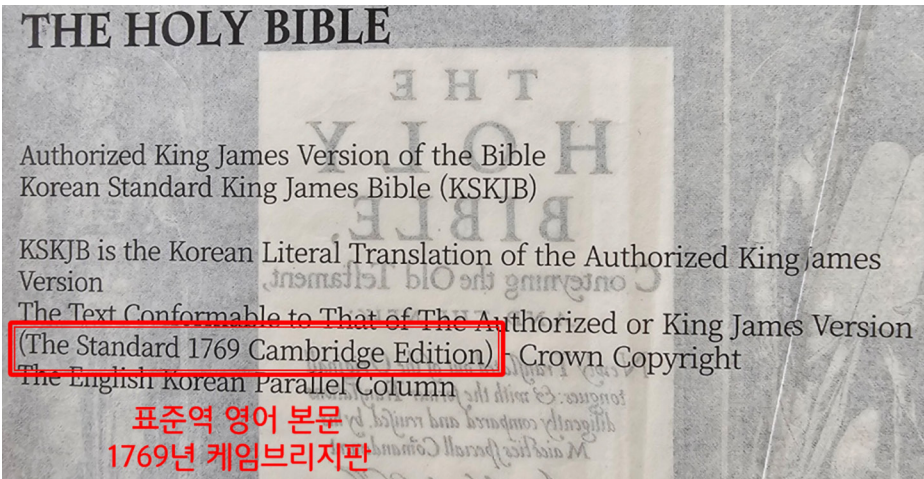
이렇게 내장을 오장육부로, 살붙이를 골육, 육친 등으로 번역하면 우리말 특성상 각 한자마다 의미가 생기기 때문에 한 단어를 여러 단어로 만드는 효과를 유발하게 됩니다. 그러므로 표준역은 우리말의 특성을 잘 고려하면서, 최소한 같은 단어를 여러 단어로 만드는 일을 이제 멈추기를 바랍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 서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롬16:17-18). 

19

1769년 가짜 케임브리지판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일

한 분이 킹제임스 성경 영어 본문에 대해 다음과 같이 연구 결과를 알려 주셔서 올립니다.



킹제임스 성경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대문자 S나 소문자 s는 둘 다 ‘옳다’도 ‘틀리다’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어(영어)의 다양성을 통해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 G. A. 리플링거(『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저자)

킹제임스 성경의 어느 판도 1,800년 이후에 나온 어느 성경보다 우수하다 - 피터 럭크만 박사(미국 펜사콜라시 성경침례교회 목사, 펜사콜라 성경 신학원 학장)

진실한 바블 빌리버 사역자들은 변개된 성경과 싸웁니다. 하지만 거짓 사역자들은 교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판본들 사이의 차이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판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순수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진리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 서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롬16:17-18).

결론

하나님께서 인류에게 선물로 주신 것은 1611년에 인쇄된 본문, 1769년에 인쇄된 본문, 1909년에 인쇄된 본문이 아닙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1611년에 하나님의 모든 말씀을 담은 킹제임스 성경을 선물로 주셨습니다. 사실 옥스퍼드, 케임브리지판 등을 이야기하는 것은 하나님의 보존된 말씀인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선물의 의미에 어떤 것도 더하지 못합니다.

1611년 성경 발행 이후의 본문 변화는 인간의 언어(철자법)가 변하거나 인쇄 기술이 변하면서 교정한 것들에 지나지 않습니다. 또 아포스트로피, 하이픈, 대소문자 등은 원래 원문에 없던 것들이며 이런 것들이 설사 판별로 미세하게 몇 부분이 다르다고 해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에 어떤 문제를 결코 가

져오지 않습니다.


G. Campbell은 400주년 기념판 성경의 뒤에 쓴 글에서 킹제임스 성경의 본문 변화 등을 다 설명한 뒤 이렇게 마무리를 하였습니다.

“다른 역본들 - 이 중 어떤 것들은 정말로 좋은 역본일 수 있다 - 이 지금까지 존재해 왔고 앞으로도 존재할 것이지만 킹제임스 성경은 끝까지 존속할 것이다.”

“Other translations, some of them very good indeed, have come and will go, but the King James Version will endure.”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리건 박사가 지은 글의 끝맺는 말이 그 이유를 잘 보여 줍니다.

여러분은 이제 확신을 가져도 된다. 오늘 이 시간 우리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결코 ‘개정된 것’이 아니라 ‘정화된 것’이다. 우리 손에 들려 있는 이 성경이 우리를 위해 ‘영어로 보존해 주신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사실을 의심할 필요가 전혀 없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의 정확성에 대한 권위는 1611년판 ‘킹제임스 성경’의 초판 인쇄본 - 여기다 더하면 1760년판, 1769년판, 1909년판, 케임브리지판 혹은 옥스퍼드판 - 에 있지도 않고 제임스 1세의 인품에 놓여 있지도 않으며, 엘리자베스 시대 영국 문학의 뛰어난 업적에 있지도 않고 심지어 그리스어 ‘공인 본문’에 있지도 않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이라는 절대 무오한 말씀의 권위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씀을 보존하시겠다고 하신 약속과 그분의 능력에 달려 있다! 하나님은 능력이 있으신 분이다. 그리고 지금 이 시간 우리 손에는 그분의 완전한 말씀이 있다. 

“(KJB의) 요한일서 5장 8절에서 ‘s’ 는 모두
‘옳다’ 도 ‘틀리다’ 도 아닙니다.
주님께서 언어(영어)의 다양성을 통해
두 가지 모두를 허락하신 것처럼 말입니다.”
G.A. 리플링거 (저자, 뉴에이지 성경 역본들)

“킹제임스성경의 어느 판도
1800년 이후에 나온 어느 성경 보다 우수하다.”
피터 렉크만(성경침례교회 목사, 펜사콜라성경신학원 학장)

진실한 바이블 벨리버 사역자들은
변개된 성경과 싸웁니다.

하지만 거짓 사역자들은
교리적인 의미가 없는
판본들 사이의 차이를 들어
**킹제임스성경의 판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모든 판들은 순수합니다.
킹제임스성경의 모든 판들은 **진리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바이블 벨리버의 믿음입니다.

20

영어 관용구의 God을 다 하나님으로 번역해야 한다는 표준역의 난센스

1. Would God

이전에 어떤 분이 다음과 같이 God에 대해 물었습니다.

제가 잘 몰라서 한 가지 여쭙려고 합니다.

왕하5:3, And she said unto her mistress, Would God my lord were with the prophet that is in Samaria! for he would recover him of his leprosy.

흠정역: 그녀가 자기 여주인에게 이르되, 내 주께서 사마리아에 있는 대언자와 함께 계신다면 좋겠나이다! 그가 그분의 나병을 고치리이다, 하니

위의 영어 구절을 보면 “Would God my lord...”로 되어 있는데 왜 여기서 하나님을 번역하지 않았는지요? 즉, “내 주께서”가 아니라 “하나님 내 주께서”로 번역이 되어야 하는 것이 아닐까 합니다.

답을 드립니다.

Would God 자체는 기원(祈願), 즉 바라는 것이 이루어지도록 비는 것을 표

현하는 말입니다. 민11:29; 14:2; 20:3; 신28:67; 삼하18:33 등에도 동일한 표현이 있습니다. 이것은 영어에서 간절히 비는 것을 나타내는 표현입니다.

그런데 히브리 말 원어 성경에는 God(히브리어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없습니다. 원어 achalay(스트롱 번호 305)는 그냥 간절히 비는 것을 뜻하는데 그것을 영어로 옮기면서 강렬하게 소원을 비는 의미의 Would God으로 표현된 것입니다. 즉, 영어식 기원의 표현입니다.

표준역: 그리고 그녀가 자신의 여주인에게 말하기를, “하나님께서 나의 주를 사마리아 안에 있는 예언자와 함께 있게 하신다면 좋겠나이다...” 하였더라

표킹처럼 하면 치졸한 번역이 됩니다. 번역이 꼬이게 됩니다. 민수기 11장 29절도 마찬가지입니다.

And Moses said unto him, *Enviest thou for my sake? would God that all the LORD's people were prophets, and that the LORD would put his spirit upon them!*

이중 영감설에 빠진 표준역은 다음과 같이 이상하게 번역을 해 놓았습니다.

표준역: 주의 백성 모두가 예언자들이 되어 주께서 그들 위에 그분의 영을 두시기를 하나님께 바라노라!

이것은 치졸한 번역입니다. 왜냐고요?

앞에 ‘주(LORD)께서’라고 해 놓고 뒤에서는 또 ‘하나님께’(God)라고 하면 주와 하나님이 다른 존재가 되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하지만, 이것은 간절한 바람을 나타내는 영어식 표현입니다. 이런 데서 영어의 하나님을 번역하면 오역 내지는 줄역 혹은 해석이 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말 번역에 들어가려면 하나님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엘로힘’이 있어야 합니다. 민20:3을 보겠습니다.

And the people chode with Moses, and spake, saying, Would God that we had died when our brethren died before the LORD!

흠정역: 백성이 모세와 다투어 말하며 이르되,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을 때 우리도 죽었더라면 **좋을** 뻔하였도대!

표준역: 그리고 백성이 모세를 공박하며 이같이 일러 말하였더라. “우리 형제들이 주 앞에서 죽었을 때 하나님께서 우리도 죽게 하셨더라면 **좋았으리라!**”

이런 구절을 우리말로 번역하면서 표킹처럼 하나님을 집어넣으면 안 됩니다. 히브리 말에 하나님이 없고 우리말로는 “그랬더라면 얼마나 좋았을까!”의 의미로 번역하면 됩니다. 표킹 번역자처럼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주로 영어 그대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면서 하나님을 넣는데 이것은 난센스입니다.

2. God save the king

이와 관련해서 “God save the king!”이라는 표현이 있습니다(총 7회). 한 예를 들겠습니다.

삼상10:24, And Samuel said to all the people, See ye him whom the LORD hath chosen, that there is none like him among all the people? And all the people shouted, and said, God save the king.

사무엘이 온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가 **주**께서 택하신 자를 보느냐? 온 백성 가운데 그와 같은 자가 없느니라, 하니 온 백성이 외치며 이르되, 왕 만세, 하니라.

여기 역시 히브리어에 “God”이 없습니다. God Save the King은 “왕 만세”, “국왕 폐하 만세” 등을 영어식으로 표현한 것입니다. 다만 영어에서는 이 일을 위해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해 달라는 기원이 안에 들어 있습니다. 하나님이 왕을 구원해 주시면 왕은 만세를 누릴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을 무리하게 하나님이 들어가게 우리말로 번역하면 번역이 아니라 해석 내지는 줄역이 됩니다.

표준역: 이에 사무엘이 모든 백성에게 말하기를, “... 하나님께서 왕을 구원하시기를 바라나이다.” 하였더라.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영어를 살린다고 God을 넣어서 번역하면 우리말에서는 치졸한 번역이 됩니다.

3. God forbid

또한 영어 성경에는 “God forbid”라는 말이 24회 나옵니다.

롬6:1-2, What shall we say then? Shall we continue in sin, that grace may abound? God forbid. How shall we, that are dead to sin, live any longer therein?

그러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넘치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거하겠느냐? 결코 그럴 수 없느니라. 죄를 향해 죽은 우리가 어찌 그 가운데서 더 살겠느냐?

이런데도 그리스 말에는 “God”이 없습니다. 어떤 일이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음을 영어로 표현한 것이 바로 God forbid입니다. 즉, 이것 역시 하나님께서 어떤 일을 금하시기를 원한다는 강한 기원의 표현입니다. 하나님이 무엇을 금하

면 그것은 절대적으로 있을 수 없습니다.

표준역: 그렇다면 우리가 무슨 말을 하겠느냐? 은혜가 풍성해지게 하려고 우리가 죄 가운데 지속적으로 거하겠느냐? 하나님께서 금하시기를 바라노라.

여기서도 표킹처럼 하나님을 넣으면 수준 낮은 번역이 됩니다.

4. God speed

또한 영어 성경에는 “God speed”라는 말이 있습니다.

요이1:10-11, If there come any unto you, and bring not this doctrine, receive him not into your house, neither bid him God speed: For he that biddeth him God speed is partaker of his evil deeds.

어떤 사람이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져오지 아니하거든 그를 너희 집에 받아들이지 말고 그에게 축복 인사도 하지 말라. 그에게 축복 인사를 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위들에 참여하는 자니라.

여기에도 그리스 말에는 “God”이 없습니다. 이것은 여행을 떠나거나 사업을 시작하는 사람에게 성공을 기원하는 인사입니다.

God Speed: The wish that the outcome of someone’s actions is positive for them, typically someone about to start a journey or a daring endeavor. quotations

Synonyms: farewell, goodbye, good luck

Related terms: God bless you, God forbid, godsend

그래서 표킹처럼 하면 번역이 아니라 해석이 됩니다.

표준역: 만일 어떤 이가 너희에게 오면서 이 교리를 가지고 오지 않는다면 너희의 집 안으로 그를 영접하지 말고,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기도 말라.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성공하게 해주시기를 기원하는 자는 그의 악한 행실들에 동참자가 되기 때문이라.

표준역의 그럴듯해 보이는 번역에 속지 마시고, 우리말을 제대로 번역한 상식적인 성경을 읽고 또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

21

히브리식 표현과 우리말 번역을 착각하는 일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쪽 읽다 보면 문단이 시작되는 부분에 ‘It came to pass’, ‘it shall come to pass’ 등의 구가 있는 것을 쉽게 볼 수 있습니다.

- It came to pass: 453회, It shall come to pass: 120회

표킹 번역자는 이것을 해설해서 첨가하고는 흠정역 성경이 무려 2,000단어를 삭제하였다는 거짓말을 합니다. 그들이 예로 든 것은 스가랴서 13장 2절입니다.

속13:2, And it shall come to pass in that day, saith the LORD of hosts, that I will cut off the names of the idols out of the land, and they shall no more be remembered: and also I will cause the prophets and the unclean spirit to pass out of the land.

흠정역: 군대들의 **주**가 말하노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표준역: 그리고 만군의 주가 말하노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지역에서 끊겠노라. 그리하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아니하리라. 그리고 내가 예언자들과 불결한 영을 그 지역에서 사라지게 하겠노라.

영어 문장을 보면 그것은 **It shall come to pass... that...**의 형태이며 이것은 that 이하의 일이 생길 것이라는 구문임을 누구라도 알 수 있습니다.

표킹 번역자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을 믿으므로, -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께서 1611년에 영어로 원본을 또다시 주셨다는 식으로 믿으므로 - 영어의 모든 글자를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난센스를 수도 없이 범합니다.

여기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표킹은 It shall come to pass를 번역하느라 ‘그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라는 해설을 달아 놓았습니다. 이것은 **번역이 아니고 해설인데 해설 자체도 잘못되었습니다.**

표킹대로 믿으면 그날에 생기는 일은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들을 그 지역에서 끊겠노라’ 하나밖에 되지 않습니다. 그다음의 일은 **그날에** 생기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말 구조가 그렇습니다. 보면 금세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흠정역은 그 날에 세 가지가 생깁니다. ①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②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③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

이렇게 되어야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어떤 문단의 it came(shall come) to pass... that... 구절에서 that 이하의 일이 여러 가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표킹처럼 ‘이런 일이 있었으니’식으로 하면 that 이하의 여러 일 가운데 처음 것만 **이런 일에** 해당합니다. 영어 KJV 번역을 하면서 수백 번 나오는 이것을 30년 동안 성경을 번역한 번역자가 몰라서 번역을 하지 않았을까요?

이런 히브리식 표현을 우리말 번역에서 그대로 가져오면 이런 혼란과 부정확

함이 생기기 때문에 흠정역을 포함한 모든 한글 성경들이 표킹처럼 하지 않는 것입니다. 여기에 나오는 It shall come to pass는 히브리 말 하야(스트롱 번호 1961) 한 단어를 영어로 번역한 것인데 하야는 단순히 존재하다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표킹처럼 ‘이러한 일이 있으리라’라는 단어 자체가 그 안에 없습니다.

그냥 ‘하야’라는 원어가 영어 번역에서 영국 사람들이 쓰는 방식대로 ‘And it shall come to pass’로 번역된 것입니다.

다른 식으로 말하면, 혹은 지금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영어 시간에 배우는 방식으로 번역하면 이렇게 됩니다.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는 일이 그날에 있으리라는 것입니다.

물론 여기의 it은 that 이하의 모든 것을 뜻합니다.

이것을 우리말답게 표현하면 흠정역처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가 되는 것입니다. 모든 한글 성경이다 이릅니다.

이것이 정상적인 번역입니다. 히브리어와 그리스어 그리고 영어의 문법 구조와 우리말의 문법 구조가 똑같습니까? 우리말 성경의 독자들은 한국 사람들이기 때문에 한국 사람들이 정상적으로 논리적으로 이해할 수 있는 방식으로 글을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러면 왜 영어로는 저렇게 번역되었을까요?

영어로는 저렇게 하는 것이 **그들의 문법에** 맞기 때문입니다. 우리가 중고등학교에 가면 It... that... 구문을 얼마나 많이 봅니까? 그런 구문은 그들의 말을 영어로 표현하는 방식입니다.

it shall come to pass에서 shall은 미래를 가리키는 단어입니다. 그러면 스

가라서 13장 2절의 문맥을 볼 때, 그 날에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라는 해설을 넣어 초등학교 수준의 글이 되도록 해야 할까요? 아니면 미래를 나타내는 말로 that 이하가 다 미래가 되게 해야 할까요?

흡정역처럼 “그 날에 내가 그 우상들의 이름을 그 땅에서 끊어 그것들이 더 이상 기억되지 못하게 하며 또한 대언자들과 부정한 영을 그 땅에서 사라지게 하리라.”로 하면 It shall come to pass의 shall이 다 살아나지 않습니까?

그런데 표킹은 약 500여 군데서, 이런 일이 있으리니, 이런 일이 있었으니 등의 해설을 집어넣었습니다. 창4:14도 비슷합니다.

Behold, thou hast driven me out this day from the face of the earth; and from thy face shall I be hid; and I shall be a fugitive and a vagabond in the earth; and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 one that findeth me shall slay me.

여기의 끝에는 it shall come to pass, that every one that findeth me shall slay me.라는 말이 있습니다. 굳이 중학생들 방식으로 이것을 직역하면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는 일이 있으리이다’가 될 것입니다.

그러나 전체의 문맥을 고려해서 이야기가 끊기지 않게 하려면 흡정역처럼 되어야 하고, 그래서 한국의 모든 성경들이 이런 식으로 번역하였습니다.

흡정역: 보소서, 주께서 이날 지면으로부터 나를 쫓아내셨으니 내가 주의 얼굴을 떠나 숨으리이다. 내가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되리니 나를 찾는 모든 자가 나를 죽이리이다, 하매

표준역: 보소서, 당신께서 이날에 땅의 표면에서 저를 몰아내셨나니, 저는 당신의 얼굴로부터 숨겨질 것이며, 저는 땅에서 도망자와 방랑자가 될 것이옵니다.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

보시다시피 표킹은 “그리하면 이러한 일이 있으리니, 저를 발견하는 모든 자마다 저를 살해할 것이옵니다.”라고 하여 해설을 하면서 지저분하게 불필요한 것들을 집어넣었습니다. 이렇게 하고는 표킹 번역자는 교묘하게 요한복음 14장 29절의 come to pass를 언급합니다.

요14:29, And now I have told you before it come to pass, that, when it is come to pass, ye might believe.

홍정역: 그 일이 일어나기 전에 지금 내가 너희에게 말한 것은 그 일이 일어날 때에 너희가 믿게 하려 함이라.

여기를 보면 홍정역이든 무슨 역이든 한국의 모든 성경들은 it come to pass를 ‘그 일(그것)이 일어나다’로 번역하고 있습니다. 표킹 번역자는 이것을 보여 주면서 여기서는 come to pass를 ‘일어나다’로 번역하고 구약의 500여 군데에서는 왜 그렇게 번역을 안 했느냐고 주장합니다.

이것은, 즉 자기는 영어 그대로 번역했고 다른 성경들은 500군데(약 2,000개 단어)를 삭제하였다는 주장입니다. 그래서 표킹이 우수하다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come to pass로 번역된 그리스어 기노마이는 신약 성경에 600여 군데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 말은 ‘was done(마1:22)’, ‘be made(마 4:3)’ 등 다양한 의미로 사용되었습니다.

그리스어 사전을 보면 이 단어의 뜻과 용례가 다음처럼 다양하게 나와 있습니다.

기본 동사의 연장형과 중간태: (‘발생하게’)되는 원인이 되다, 즉 (재귀형)되다 (‘되기 시작하다’), (문자적으로, 상징적으로, 강조의 의미로) 아래와 같이 폭넓게 사용됨; 일어나다, 모이다, 되다, ~에 일어나다, 스스로 행하다, (지나가기 위해) 가져오다, (지나가기 위해) 오게 되다, 계속하다, 나누이다, 되어졌다, 끌어내다,

끝맺게 되다, 떨어지다, 끝내다, 따르다, 발견되다, 이루어지다, 하나님이 금하시다, 자라다, 일어나다, 가지다, 지키다, 만들다, 결혼하다, 되도록 정해지다, 착수하다, 지나다, 수행되다, 출판되다, 요구하다, 보이다, 보여지다, 취해지다, 변화하다, 사용하다, ~이 되다, ~일 것이다, ~할 작정이다, 쓰여졌다 <마5:45; 눅1:8; 롬3:19>. to cause to come being into;

요한복음 14장 29절에서 영어 성경 번역자들은 문맥에 맞게 ‘come to pass’라고 번역하였을 뿐이고 흠정역 성경뿐만 아니라 모든 한국어말 성경은 이것을 번역했을 때 그 뜻이 그것이기 때문에 그렇게 번역하였습니다. 다시 말해 표킹 번역자의 말대로 구약 성경 영문과 신약 성경 영문의 원어 구조는 똑같지 않습니다. 다만 영어로 번역할 때는 그렇게 같은 것으로 보일 뿐입니다.

이러니 표킹 번역자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이중 영감설이 얼마나 잘못된 개념입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1611년에 하나님에 의해 또 하나의 향상된 계시로서, 원본으로 주어졌다는 생각에 그들은 부정 관사 a, 접속사 and 하나까지 빼지 않고 다 한국어로 바꿔 봤으니 번역에 얼마나 많은 오류가 있을지 상상이 안 됩니다.^{1 2 3}


표킹 번역자가 아무리 머리를 굴려서 모루를 치려 해도 결국 자기의 망치들만 깨지고 창피만 당할 뿐입니다.

왜냐고요? 그들은 성경을 경홀히 여기기 때문입니다. 구글 번역기나 AI 번역기를 돌리는 수준으로 성경을 번역할 수 있다는 발상 자체가 성경을 막 대하는 것입니다. 그것처럼 쉬운 일이 어디 있습니까?

-
1. 비둘기, 나귀, 개미 등은 여자이고 등잔대, 언약궤, 까마귀 등은 남자인가? 표준역의 문제(2번 글 참고)
 2. And를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해야 한다는 표준 킹제임스의 부적절한 주장(11번 글 참고)
 3. 부정 관사 a를 ‘한’으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다가 하나님을 그릇되게 표현한 표준 킹제임스의 치명적 오류(12번 글 참고)

a는 다 ‘한’으로, and는 다 ‘그리고’로 번역하고, 비둘기, 개미는 그녀로 번역하고는 “하나님이 이렇게 성경을 영어로 주셨으니 우리말 번역이 조금 이상하면 어떠냐, 하나님의 말씀이 중요하지 인간의 말이 이상한 것이 대체 무슨 문제냐?”라고 주장하는 것, 바로 이것이 심히 위험한 생각입니다.

영어 KJV는 하나님께서 보존해 주신 사본들에서 영어로 - 영어에 맞게 - 정확하게 번역한 것입니다. 그렇다고 해서 영어의 모든 구조를 그대로 살려 우리말로 그대로 번역해야 한다는 것은 난센스입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하지 않습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궤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나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딤후2:16-17). 

‘좀’과 ‘좀나방’의 차이를 무시한 오류

성경에는 moth라는 단어가 구약에 7회, 신약에 3회, 총 10회가 나옵니다. 단순히 영한사전에 가서 moth를 찾으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① 나방.
- ② 옷좀나방(clothes ~); (the ~) 《주로 莢》 좀먹음
 - get the ~ (옷이) 좀먹다.
- ③ 《비유적》 등불 [유혹] 에 모여드는 것 [사람]; 경쾌한 비행기.

1번 의미로 좀나방이 있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moth는 2번 용례 뒤의 ‘**좀먹는다**’의 의미를 가진 벌레를 뜻합니다. 예를 들어 표준역은 이사야서 50장 9 절의 moth를 좀이 아니라 좀나방으로 번역을 해야 맞다고 합니다.

Behold, the Lord GOD will help me; who is he that shall condemn me?
lo, they all shall wax old as a garment; the moth shall eat them up.

표준역: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라.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모두 한 의복같이 낡아지리라. 좀나방이 그들을 먹어 치우리라.

반면에 흡정역을 포함한 다른 모든 한국어 성경들은 moth를 좀으로 번역 하였습니다.

흡정역: 보라, 주 하나님께서 나를 도우시리니 나를 정죄할 자가 누구냐? 보라, 그들은 다 옷같이 남아질 것이요, 좀이 그들을 먹으리라.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나무위키에서 좀(곤충)에 대한 정의를 보면 이해가 갈 것입니다.

좀: 곤충강 좀목에 속하는 곤충으로, 지표면 위의 이끼, 낙엽층이나 인가에서 살고 있는 미소동물이다. ‘좀먹다’라는 표현의 어원이다. 대부분 자유 생활을 하며 동작이 기민한 편이다. Nicolettidae과 등의 몇 종은 식물 해충이며 좀과의 대부분은 인가에 살면서 종이, 풀, 직물 섬유, 전분 등을 먹고 산다.

좀 벌레에서 좀먹다는 표현이 나왔습니다. 자, 지각이 있으신 분들이라면 아래 구절들을 읽어 보시고 가만히 생각을 해 보시기 바랍니다.

욘4:19, 진흙집에 거하며 흙에 자기 기초를 두고 좀 앞에서 무너지는 자들이야 얼마나 덜 신뢰하시겠느냐?

욘13:28, 이에 그가 썩은 물건처럼, 좀먹은 옷처럼 소멸하나이다.

욘27:18, 그가 좀같이 자기 집을 짓는데 그것은 파수꾼이 만드는 초막 같으니라.

시39:11, 주께서 불법으로 인해 사람을 책망하여 바로잡으실 때에 그의 아름다움을 좀이 먹은 것같이 사라지게 하시니 분명히 모든 사람은 헛될 뿐이니이다. 셀라.

사51:8, 좀이 그들을 옷같이 먹고 벌레가 그들을 양털같이 먹을 것이나 내 의는 영

원히 있겠고 내 구원은 대대로 있으리라.

호5:12, 그러므로 내가 에브라임에게는 졸같이 되며 유다 집에게는 씩게 하는 것 같이 되리라.


마6:19-20, 너희 자신을 위해 보물을 땅에 쌓아 두지 말라. 거기서는 졸과 녹이 부패시키며 거기서는 도둑들이 뚫고 훔치느니라.

눅12:33, 너희가 가진 것을 팔아 구제하며 너희 자신을 위하여 남지 않는 가방들 곧 하늘들에서 없어지지 않는 보물을 예비하라. 거기서는 도둑도 가까이 오지 못하고 졸도 부패시키지 못하느니라.

이 모든 구절에서 moth는 옷을 먹어 없애고 무언가를 씩게 하고 부패시키는 것으로 묘사되어 있습니다. 성경이 성경을 상식적으로 풀게 하려면 이 모든 구절에 졸을 써야 하지 않겠습니까? 이런 구절들에 졸 대신 졸나방을 넣으면 문맥상 말이 됩니까? 대부분의 사람들 ‘졸’이라면 금방 이해를 하지만, 졸나방이라면 “이게 뭐 소린가?” 하지 않겠습니까? ‘졸먹다’의 기원이 졸이라는 별레임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 국어사전, 졸먹다: 졸이 쓸다.

쓸데없는 말장난으로 허송세월하지 말기 바랍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 그러나 속되고 헛된 말장난들을 피하라. 그것들은 커져서 더욱더 하나님의 성품에 위배되는 것에 이르리라. 그들의 말은 퀘양처럼 파먹을 터인데 그들 가운데 후메내오와 빌레도가 있느니라(딤후2:16-17). 

영어 본문으로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영에 직격탄을 쏘는 대니얼스

표준 킹제임스(이하 표킹) 번역자는 보통 사람들보다 영어를 조금 잘한다고 생각하고는 자기주장을 펼치기 위해 이런저런 사람들의 영상과 글을 문맥 밖에서 자기 마음대로 인용하기를 좋아합니다. 이것은 어려서부터 몸에 밴 습관인 것 같습니다.

다음 영상은 표킹 번역자가 자기주장을 뒷받침하기 위해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미국 칩 출판사의 데이비드 대니얼스(David Daniels)가 킹제임스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해 이야기



한 것입니다.¹ 제목은 “나의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순수합니까?”(How pure is my King James Bible?)입니다.²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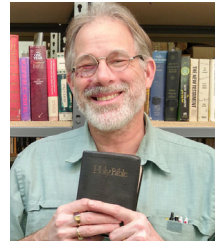
지금까지 흥정역이든 한킹이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한 영어 본문이 가장 순수하다는 말을 해 본

1. 칩 출판사(왼쪽)
2. “How pure is my King James Bible?”(오른쪽)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판을 써도 실제로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대니얼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흙정역 성경이 채택한)이 가장 순수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흙정역 진영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데이비드 대니얼스

이것은 한국에서 표킹 번역자가 1769년 케임브리지 본문이 가장 순수하다고 주장하는 것과 동일합니다. 그런데 아이러니하게도 표킹 번역자가 말하는 1769년 케임브리지 본문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으며 현재 표킹 영어 본문에는 적어도 46개의 에러들이 있습니다.³ 즉, 미국이든 한국이든 킹제임스 영어 본문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슈를 삼는 사람들 - 일종의 불순분자들 - 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니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2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제가 손에 들고 있는 킹제임스 성경이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이 커져 왔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추세가 있습니다. 많은 성경 신자들이 같은 주제로 저에게 고민에 찬 편지를 보내왔습니다:

“제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한 성경인가요? 어떤 킹제임스 성경이 순수한 성경인가요?”

그들은 자신의 킹제임스 성경이 절망적으로 부패했으며, 오직 “퓨어 케임브리지 킹제임스 성경”만 하나님이 축복하실 것이라고 들었습니다. 그런 다음 그들은 차이점 목록(대개 12가지)을 제시하고 그것이 신앙에 심각한 영향을 미친다고 말합니다.

3. 한국에서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만들기(9번 글 참고)

그런데 사실은 그 목록이 그들의 신앙을 망치는 것입니다.⁴

일부 선의의 사람들이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킹 제임스 성경’(줄여서 PCE)이라는 문제를 제기하기 전까지만 해도 그들은 잘 지내고 있었습니다.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습니다. 새 동영상 “나의 킹 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순수한가?”에서 소위 문제가 되는 부분이 전혀 문제가 되지 않는다는 것을 보여 드리겠습니다. 여러분은 걱정할 필요가 없다는 것을 알게 될 것입니다!

여러분이 가진 킹제임스 성경은 소위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과 실제로 똑같이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

이런 의심과 질문에 대해 대니얼스는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퓨어 케임브리지든 결국 총 12구절에서 서로 미세하게 다른 데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합니다.

그러면서 대니얼스는 대소문자 spirit이 다른 6구절, further나 farther나 등을 다루는 한 구절 등 미세한 차이를 보이는 12구절이 사실상 이렇게 하나 저렇게 하나 킹제임스 성경의 순수성에 아무 영향을 미치지 못함을 간단히 설명합니다.

이 영상의 맨 마지막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결론을 내립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킹제임스’나 ‘킹제

4. The Cambridge vs. the Oxford Fallacy!(케임브리지판과 옥스퍼드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 12개 미세 차이)



임스 2', '킹제임스 3', '현대 영어 역본' 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이것은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다만 킹제임스 성경이 아닌 다른 모든 영어 성경은 완전히 다른 것입니다.

So next time somebody says to you, “You don’t have the pure King James Bible.” You can say, “Sure I do. I have the King James Bible, not the ‘New’, King James ‘II’, ‘III’, ‘Modern English’, ‘Restored Name’, Just the King James Bible, God’s preserved words in English. It’s the pure words of God.”

Now any English Bible that’s not the King James, that’s another thing entirely.

표킹 번역자가 언급하기를 좋아하는 리플링거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5 6}

결론


진실한 바이블 빌리버 사역자들은 변개된 성경과 싸웁니다. 하지만 거짓 사역자들은 교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판본들 사이의 차이를 들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판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순수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진리의 표준입니다.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입니다. 끝으로 대니얼스의 영상을 본 어떤 분의 댓글입니다.

표킹 번역자는 정말 나쁜 사람이네요. 영상에서 왜 퓨어 케임브리지 본문을 경계

5. 1769년 가짜 케임브리지판으로 성도들을 혼란에 빠뜨리는 표준 킹제임스(19번 글 참고)

6. 1769년판을 거론하는 것 자체가 무의미한 일이다(17번 글 참고)

해야 하는가로 열심히 증거를 조작하며 떠들더니 끝내는 또 꾸며낸 술수로 밝혀 지네요. 이제껏 보아 온 끝의 결론은 그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증거들을 교묘 하게 조작해서 보여 주며, 돌다리도 두들겨 볼 생각없는 순진한 사람들 마음을 훔치고 선동한다는 것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 씨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롬16:17-18).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은 허구이다: 이런 허구에 직격탄을 쏘는 대니얼스

표준 킹제임스 진영이 이중 영감을 노골적으로 드러내기에 오늘은 영감에 대해 다시 말씀드리려 합니다. 온 세상의 모든 성경 신자들은 웨스트민스터 고백과 런던 침례교 고백에 있는 성경론을 믿습니다. 1647년에 제정된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1조 성경편'의 8항(이것은 런던 침례교 신앙 고백에도 100% 동일하게 기록되어 있음).

우리는 ① 하나님께서 원어 성경기록들을 영감으로 주시고, ② 사상 유례없는 보호와 섭리로 순수하게 보존하셨음을 믿으며 ③ 또한 하나님께서 받으실 수 있도록 바르게 예배드리기 위해 정확하게 원어 성경기록들을 번역해야 한다고 믿는다.

그러니까 성경이 우리에게 전달되는 과정은 영감과 보존과 번역의 세 단계로 구성되어 있습니다.¹ 우리는 이것이 성경에 대한 전 세계 모든 성경 신자들의 바른 견해라고 믿고 이것을 조금 더 설명하려 합니다.

자, 그런데 렉크만을 추종하는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소위 '향상된

1. 영감과 보존과 번역, 그리고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14번 글 참고)

계시'라고 주장하면서 소위 이중 영감(double inspiration)이라는 것을 믿습니다. 이중 영감이란 한 마디로 구약과 신약 자필 원본들의 말씀들이 최초로 주어질 때 한 번의 영감이 있었고, 1611년에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주어졌을 때 다시 한번 그 안의 단어들이 영감에 의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더 구체적으로 말하면 1611년에 또 한 번 영어로 원본이 주어졌다는 것입니다. 웨스트민스터 신앙 고백 등에 따라 사실 거의 모든 정상적인 성도들이 믿듯이 역사 속에서 자필 원본의 단어들만 단 한 차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졌습니다(given by inspiration of God).

처음에 자필 원본 성경기록들이 주어질 때 영어나 우리말이 아니라 히브리 말이나 그리스 말로 단어들이 주어졌기 때문에 이것은 너무나 당연한 것입니다.

inspired와 given by inspiration의 차이

자, 그러면 성경론을 배우는 사람들이 성경에 대한 글(영어로 기록된)을 읽으면 다음과 같이 기록된 데가 많음을 볼 수 있습니다.

A. 내 손에 있는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inspired' 말씀입니다.

The King James Bible in my hand is the God's inspired word.

우리는 이를 어쩔 수 없이 '하나님의 영감을 받은(inspired) 말씀'이라고 번역합니다. 국내의 러크만주의자들은 바로 이것을 미끼로 사람들을 현혹합니다. 주의해야 합니다. 이런 의미의 inspired와 딤후3:16의 given by the inspiration은 다른 말입니다.

B.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딤후3:16)

All scripture is given by inspiration of God

그런데 이 둘을 구분하지 못하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래서 칙 출판사의 데이비드 대니얼스, 리플링거 등 유명한 인사들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inspired**된 것이라고 주장했으니 그들 역시 이중 영감(double inspiration)을 믿는다고 말합니다. 이에 대해 칙 출판사의 대니얼스는 “번역본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Can a translation be inspired?)라는 제목의 동영상²을 만들어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이 이런 혼동에서 벗어나야 한다고 말합니다.

즉, 대니얼스는 이 영상에서 위의 두 예 곧 A와 B의 **inspired**와 **given by inspiration**은 완전히 다르다는 것을 말합니다. 대니얼스는 이런저런 설명을 하고 끝부분(10분 56초 이후)에서 정확히 이렇게 말하였습니다.



1. 만일 여러분이 정확한 번역(역본)을 갖고 있다면 여러분은 아무것도 잃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만일 여러분이 ‘영감을 받은 성경기록들의 정확한 번역본’(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inspired scriptures)을 갖고 있다면 잃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이제 당신은 새로운 언어로 ‘영감받은 성경기록들’(inspired scriptures)을 갖게 된 것입니다.

2. 그러니 만약 여러분이 번역을 정확하게 했다면, 그러면 그 번역본은 ‘다시 영감을 받은 것’(재영감, re-inspired)이나 ‘이중 영감’(double inspiration)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번역본(역본)은 단순히 그 영감(즉, 자필 원본의 영감)을 새로운 언어로 전달할 뿐입니다.

If you have an accurate translation, you have lost nothing.



2. 번역본도 영감을 받을 수 있는가?(Can a translation be inspired?)

So if you have an accurate translation of the inspired scriptures, you have also lost nothing. You now have the inspired scriptures in a new language. And if you have translated correctly, then that translation is not “re-inspired” or double inspiration. It simply carries that inspiration into a new language.

3. 지금은 이것만 기억하세요. “여러분이 지금 여러분 손에 킹제임스 성경, 즉 그리스어와 히브리어로 된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들을 완전히 정확하게 번역한 **킹제임스 성경**을 들고 있다면, 여러분은 여러분의 언어로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 (the inspired words of God)을 갖고 있는 것입니다.

For now remember, holding in your hands the King James Bible, a fully accurate translation of God’s holy words of Greek and Hebrew, you have the inspired words of God in your language.

4.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그 말씀들(단어들)은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것에서 빼거나 거기에 더하지 않았으므로 그것들은 **동일한 영감(즉, 자필 원본의 영감)을 전달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저는 영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 안에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the inspired Word of God)을 가지고 있다고 믿습니다.

They carry that same inspiration since they have not added to or taken away from what God said. I believe that I have the inspired Word of God, translated into English in my King James Bible. God bless you and have a wonderful day.

이보다 더 명쾌할 수가 있습니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에 이중 영감에 의해 주어진 또 하나의 원본이 아니고 자필 원본의 영감이 그대로 전달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이런 면에서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도 동일합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의미의 ‘inspired’를 ‘영감이 있다’, ‘영감이 보존되어 있다’라고 말하며 그런 글을 번역할 때는 어쩔 수 없이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영감받은 말씀(inspired words of God)이라고 말합니다.

결론

심각한 러크만주의자가 아니라면 누구나 데이비드 대니얼스가 말하는 것에 동의할 것입니다.

정확하게 번역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시 영감을 받은 것’(재영감, re-inspired)이나 ‘이중 영감’(double inspiration)을 받은 것이 아닙니다.

그 역본은 단순하게 자필 원본의 영감을 영어로 전달할 뿐입니다.

그리고 그것을 번역한 우리말 흠정역 성경 역시 단순하게 자필 원본의 영감을 우리말로 전달할 뿐입니다. 이중 영감으로 흑세무민하는 자들이 변화를 받아 온전한 진리에 이르기를 원합니다.³ 📖

3. “내가 언제 킹제임스 성경에 영감이 없다고 하였나?”(정동수 목사)



사람들을 속이는 거짓말, 드디어 팩트 폭격으로 쓰러지다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는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 영어 본문을 썼다고 거듭 주장합니다. 그런데 한 분이 케임브리지 대학에 문의한 결과 그러한 판은 존재하지 않는다고 답장을 주었습니다. 다음 영상들을 보시기 바랍니다.



1. 표준 킹제임스 성경의 허구
2. 표준 킹제임스 번역은 가짜입니다.

더 놀라운 것은 표킹 번역자가 족보가 없다, 실체가 없다고 비난하는 1909년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 흠정역 성경이 사용하는 영어 본문 - 이 가장 정확하다고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웹사이트가 증언해 줍니다.

Bibles

Search for keyword, author, ISBN, etc.



■ Include historic titles

> Sign in > Register

[Versions](#)
[Prayer Books](#)
[About](#)
[Alexa Prayer Book](#)
[Home](#) / [Versions](#) / [King James Version](#) / [The Authorised Version of the English Bible 1611](#)

The Authorised Version of the English Bible 1611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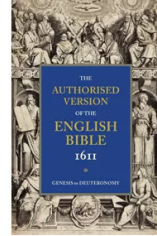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was first published in 1611. Its literary brilliance is well known and its words and phrases have had a unique influence on the English language. Four hundred years on it is still widely used, and is the version of choice for ceremonial Bibles — for example, it is the King James Bible which will be used in King Charles' Coronation ceremony.

There were two printings in 1611, both carried out by Robert Barker, the King's Printer of the day. The first contained a number of errors which were corrected in the second printing, so even the two earliest editions contain many variations.

Most of today's KJV Bibles use a text with hundreds of small changes introduced by editors and printer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 some accidentally, some intentionally. The text commonly available now is actually that of the 1769 revision, not that of 1611.

In 1909, Cambridge scholar William Aldis Wright represented the original text of the first edition in a clear and readable form, together with a list of variations between the two 1611 printings.

Cambridge has reissued that edition as part of its digital reprint programme for classic and



홈정역 성경은 1611년에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그 문학적 탁월성은 잘 알려져 있으며 그 단어와 문구는 영어에 독특한 영향을 미쳤습니다. 400년 동안 여전히 널리 사용되고 있으며 예식용 성경으로 선택됩니다. 예를 들어 킹 찰스의 대관식에서 사용된 것이 킹제임스 성경입니다.

1611년에 두 번의 인쇄가 있었는데, 둘 다 당시의 왕의 인쇄인인 로버트 바커가 수행했습니다. 첫 번째는 두 번째 인쇄에서 수정된 많은 오류를 포함하고 있으므로 두 개의 가장 초기 버전에도 많은 변형이 포함되어 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KJV 성경은 16세기와 17세기에 편집자와 인쇄업자에 의해 일부는 우연히, 일부는 의도적으로 도입된 수백 가지의 작은 변경 사항이 있는 텍스트를 사용합니다. 현재 일반적으로 사용 가능한 텍스트는 실제로 1611년이 아니라 1769년 개정본입니다.

1909년 케임브리지 학자인 William Aldis Wright는 1611년에 인쇄된 두 판 사이의 변형 목록과 함께 초판의 원본을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표현했습니다. Cambridge는 고전 및 이전에 절판되었던 책에 대한 디지털 재인쇄 프로그램의 일환으로 해당 에디션을 재발행했습니다.

The King James Version of the Bible was first published in 1611. Its literary brilliance is well known and its words and phrases have had a unique influence on the English language. Four hundred years on it is still widely used, and is the version of choice for ceremonial Bibles – for example, it is the King James Bible which will be used in King Charles’ Coronation ceremony.

There were two printings in 1611, both carried out by Robert Barker, the King’s Printer of the day. The first contained a number of errors which were corrected in the second printing, so even the two earliest editions contain many variations.

Most of today’s KJV Bibles use a text with hundreds of small changes introduced by editors and printers in the sixteenth and seventeenth centuries – some accidentally, some intentionally. The text commonly available now is actually that of the 1769 revision, not that of 1611.

In 1909, Cambridge scholar William Aldis Wright represented the original text of the first edition in a clear and readable form, together with a list of variations between the two 1611 printings.

Cambridge has reissued that edition as part of its digital reprint programme for classic and previously out-of-print books.

The screenshot shows a product page for the 'Authorised Version of the English Bible, 1611' 5 Volume Set. The page features a navigation bar with links for 'Versions', 'Prayer Books', 'About', and 'Alexa Prayer Book'. Below the navigation bar, there is a breadcrumb trail 'Home / All Titles /'. The main content area includes a book cover image on the left, which depicts a classical scene with figures. To the right of the cover, the title 'Authorised Version of the English Bible, 1611' is displayed in bold, followed by '5 Volume Set'. Below the title, the editor 'EDITOR: William Aldis Wright' is listed, along with the publication date 'DATE PUBLISHED: November 2010', availability status 'AVAILABILITY: Unavailable - out of print', format 'FORMAT: Multiple copy pack', and ISBN 'ISBN: 9780521184786'. A 'Rate & review' button is located below the ISBN. To the right of the book information, there is a 'Multiple copy pack' label and an 'Add to wishlist' button. Below these, a red circular icon with a magnifying glass is accompanied by the text 'Looking for an inspection copy?' and a note: 'This title is not currently available on inspection.' A QR code is positioned at the bottom right of the page.

일반적으로 킹제임스 성경으로 알려진 성경의 승인된 버전은 1611년에 처음 출판되었습니다. 400년 동안 가장 널리 받아들여진 성경 번역본인 1611년 성경은 영어의 고전이 되었으며, 그 원본의 수많은 어구가 표준 관용 영어로 바뀌었습니다. 오늘날 대부분의 판본은 이후의 편집자와 인쇄인에 의해 150년 이상 도입된 철자와 구두점의 보수적인 현대화를 통합합니다. 일반적으로 사용할 수 있는 텍스트는 1611년이 아닌 1769년 개정판입니다. 그해에 왕의 프린터인 로버트 바커가 두 번 인쇄했으며 이 두 호 사이에는 많은 변형이 있습니다. 20세기 초 케임브리지 학자 William Aldis Wright가 제작한 이 에디션은 **원본 텍스트를 명확하고 읽기 쉬운 형태로 정확하고 독특하게 표현하며**, 1611년의 두 인쇄본 사이의 변형 목록은 기존의 팩시밀리 에디션이 제공할 수 없는 기능입니다.

The Authorised Version of the Bible, commonly known as the King James Bible, was first published in 1611. The most widely accepted rendering of the Scriptures for four hundred years, the 1611 Bible has become a classic of the English language, and countless of its original phrases have passed into standard idiomatic English. Most present-day editions incorporate conservative modernisations of spelling and punctuation introduced over a century and a half by subsequent editors and printers: the text that is commonly available is that of the 1769 revision, not that of 1611. There were two printings undertaken by Robert Barker, the King's printer in that year, and there are many variations between these two issues. This edition, produced by the Cambridge scholar William Aldis Wright in the early twentieth century, accurately and uniquely represents the original text in a clear and readable form, together with a list of the variations between the two printings of 1611 – a feature that no conventional facsimile edition can offer.

사실 저는 이런 것을 알지도 못했고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이 가장 정확한 본문이라는 말을 듣고 조사한 뒤 2011년 400주년 기념판 때부터 본문으로 써 왔습니다. 거짓 비방을 예방하기 위해 이것이 이때에 드러나도록 예비된 것 같은 생각이 듭니다.

아시다시피 저는 단 한 번도 영어 성경 본문에 대해 거론한 적이 없습니다. 왜냐하면 어떤 판을 쓰든지 결과에 영향을 미치지 않음을 미국의 학자들과 성경 신자들로부터 들었고 책들을 읽어 알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디도서 3장 9절이 말하듯이 영어 성경 본문 족보 이야기는 무익하며 헛된 짓임이 만천하에 드러나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어리석은 변론과 족보와 논쟁과 율법에 관한 다툼들은 피하라. 그것들은 무익하며 헛되니라.

표킹 환불 가능하다고 함

위 두 개의 동영상 제작자는 표킹 번역자가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영어 본문으로 사기를 쳤으므로 환불이 가능하다고 합니다. 그리고 한 분은 다음과 같이 이야기해 주셨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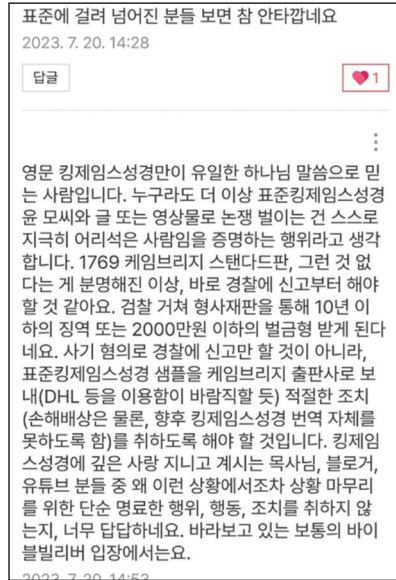
영문 킹제임스 성경만이 유일한 하나님 말씀이라고 믿는 사람이에요. 누구라도 더 이상 표준 킹제임스 성경 윤 모씨와 글 또는 영상물로 논쟁 벌이는 건 스스로 지극히 어리석은 사람임을 증명하는 행위라고 생각해요. 1769 케임브리지 스탠다드판, 그런 것 없다는 게 분명한 이상, 바로 경찰에 신고부터 해야 할 것 같아요. 검찰 거쳐 형사 재판을 통해 10년 이하의 징역 또는 2,000만 원 이하의 벌금형 받게 된다고요.

사기 혐의로 경찰에 신고만 할 것이 아니라, 표준 킹제임스 성경 샘플을 케임브리지 출판사로 보내(DHL 등을 이용함이 바람직할 듯) 적절한 조치(손해 배상은

물론, 향후 킹제임스 성경 번역 자체를 못하도록 함)를 취하도록 해야 할 것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깊은 사랑을 지니고 계시는 목사, 블로거, 유튜버 분들 중 왜 이토록 명백히 드러난 상황에서조차 상황 마무리를 위한 단순명료한 행위, 행동, 조치를 취하지 않는지 정말 너무 답답하네요. 바라보고 있는 보통의 바이블 빌리버 입장에서는요.

감히 묻고 싶어요. 하나님께서 아직도 논쟁이나 하고 있으라고 하실까요? 논쟁하실 시간과 열정으로 경찰 신고부터 하는 것이 보통 사람들의 보통의 대응(그다지 현명하다 할 것도 없는)일 것이라 생각해요.



케임브리지 출판사 이메일

표준 킹제임스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판이 존재하는지, 1909년 퓨어 케임브리지판이 정말로 케임브리지 대학이 출간한 것인지 등을 직접 확인하기 원하시는 분은 다음 이메일 주소로 케임브리지 대학에 직접 이메일을 보내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directcs@cambridge.org

제가 대충 다음과 같이 이메일 샘플을 만들었습니다. 이메일 뒤에 본인 이름만 넣으면 됩니다. 그리고 밑에 있는 그림(표준 킹제임스 영어 본문 페이지)을 다운로드해서 이메일에 붙이면 더 좋습니다.

Dear Sir/Madam:

Greetings in the name of our Lord Jesus Christ!

Today, I have a few things to ask.

1. In 2023, Mr. Yoon published a Korean translation of the King James Bible. In the opening section, he specified that the English text used is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Crown Copyright”.

I checked the Wikipedia and other literatures but could not find such thing as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Crown Copyright”.

I only find 1760, 1762, and (1763) Cambridge editions by Francis Sawyer Parris and 1769 Oxford edition by Benjamin Blayney,

https://en.wikipedia.org/wiki/King_James_Version

Please tell me if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Crown Copyright” exists.

2. He also told in an youtube article that he got the text of the 1769 Oxford edition and modified it according to the Cambridge Standard edition by himself and claims that ‘this self made text’ is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Crown Copyright”.

Please tell me if anyone can make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Crown Copyright” without knowing the changes you have made over the years.

3. He also claims “the so called pure Cambridge edition of 1909” is worse than the edition he made, “The 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Crown Copyright”.

Please tell me if Cambridge ever publish “the pure Cambridge edition of 1909”.

Your website clearly says you did and you said also this is an accurate text for the 1611 King James Bible.

<https://www.cambridge.org/bibles/bible-versions/king-james-version/text-editions/authorised-version-english-bible-1611>

I am looking forward to hearing from you soon.

Thanks and God bless you.

Sincerely

다시는 이 땅에서 이런 악한 일이 생기지 않기를 원합니다. 🙏

악마의 편집을 멈추라

몇 년 전 저는 MBC의 주진우 등이 저의 영상들을 마음대로 짜깁기하여 저를 친일파로 몰아가는 것을 직접 경험하였습니다. 국가 방송통신위원회에서 그것은 거짓이니 그 영상을 고치라고 MBC에게 이야기해도 듣지 않는 것을 보고 좌익들의 세상이 이렇게 돌아가는구나 하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이런 것을 우리는 ‘악마의 편집’이라고 합니다. 영상의 일부분만 자르든지 혹은 앞과 뒤를 바꾸든지 해서 마치 내가 친일파 발언을 한 것처럼 만들어 버립니다.

그런데 표킹 번역자 역시 악마의 편집에 대단히 능한 사람으로 보입니다.

23번 글¹에서 저는 대니얼스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경우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퓨어 케임브리지든 어떤 영어 본문을 써도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와 정확성에 문제가 없다고 말했음을 보여 주었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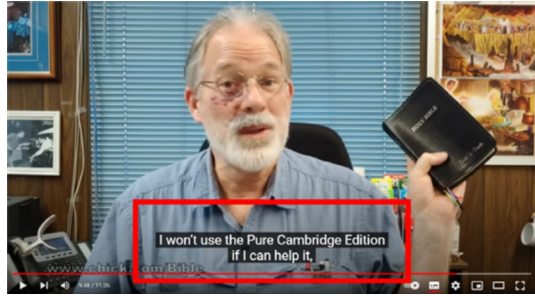
대니얼스의 영상 제목은 “나의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순수합니까?”(How pure is my King James Bible?)입니다.²

1. 영어 본문으로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영에 직격탄을 쏘는 대니얼스 (23번 글 참고)

2. 나의 킹제임스 성경은 얼마나 순수합니까?(QR 코드 참고)



표킹 번역자가 악마의 편집을 해서 성도들을 속이는 대목은 9분 45초 이후를 보면 알 수 있습니다.



9분 48초 : 나는 할 수 있으면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I won't use the Pure Cambridge Edition if I can help it.

표킹 번역자는 딱 이 부분을 보여 주면서 대니얼스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은 사용하지 않겠다고 했으니 그것은 나쁜 것(불완전한 것)이라고 주장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아는 그분은 이 부분만 보고는 우리가 옳지 않고 표킹 번역자가 옳다고 생각하고는 블로그에 그대로 올려놓은 것 같습니다.

이것이 바로 악마의 편집입니다.

대니얼스가 이 영상을 만든 목적은 무엇일까요?

영상 제목이 의미하듯이 대니얼스에 따르면 미국에서 어떤 사람들은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흠정역 성경이 채택한)만이 가장 순수하다고 주장한다고 합니다.

조심하세요: 우리 흠정역 진영에서 이 말을 한 것이 아니라 미국의 어떤 사람들이 미국에서 그렇게 주장한다는 것입니다.

우리는 이런 것을 한 번도 주장한 적이 없습니다.

대니얼스의 이 말은, 즉 미국이든 한국이든 킹제임스 영어 본문의 순수성을

가지고 이슈를 삼는 사람들 - 일종의 불순분자들 - 이 있다는 것입니다.
대니얼스는 이렇게 말합니다.

많은 성경 신자들이 다음과 같은 문제로 저에게 고민에 찬 편지를 보내 왔습
니다.

“제가 사용하는 킹제임스 성경은 순수한 성경인가요? 어떤 킹제임스 성경이 순
수한 성경인가요?”

어떤 사람들이 그들에게 다가가서 오직 “퓨어 케임브리지 킹제임스 성경”만 순
수하다고 그들에게 이야기했기 때문에 이런 질문이 나온 것입니다.

이에 대해 대니얼스는 “이 문제가 정말 심각한 문제일까요? 전혀 그렇지 않
습니다.”라고 말하고 여러 본문들의 차이점 목록(대개 12가지)을 한 개 한 개
설명합니다. 그리고 그런 미세한 것들이 신앙에 전혀 영향을 미치지 않음도 알
려줍니다. 대소문자 spirit 등 총 12개.³

그리고 그는 “여러분이 가진 킹제임스 성경은 소위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
과 실제로 똑같이 훌륭합니다. 하나님께서 그렇게 만드셨습니다.”라고 말합
니다.

또 9분 45초에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러므로 나는 한 개를 제외하고 모든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합니다.

So I use every King James Bible with one exception.

그 뒤에 그는 이렇게 말합니다.

3. The Cambridge vs. the Oxford Fallacy!(케임브리지판과 옥스퍼드판에 대한
잘못된 생각: 12개 미세 차이)



나는 할 수 있으면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그 이유는 그것의 이름, 즉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이라는 이름이 다른 킹제임스 성경들은 순수하지 않다는 것을 의미하기 때문입니다.

I won't use the Pure Cambridge Edition if I can help it. Because by its name, it claims to be pure which implies that other King James Bibles are impure.

다시 말해 대니얼스는 판에 상관없이 킹제임스 성경의 내용에는 전혀 변화가 없는데 본문의 순수함을 자랑하려는 어떤 사람들이 '퓨어 케임브리지판'만 순수하다고 하면서 다른 사람들의 믿음을 깨뜨리므로 자기는 의도적으로 그것을 사용하지 않겠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즉,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에 문제가 있는 것이 아니라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퓨어 케임브리지 등 본문에 아무 차이가 없는데 '퓨어'가 붙은 것을 쓰면 오해가 생길까 봐 자기는 안 쓰겠다고 한 것입니다.

이게 핵심입니다.

그러므로 대니얼스는 퓨어 케임브리지판이 잘못되어서 안 쓴다고 한 것이 결코 아닙니다. 그런데 다음처럼 악마의 편집을 하여 9분 48초만 보여 주면 대니얼스의 의도가 완전히 왜곡되는 것입니다.

나는 할 수 있으면 퓨어 케임브리지 에디션을 사용하려 하지 않습니다.

I won't use the Pure Cambridge Edition if I can help it.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런 의심과 질문에 대해 대니얼스는 정확하게 딱 잘라서 이렇게 말합니다.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퓨어 케임브리지든 결국 총 12구절에서 서로 미세하게 다른 데가 있고 나머지는 동일하다.



이것이 그가 말하고자 한 핵심입니다. 이 영상의 맨 마지막 결론에서 그는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그래서 다음에 누군가가 당신에게 ‘당신이 가진 것은 순수한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에요.’라고 말한다면 당신은 확신을 가지고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물론이죠. 나는 킹제임스 성경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것은 ‘뉴킹제임스’나 ‘킹제임스 2’, ‘킹제임스 3’, ‘현대 영어 역본’ 등이 아닙니다. 내가 가진 바로 이 킹제임스 성경, 이것은 영어로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며 그것은 하나님의 순수한 말씀입니다.”

즉, 이것은 어떤 킹제임스 영어 본문이든 다 순수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입니다.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퓨어 케임브리지든… 킹제임스 성경이기만 하면 된다!

So next time somebody says to you,
“You don’t have the pure King James Bible.”

You can say, “Sure I do, I have the King James Bible, not the ‘New’, King James ‘II’, ‘III’, ‘Modern English’, ‘Restored Name’, Just the King James Bible, God’s preserved words in English. It’s the pure words of God.”

진실한 바이블 빌리버 사역자들은 변개된 성경과 싸웁니다. 하지만 거짓 사역자들은 교리적인 의미가 전혀 없는 판본들 사이의 차이를 들어 영어 킹제임


스 성경의 판끼리 싸움을 붙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순수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모든 판은 진리의 표준입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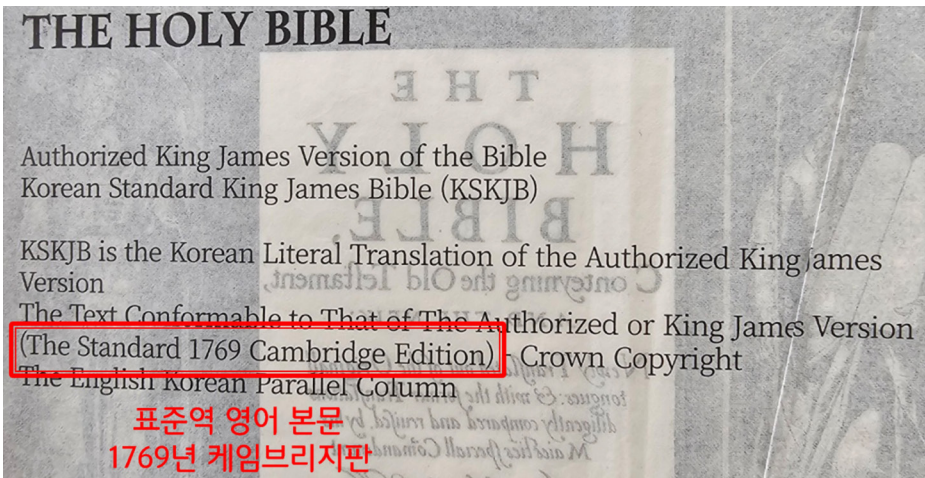
이것이 바이블 빌리버의 믿음입니다.

지금까지 흠정역이든 한킹이든 우리나라에서는 어느 누구도 단 한 번도 우리가 사용한 영어 본문이 가장 순수하다는 말을 해 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는 어떤 판을 써도 실제로 내용이 동일하기 때문입니다.

형제들아, 이제 내가 너희에게 간청하노니 너희가 배운 교리에 역행하여 분쟁을 일으키거나 걸려 넘어지게 하는 자들을 주목하고 그들을 피하라. 그런 자들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섬기지 아니하고 자기 배를 섬기며 좋은 말과 빼어난 말씀 서로 단순한 자들의 마음을 속이느니라(롬16:17-18). 

케임브리지 출판사의 공식 답변: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은 없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는 영어 성경 번역의 저본으로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을 사용했다고 밝히고 그것만이 순수하며 한글 킹제임스나 흠정역 킹제임스 성경에 쓰인 영어 본문들은 순수하지 않다는 주장을 지난 3개월 동안 줄곧 펴 왔습니다.



집요하게 흠정역 성경을 대적하며 비방과 공격을 하므로 하는 수 없이 몇 사람이 조사를 했고 그 결과 표킹 번역자가 말하는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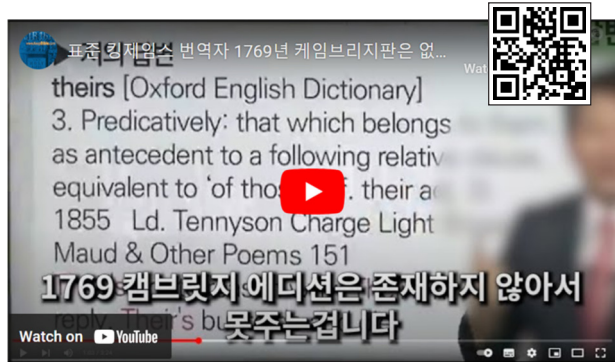
은 이 세상에 존재하지 않음이 확인되었고 결국 표킹 번역자는 1769년 옥스퍼드판 영어 본문을 구하여 거기에서 자기가 마음대로 변경 작업을 하여 소위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이라는 것을 만들었다고 다음과 같이 실토하였습니다.

케임브리지판은, 케임브리지는 텍스트를 잘 안 줘요. 그래 가지고 그냥 인터넷에 있는 걸 자꾸 긁어야 되는데 너무 오래 걸립니다. 삼만 천백두 구절, 삼만 번을 못하기 때문에 1769년판 텍스트는 있어요. 옥스퍼드판. 그래서 그 텍스트를 가지고 입력해서 이 케임브리지판에 맞춰서 수정할 부분을 다 수정했어요. 그런데 하나가 간과했던 게 어퍼스트로피 s('s)를 빼는 거였네요. 이거는 잘 찾아 주셨습니다. 3판 나올 때 빼겠습니다. 그런데 이건 오류가 아니라 원래 19세기의 문법입니다. 오류가 아닙니다.

위에서 보듯이 표준역 번역자는 자기가 '1769년 옥스퍼드판'을 구해서 그 안의 영어 단어들을 자기 마음대로 고쳤다고 합니다. 그러면 이것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닙니다. 더욱이 케임브리지 출판사는 영어 본문을 주지 않는 데 무엇을 근거로 1769년 옥스퍼드판을 고칠 수 있을까요?¹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 1769년 케임브리지판은 없다고 이실직고, 직접 들어 보세요.

그런데 그리고 나서도 반성은커녕 계속해서 표킹 번역자와 지지자들



1. 한국에서 표준 1769 케임브리지 에디션(Standard 1769 Cambridge Edition) 만들기(9번 글 참고)

은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이 있다고 주장하므로 몇몇 사람들이 직접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 이메일을 보내 그런 판이 존재하는지 여부를 물었습니다. 그러자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에서 다음과 같이 공식 답장을 보내왔습니다.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의 공식 답장

소위 ‘Cambridge 1769 Standard Bible’ 또는 이러한 용어의 조합을 사용하는 것에 대한 다른 질문도 있었습니다. 다시 말하지만, 우리는 케임브리지(대학 출판사)가 그 날짜에(1769년에) 텍스트에 대한 특정 편집 작업을 수행한 기록이 없다는 것을 분명히 말할 수 있습니다. 당시에 생성된 텍스트에 대한 주요 편집 작업은 블레이니(Benjamin Blayney)가 수행했으며 Oxford University Press 에서 출판했습니다. 케임브리지는 결국 상당한 시간이 지난 후 이 텍스트 개정판(1769년 옥스퍼드판)을 채택했고 그 결과 두 출판사에서 사용된 텍스트는 19세기 후반에 가서는 어느 정도 일치선으로 정렬되었습니다(즉, 19세기 말에는 두 출판사가 사용하는 본문이 거의 서로 일치하게 되었고 결국 그 차이는 12개 정도의 미미한 것들임).

Other questions have also been asked about a so-called ‘Cambridge 1769 Standard Bible’ – or using a combination of those terms. Again, we can be clear that there is no record of Cambridge undertaking any particular editorial work on the text at that date: The major editorial work to the text produced at that time was done by Benjamin Blayney and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eventually adopted this textual revision some considerable time later to the extent that the text used by both publishers were *more or less* aligned by the late 19th century.

Other questions have also been asked about a so-called ‘Cambridge 1769 Standard Bible’ – or using a combination of those terms. Again, we can be clear that there is no record of Cambridge undertaking any particular editorial work on the text at that date: The major editorial work to the text produced at that time was done by Benjamin Blayney

and published by Oxford University Press. Cambridge eventually adopted this textual revision some considerable time later to the extent that the text used by both publishers were more or less aligned by the late 19th century.

Bible Department, Cambridge University Press.

Kind regards,

Shani Goldstone

Customer Service Representative

Cambridge University Press & Assessment

Shaftesbury Road, Cambridge, CB2 8EA

지난 30년 동안 대한민국에서 아무도 한 번도 문제 삼지 않던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을 가지고 - 그것도 존재하지도 않는 본문으로 - 지난 3개월 동안 성도들을 괴롭히고 킹제임스 성경의 권위를 격하시킨 표킹 번역자와 주변 지지자들은 이제 어떻게 해야 할지 깊이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

개정(Revision)이라는 말의 두 가지 의미

요즘 어떤 사람들이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판’ 영어 본문이라는 것을 스스로 제조하고 이것 외에 다른 킹제임스 영어 본문은 순수성이 떨어진다는 주장을 폈지만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는 자기들이 그런 판을 만든 적이 없다고 공식적으로 알려 주었습니다.

이미 수차례 말씀드린 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 본문은 크게 옥스퍼드 대학에서 출간하는 성경에 쓰이는 본문(옥스퍼드판)이 있고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간하는 성경에 쓰이는 본문(케임브리지판)이 있습니다.

이것들은 둘 다 1769년에 옥스퍼드 대학에서 만든 본문에다 그 뒤 시간이 지나면서 영어 철자법 등이 고정됨에 따라 미세한 부분들이 변한 것들을 포함하고 있고 신구약 성경 전체에서 12군데 정도 미세한 차이가 있습니다.

그러나 칩출판사의 대니얼스를 포함한 대다수 성경 신자들이 글로 밝히고 영상으로 보여 준 대로 이 12개의 미세한 차이는 활자를 세팅할 때 생긴 식자상의 오류이지 본문에 영향을 미치는 변개 사항이 아닙니다.¹

1769년 이후 오랜 시간이 지났지만 옥스퍼드든 케임브리지든 이 12개를 통

1. 영어 본문으로 무익한 논쟁을 일으키는 사람들 진영에 직격탄을 쏘는 대니얼스(23번 글 참고)

일하려는 시도를 하지 않았고 그 결과 판본에 따라 이런 미세한 차이가 여전히 남아 있습니다.

개정(revision)과 판(edition)에 대해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1611년 5월에 처음 인쇄되었습니다. 그런데 당시에는 독일체가 쓰였고 정서법이 지금과 달랐으며 또 500만 개의 활자를 수작업으로 심어야 했으므로 인쇄된 초판에는 여러 개의 명백한 오류들이 있었습니다.²

어떤 사람들은 이런 오류들을 가지고 킹제임스 성경을 폄하하려 하지만 이것은 지금부터 400년 전의 인간의 기술로는 극복할 수 없는 문제였습니다. 성경을 인쇄하기 위해 500만 개의 활자를 일일이 손으로 심는 것, 이것은 지금 하라고 해도 여전히 오류가 생길 수밖에 없는 문제입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발간의 가장 중요한 점은 하나님께서, 이전까지 무려 1,000년 이상 중세 암흑시대를 지배하던 천주교 소수 본문 성경이 더 이상 활개를 치지 못하도록 1611년에 다수 본문에서 나온 킹제임스 성경을 세상의 모든 교리, 신조, 신학, 복음 선포의 도구로 쓰시기로 하셨다는 것입니다. 그 일이 지난 400년 동안 역사에서 일어났고 킹제임스 성경은 적어도 십억 권 이상 인쇄되어 온 세상을 덮었습니다. 이런 책은 인류 역사에서 단 한 권도 없습니다.

이것이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출간의 가장 중요한 핵심이고 인쇄상의 오류들은 당시 인간들의 기술로는 해결할 수 없는 한계였습니다.

그러나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이 살아 있는 동안 그들의 자필 원고가 있었으므로 곧바로 대조 작업을 통해 교정 작업이 철저히 이루어졌습니다.

그런데 영어 철자법은 계속해서 변했습니다. 예를 들어 tread(밟다)의 과거 분사인 trodden은 처음에 troden으로 쓰이다가 후에 지금처럼 trodden으로

2. 1611년판 킹제임스 영어 성경 교정 역사(1번 글 참고)

고정되었습니다. 약 150년의 시간이 지나면서 1760년과 1762년에 케임브리지 출판사에서 교정판을 출간했고 1769년에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교정판을 출간하였습니다.

미국이나 영국 사람들은 이렇게 교정된 성경이 출간될 때 대개는 두 가지 용어로 이것을 표현합니다.

하나는 판(edition)이라는 말입니다. 예를 들어 1611년에 킹제임스 성경이 처음 인쇄되었을 때 우리는 이것을 1611년판이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1611년에는 두 번 인쇄가 되었으므로 1611년 1판과 2판이 있습니다.

다른 하나는 개정(revision)이라는 말입니다. 1760년대에 가장 유명한 판은 블레이니가 옥스퍼드에서 만든 옥스퍼드판(Oxford edition)입니다. 오랜 시간 뒤에 케임브리지 출판사도 이 판을 사용하고 자기들의 미세한 교정들을 더해 출간하면서 19세기 말에는 옥스퍼드 출판사에서 출간하는 성경이나 케임브리지에서 출간하는 성경이 거의 모든 부분에서 일치하게 되었습니다.

재미있는 이야기를 하려고 합니다.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판’ 영어 본문의 우수성을 주장하던 사람들이 자기들의 말이 거짓으로 드러나자 어떻게든 ‘1769년 케임브리지 표준판’이 있다는 것을 증명하기 위해 백방으로 노력하던 중 미국 이베이에서 올린 글과 성경을 보게 되었습니다. 그랬더니 거기에 1769년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출간한 킹제임스 성경이 있음을 보고는 매우 좋아했습니다.

그런데 그것은 1769년판이 아닙니다. 케임브리지 대학에서 만든 1762년판을 1769년에 인쇄한 것입니다. 그러니까 판은 그 판이 만들어진 해에 출간되고 그 이후에도 계속 출간될 수 있는데 영어 성경에 적혀 있는 연도는 판이 처음 출간된 연도가 아니라 그 판이 인쇄된 연도입니다.

그런데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그리고 킹제임스 성경을 반대하는 사람들 중에서 몇몇 사람들은 종종 1769년판을 1769년 개정본(1769

revision)이라고 부릅니다.

옥스퍼드 사전에 가서 영어 revise를 찾아보면, 1. 여러 차례 반복적으로 본다, 2. 다시 보다, 3. 향상이나 교정을 위해 자세히 보거나 읽는다 등의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1.1 intr. To look again or repeatedly at, to look back or meditate on, something. Obs.

†2.2 trans. To see or behold, to look at, again.

3. a.3.a To look or read carefully over, with a view to improving or correcting.

그러면 1769년 개정본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을까요?

먼저 1611년판과 비교해 보면 150년의 기간 동안 영어 철자가 고정되면서 철자가 바뀌었습니다. 가장 쉽게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과거에 우리나라는 Corea로 불리다가 일제 식민지 시대부터는 Korea로 불리기 시작하였습니다.

자, 그러면 이것은, 첫 글자가 C에서 K로 바뀌었으니 개정된 것(revision)이 맞습니다. 그런데 두 개를 읽어 보면 동일하게 코리아로 읽히고 누구라도 역사를 아는 사람이라면 1900년 초반까지는 Corea로 쓰이다가 그 이후에 Korea로 쓰였다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인쇄상에서는 분명히 개정되었으나 읽는 측면이나 내용 면에서는 전혀 개정된 것이 없습니다.

옥스퍼드나 케임브리지 대학 출판사 등이 1769년판을 1769년 개정본이라고 부르는 것은 철자 등이 바뀌어서 인쇄된 것을 말할 뿐입니다. 그래서 철자상 변화가 있으니 개정본이라고 불러도 문제없습니다.

바로 이것이 1611년판과 1769년판의 차이입니다. 1769년판은 인쇄상으로는 분명히 변화가 되었지만 내용은 단 하나도 변화가 되지 않았습니다.

얼마 전에는 캐나다의 어떤 목사가 **제가 킹제임스 성경이 개정된 적이 없다고 거짓말을 한다고** 울분을 토하며 대노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대체 그분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아는 게 무엇일까요? 저는 적어도 35년 이상 동안 킹제임스 성경만 들고봤습니다. 객관적인 정보를 다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즘은 위키백과를 통해 거의 모든 것이 적나라하게 드러나 있습니다. 그분이 대노를 표출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에 대한 적개심과 저에 대한 적개심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어떤 사람이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된 적이 있나요?”라고 물을 때 우리는 그 사람의 의도를 잘 파악해서 답을 해 주어야 합니다.

단순히 인쇄상의 변화를 의미하는 개정이 있었는지를 묻는 것으로 판단되면 “그렇습니다.”라고 답하면 됩니다.

그런데 인쇄상의 변화가 아니라 내용 면에서도 변화가 있는 것으로 생각하고 우리를 공격하려 하면 “개정이 없었습니다.”라고 말해야 합니다. 그것이 사실이기 때문입니다. 이렇게 묻는 사람들의 의도는 킹제임스 성경도 개정되었으니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 아니라는 것을 주장하려는 것입니다.

제가 강단에 서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습니다!”**라고 외칠 때는 당연히 지난 400년 동안 내용 면에서 단 하나의 변화(개정)가 없었다고 말하는 것입니다.

이것이 역사와 하나님 앞에서의 진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울분을 토하는 목사들에게 일일이 대답하는 것이 사실 불필요한 일이지만 순진한 사람들은 이런 데 빠질 수 있으므로 위에서 설명한 대로 대답해 주시면 좋을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 킹제임스 성경을 사랑하는 성도들에게 우리 주님의 한량없는 은혜가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 시 단수 복수 처리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존의 개역 성경(소수 사본)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한 킹제임스 성경(다수 사본)을 출간하는 것(본문 문제, 번역자 사상 문제, 번역 기법 문제, 맞춤법 문제, 4복음서 대조 등)
2. 딤후3:17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경을 내는 것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30년의 번역과 교정을 통해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영어(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통 사람들의 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고자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의 구조상 차이로 인해 어떤 곳은 영어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딴후3:16-17을 이루는 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 그중 하나는 단수 복수 문제입니다.

복수 문제

1. 팔죽이 팔들의 죽?

창25:34, Then Jacob gave Esau bread and pottage of lentiles; and he did eat and drink, and rose up, and went his way: thus Esau despised his birthright.

이에 야곱이 빵과 팔죽을 에서에게 주매 그가 먹고 마신 뒤 일어나 자기 길로 갔더라. 이같이 에서는 자기의 장자권을 업신여겼더라.

영어에는 팔죽이 pottage of lentiles로 되어 있는데 복수를 살려서 이것을 번역하면 ‘팔들의 죽’이 됩니다. 하지만 이런 경우 팔죽이라고 해야지 복수를 살린다고 팔들의 죽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팔빙수도 팔들의 빙수라고 하면 안 됩니다. 팔죽과 팔빙수라는 말에 이미 여러 개의 팔이 들어가 있음이 분명하기 때문입니다.

2. 선한 행위(good works) 등 단복수 처리

딤후2:14, Who gave himself for us, that he might redeem us from all iniquity, and purify unto himself a peculiar people, zealous of good works.

그분께서 우리를 위해 자신을 주셨으니 이것은 모든 불법으로부터 친히 우리를

구속하시고 정결하게 하사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 곧 자신을 위한 특별 소유 백성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끝에 **good works**라는 복수 명사가 나오는데 우리는 이것을 선한 행위들이 아니라 선한 행위로 표현하였습니다.

자, 국방부 장관이 연설합니다. “이제부터 우리는 대한민국 군대의 체질을 바꾸어 북한 적군의 침입이 있으면 지체 없이 초토화시켜야 합니다.”

이런 데 나오는 군대에는 사실 육군, 해군, 공군 등 여러 군대가 다 포함됩니다. 이럴 때 단순히 ‘대한민국 군대’라고 하면 그 군대는 대한민국의 모든 군대를 가리킵니다.

“사자는 동물의 왕이다.”라는 말 역시 사자 한 마리가 왕이라는 말이 아닙니다. 그러므로 ‘선한 행위에 열심을 내는 백성’으로 해도 우리말에서는 복수의 의미가 충분히 있습니다.

그런데 구체적으로 **행위들**로 표현하여 각각의 행위를 나열해서 보여 주어야 할 때가 있고 복수 주어를 맞추어야 할 때도 있습니다.

갈5:19-21, Now the works of the flesh are manifest, which are these: Adultery, fornication, uncleanness, lasciviousness, Idolatry, witchcraft, hatred, variance, emulations, wrath, strife, seditions, heresies, Envyings, murders, drunkenness, revellings, and such like:...

한편 육신의 행위들은 명백하며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곧 간음과 음행과 부정함과 색욕과 우상 숭배와 마술과 증오와 불화와 시기심의 경쟁과 진노와 다툼과 폭동과 이단 파당과 시기와 살인과 술 취함과 흥청뭍과 또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

이 경우 복수로 표현해야 뒤의 여러 가지 행위가 살아나고 ‘그것들은 이것들이니... 그와 같은 것들이니라’의 복수와 매칭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경우는 복수를 살렸습니다.

3. 의인화의 단복수

히10:31, It is a fearful thing to fall into the hands of the living God.

살아 계신 하나님의 손안으로 떨어지는 것은 두려운 일이다.

이 경우 영어는 **hands of the living God**으로 되어 있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손으로 단수 처리하였습니다.

사실 하나님은 사람들처럼 손과 발과 다리 등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손, 팔, 입 등을 가지고 있다고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의인화라고 합니다. 그래서 히10:31은 이런 뜻입니다.

살다가 우리(자녀들)가 잘못해서 강한 사람(부모님)의 손에 들어가면 고통을 당하는 것처럼 하나님께 죄를 짓는 자도 하나님에 의해 고통을 당한다는 것입니다.

이런 경우 하나님의 손들로 하면 우리말에 맞지 않습니다. “내 손에 걸리기만 해. 그냥 안 두겠다.”라고 하는 것이 우리말이지 “내 손들에 걸리기만 해. 그냥 안 두겠다.”라고 하면 어색해집니다. 우리는 이런 말을 전혀 쓰지 않습니다.

더욱이 표킹처럼 하나님의 두 손이라고 하여 ‘두’를 임의로 첨가하는 일은 더욱더 유치한 일이 됩니다.

시11:4, The LORD is in his holy temple, the LORD's throne is in heaven: his eyes behold, his eyelids try, the children of men.

주께서는 자신의 거룩한 전에 계시며 주의 왕좌는 하늘에 있도다. 그분의 눈은 사람들의 아이들을 바라보시며 그분의 눈꺼풀은 그들을 단련하시는도다.

히브리어는 같은 것을 반복하는 특성이 있으므로 뒤에 있는 눈꺼풀은 바로

앞의 눈을 반복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사실 우리는 무슨 일을 곰곰이 생각할 때 눈꺼풀을 내립니다(눈을 반쯤 감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눈꺼풀은 하나님이 깊이 우리를 내려다보고 있음을 의인화로 표현한 것입니다. 하나님은 그렇게 사람들을 단련하십니다. 이런데도 굳이 복수를 살린다고 ‘눈들’, ‘눈꺼풀들’이라고 할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유치한 번역이 됩니다.

참고로 개역은 이것을 안목으로 공동과 카톨릭은 눈동자로 번역했지만 이것은 바른 번역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딤후3:17을 이루는데 아무 문제가 없으며 영어 문장을 우리말로 가장 자연스럽게 표현한 것입니다. 이런 것들을 가지고 번역의 정확성을 따지는 것은 어불성설입니다.

번역이란 무엇인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서문에서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말 사용 면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때로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말 용례에 어긋나는 번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 시 수동태 문제

우리말 구조상 어떤 곳은 영어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이번 주제는 수동태를 능동태로 처리하는 문제입니다.

수동태 번역

우리말은 수동태를 거의 사용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영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글에서는 빈번히 수동태가 나옵니다. 그래서 우리는 번역을 할 때 수동태로 해도 문장이 어색하지 않은 경우는 수동태를 유지하고 수동태로 하면 말이 꼬여서 무슨 말인지 알 수 없을 때는 능동태로 하되 첨가된 주어는 이탤릭체로 표기하였습니다.

마6:7, *But when ye pray, use not vain repetitions, as the heathen do: for they think that they shall be heard for their much speaking.*

여기에는 뒤에 **they shall be heard**라는 수동태 구문이 있습니다. 표킹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표준역: 오히려 너희가 기도할 때면, 이교도들이 하듯이 헛된 반복들을 사용하지 말라. 이는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 그들이 생각하기 때문이라.

자신들이 많이 고하여야 ‘**그것들이 들릴 것이라고**’는 오역입니다. they shall be heard의 they는 기도하는 사람들이지 그들이 하는 말들이 아닙니다. 이상하지만 영어 수동태를 살린다고 억지로 번역하면 다음과 같이 될 것입니다.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에 의해]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

‘아버지에 의해’는 바로 위의 6절을 통해 아버지가 기도를 듣는 분이므로 쉽게 유추할 수 있습니다.

흥정역 마6:6, 오히려 너는 기도할 때에 네 골방으로 들어가 네 문을 닫고 은밀한 가운데 계시는 네 아버지께 기도하라. 그러면 은밀한 가운데 보시는 네 아버지께서 네게 공개적으로 보답해 주시리라.

자, 영어 수동태를 살린다고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에 의해] 들어질 줄로 생각하느니라.**”가 되면 이것을 이해할 사람이 대한민국에 있을까요? 수동태에 익숙한 미국 사람들은 아무런 문제가 없습니다.

개역, 카톨릭 성경은 모두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 들어 주시는 줄로 생각한다.”라고 번역하였는데 이런 식이 되면 비문(非文)이 됩니다. 기도를 들어 주는 주체(주어)가 문장에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공동 번역은 “그들은 말을 많이 해야만 **하느님께서 들어주시는 줄** 안다.”라고 하면서 ‘하느님께서’를 넣어 비문이 되는 것을 피하였습니다.

이처럼 어떤 때는 수동태 문장이 우리말 번역에서는 큰 문제가 됩니다.

흡정역은 다음과 같이 능동태로 번역하였습니다.

더욱이 너희는 기도할 때에 이교도들과 같이 헛된 반복의 말을 사용하지 말라. 그들은 자기들이 말을 많이 해야 아버지께서 들으실 줄로 생각하느니라.

이렇게 능동태로 번역하면서 비문을 피하기 위해 ‘아버지께서’를 이탤릭체로 넣어 이것이 첨가되었음을 밝혔습니다.

그러니까 영어 그대로 하라고 하는 말이나 영어 그대로 했다는 말이 듣기에는 좋을지 몰라도 그런 식으로 번역을 하면 우리말 독자들은 전혀 알아듣지 못하는 경우가 빈번히 발생하게 됩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이렇게 번역하기 어려운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꾼다 해도 딴후3:16-17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이와 비슷한 것이 히브리서 5장 7절에도 나옵니다.

히5:7, Who in the days of his flesh, when he had offered up prayers and supplications with strong crying and tears unto him that was able to save him from death, and was heard in that he feared;

여기 끝부분에는 and **was heard** in that he feared라는 문장이 나옵니다. 여기서 He was heard라는 수동태 문장을 보시기 바랍니다. 영어 그대로 번역한다고 하면 “그분께서 들으셨다”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나 우리말에 이런 표현은 없습니다. 아무도 알아듣지 못합니다.

개역은 하는 수 없이 ‘그가 들으심을 얻었느니라’로 번역하였는데 이것 역시 이해하기가 불가능한 말입니다. 카톨릭과 공동 번역은 ‘하느님께서는 그 간구를 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제대로 번역하였지만 자기들이 첨가한 ‘하나님께서’를 이탤릭체로 처리하지 않았습니다.

이제 직역을 자랑하는 표준역을 보겠습니다.

표준역: ... 하나님께서 들으셨느니라.

잘 보기 바랍니다. 표킹도 분명히 수동태를 능동태로 바꾸었습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를 넣고 이탤릭체로 표기합니다. 이유는 심히 간단합니다. 수동태로 번역하면 우리말이 안 되는 것을 그들도 알기 때문입니다.

흠정역을 보겠습니다.

히5:7, 그분께서는 친히 육체로 거하시던 때에 자기를 사망으로부터 구원할 수 있는 분께 강렬한 부르짖음과 눈물로 기도와 간구를 드리셨고 친히 두려워하셨으므로 하나님께서 그 말을 들으셨느니라.

엄마가 아이에게 무슨 말을 할 때 아이가 '나, 엄마 말 듣고 있어요.'를 영어로 표현하면 'Mom, I hear you.'가 됩니다. 이것을 '나는 너를 듣고 있다.'라고 하면 안 됩니다. 이것은 당신(엄마)의 말을 듣고 있다는 말입니다. 그러므로 이런 문장에서도 그냥 '하나님께서 들어 주셨다.'라고 하면 비문이 됩니다. 그래서 흠정역처럼 **하나님께서 그 말**(간구하는 말)을 들으셨다고 해야 적합한 번역이 됩니다.

다시 이야기하지만 이런 문장에서 불가피하게 수동태 문장을 능동태로 바꾼다 해도 딴후3:16-17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으며 이렇게 해야만 우리말 구조에서는 합당한 번역이 됩니다. 이런 것은 결코 오역이 아닙니다.

하사관이 신병들에게 적지에 들어가기 전에 생존 지침을 열심히 설명한 뒤 "내 말 알아들었어?"라고 하는 것을 영어로 옮기면 어떻게 될까요? 대다수 한국 사람들은 능동태로 "Do you understand me(or what I said)?"라고 번역할 것입니다. 그러나 하사관은 큰 소리로 "Am I understood?"라고 말합니다.

영화에서 이런 대사가 나오면 반드시 “너희들 알아들었어?”라고 번역해야 합니다. “내가 너희에 의해 이해되어졌어?”라고 하면 치졸한 번역이요, 알아듣지 못하는 번역이 됩니다.

유명한 구절 하나를 더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마6:33, But seek ye first the kingdom of God, and his righteousness; and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unto you.

여기의 후반부 ‘all these things shall be added’ 역시 수동태로 되어 있습니다.

개역 등 대다수 성경은 “너희는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라 그리하면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면 역시 뒷부분에 주어가 빠져서 비문이 됩니다.

카톨릭이나 공동은 이를 피하기 위해 “너희는 먼저 하느님의 나라와 그분의 의로움을 찾아라. 그러면 이 모든 것도 곁들여 받게 될 것이다.”로 하여 하나님께서 더해 주시는 것을 우리가 곁들여 받는다고 조금 의역을 했습니다. 이렇게 한 이유는 주어 ‘너희’를 살릴 수 있어 비문이 되지 않기 때문입니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다음과 같이 ‘그분께서’를 이탤릭으로 첨가하여 비문을 피하면서 원래 뜻을 정하려고 하였습니다.

오히려 너희는 첫째로 하나님의 왕국과 그분의 의를 구하라. 그러면 *그분께서* 이 모든 것을 너희에게 더하시리라.

이렇게 어떤 부분에서 불가피하게 수동태 부분을 능동태로 바꾼다 해도 딤후3:16-17을 이루는 데는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사실 흠정역에는 수동태를 그대로 살린 곳도 엄청나게 많습니다.

고전3:10, According to the grace of God which is given unto me, as a wise masterbuilder, I have laid the foundation, and another buildeth thereon. But let every man take heed how he buildeth thereupon.

앞부분에는 **which is given** unto me라는 수동태가 있습니다.

기존 개역 성경 등은 이것을 ‘내게 주신 하나님의 은혜’로 번역하였는데 이것 역시 ‘주신’이라는 동사의 주어가 없어서 비문입니다. 개역성경은 이런 데가 수도 없이 많습니다. 100년 전에는 수동태를 거의 쓰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흠정역 성경은 중고등학교에서 가르치는 대로 ‘내게 주어진’으로 수동태를 살려서 비문을 피하였습니다.

내게 주어진 하나님의 은혜에 따라 내가 지혜로운 주 건축자로서 기초를 놓았고 다른 사람이 그 위에 세우되 저마다 어떻게 그 위에 세울지 주의할지니라.

이처럼 수동태 문장의 번역은 우리말의 번역 가능 여부에 따라 번역자가 정한 규칙에 의해 결정됩니다. 다만 이때에도 딤후3:16-17에 위배되지 않는 선에서 번역이 이루어져야 합니다.

그런데 마6:7, 히5:7처럼 수동태로 번역하면 전혀 말이 안 되는데도 무조건 영어식으로 수동태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대단히 많습니다.

며칠 전에는 어떤 분이 이런 수동태 구절 하나를 이메일로 보내고는 왜 오역을 했느냐고 따지는 일이 생겼습니다. 그것도 극심한 분노를 표출하면서 말입니다. 영어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하면서 직역만을 고집하는 표킹도 이렇게 어쩔 수 없이 수동태를 능동태로 처리한 데가 있다는 것을 기억하기 바랍니다. 다만 우리는 이러면서 절대로 표킹처럼 오역을 하지 않았습니다.

성도 여러분, 킹제임스 성경도 원어에 없는 부분들을 첨가하고 이탤릭체로 표기하였습니다. 이런 곳이 수천 군데 있는 것으로 압니다.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who for the joy that was set before him endured the cross, despising the shame, and is set down at the right hand of the throne of God.

여기서 ‘우리의’에 해당하는 **our**는 첨가된 것입니다. 번역자들이 볼 때 그냥 믿음으로 두면 안 될 것 같아 **our**를 넣어 예수님이 특별히 신약 시대 성도들(우리)의 믿음의 창시자임을 구체화하였습니다.

왜 영어 성경의 이탤릭체는 문제가 없고 우리말 번역에서 필요시 능동태로 바꾸면서 주어를 이탤릭으로 한 것은 문제가 됩니까?

번역이란 무엇인가?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서문에서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말 사용 면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믿습시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때로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말 용례에 어긋나는 번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영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로막는 것이 진짜 문제다

부탁의 말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400년 전 왕정 시대에 왕에 의해 강권적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당시 일반 대중은 사실 번역이 조금 좋으나, 좋지 않느냐를 따질 수 없었습니다. 왕이 제정하였고 또 그것이 보급되는 데도 수십 년 걸렸기 때문입니다. 이러면서 이것은 자연스럽게 하나님의 말씀으로 정착되었습니다.

그런데 지금 우리는 초등학교 때부터 영어를 배웁니다. 그래서 영어에 대해 일가견이 있는 분들이 매우 많습니다. 그러다 보니 우리말 번역을 읽으면서 자기 뜻대로 번역되지 않은 데가 있으면 무조건 핏대를 올리며 오역이라고 합니다. 영어를 조금 읽을 줄 아는 사람이라면 100이면 100 다 무언가 한두 군데는 자기 생각하고 다른 데를 찾을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러므로 모든 사람의 구미에 맞는 킹제임스 성경 역본을 우리말로 내는 것은 이런 면에서 불가능합니다. 그런데 이 문제를 부추기는 목사들이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쓰는 목사들 가운데는 공공연하게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사람들이 많습니다. 심지어 교회에서 설교 시간에도 그런 식으로 말을 한다는 것을 들었습니다. 저는 1주일 전에도 어떤 목

사에게서 그런 글을 직접 받았습니다.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다.”

이것이 사실이라면 한국 사람들에게는 희망이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미국 사람들만의 하나님인가요? 한국 사람들의 하나님은 아닌가요?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다.”

이렇게 주장하는 분들에게 에스겔서나 미가서를 가져다주고 즉시 읽고 해석해 보라고 하기 바랍니다. 단언하건대 영한사전 없이 즉시 번역해서 구약 성경을 쪽쪽 읽을 수 있는 사람은 대한민국 땅에 거의 없습니다. 한두 구절은 가능할지 모르지만 한국말 성경 읽듯이 시원하게 쪽쪽 영어로 읽고 해석할 수 있는 사람이 얼마나 됩니까?

사도행전 전체 28장을 우리말로 정확하게 번역된 흠정역 성경으로 쪽쪽 시원하게 읽는 데는 2시간이면 족합니다. 읽으면서 전체 맥락을 다 정확하게 이해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읽기 시작하면 1주일이 걸려도 대다수 사람들이 읽지 못할 것이며 번역하느라 뒷부분에 가면 앞에 읽은 내용을 다 잊어버릴 것입니다.

대다수 목사들이 자기들도 그렇게 하지 못하면서 “한국말 성경은 절대로 정확할 수 없다.”라고 말하는 이유는 무엇일까요?

흠정역 성경을 예로 들자면 흠정역 성경이 자기 뜻대로 번역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예를 들어 우리는 prophet을 예언자가 아니라 대언자로, prophesy를 예언하다가 아니라 대언하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우리는 replenish를 렉크만의 주장대로 ‘다시 채우다’로 하지 않고 ‘가득 채우다’로 번역했습니다.

왜 이렇게 번역했을까요? 영어 성경과 옥스퍼드 영어 사전 그리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내장 사전이 그렇게 말하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성경을 있는 그대로 번역하고 우리의 생각을 거기에 맞추어야지, 내 생각대로 성경을 뜯어고치면 안 됩니다. 이것이 안 되니까 여러 목사들이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다고 노래하고 다닙니다. prophet의 예를 보기 바랍니다.

출7:1, And the LORD said unto Moses, See, I have made thee a god to Pharaoh: and Aaron thy brother shall be thy prophet.

흠정역: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 니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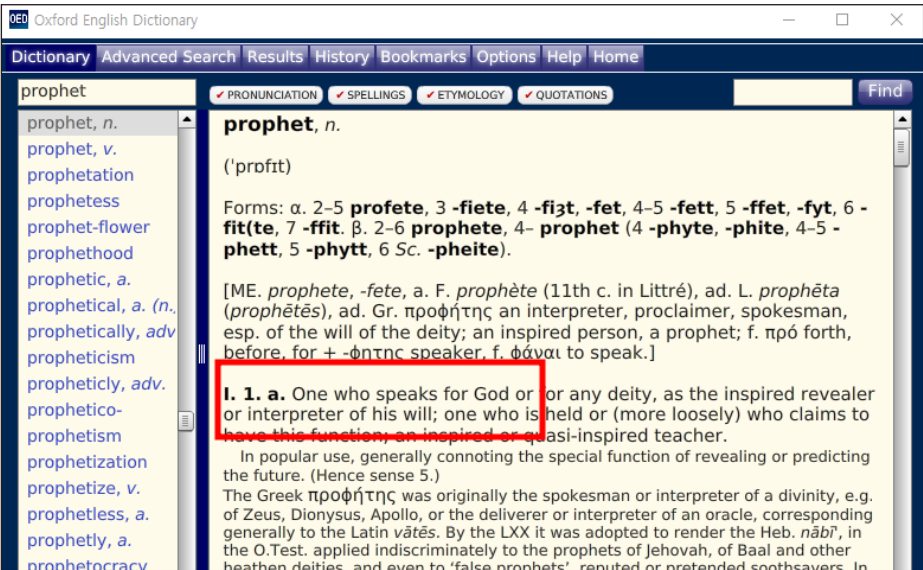
심지어 개역도 대언자라고 하였습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영어 옥스퍼드 사전은 prophet이란 하나님을 대신해서 말하는 자라고 정의를 내립니다.

- Prophet: one who speaks for God

그러니까 대언, 대언자 외의 다른 말은 성경 번역에서 수용될 수 없습니다.



결론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목사들은 하나님의 사람들에게서 성경을 빼앗아 가는 사람들입니다. 대다수 성도들은 영어를 읽지 못합니다. 이런 사람들에게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만들 수 없다. 다 오류가 있다.”라고 말하는 것은 성경을 가져다 버리고 읽지 말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심지어 킹제임스 성경이 없으면 개역성경이라도 매일 읽어야 한다고 믿습니다. “한국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다”라고 말하는 분들에게 묻고 싶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어떤 점이 딴후3:16-17을 이루지 못하는지 말해 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영한사전과 렉크만 주석(그것도 한국말로 번역된 것) 없이는 영어 성경을 읽지도, 해석하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여, 부디 딴후3:16-17을 이룰 수 있는 우리말 성경, 이런 성경을 대다수 성도들의 마음에서 빼앗지 말기 바랍니다. 그것은 목사가 성도들에게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성도들도 그런 목사들이 있으면 “한번 영어를 잘 아는 당신이 번역해 보라.”고 하기 바랍니다. 그들은 한두 구절은 할 수 있을지 모르지만 성경 전체를 번역하지는 못합니다.

끝으로 천부적 탈렌트를 받아 워낙 영어에 능통하여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보여 주지 못하는 미묘한 것들(대개는 주관적인 것들, 복수, 수동태 등)로 인해 불평이 생기는 분들은 영어나 원어 성경을 보기 바랍니다.

이제 끝으로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출간 공지>의 마지막 2항을 보기 바랍니다.

2. 주 번역자인 저를 포함하여 부족한 사람들이 최선을 다해 마제스티 에디션을 출간하였지만 보는 사람마다 흡족하지 못하다고 여길 부분이 있을 것으로 압니다. 또한 이전 판들의 번역이 더 낫게 보이는 경우도 있을 수 있을 것입니다. 다만 우리는 400주년 기념판과 마찬가지로 마제스티 에디션 역시 올바른 본문에서 최대한 우리말답게 정직하게 번역하였으므로 하나님의 사람과 교회가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충분한 성경이라고 감히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¹

이것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출간한 목적이고 우리는 지난 30년 동안 이것을 이루어 왔다고 믿습니다. 왜 30년이나 걸렸을까 곰곰히 생각해 보기 바랍니다. 킹제임스 성경도 1380년경부터 1611년까지 230년에 걸쳐 완성이 되었습니다. 이 사실을 잊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말로 지키는 우리가 됩시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하나님의 은혜와 우리말 사용 면에서 성장하는 우리가 됩시다. 우리말도 잘 모르는 사람들이 “나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 믿습니다.”라고 말하는 것은 난센스 중의 난센스입니다. 그래서 영어 그대로 해야 한다는 말은 때로 위험한 말입니다. 우리말 용례에 어긋나는 번역이 나오기 때문입니다. ☞



1.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출간 공지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번역의 목적과 원칙에 대하여

대한민국은 자유 민주주의 시장 경제 체제 국가입니다. 그러므로 헌법의 테두리 안에서 누가 무슨 일을 하든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 번역도 마찬가지입니다. 누가 어떤 식으로 번역해서 내든지, 또 그것을 읽고 믿든지 안 믿든지 다 개인의 자유 영역에 속합니다.

다만 표준 킹제임스처럼 세상에 존재하지도 않는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라는 본문을 스스로 만든 뒤 - 여기까지는 큰 문제없음 - 이것 외에 다른 본문들은 오류가 많다고 주장하는 것 - 여기에 큰 문제가 있음 - 은 자유 시장 경제 체제에서 소비자들을 현혹시키는 일종의 사기 행위이므로 지적할 수밖에 없습니다.

특별히 그들이 우리가 번역의 저본으로 사용한 1909년 퓨어 케임브리지판은 족보도 실체도 없다고 하는 것 역시 거짓말입니다. 우리는 그쪽에서 온갖 거짓말로 우리 흠정역 성경을 비방하고 폄하하기에 하는 수 없이 진실을 규명하기 위해 조사를 하고 케임브리지 대학에 어떤 사람들은 편지를 쓰고 해서 거짓말을 막고자 하였습니다. 우리가 표킹에 대응하는 이유는 이것 외에 다른 것이 없습니다.

그들이 자기들이 만든 것을 좋아하고 사실 그대로 영어 본문을 ‘제조’했다고

하는데도 사람들이 믿고 따라가는데 더 이상 무슨 말을 하겠습니까?

요즘 이런 문제가 생기는 원인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상으로 숭배하려는 생각 때문으로 판단됩니다. 그러다 보니 영어 그대로 해야 한다고 해서 비둘기가 그녀가 되고 까마귀가 그 남자가 되고 부정 관사 a, 접속사 and, 불공들의 죽처럼 복수를 모두 살리고 심지어 도량형과 인명 지명도 영어처럼 하는 기괴한 일이 생기고 있습니다. 요2:6을 보겠습니다.

And there were set there six waterpots of stone, after the manner of the purifying of the Jews, containing two or three firkins apiece.

표준역: 그리고 거기에는 유대인들 정결 예식의 방식에 따라 돌로 된 물 항아리 여섯 개가 배치되어 있었는데 각기 이 펠킨이나 삼 펠킨을 담을 수 있었다.

‘펠킨’이라는 말은 현재 미국 사람들도 거의 안 쓰는 말입니다. 그래서 목사나 교사가 설명을 해 주거나 용어 사전을 통해 의미를 배워야 합니다. 실제로 이것은 좋은 교육입니다.

이런 일이 다 킹제임스 영어 성경의 이중 영감설에 따른 우상 숭배의 폐해라고 생각합니다. 데이비드 대니얼스 등의 증언을 보기 바랍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다시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고 ‘이중 영감을 받은 것’도 아니며 ‘최초의 영감’이 영어 번역으로 전달된 성경이다.¹

펠킨, ‘불공들의 죽’ 같은 난센스 번역과 관련해서 오늘은 과연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완벽하게 혹은 정확하게 우리말로 번역하는 일이 가능한가를 이야기하려 합니다.

1.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은 허구이다: 이런 허구에 직격탄을 쏘는 대니얼스(24번 글 참고)

심히 순진한 분들이 ‘순수한 영어 본문을 영어 그대로’ 번역했다는 말을 좋아하고 그런 번역이 있다고 하면 우르르 몰려갑니다.

언제가 한번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최종 권위를 주장하는 일단의 사람들이 나타나서 창1:1의 “In the beginning God created the heaven and earth.”에서 ‘in the beginning’을 ‘그 처음 안에서’로 번역한 것을 보고 사실 이해가 되지 않았습니다. 이런 번역을 한 번역자 역시 러크만의 이중 영감설에 푹 빠졌고 철저한 러크만 신봉자가 되었기에 이런 어처구니없는 번역을 시도해서 인쇄까지 한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이런 것을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상 숭배라고 부르고 싶습니다.

표준 킹제임스라는 것도 이런 정도는 아니지만 그것의 번역 원칙과 원리는 거의 동일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이 시점에서 우리는 왜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해서 출간하는가, 그리고 우리말 번역에서 영어나 원어 그대로 번역하는 것이 가능한가, 우리말로는 정확한 성경을 낼 수 없는가, 여기서 정확하다는 말은 무엇인가 등에 대해 생각해 보려고 합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목적

우리는 처음부터 모든 사람을 만족시키는 완벽한 성경을 번역하려 하지도 않았고 또 사실 할 수 있는 능력도 없습니다. 이것은 참으로 이상한 말로 들릴 수도 있지만 여러 가지 중요한 것을 내포하고 있습니다.

영어, 히브리어, 그리스어 등과 우리말은 문법 및 구조가 완전히 다르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처럼 히브리어, 그리스어를 거의 완벽하게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다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이런 불가능을 현실로 받아들이고 우리는 우리말 구조와 문법의 한계 내에서 최대한 성실하게, 정확하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였을 뿐입니다.

우리는 번역을 하면서 항상 영어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서문에 나오는 번역의 정의에 대해 생각하였습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이 될 것이다.

마르틴 루터의 예

마르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일으키고 가장 먼저 한 일들 가운데 하나는 독일어 성경 번역이었습니다. 그가 중요하게 여긴 것은 물론 올바른 본문과 번역의 기술이지만 가장 크게 신경을 쓴 것은 평범한 독일 사람들의 언어로 번역하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는 변장하고 숨어 지내면서 성경을 번역하는 과정 중에 시시때때로 저잣거리로 나가서 당시 시장에서 보통 사람들이 쓰는 언어에 귀를 기울이고 신경을 썼습니다.

당시 독일에는 여러 계층과 지역의 사람들이 쓰는 다양한 형태의 독일어가 있었고 루터는 그중에서 일반 백성들이 가장 널리 쓰는 언어로 번역을 하였습니다. 그 결과 루터의 성경을 읽고 깨달은 수많은 사람들이 변화를 받는 귀한 일이 생겼습니다.

신약 성경 코이네 그리스어

신약 성경 역시 그 당시 세상의 보통 사람들이 쓰던 코이네 그리스어로 기록되었기에 평범한 사람들이 읽고 구원받고 복음을 선포하는 일이 가능하였습니다(당시 그리스어도 여러 종류였음).

에라스무스 라틴어

에라스무스 역시 자기 시대 사람들이 읽고 이해할 수 있는 라틴어 역본을 번역하였습니다.

틴데일 영어 성경

킹제임스 성경의 모체가 된 틴데일 성경을 번역하기 위해 틴데일 역시 어떻게 하면 보통 영국 사람들의 말로 성경을 번역할까 애를 썼으며 그 결과 그의 성경의 60-70%가 킹제임스 성경에 그대로 반영되는 일이 생겼습니다.

예를 들어 그는 히브리서 12장 2절을 번역하기 위해 여러 날을 고민하였고 그 결과 불후의 구절이 생겨나게 되었습니다.

히12:2, Looking unto Jesus the author and finisher of our faith;
우리 믿음의 창시자요 또 완성자이신 예수님을 바라보자.

우리 믿음의 창시자라는 말은 정말 오랜 고민 끝에 나오게 되었습니다.

author를 작가나 저자로 생각하고는 왜 '믿음의 저자'로 번역하지 않았느냐고 말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아닙니다. author의 첫 번째 뜻은 창시자입니다.

1.1 gen. The person who originates or gives existence to anything: a.1.a An inventor, constructor, or founder. Now obs. of things material: exc. as in b.

그리스 단어들의 뜻을 이렇게 고정하면서 성경 단어 개념의 기초를 놓아 준 사람이 바로 틴데일이었고 그는 오직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기 위해 전 인생을 쏟아 부었습니다. 그러므로 성경을 번역하는 시대의 보통 사람들이 알아들을 수 있는 말로 번역하는 것이 가장 중요한 요소 중 하나입니다.

우리말 흠정역 성경은 21세기 대한민국의 중고등학교 학생들이 국어 시간에 배우는 우리말 문법과 용례를 기준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맞춤법 연구를 위해 적어도, 1,000번 이상 국립국어연구원에 질문하였고 수많은 사람들의 교정 의견을 들었습니다.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목적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번역 목적은 크게 두 가지입니다.

1. 기존의 개역 성경(소수 사본)에서 잘못된 부분들을 교정한 킹제임스 성경(다수 사본)을 출간하는 것(본문 문제, 번역자 사상 문제, 번역 기법 문제, 맞춤법 문제, 4복음서 대조 등)
2. 딤후3:17이 이루어질 수 있는 성경을 내는 것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딤후3:16-17).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30년의 번역과 교정을 통해 이 두 가지 목표를 이루려 하였습니다. 이 목표를 이루기 위해 우리는 우리말이 허용하는 한도 내에서 최대한 영어(그리스어, 히브리어)를 그대로 보통 사람들의 말(중고등학교 학생들이 이해할 수 있는 말)로 번역하려 하였습니다.

그런데 말의 구조상 차이로 인해 어떤 곳은 영어와 비교했을 때 차이를 보이는 것들이 더러 있습니다. 미리 말씀드리지만, 이것들은 딤후3:16-17을 이루는데 전혀 지장을 주지 않는 것들입니다.^{2 3 4}

우리 주 예수님의 큰 은혜가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풍성히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

2. 단수 복수(29번 글 참고)
3. 수동태 능동태(30번 글 참고)
4. 부탁의 말씀(31번 글 참고)

원어 성경의 도움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가?… 불가능하다!

일단 답을 드리고 시작합니다.

저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완전함을 믿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의 도움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정확한 번역을 하는 것은 불가능합니다.

1990년대 초에 한국에 킹제임스 성경이 전해진 이후로 킹제임스 성경 진영에 속한 다수의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으로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해 왔습니다. 특별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을 믿는 사람들 가운데는 원어 성경을 철저히 무시하고 영어 성경만 있으면 번역, 해석 등 모든 것이 가능하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이 심히 많습니다. 이것은 선무당이 사람 잡는 것과 비슷한 일로 대단히 우려스러운 일입니다.

지금 이 시간에도 이런 분들은 영어의 원래 뜻이 이렇다 저렇다 하면서 몇 구절을 가지고 여러 사람들을 유혹하여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상 숭배에 빠지게 만들고 있습니다. 그렇게 영어 성경의 모든 것을 다 알면 직접 성경을 내면 좋을 텐데 이런 사람들은 정작 그 일은 하지 못하고 주로 사이버 공간에서 다른 사람이 만든 역본을 가지고 ‘한국말 성경은 부정확할 수밖에 없다’라는 등의

말로 성도들의 믿음을 파괴하는 일을 주업으로 하고 있습니다.¹

12년 전인 2011년에 400주년 기념판을 낼 때까지는 원어 성경을 담은 소프트웨어가 국내에는 거의 없었고 영어 소프트웨어의 경우 폰트가 깨져서 원어를 참조하는 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런데 2010년경부터 디럭스 바이블, 슈퍼 바이블 등의 원어 성경이 한글 윈도우즈에 폰트가 깨지지 않으면서 잘 설치되어 그 이후로는 원어 성경을 자연스럽게 많이 참조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슈퍼 바이블²은 킹제임스 성경의 근간인 그리스어 공인 본문(스테파누스 성경)을 기본 그리스어 본문으로 제공하므로 마제스티 에디션을 교정해서 낼 때에는 정말로 매우 많이 참조하였습니다.

영어에서는 They나 one 등의 성 구별, the 플러스 형용사의 단수 복수, 어떤 단어의 단복수, 같은 단어의 다른 뜻 등이 구분되지 않는 경우가 많습니다. 따라서 단순히 영어만 보고 한국어로 옮기면 대단히 큰 문제를 일으킬 수 있습니다. 이것은 결코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오류가 있다고 말씀드리는 것이 아닙니다. 원어를 영어로 표현하면 그렇게밖에 할 수 없고 그것이 영어로는 완전하지만 영어를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여성인지, 남성인지, 단수인지 복수인지 등을 알기 어려워 영어 그대로 번역하면 오류가 생길 가능성이 많다는 것을 이야기 드린 것입니다.

1. the other

며칠 전에 어떤 분이 마제스티 성경의 마23:23이 잘못되었으니 고치라고 하였습니다.

1. 영어를 조금 안다고 하는 목사들이 킹제임스 성경을 가로막는 것이 진짜 문제다 (31번 글 참고)

2. www.combible.com(QR 코드 읽기)



마23:23: Woe unto you, scribes and Pharisees, hypocrites! for ye pay tithe of mint and anise and cummin, and have omitted the weightier matters of the law, judgment, mercy, and faith: these ought ye to have done, and not to leave the other undone.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아,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대! 너희가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바치면서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등한시하였도다. 너희가 이것들도 행하였어야 하며 다른 것들도 행하지 않은 채 내버려 두지 말아야 하느니라.

그분 이야기는 영어 문장 뒤에 the other가 단수이니 ‘다른 것들’이 아니라 ‘다른 것’으로 바꾸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바로 이런 것이 문제가 됩니다. **other가 단수같이 보이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원어 사전을 보면 이것, 즉 ‘카케이노스’(스트롱 번호 2548)는 중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영한사전을 보면 other는 복수 명사의 앞에 붙어서 ‘다른’을 뜻한다고 되어 있고 단수 명사를 직접 수식하는 경우에는 another를 쓴다고 되어 있습니다.

- other people 다른 사람들(the ~ people)처럼 the가 붙으면 ‘나머지 사람들(전부)’이란 뜻.

마23:23의 경우 원래 the other 다음에는 그 앞에 있는 이것들(these)처럼 things가 나와서 전체적으로 the other things로 표현되어야 하지만 things가 생략된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마제스티 성경처럼 ‘다른 것들’로 해야만 맞습니다. 그래야 ‘박하와 회향과 근채의 십일조’는 ‘이것들’이 되고 ‘율법의 더 중대한 문제들인 판단의 공의와 긍휼과 믿음’은 ‘다른 것들’이 됩니다.

2. two, three, one, any 등의 남성 여성 구분

고린도전서 14장에서 타 언어(방언)를 하는 사람들은 남자여야만 합니다. 타 언어 선물(은사)이 존재하던 당시에 그것은 남자들만 할 수 있었습니다. 고전14:27-28을 보겠습니다.

27 If any man speak in an unknown tongue, let it be by two, or at the most by three, and that by course; and let one interpret.

28 But if there be no interpreter, let him keep silence in the church; and let him speak to himself, and to God.

27절에는 two와 three가 나오는데 이것만으로는 둘 혹은 셋이 남자를 말하는지 여자를 말하는지 영어로는 구분이 되지 않습니다. 끝에 나오는 one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래서 개역성경처럼 두 사람, 세 사람으로 하면 여자들이 타 언어를 말하거나 통역하는 것이 가능해집니다.

그러나 그리스어 성경에는 two, three, one이 모두 남성으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흠정역처럼 남자로 번역해야만 하나님의 뜻이 제대로 나타납니다.

27 만일 어떤 남자가 알지 못하는 타 언어로 말하거든 두 남자나 많아야 세 남자가 순서대로 하고 한 남자는 통역할 것이요,

28 만일 통역하는 남자가 없으면 그는 교회 안에서 잠잠히 있고 자기와 하나님께 말할 것이니라.

29-31절에는 대언의 선물이 나오는데 여기서의 two, three도 모두 남성입니다. 그러니까 타 언어(방언)든 대언이든 이 두 가지는 남자들만 할 수 있습니다. 그래야 34절 말씀이 문맥에서 합당한 말씀이 됩니다.

너희의 여자들은 교회들에서 잠잠히 있을지니 이는 말하는 것이 그들에게 허락되

지 아니하였고 율법도 말하는 바와 같이 그들은 순종하도록 명령을 받았기 때문
이라(고전14:34).

즉, 여자들은 교회에서 얼마든지 이야기(talk, tell)할 수 있으나 남자들 앞
에 서서(즉, 공 예배에서) 권위를 행사하는 말(설교나 기도 등)을 하면 안 됩니
다. 그래서 목사나 집사는 남자만 할 수 있고(딤후3) 미국의 침례교회들은 지
금도 남자만 목사와 집사로 세웁니다.

여자는 전적으로 복종하며 잠잠히 배울지니라. 더욱이 나는 여자가 가르치거나
남자에게 권위를 행사하는 것을 허락하지 아니하노니 여자는 잠잠히 있을지니라
(딤후2:11-12).

3. children

child의 복수인 children은 남성 복수나 중성 복수가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여자인 경우 여성 복수도 될 수 있습니다. 구약 성경에 셀 수 없이 많이 나오는
children of Israel의 children은 남성 복수 명사이므로 이스라엘의 자녀들
이라고 하면 큰 오역입니다. 또한 갈4:28을 보겠습니다.

Now we, brethren, as Isaac was, are the children of promise.

여기서 children은 중성 복수이므로 자녀들이 아니라 ‘아이들’로 해야 더 정
확합니다.

형제들아, 이제 우리는 이삭과 같이 약속의 아이들입니다.

갈4:31도 마찬가지입니다.

그러므로 형제들아, 우리는 노예 여자의 아이들이 아니요 자유로운 여자의 아이들입니다.

4. the firstborn, the same 등 the + 형용사

성경에는 the rich, the poor, the wise, the prudent 등 정관사와 형용사가 결합한 사례들이 수도 없이 많습니다. 정관사와 형용사가 결합되면 단수도 되고 복수도 됩니다.

예를 들어 히12:23을 보기 바랍니다.

To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 which are written in heaven, and to God the Judge of all, and to the spirits of just men made perfect,

피터 러크만, 존 맥아더 등의 유명한 사람들과 킹제임스 온리를 주장하는 미국의 많은 분들은 여기의 the firstborn이 단수로서 ‘처음 나신 분’인 예수님을 말한다고 주장합니다. 그래서 여기의 교회는 ‘처음 나신 분인 예수님의 교회’라고 주석을 답니다. 그러나 원어 성경을 보면 the firstborn은 복수입니다. 그러므로 여기는 ‘처음 난 자들’(신약 교회 성도들)로 구성된 교회를 말합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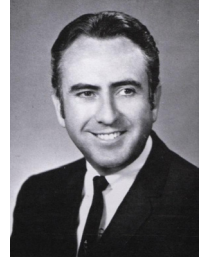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여기서 보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를 충실하게 the firstborn으로 잘 번역하였지만 영어를 보고 한국말로 옮길 때는 반드시 원어를 보고 단복수 구분을 해주어야 합니다.

히2:14의 the same도 마찬가지입니다.

Forasmuch then as the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2011년 400주년 기념판까지 우리는 앨 레이시(Al Lacy), M. R. 디한 등 미국의 유명한 킹제임스 성경 지지자들의 말에 따라 the same을 단수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여기의 the same은 원어로 보면 복수이므로 ‘같은 것들’로 해야 합니다. 즉, 예수님은 살과 피 두 개를 다 가지고 사람의 몸을 입으셨다는 것이 히브리서 기자의 주장입니다.



앨 레이시 목사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욥기, 시편, 잠언, 전도서 등에는 특히 the에 형용사가 붙은 the wise, the poor 등이 많이 나오는데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는 단복수를 구분할 수 없어 400주년 기념판까지는 단복수의 실수들이 여럿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제스티판에서는 이 모든 것을 일일이 확인하여 구분하였습니다.³

벧후3:17을 보겠습니다.

Ye therefore, beloved, seeing ye know these things before, beware lest ye also, being led away with the error of the wicked, fall from your own steadfastness.



3. 욥36:5, 딤후4:1의 the+형용사 단수 및 복수 문제

여기에는 **the wicked**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이 단수가 되면 엡6:16의 사악한 자 곧 사탄 마귀가 되고 복수가 되면 여러 종류의 사악한 자들이 됩니다. 당연히 이것의 영어만 보고는 단복수를 구분할 수 없습니다. 여기는 원어에 따라 복수가 되어야 합니다.

그러므로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이것들을 미리 알고 있으니 그 사악한 자들의 오류에 이끌려 너희도 너희 자신의 굳건함에서 떨어지지 않도록 주의하라.

5. people

중학교에서 배우듯이 people은 한 나라의 백성도 되고 여러 사람들도 됩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이스라엘 백성, 유다 백성 등과 같이 유대인들로 구성된 백성의 의미를 가진 people이 있고 단순히 여러 사람들을 뜻하는 백성이 있습니다. 신구약 성경에는 전체적으로 people이 2,139회나 나옵니다. 그런데 원어가 없으면 이 둘을 구분하기 어려운 때가 생깁니다.

오늘은 신약 성경만 예로 들겠습니다. 원어 성경은 이 두 개의 **people**을 다른 단어로 표기하였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말할 때는 라오스(스트롱 2992)가 사용되었고(마1:21 등), 여러 사람들을 말할 때는 오클로스(스트롱 번호 3793)가 사용되었습니다(마 7:28 등).

그녀가 아들을 낳으리니 너는 그의 이름을 예수라 하라. 이는 그가 자기 백성을 그들의 죄들에서 구원할 것이기 때문이라, 하니라(마1:21).

예수님께서 이 말씀들을 마치시매 사람들이 그분의 교리에 깜짝 놀라니(마7:28)

그러니까 원어를 사용할 줄 알면 원어의 단어들을 일관성 있게 번역할 수 있

Mt 1:21	call his name JESUS: for he shall save his people from their sins.	2992
Mt 2:4	chief priests and scribes of the people together, he demanded of	2992
Mt 2:6	out of thee shall come a Governor, that shall rule my people Israel	2992
Mt 4:16	The people which sat in darkness saw great light; and to them	2992
Mt 4:23	people.	2992
Mt 4:24	and they brought unto him all sick people that were taken with	9999
Mt 4:25	followed him great multitudes of people from Galilee, and from	3793
Mt 7:28	Jesus had ended these sayings, the people were astonished at his	3793
Mt 9:23	ruler's house, and saw the minstrels and the people making a noise	3793
Mt 9:25	But when the people were put forth, he went in, and took her by	3793
Mt 9:35	and healing every sickness and every disease among the people.	2992
Mt 12:23	And all the people were amazed, and said, Is not this the son of	3793
Mt 12:46	While he yet talked to the people, behold, his mother and his	3793
Mt 14:13	desert place apart: and when the people had heard thereof, they	3793

습니다. 그래야 독자는 성경을 정확히 이해할 수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이든 많은 사람들이든 영어로는 둘 다 people이며 people은 두 단어의 정확한 영어 번역입니다. 그러나 영어에서 우리말로 옮길 때는 원어를 참조하여 이 둘을 구분해야만 통일성 있는 번역이 가능해집니다.

6. firstfruits

얼핏 보기에 firstfruits는 복수로 보입니다. 그래서 이것을 꼭 ‘첫 열매들’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많습니다.

롬16:5를 보겠습니다.

Likewise greet the church that is in their house. Salute my well-beloved Epaenetus, who is the firstfruits of Achaia unto Christ.

끝의 그는(who) 단수이고 당연히 그는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입니다. 첫 열매들이라고 하면 안 됩니다. 왜냐하면 원어가 분명히 firstfruits는 단수라고 말하기 때문입니다.

또한 그들의 집에 있는 교회에 인사하라. 내가 매우 사랑하는 에베네도에게 문안하라. 그는 아가야에서 그리스도께 첫 열매가 된 자니라.

고전15:20을 보겠습니다.

But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and become the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여기도 firstfruits는 원어에서 단수이며 그래서 그리스도께서는 잠든 자들의 첫 열매이십니다. 절대로 첫 열매들이 아닙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고전15:23도 마찬가지로입니다.

But every man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ey that are Christ's at his coming.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오,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여기도 ‘첫 열매들’이라고 하면 명백한 오역입니다.

이런 데를 영어를 가지고 첫 열매들로 해야만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있으면 속히 그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들은 무지하거나 영어 킹제임스 성경 송배자입니다.⁴



4. ‘첫 열매들’로 인해 고민한 분의 간증

7. whereby, which 등의 단복수

벧후3:5-6을 보겠습니다.

5 For this they willingly are ignorant of, that by the word of God the heavens were of old, and the earth standing out of the water and in the water: 6 Whereby the world that then was, being overflowed with water, perished:

일단 5절을 보겠습니다.

5 이는 그들이 이 사실 즉 하나님의 말씀에 의해 하늘들이 옛적부터 있었고 또 땅이 물에서 나와 물 가운데 서 있는 것을 일부러 알려 하지 아니하기 때문이라.

6절의 첫 단어는 whereby입니다. 이것은 단수일까요? 복수일까요?

다수의 역본들은 이로 말미암아, 이로써, 그리고 등으로 whereby를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나 원어를 보면 이것은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흠정역처럼 ‘그것들에 의해’라고 번역해야 맞습니다.

6 그것들에 의해 그때 있던 세상은 물의 넘침으로 멸망하였으나

여기의 ‘그것들’은 당연히 5절에 따라 ‘물들’이 되겠지요.

히12:14를 보겠습니다.

Follow peace with all men, and holiness, without which no man shall see the Lord:

이 절의 중간에는 without which라는 구가 나옵니다. which가 단수이면

바로 앞의 거룩함이 될 것이고 복수이면 화평과 거룩함이 될 것입니다. 원어 성경을 보면 which가 단수로 되어 있으므로 흠정역처럼 되어야 합니다.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평과 거룩함을 따르라. 거룩함이 없이는 아무도 주를 보지 못하리라.

결론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원어 성경을 참조하지 않으면 여러 군데에서 부정확한 번역이 나올 가능성이 많습니다. 2011년 400주년 기념판까지는 원어 성경을 철저히, 충분히 참조하지 않았으므로 이런 실수들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마제스티 에디션을 내면서는 이런 모든 것을 일일이 다 살펴서 영어와 원어에 맞는 역본을 내려고 노력하였습니다.

그러므로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을 믿으므로 영어만 가지고 순수하게 영어대로 번역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대개 이런 사람들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상 숭배자입니다.

단복수 등의 문제에서 영어는 절대로 원어를 따라올 수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이런 문제에 있어서는 원어에 순종해야 합니다.


원어 이상을 뛰어넘는 영어 번역은 없습니다.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을 완전하게 영어로 번역한 것입니다. 이 영어 성경을 한국말로 옮길 때에는 **반드시**(100%) 원어 성경을 참조해야만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강조해서 말씀드립니다.

위에서 보여 드린 예에서 드러난 것처럼 어떤 때는 원어를 알아야만 정확한 번역을 할 수 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원어를 깡그리 무시하고 ‘영어’, ‘영어 그

대로 순수하게를 주장하면서 실제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우상 숭배하는 자들(특히 목사들)을 조심하고 피해야 합니다. 그들이 여러분의 영혼을 영어 킹제임스 성경 우상 숭배로 망칠 수 있기 때문입니다.

상식적이고 이해심이 풍부한 성도들이 성경 신자들 가운데 많이 나오기를 바랍니다.

그때에 [그분께서] 그들의 이해력을 넓혀 주사 그들이 성경기록들을 이해하게 하시며(눅24:45) 

첫 열매들(복수)은 오역... 첫 열매(단수)가 맞는다: 동격도 구분 못하는 성경(고전 15:23)

30-40년 전에 피터 렉크만이라는 사람이 뿌려 놓은 잡초 가라지 씨들이 자라서 여기저기서 독소를 뿜어내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원어 성경을 정확히 번역한 것이지 원어를 교정할 수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은 부활의 순서에 대해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각 사람이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그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에 그분께 속한 자들이니라.

But every man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ey that are Christ's at his coming.

이미 20절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로부터 일어나사 잠든 자들의 첫 열매가 되셨도다.

But now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and become the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이런 곳을 보면 영어로는 firstfruits로 되어 있습니다. 이것은 복수가 아니라 영어와 원어에서 단수입니다. 이것을 복수로 번역하면 오역이며 이로 인해 잘못된 교리가 생겨납니다. 이런 것을 복수로 번역하는 데는 두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1. 잘 몰라서
2. 렉크만의 교리를 세우려고

늘 이야기하듯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단수 복수 등을 구분하기 어려운 데가 더러 있습니다. 영어로는 당연히 맞지만 우리말로 번역할 때는 단수 복수 구분을 위해 반드시 원어를 참조해야 할 때가 많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에 수없이 나오는 'the + 형용사'는 단수 복수 구분을 위해 원어를 보아야 할 때가 매우 많습니다. 예를 들어 the wicked가 단수이면 사탄 마귀가 될 가능성이 높고 복수이면 악한 자들을 가리킵니다. firstfruits가 바로 그런 사례 중의 하나입니다. 신약 성경에는 firstfruits가 총 7회 나옵니다.

Reference ^	Context	Lexicon
Ro 8:23	they, but ourselves also, which have the firstfruits of the Spirit, even we	536
Ro 16:5	my wellbeloved Epaenetus, who is the firstfruits of Achaia unto Christ.	536
1Co 15:20	is Christ risen from the dead, and become the firstfruits of them that slept.	536
1Co 15:23	every man in his own order: Christ the firstfruits; afterward they that are	536
1Co 16:15	the house of Stephanas, that it is the firstfruits of Achaia, and that they	536
Jas 1:18	the word of truth, that we should be a kind of firstfruits of his creatures.	536
Rv 14:4	redeemed from among men, being the firstfruits unto God and to the Lamb.	536

이 단어는 스트롱 번호가 536이고 원어 사전에 가면 정확하게 단수로 되어 있습니다. 즉, 이것은 단수 명사입니다. 이것이 단수임은 계시록 14장 4절의

계 14:4

이 사람들은 여자로 더불어 더럽히지 아니하고 정결이 있는 자라 어린 양이 어디로 인도하든지 따라가는 자며
서 구속을 받아 처음 익은 열매로 하나님과 어린 양에게 속한 자들이니

계 14:4

3778	1510	3739	3326	1135	3756	3435	3933	1063
οὗτος	εἰμί	ὅς	μετά	γυνή	οὐ	μολύλω	παρθένος	γάρ
οὗτοι	εἰσι	οἱ	μετά	γυναικῶν	οὐκ	ἐμολύθησai	παρθένoi	γάρ
형형지주남복	동직현능복3	형형관주남복4형형지	적소	명소여복	형부	동직과소복3	명주남복	접종
이 사람들은	라	they which	더불어	여자로	아니하고	더럽히지	정결이	업종
These	are	they which	with	women	not	were-defiled	virgins	for

사 전 원어 성구사전 관 주 사용자 주석 책갈피

536 한 **아팔케**

536 ἀπαρχή aparche {ap-ar-khay'}
575와 756의 합성어에서 유래; 희생물의 '처음', 즉 (유대의) '첫 열매' (상징적으로) <고전15:20;계 14:4>어
명. first fruit;

원어(↑)를 통해서도 알 수 있는데, 고린도전서 15장 23절이 잘 보여 줍니다.

첫 열매인 그리스도시요

Christ the firstfruits;

영어를 보시면 알겠지만 Christ와 the firstfruits는 동격입니다. 그러면 그리스도가 단수이므로 당연히 the firstfruits는 단수여야만 합니다. 20절도 동일합니다. 그리스도가 단수이고 당연히 the firstfruits는 단수입니다.

그런데 링크만 등은 원어를 무시하고 이것을 복수로 가르치는 것 같습니다. 즉, 영어로 원어를 교정하는 것입니다. 이것은 사실 엄밀히 말하면 이단 교리입니다. 잠시 후에 여기서 나오는 이상한 교리를 보여 드릴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보존학회(이하 말보회)의 한킹(한글 킹제임스역)은 이것을 다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한킹 고전 15:23, 그러나 각자 자기의 서열대로 되리니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요, 그 다음은 그리스도께서 오실 때 그 분께 속한 사람들이다.

이것은 동격을 나타내지, 그리스도가 첫 열매들이라는 서술문이 아닙니다. 이 세상에서 이것을 서술문으로 번역한 것은 말보회 한킹 밖에 없습니다.

이렇게 해서 그리스도 단수가 복수로 바뀝니다. 한킹 20절도 동일합니다.

한킹 고전 15:20,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는 죽은 자들로부터 살아나셔서 잠들
었던 자들의 첫 열매들이 되셨느니라.

역시 단수 그리스도가 복수 ‘첫 열매들’이 됩니다. 표킹이라는 것도 ‘첫 열매들’로 번역하였습니다. 말보회에서 나왔으므로 렉크만의 교리를 따르기 위한 것 같습니다. 다만 23절은 ‘첫 열매들이 그리스도시요’로 해서 서술문을 피하였고 20절은 그리스도를 첫 열매들로 썼습니다.

표킹은 평서문을 도치문으로 번역하면 안 된다고 극렬히 주장하는데 그런 주장이라면 여기도 ‘그리스도 첫 열매들이시요’로 했어야 합니다. 이런 것을 보면 표킹도 수많은 데서 평서문을 도치문으로 번역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여하튼 말보회와 렉크만의 영향으로 단수 그리스도를 복수 ‘첫 열매들’로 바꾸고 난 뒤 그 영향이 약 30년 뒤에 나타나기 시작합니다.

가수 박진영은 ‘첫열매들’이라는 단체를 만들어 자기들끼리 예배를 드리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박진영씨는 머리인 그리스도와 몸인 첫 열매들, 즉 성도들이 합쳐져서 그리스도가 된다는 해괴망측한 교리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박진영의 다른 복음 - 교회론’이라는 한 블로거의 글을 한번 살펴 보기 바랍니다.¹



첫열매들 모임 로고

박진영씨의 주장:

1. 예수 그리스도는 교회의 머리, 이 머리와 몸이 합쳐진 거대한 사람 역시 그리스도 혹은 그리스도 예수이다
2. 바울은 예수님이 혼이고 교회가 몸이라는 신비를 가르쳤고 우리가 온전해 지려면 ‘첫열매들 그리스도’의 지식이 필요하다.



1. <https://blog.naver.com/donnafaithfellowship/223305711761>

3. 이 첫열매들이 새 사람이다.

박진영씨의 이런 모든 가르침이 말보회와 렉크만의 ‘그리스도 첫 열매들’에서 나온 것으로 보입니다.

이것은 비정상적인 오역이 비성경적인 교리를 만들어 내는 한 예입니다.

위의 블로그에는 박진영씨에 대한 다른 글들도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결론

영어로 원어의 단복수를 교정할 수 없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의 영어로 원어의 단복수를 교정하는 것은 이단 교리입니다. 원어대로 단복수를 번역해야 올바른 번역입니다. 킹제임스 성경 본문이 영감을 받았고 향상된 계시라는 ‘렉크만의 이중 영감론’ 같은 허구에서 빨리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리스도는 ‘첫 열매’이며, 결코 ‘첫 열매들’이 아닙니다. 이 세상 모든 성경과 주석이 다 그렇게 말하며 영어 firstfruits는 자체가 단수입니다. ☞

피터 럭크만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저는 1992년 미국에서의 유학 생활을 정리하고 귀국했습니다. 그리고 그즈음에 럭크만(Peter Ruckman)을 알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그분의 주석서에는 킹제임스 성경을 옹호하는 내용이 많아서 반가웠습니다. 더구나 그분은 다른 사람들이 가르쳐 주지 않는 성경의 감추어진 보화들을 명석한 두뇌와 포기할 줄 모르는 강철 같은 소신으로 캐내어 보여 주었습니다. 그러니 절로 럭크만의 책에 손이 가지 않을 수 없었습니다. 그런데 대단히 안타깝게도 그분의 책의 3분의 1 정도는 자신의 생각과 성경 해석 및 교리가 다른 이들을 헐뜯고 비방하는 내용으로 가득했습니다.



피터 럭크만

처음에는 그런 것도 빠짐없이 읽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그것이 저에게 영적 양식이 되지 않고 오히려 독이 됨을 깨닫고 그 후로는 그런 부분이 나오면 통째로 뛰어넘어 읽었습니다. 이러한 가운데 20년 이상의 세월이 흐르면서 저는 럭크만의 좋은 점은 닮지 않고 독선과 독설 그리고 비방에 심취하여 결국 믿음 생활에서 크게 실족하고 어려움을 겪는 사람의 삶의 추이를 자연스럽게 지켜볼 수 있었습니다.

귀국하면서 또한 저는 럭크만이 지원하는 말씀보존학회(이하 말보회)에 대

해서도 자연스럽게 알게 되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전혀 안면이 없던 말보회 대표로부터 도저히 입에 담을 수 없는 상스럽고 거친 욕설을 듣게 되었습니다. 그 이유인즉슨 제가 미국에서 렉크만을 직접 만나 말보회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니라 그리스어 공인 본문으로 성경을 번역한다는 사실을 보여 주었다는 것 때문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사실은 제가 꾸며 낸 것이 아니라 말보회에서 펴낸 성경의 앞부분에 이미 그렇게 표기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저는 단지 한국말을 모르는 렉크만을 만날 기회가 있어 있는 그대로 알려 주었을 뿐입니다.

그 뒤 저와 함께 성경을 공부하던 학생들도 무심코 책을 구매하러 그곳에 갔다가 역시 비슷한 욕설을 들었습니다. 그때부터 저는 “어떻게 저러한 분이 성경을, 그것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목회 사역을 감당할 수 있을까?” 하며 안타까움과 함께 강한 의구심을 가지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참으로 묘하게도 렉크만이라는 불굴의 의지(혹은 고집)를 가진 천재로부터 시작된 독물이 가득한 웅달샘은 그 한 사람에게 그치지 않고 대해를 건너와 현재까지 말보회에 몸담고 있거나 혹은 과거 한때 몸담았던 일부 사람들에게 흘러 들어가 대단히 악한 영향을 미치고 있음을 보게 되었습니다.

제가 오랜 세월을 두고 관찰한 바 그들은 모두를 하나로 묶을 수 있는 중요한 특징이 있습니다. 그것은 한마디로 사람을 안하무인의 자세로 대한다는 겁니다. 이들은 자신 혹은 자신과 생각을 같이하는 사람들만이 성경을 가장 잘 이해하고 해석하며 그 외 모든 사람들은 자신들에게서 배워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또한, 이에 동조하지 않거나 반대하는 사람에게는 서슴없이 인신공격과 함께 거친 말을 쏟아냅니다.

“이러한 언행을 보여 주는 사람들이 과연 성화되는 성도일까?”

“도대체 왜 말보회에 연루되기만 하면 이런 악한 현상이 반복되고 확산될까?”

지난 20년 동안 제 안에는 이런 의문이 사라지지 않았습니다. 이렇게 안타까운 현실을 지켜보며 긴 시간이 지난 뒤 결국 이 모든 악한 현상의 뿌리는 **극단적 세대주의(Hyper dispensationalism)**라는 지식의 교만에 있음을 알게 되었습니다.

릭크만과 그의 추종자들은 한마디로 ‘극단적 세대주의’를 가르칩니다. 물론 리크만 본인은 아니라고 부인하지만 이것은 사실입니다. 저뿐만 아니라 국내외 많은 선량한 성경 신자들이 그렇게 평가합니다. 또한 리크만 추종자들은 대개 그런 지식을 리크만에게서 직접 배우지 않고 오직 킹제임스 성경에서 배웠다고 합니다. 그런데 이상한 것은 그들의 극단적 주장이 카세트테이프를 틀어놓은 것처럼 혹은 사람의 말을 따라 하는 앵무새처럼 하나같이 동일하며 결국엔 리크만과 같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리크만의 책을 읽을 때는 정신을 차리고 조심해서 악한 양식은 걸러내며 읽어야 합니다. 그러지 않으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리크만의 좋은 점뿐만 아니라 그의 거칠고 공격적이며 독선적인 인품까지 절로 독자의 내면에 스며들게 됩니다. 그래서 어떤 책, 특히 어떤 경건 서적을 읽느냐 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에게 대단히 중요한 일입니다.

저를 비롯한 성경을 문자 그대로 읽고 해석하려는 세대주의자들은 다음의 말씀을 애용합니다.

너는 진리의 말씀을 바르게 나누어 너 자신을 하나님께 인정받은 자로, 부끄러울 것이 없는 일꾼으로 나타내도록 연구하라(딤후2:15).

여기의 ‘나누다’는 ‘divide’입니다. 이 말은 말 그대로 쪼갬다는 뜻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연구하고 쪼개는 일에 도가 지나쳐서 더는 쪼개지 말아야 할 부분을 쪼개기 시작하면 바로 그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자’가 되는 길입니다.

여러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말씀 강해를 준비할 때 가능한 한 여러 사람의 주석을 봅니다. 그것은 혹시라도 편향된 것을 가르치지 않기 위해서입니다. 또한, 성경을 해석함에 있어 저보다 뛰어난 분들의 가르침을 성도들에게 전달해 주기 위해서입니다. 마치 거인의 어깨 위에 올라타 멀리 바라보듯이 좋은 목사 와 성경 교사는 겸손한 자세로 치우침 없이 여러 믿음의 선배들의 도움을 받아야 한다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는 많은 경우 렉크만의 주석서도 참조합니다.¹

얼마 전 제가 야고보서를 강해할 때였습니다. 그런데 렉크만은 수신자 부분을 다루면서 약1:1만 인용하며 특별 강조를 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 그리스도의 종 야고보는 널리 흩어져 있는 열두 지파에게 인사 하노라(약1:1).

강조의 내용은 야고보서의 수신자가 ‘이스라엘의 열두 지파’, 즉 유대인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유대인들 특히 환난기에 들어가는 유대인들을 위한 것이지 지금의 교회 성도들에게는 해당되지 않는다고 말합니다. 그리고 지금까지 자신 외에는 아무도 성경에서 이런 부분을 가르쳐 주지 못했다며 은근히 자기 자랑을 늘어놓습니다. 그분의 글을 읽으면서 우리는 바로 이런 미혹에 넘어가지 않도록 조심해야 합니다.

제아무리 천재라고 해도 렉크만의 이 가르침은 맞지 않습니다.

야고보서는 교회 시대의 모든 성도들을 위한 글입니다. 야고보서 2장 1절이 무어라 말합니까?

내 형제들아, 영광의 주 곧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너희가 가졌으니 사 람들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라.



1. 설교 본문 게재: 내가 보는 주석과 내가 사용하는 성경 소프트웨어

물론 야고보서가 기록될 당시에 그리스도인은 대부분 유대인 성도들이었습니다. 그러나 본질적으로 야고보서의 수신자는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을 가진 형제요 모든 신약 성도들입니다. 그러므로 야고보서의 내용은 교회 시대 전체에 두루 적용되는 실생활 교리를 가르쳐 주는 대단히 중요한 책입니다. 그래서 야고보서는 구원받은 성도는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더없이 분명하게 가르쳐 줍니다.

구원받은 성도라면 특히 3장에 있는 대로 자신의 혀를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1-12절을 자세히 보기 바랍니다.

9 그것(혀)으로 우리가 하나님 곧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느니라. **10**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는데, 내 형제들아, 이것들이 결코 그리되어서는 아니 되느니라. **11** 썸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쓴물을 내느냐?

어떤 분처럼 거룩한 성경 말씀을 전하는 입으로 상스러운 욕설을 내뱉고 자기를 섬기다가 잘못된 점과 부패를 도저히 참을 수 없어 등을 돌리고 나가면 서슴없이 “그는 구원받지 못한 자다.”라고 정죄하며 악담을 퍼붓는 일이 있어서는 안 됩니다.

자기를 따르고 섬기면 구원받은 사람이고 섬기다가 나가면 구원받지 못한 사람이라니, 그것은 곧 구원을 잃어버릴 수 있다는 말이 아닙니까? 그런데 아 이러니하게도 그분은 구원은 잃어버릴 수 없다고 가르칩니다.

럭크만은 야고보서뿐만 아니라 히브리서도 ‘히브리 사람들에게 보내는 서신’이므로 교회와는 교리적으로 상관없다고 말합니다. 정말로 그럴까요? 아닙니다. 히브리서 12장 18-24절은 분명히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이 교회라고 이야기합니다.

18 너희[히브리서 수신자들]는 만질 수 있는 산과 불이 붙은 산에 다다르지 아니

하였고 캄캄함과 어둠과 폭풍과² 22 그러나 너희는 시온 산과 살아 계신 하나님의 도시 곧 하늘에 있는 예루살렘과 무수한 천사들의 무리와 23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24 뿌리는 피에 다다랐느니라.

히브리서의 수신자들은 구약 성도들이 아니고 신약 교회의 성도들입니다.

그래서 렉크만과 같은 희대의 천재가 아닐지라도 성경을 맑은 정신으로 단 순하게 읽으면 히브리서는 교회 시대 모든 성도들을 위해 기록되었다는 사실을 누구나 쉽게 알 수 있습니다. 현시대의 성경 신자들은 렉크만만을 추종하며 앵무새처럼 그분의 말을 흉내 내는 사람들을 각별히 조심해야 합니다. 이들은 렉크만의 교리뿐만 아니라 렉크만의 거친 말까지 본받아 성도의 품행에 결코 합당하지 않은 말을 쏟아냅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면서 마치 자신이 모든 것을 다 아는 것처럼 행세하는 분들의 온라인 공간 등에 들어가거든 가장 먼저 그들의 말을 자세히 살펴 보기 바랍니다. 그래서 만약 자기와 의견이 다르면 즉각 상대가 누구든지 상관없이 ‘문맹자’, ‘속임수를 쓰는 사람’ 등의 과격한 인신공격을 하거든 그의 가르침에 전염되기 전에 속히 그곳에서 빠져나와야 합니다. 그런 말의 독은 마치 영적 전염병처럼 옮겨서 어느새 독자도 모르는 사이에 독자를 똑같은 사람으로 변질시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이들은 또한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서 성경의 단어를 쪼개는 데도 명수입니다. 이들에게는 평범한 보통 사람들의 눈에는 보이지 않는 것들, 즉 간극들이 잘 보입니다.

요즘 저는 어쩔 수 없이 필요에 의해 ‘창조인가, 재창조인가?’에 대한 글을 썼 습니다.^{3 4}

2. 즉 그들은 구약 언약하에 있는 자들이 아니라는 뜻

3. 창조인가요, 재창조인가요?(간극 이론, 갭 이론), replenish의 의미 (왼쪽)

4. 재창조 간극 이론 사실인가, 허구인가?(오른쪽)



예수님께서서는 분명히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마19:4, 그분께서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시되, 처음에(at the beginning) 그들을 만드신 분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시고

막10:6, 창조의 시작부터(from the beginning of creation) 하나님께서 그들을 남성과 여성으로 만드셨으니

독자께서는 여기의 ‘창조’, ‘시작’, ‘처음’이 무어라고 믿으십니까?

정상적인 사람이라면 이런 말이 다 창세기 1장 1절부터 시작되어 2장 1절에 요약된 창조요, 시작이라고 믿을 것입니다.

창1:1, 처음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시니라.

성경에는 재창조가 없습니다!

예수님은 오직 단 한 번의 창조만 아시며 그 창조가 시작되던 때에 좀 더 구체적으로는 여섯째 날에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만드셨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런데 극단적 세대주의자들은 성경의 창조를 둘로 쪼개어 나눕니다.

먼저 그들은 마19:4와 막10:6 등의 창조는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 창조’만을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러므로 여기의 ‘처음’ 혹은 ‘시작’은 ‘원 창조’ 이후 재창조 때의 여섯째 날이 됩니다. 이들의 눈에만 이런 것이 자연스럽게 보입니다. 우리 같은 평범한 사람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데도 말입니다.

또한 ‘재창조’가 아니라 ‘창조’로 되어 있으므로 누가 창조라고 이야기하면 창조라는 말에 위압을 느끼고는 여기의 요점은 창조/재창조가 아니라 하나님이 그들을 중성체 등이 아닌 남자와 여자로 만든 것을 뜻한다고 교묘하게 합리화를 합니다. 자기의 이론을 합리화하기 위해 혹은 그 이론에 얽매어서 성경을 상식적으로 보지 않는 것, 바로 이것이 극단적 세대주의의 가장 무서운 독

입니다. 이에 대해 한 독자가 글을 보냈습니다.

“이런 분들은 전체적인 문맥을 보지 않고 ‘처음에’, ‘입다’, ‘간극 이론’ 등 아리송한 이슈들로 마치 추리 소설같이 성경을 보고 있습니다. 사람들을 구원에 이르도록 가르치고 설교해야 할 사역자가 참 안 됐습니다.”

성경 신자라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가장 조심해야 할 것이 바로 이런 것입니다. 추리 소설처럼 성경을 읽고 해석하는 것은 그리스도인의 합당한 자세가 아닙니다. 사람이 계속해서 이런 자세를 취하며 자신의 지식으로 성경을 재단하면 진리는 멀어지고 결국 판타지 소설 같은 교리에만 중독되게 됩니다.

같은 창조를 두고 마19:4; 막10:6의 창조는 ‘사람의 창조’만 가리킨다고 하면 과연 어느 누가 이에 동의하겠습니까? 이것이 바로 전형적인 극단적 세대주의입니다. 나누면 안 되는 것까지 무리하게 나누면 문제가 생기지 않을까?

누가 봐도 그 두 구절의 창조는 세상의 창조이며 거기의 ‘시작’(beginning) 혹은 ‘처음’ 역시 창1:1의 ‘처음’입니다.

이렇게 무리한 해석을 하기 위해 그들은 창2:5의 ‘세대들’과 히1:2; 11:3의 ‘세상들’이 두 번 창조를 나타낸다고 말합니다. 그런데 문맥을 따라 성경을 보는 평범한 그리스도인들에게는 그런 것이 전혀 보이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들은 자기의 편견을 마음대로 성경의 줄과 줄 사이에, 단수와 복수 사이에 넣기 때문입니다.

이러한 황당한 주장이 받아들여지지 않으면 더 나아가 우리말 성경이 창세기 1장 1절 다음의 2절에 나오는 첫 글자 ‘And’를 번역하지 않아서 재창조의 교리가 성립이 안 된다고 억지 주장합니다. 창세기 1장 3-31절까지 27절을 제외하면 모두 ‘And’로 시작하는데 그러면 이 모든 구절이 재창조를 이야기합니까? 그러면 도대체 재창조가 몇 번이나 있었다는 말입니까? 히브리어 학자/성

도, 그리스어 학자/성도, 영어 학자/성도, 한국어 학자/성도들에게는 전혀 보이지 않는 것들이 왜 이들의 눈에만 보일까요? 그 이유는 그들이 바로 극단적 세대주의에 빠져 있기 때문입니다.

나누지 말아야 할 것을 극단적으로 나누면, 오히려 성경을 제대로 나누지 않아 교리적 문제를 일으키는 사람들 이상의 폐해를 가져올 수 있습니다. 특히 이런 분들은 자기들만 아는 지식으로 우쭐해져서 대개 안하무인으로 사람을 대합니다.

성경은 그 안에 ‘내장 사전’(a built-in dictionary)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같은 문맥에서 쓰인 단어들을 조사하여 비교해 보면 한 단어의 뜻이 무엇인지 정확히 알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성경의 내장 사전을 가지고 성경을 이해해야 한다는 것을 주장하면서도 막상 내장 사전이 자기들이 추구하는 뜻과 반대가 되면 교묘하게도 슬그머니 못 본 척하거나 함구합니다.

그러면 창세기 1장 22절과 28절을 비교해 봅시다.

하나님께서 그것들에게 복을 주시며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바다의 물들을 채우고(fill) 날짐승은 땅에서 번성하라, 하시니라(창1:22).

And God blessed them, saying,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 the waters in the seas, and let fowl multiply in the earth.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복을 주시고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다산하고 번성하여 땅을 가득 채우라(replenish), 땅을 정복하라...(창1: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이 두 구절은 같은 문맥에서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fill(or replenish)...”이라는 동일한 구절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러면 22절은 ‘fill’이니까 창조이고 28절은 ‘replenish’이니까 재창조라고 말할 근거가 도대체 어

디에 있습니까? 똑같은 문맥이며 심지어 히브리어도 두 구절이 동일합니다. 이 같은 성경의 ‘내장 사전’을 통해서도 우리는 28절의 ‘replenish’가 22절의 ‘fill’과 같음을 성경으로 더없이 명확하게 알 수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링크만 추종자들이 그토록 즐겨 주장하는, 킹제임스 성경만이 주는 ‘내장 사전’ (Built-in dictionary) 기능입니다.

그런데 앞서 말했듯이 이 내장 사전이 자신들의 주장과 일치하지 않으면 이들은 어떤 일인지 일언반구도 없이 조용합니다. 그동안 극단적 세대주의자를 파급시킨 **말보회는 다음과 같은 몇 가지 치명적인 악한 씨앗을 뿌렸습니다.**

1.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최종 권위라는 주장

그들은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보다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위에 두어야 한다고 주장합니다. 이것이 과연 정상적인 사고인가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한 번도 개정된 적이 없고 그들이 출간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여러 차례 개정되었는데 그러면 최종 권위가 그렇게 자주 바뀔니까? 또한 이들은 실제로는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번역해 놓고서 그것이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말하며 명칭까지 킹제임스로 하는 바람에 많은 오해를 불러왔습니다.

요한복음 12장 43절을 보겠습니다.

흠정역: 이는 그들이 사람들의 칭찬을 하나님의 칭찬보다 더 사랑하였기 때문이더라.

개역: 저희는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다

한글킹: 이는 그들이 사람의 영광을 하나님의 영광보다 더 사랑하였음이다.

KJB: For they loved the praise of men more than the praise of God.

NIV: for they loved praise from men more than praise from God.

ASV: for they loved the glory (that is) of men more than the glory (that is) of God.

영어는 분명히 ‘칭찬’(praise)이라 말하는데 개역과 한글 킹제임스는 ‘영광’(glory)이라고 말합니다. 심지어 NIV도 칭찬으로 번역하고 있는데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1장 12절을 보겠습니다.

흠정역: 우리가 세상에서 생활할 때에 단순함과 하나님께 속한 순전함으로 하였고 육체의 지혜로 하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은혜로 하였으며 또 너희를 향해서는 더욱더 그리하였노니 이것이 우리의 기쁨이요 우리 양심이 증언하는 바라.

개역: 이것이 우리의 자랑이라

한글강: 우리의 자랑이 이것이니

KJB: For our rejoicing is this, the testimony of our conscience, that in simplicity and godly sincerity, not with fleshly wisdom, but by the grace of God, we have had our conversation in the world, and more abundantly to you-ward.

NIV: Now this is our boast:

바울은 절대 자랑하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개역, 한글 킹제임스, NIV는 바울이 자랑(boast 혹은 glory)한 것으로 바꾸었습니다. 그러므로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닙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바로 2절 다음에 나오는 고후1:14에서는 ‘rejoicing’을 기쁨이라고 번역했습니다. 이 외에도 고전15:31; 갈6:4; 빌2:19에서 ‘rejoicing’을 자랑으로 번역하였습니다.

또한 요한복음 14장 18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흠정역: 내가 너희를 위로 없이 버려두지 아니할 것이며 너희에게로 오리라.

개역: 내가 너희를 고아와 같이 버려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로 오리라

한글강: 내가 너희를 고아로 남겨두지 아니하고 너희에게 오리라

KJV: I will not leave you comfortless: I will come to you.

킹제임스 성경이라면 반드시 이 구절이 ‘위로 없이’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그 이유는 위로자 성령님께서 오시기 때문입니다.

내가 아버지께 구하면 그분께서 다른 위로자를 너희에게 주사 그분께서 영원토록 너희와 함께 거하게 하시리니(요14:16)

‘고아’로 번역한 것은 킹제임스 성경이 아닙니다(참고로 제가 본 것은 2011년 3월에 나온 한글 킹제임스 한영대역 성경입니다). 왜 이런 일이 생길까요?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을 정직하게 번역하지 않았기 때문입니다.

2. 구약 시대와 환난기에는 ‘믿음 + 행위’로 구원받는다 주장

이것은 렉크만의 가르침으로서 저주받을 이단 교리입니다(갈1:8-9). 어느 시대 사람이든 하나님 앞에서 자기 행위를 내세울 사람은 단 한 사람도 없습니다. 보통 사람에게는 너무나 평범하고 단순한 진리가 렉크만같이 성경을 필요 이상으로 쪼개고 나누려는 천재(?)에게는 실족하게 하는 돌이 되고 맙니다. 자기 행위를 자랑하고 내세우는 자는 어느 시대의 어느 누구든지 결코 하나님 앞에 바른 모습으로 설 수 없습니다. 이것 역시 또 하나의 극단적 세대주의 교리입니다.

3. 창조가 아니라 재창조라는 주장

이것 역시 몇몇 성경 교사들을 거쳐 렉크만이 강조하는 교리입니다. 성경에는 재창조라는 말이나 개념이 없습니다. 처음에(시작에) 하나님께서 하늘과 땅을 창조하셨습니다. 창조는 한 번밖에 없습니다.

4. 성화의 길을 걷는 성도에게 합당한 거룩하고 품위 있는 말을 쓰지 않음

이들은 자기들과 조금만 다르면 렉크만을 따라 성도에게 결코 합당치 않은

저친 말을 쏟아붓습니다.

너희 말을 소금으로 간 맞추어 항상 은혜롭게 하라. 그러면 너희가 각 사람에게 어떻게 대답해야 할지 알게 되리라(골4:6).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약1:26).

대부분의 독자들이 알고 있듯이 오래전부터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말보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누르고 킹제임스 성경 독자들의 주류 성경으로 자리 잡았습니다. 그러자 급기야 저들은 저에 대한 인신공격을 펴기 시작했습니다.⁵

이런 비디오를 만든 분은 시작부터 바이블 벨리버(성경 신자) 운운하며 자기 말을 합리화하려 합니다. 지금도 이분은 구약 시대에는 ‘**믿음 + 행위**’가 있어야 한다는 극단적 세대주의 가르침을 공공연하게 가르치고 있습니다. 시간이 있는 분들은 한번 동영상 전체를 보시기 바랍니다. 과연 이분의 주장을 듣고 그쪽으로 기울어질 사람이 얼마나 있을까요? 무언가를 이야기하려면 핵심을 짚어서 논리적으로 상대를 설득할 만한 정확한 증거를 대야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전혀 그러지 못하기 때문에 - 분별이 너무 없는 사람들은 오해를 할 수도 있지만 - 이분의 동영상은 뜻밖에 역화(backfire) 작용을 일으켜 오히려 이것을 보고는 흠정역 성경으로 돌아오는 분들이 많이 생겨난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분의 동영상 클릭 수가 늘면 늘수록 흠정역 성경 판매가 비례해서 늘어나는 것 같습니다.

생명의말씀사 판매 기록을 보시면 알지만, 실제 출판 시장은 이분들이 원하는 것과는 정반대로 돌아갑니다. 말보회 성경은 하나도 보이지 않



5. '흠정역 정동수 목사에 대해 아십니까?'라는 인신공격 동영상

고 흠정역 성경이 가장 많이 올라와 있습니다.

다른 동영상에서도 역시 마찬가지입니다.⁶ 누가 보기에든 이분의 언행은 비신사적이고 어두침침하여 사람들을 설득하기가 어렵다는 것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하나님께서서는 누구에게나 자유롭게 진리를 찾을 특권을 주셨습니다. 그러므로 인터넷이든 책이든 그 누구에게도 구애받지 말고 마음대로 가서 찾아보고 진리를 분별하며 탐구하시기 바랍니다. 저는 우리 교회 모든 성도들에게 단 한 번도 이런 자유를 구속한 적이 없습니다. 따라서 저를 포함해서 그 누구라도 하나님께서 신약 성도들에게 주신 이 영혼의 자유를 구속하려 하거든 경계해야 합니다.

이렇게 영혼의 자유를 따라 마음대로 하되 한 가지 중요한 것은 기억해야 합니다. 책이나 사이트에서 오가는 대화가 지저분하고 고상하지 않으며 또 저자나 운영자가 모든 것을 아는 것처럼 최종 심판자로 앉아서 보통 사람들의 판단에도 극단적이고 비합리적인 주장을 펴면 속히 그런 데서 나와야 합니다. 럭크만 같은 분들을 통해 그런 분들에게 전달된 ‘극단적 세대주의’의 독이 자신도 모르는 사이에 곧장 독자에게 전염되기 때문입니다.


또한 라킨(Clarence Larkin), 럭크만(Peter Ruckman), 낙스(James Knox)의 잘못된 부분을 집요하게 관철하기 위해 성경을 인위적으로 비틀고 왜곡하는 분의 글이나 말에 속아 넘어가면 결국 그런 분을 추종하는 독자들만 골탕을 먹고 실족하게 됩니다.

명백하고 단순한 진리를 있는 그대로 받아들이며 내 생각이 성경과 대조해서 맞지 않으면 추호도 미련을 두거나 주저하지 않고 과감하게 내다 버리는 사람이 바로 진정한 성경 신자입니다.



6. [짜퉁성경에 속지말라] 흠xx에 속지 말라'라는 음해성 동영상

부디 우리 모두에게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으로부터 나오는 맑은 정신과 바른 지각이 확고하게 뿌리내리기만을 간절히 원합니다.

내게 주어진 은혜에 힘입어 너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에게 내가 말하노니 각 사람은 자기에 대하여 자기가 마땅히 생각해야 할 것 이상으로 생각하지 말고 오히려 하나님께서 각 사람에게 믿음의 분량을 나누어 주신 대로 맑은 정신으로 생각하라(롬12:3). 

※ 재창조 반박 글 모음 참고⁷

7. 수록된 글 목록(QR 코드)

- 창조인가요, 재창조인가요?(간극 이론, 갱 이론)
- 재창조 간극 이론 사실인가, 허구인가?
- 스코필드 성경의 창세기 재해석
- 히11:3에서 말하는 '세상들'이란?
- 재창조론에 관한 7가지 의문
- 'And'를 살려 창세기 1장 읽기
- 제가 알아본 replenish의 뜻
- 작금의 논쟁 배경 설명
- 나쁜 평판과 좋은 평판을 동시에 들으면서
- 'replenish'의 진실과 성경의 창조 정리(재창조 반박 글 모음)



나는 말씀보존학회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거짓말하는 입술로 미움을 감추는 자와 헐뜯는 말을 내는 자는 어리석은 자니라. 말이 많은 곳에는 죄가 부족하지 아니하나 자기 입술을 금하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의인의 혀는 최상의 은 같고 사악한 자들의 마음은 가치가 적으니라. 의로운 자의 입술은 많은 사람을 먹이나 어리석은 자들은 지혜가 부족하여 죽느니라(잠 10:18-21).

지난 1년 동안 어떤 사람이 이단 감별사를 자처하며 불쑥 나서더니 내가 말씀보존학회와 같은 주장을 편다는 허위 사실을 인터넷에 마구 유포하고 다녔습니다.

요점은 과거에 말씀보존학회가 대형 교단들에 의해 이단으로 규정되었으므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나도 이단이라는 것입니다. 허위 사실이 쉽게 진실이 되는 세상이다 보니 심지어 성경을 믿는다고 주장하는 사람이 양심에 어긋나는 일을 하고도 전혀 부끄러워하지 않는 이상한 시대가 되었습니다.

누구라도 조금만 시간을 들여 조사해 보면 이것이 거짓말임을 쉽게 알 수 있습니다. 나는 절대로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력크만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주장하거나 지지한 적이 결코 없고 오히려 이것을 대단히 경계하고 미워함

니다. 또 그들의 저속한 언행을 미워합니다.¹

링킨은 이런 말을 했습니다.

“친구란, 당신과 같은 적을 가진 사람이다.”

“A friend is one who has the same enemies as you have.”

말씀보존학회의 가장 큰 적 중 하나는 바로 나와 우리 성경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절대로 친구가 아니며 같은 씨가 아닙니다.

물론교와 안식교가 킹제임스 성경을 쓴다고 해서 내가 이단인가요? 물론 아니지요.

말씀보존학회가 킹제임스 성경을 들먹인다고 내가 그들의 친구인가요? 절대로 아닙니다. 35번 글에서 소개한 말씀보존학회 소속 목사가 올린 ‘흠정역 정동수 목사에 대해 아십니까?’라는 영상을 보면 조회 수도 7만 회나 됩니다. 이분 덕분에 제가 괜히 유명해진 것 같습니다.

나는 절대로 말씀보존학회 이송오 씨와 그들의 믿음에 동조하지 않습니다. 나는 그들의 과격한 세대주의를 믿지 않으며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설, 영어로 원어를 교정할 수 있다는 등의 난센스에 동의하지 않습니다.

그들이 만든 영상을 보면 이들이 얼마나 나를 미워하는지 알 수 있을 것입니다. 그래서 나는 결코 그들의 친구나 동료가 아닙니다. 믿음은 말할 것도 없습니다. 이런 불쌍한 사람들은 거짓말과 허위 사실 - 자기들의 성경을 도둑질했다는 등 - 로 순진한 사람들을 속이려고 하지만 누구라도 이런 영상을 보면 누가 옳고 누가 그른지 쉽사리 알 수 있을 것입니다.

진리의 입술은 영원토록 굳게 세워질 것이나 거짓말하는 혀는 잠시 있을 뿐이니라(잠2:19).

1. 러크만(P. Ruckman)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35번 글 참고)

거짓말하는 입술은 **주께** 가증한 것이나 진실하게 행하는 자들은 그분께서 기뻐하시는 자들이니라(잠12:22).

훌륭한 말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자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며 거짓말하는 입술은 통치자에게 더더욱 합당하지 아니하니라(잠17:7).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며 거짓말하는 자는 피하지 못하리라(잠19:5).

거짓 증인은 벌을 면하지 못할 것이요, 거짓말하는 자는 망하리라(잠9:9).

주님께서 우리 모두에게 긍휼을 베풀어 주실 것을 간구합니다. 🙏

왜 말씀보존학회는 이단 판결을 받았는가?

지난 20여 년 동안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하고 출간해서 보급하면서 가장 크게 느낀 어려움 중 하나는 “킹제임스 성경은 이단 성경이 아니냐?”라는 오해를 받는 것이었습니다.

전 세계 성경의 표준이며 가장 많이 팔리고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이단 성경이라니 말이 됩니까? 정상적인 신학교의 어떤 교수나 이단 전문가도 이런 주장에는 동의하지 않을 것입니다. 현재 미국의 근본주의 침례교회 및 선교 단체들의 80%는 자신들의 믿음 선언문에 오직 킹제임스 성경만을 쓴다고 명확히 기록해 놓았습니다.¹

그러므로 이런 오해는 한국에서나 가능한 이야기이지만 막상 성도들이 체감하는 현실은 매우 다릅니다. 그 이유는 킹제임스 성경의 유일성을 주장하는 말씀보존학회(고 이송오 대표)가 과거에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에서 이단 판결을 받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이 발간한 킹제임스 성경뿐만 아니라 우리말로 번역된, 혹은 심지어 영어 킹제임스 성경도 이단 성경이라 생각하



1. 미국 내 킹제임스 유일주의 학교들과 기관들

는 것 같습니다. 참고로 저는 말씀보존학회와 아무 관련이 없습니다.

그렇다면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대표가 장로교 합동 측과 통합 측 총회로부터 이단으로 지목된 진짜 이유는 무엇일까요? 지금부터 이 문제를 살펴보고 하겠습니다.

참고로 이 글은 결코 말씀보존학회에 대한 두 대형 교단의 이단 결의가 맞느냐 틀리냐를 진단하는 글이 아닙니다. 단지 그 객관적 사실을 분석함으로써 어떠한 이유로 한국 최대의 양대 대형 교단이 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결의하였는지에만 국한하여 살피고자 합니다.

1. 예정 합동 총회 결의 내용 분석

한국에서 가장 큰 교단인 대한예수교장로회 합동 총회는 1983년과 1998년 정기 총회에서 말씀보존학회를 이단으로 결의하였습니다. 합동 총회 홈페이지에서 현재 내려받을 수 있는 '1998년 9월 제83회 합동 총회 중 발표된 이단 조사 연구위원회의 말씀보존학회 연구 보고서'를 살펴보겠습니다. (공정성을 위해 이하 모든 보고서는 교정하지 않고 그대로 제시함을 알립니다.)

먼저 이 보고서의 개요 부분에서는 말씀보존학회가 논란이 되는 이유와 특징을 정리하고 있습니다. 그 중요한 핵심은 개요 1번과 4번 항목에서 살필 수 있습니다.

- ① 단순한 성경의 해석 차원이 아니라 성경 자체에 대한 이견(우리가 가지고 있는 개역성경은 사탄이 변개한 가짜 성경이라느니 한국 교회는 성경을 가지고 있지 않다느니 하는 등등)을 주장한다는 점이다.
- ④ 무엇보다 비성경적인 성경관과 학문적 접근으로 흑백 논리를 증폭시키고 기존의 성경을 가지고 설교하는 사람들을 무가치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하나님의 몸 된 교회를 파괴 시킬 수 있다는 점이다.

이들 항목에서 알 수 있듯이 말씀보존학회는 기성 교단과 성경 자체에 대한 단순한 이견 때문에 이단으로 지목된 것이 절대 아닙니다. 보고서는 그들의 태도가 단순히 완전하게 보존된 성경이 있다는 주장을 넘어서는 것이라고 진단하고 있습니다.

연구 보고서는 (2) 말씀보존학회의 정제 5번 항목 ‘말씀보존학회(이송오 목사)의 주장은 무엇인가?’ 제하의 글에서 다음과 같이 진단합니다.

한마디로 이송오 목사는 KJV를 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도 아니며 KJV를 가르치지 않는 성경 공부는 아무런 가치가 없다는 것이다. 이유는 KJV가 원문으로 채택한 TR이라는 사본만이 하나님이 섭리로 이 땅에 남겨 주신 유일한 성경이기 때문이다. 바로 이 부분에서 복음주의적인 교회와 또 신학자들과 어긋나간 것이다. TR을 여러 사본들 중의 하나로 보지 않고 유일한 사본으로 삼기 때문에 성경을 번역하면서 참조한 다른 계열의 사본을 원칙으로 사탄이 변개한 것이며 때문에 그것으로부터 번역한 한글개역성경, 그들이 그토록 저주하는 영어의 NIV, RSV 등은 성경이 될 수 없다는 주장이다.

일단 이 보고서는 말씀보존학회 이송오 대표가 킹제임스 성경을 쓰지 않는 교회는 교회로 생각하지도 않으며 동일하게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지 않는 성경 공부도 정상적인 성경 공부로 인정하지 않고 있다고 이야기합니다. 더욱이 말씀보존학회는 NIV, RSV와 함께 개역성경은 성경이라고 할 수도 없다는 주장을 한다고 밝히고 있습니다. 모두 그들의 주장과 태도에 관한 것입니다.

이 연구 보고서의 결론 부분을 살펴보면 왜 이단 조사위원회 연구 위원들이 말씀보존학회를 매우 위험한 단체로 보는지 그 이유가 좀 더 명확하게 정리되어 있습니다. 보고서 결론의 핵심적인 부분을 추려서 아래에 인용합니다.

이 글의 서두에서도 밝혔지만 이송오 목사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그릇된 학문으

로 교묘히 포장된 사이비적인 가르침임에도 불구하고 이것이 사람들에게 혼란을 가져다주는 것은 단순히 성경을 해석하는 방법이 아닌 성경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판 때문이다.

현재 우리가 사용하고 있는 개역성경이 마치 구원을 알려 주지 못하는, 사탄이 변개하여 품에 안겨 준 성경이라 말하며, 숨겨져 있는, 섭리로 보존된 성경이 “따로 있는 듯” 주장할 때, 평신도들뿐 아니라 원문 비평학에 익숙치 않은 목회자들 까지도 미혹될 수 있다는 점이 대단히 위험하다. -중략-

KJV 외의 성경들을 모두 사탄의 작품으로, 쓰레기통으로 매도하는 말씀보존학회의 주장과 가르침은 비성경적임을 확인한다. 더군다나 자격이 검증되지 않은 한 개인이 개인 성향에 따라 여러 번역본을 짜맞추어 번역해 놓은 것을, 유일하게 섭리로 보존된 성경으로 주장하는 것은 이송오씨의 표현대로 “또 다른 변개된 성경”을 생산해 내는 것 외에는 아무 의미도 없는 행동이다.

이제 한국 교회는 개역성경을 쓰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하는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목사에 대해서 단호한 대처를 해야 할 것이다.

본 보고서는 이송오 목사의 주장이 터무니없고 교묘히 포장된 사이비적 가르침인 이유가 기존 성경 자체에 대한 부정과 비판 때문이라고 이야기합니다. 물론 그 표적이 된 성경은 개역성경입니다. 말씀보존학회는 개역성경을 구원을 알려 주지 못하는, 사탄이 변개하여 품에 안겨 준 성경이라 주장한다고 진단합니다. 보고서의 내용대로라면 이것은 사실상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을 수 없다는 말과 다르지 않은 이야기입니다.

그러면서 보고서는 말씀보존학회는 킹제임스 성경 외의 성경들을 모두 사탄의 작품이고 쓰레기통이라고 매도하며 더 나아가 개역성경을 쓰는 교회를 이단으로 규정한다고 명확하게 기록하고 있습니다. 장로교 합동 측 총회 이단조사 연구위원회는 바로 이러한 말씀보존학회의 주장 때문에 이 단체를 이단으로 결의해야 한다고 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보고서의 몇 가지 부수적인 내용은 너무 장황하여 생략했지만 인용한 부분

만으로도 이단 결의의 가장 핵심적인 부분을 충분히 확인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럼 이제 이어서 예장 통합 교단의 경우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2. 예장 통합 총회 결의 내용 분석

대한예수교장로회 통합 총회는 1987년과 2002년에 말씀보존학회를 반기독교적 주장을 하는 단체로 결의하였습니다. 현재 통합 측 총회 홈페이지 이단사이비 관련 총회 주요 결의 게시판에서 내려받을 수 있는 말씀보존학회 보고서의 내용을 지금부터 살펴보겠습니다.

이 보고서의 내용 중 사실 관계를 확인하고 통합 측 총회의 믿음을 기술하는 내용 등은 생략하고 말씀보존학회가 왜 반기독교적 주장을 하는 단체인지에 대한 핵심 주장만 아래에 인용하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서론의 핵심 내용을 살펴보겠습니다.

2.1 들어가는 말

이송오 목사가 “한글킹제임스성경”만이 가장 잘 번역되었고, 나머지 모든 성경들은 잘못 번역되었다고 하여, 전자만이 우리에게 구원을 제공하고, 후자는 모두 사단의 책들이라 하여 물의를 빚고 있다. -중략-

통합 총회의 보고서도 한글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장 잘 번역되었고 나머지 모든 성경은 잘못 번역되어 전자만이 사람에게 구원을 줄 수 있고 후자는 모두 사단의 책, 즉 킹제임스 성경 외의 다른 성경으로는 구원을 받을 수 없다는 주장을 하고 있다고 명시적으로 밝히고 있습니다.

중요한 것은 이 보고서의 서두부터 등장하는 통합 측 교단이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대표를 반기독교적 주장을 확산시키는 단체로 규정한 정확한 이유

입니다.

그것은 킹제임스 유일주의 때문이 아니라 바로 “킹제임스 성경 외에는 구원이 없다.”라는 주장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한글을 읽을 수 있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이 명확한 보고서의 서론 내용을 이해할 것입니다. 본론의 핵심 부분도 같은 내용을 지적하고 있습니다.

2.2 본론

“한글킹제임스성경”만이 구원을 제공하는 유일한 말씀이고, NIV, NASB, RSV, NEB, GNB, JB, LB, NRSV 등을 한글개역성경과 더불어 구원을 제공할 수 없는 “사단이 변개한 것”이라고 주장한 “말씀보존학회”의 주장은 전적으로 잘못되었다. KJV만을 정통으로 보고 나머지 성경들을 이단으로 보는 그들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다. -중략-

자 그럼 이제 이 보고서의 연구 결론 부분을 생략 없이 원문 그대로 아래에 인용해 보겠습니다.

2.3 연구 결론

이송오씨의 킹제임스 성경만이 가장 잘 번역된 바른 성경이며 여기에 구원이 있으며 다른 사본 성경들은 모두 사탄의 책이며 이단이라는 주장은 편협한 근본주의자들의 그릇된 주장으로 성서공회가 인정하는 번역 성경을 믿고 고백하는 모든 교회를 이단으로 몰아가는 아주 잘못된 것이다. 이들의 주장은 나아가서 자기들이 인정하는 킹제임스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만이 구원이 있고 다른 번역 성경을 사용하는 교회는 구원이 없는 것으로 주장하는 것 등은 반기독교적으로 대단히 잘못된 주장이다. 그러므로 우리 교단 내 모든 교회는 이런 사실을 성도들에게 교육하고 이들의 잘못된 주장에 동조하거나 미혹됨이 없도록 해야 할 것이다.

보고서는 마지막 연구 결론 부분에서도 역시 왜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대표가 반기독교적 단체와 인물이 되어야 하는가를 명확하게 밝히고 있습니다.

그러므로 말씀보존학회는 단지 킹제임스 유일주의 때문에 반기독교적 주장을 하는 단체로 결의된 것이 결코 아님을 알 수 있습니다.

지금까지 한국 기독교계에서 가장 큰 교세를 가진 합동 측과 통합 측, 양대 교단의 말씀보존학회에 대한 연구 보고서를 살펴본 여러분들의 소감은 어떻습니까?

조직 신학적으로 보면 말씀보존학회는 과격한 언행으로 교회론과 성경론을 심각하게 왜곡한 것이 사실입니다. 킹제임스 성경이라는 탁월한 성경을 알리는 일에 있어 그 의욕이 지나쳐 사실상 심각하게 왜곡된 조직 신학 교리를 전파하고 만 것입니다. 이것이 말씀보존학회와 이송오 대표, 그리고 그 추종자들의 오만에 의한 패착입니다.

3. 우리는 누구이며 무엇을 믿는가?

저는 1611년에 발간된 영어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완전한 말씀이라고 믿습니다. 또한 그것을 우리말로 신실하게 번역한 흠정역 성경은, 사람이 구원받아 그리스도인이 되고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장성한 분량까지 영적으로 성장하는 일에 부족함이 없는 성경이라고 믿습니다.

개역성경, 현대인의 성경, NIV, RSV 등도 역시 하나님의 말씀을 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 역본들은 번역의 모체가 된 천주교 바티칸 사본과 시내 사본의 부실로 인해 킹제임스 성경과 비교할 때 여러 면에서 삭제, 첨가 등을 담고 있습니다. 이것은 대본 차이로 인한 불가피한 현황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저와 제 부모, 현재의 동역자들과 우리 교회 성도님들 대부분, 그리고 수많은 믿음의 선진들이 개역성경으로 구원을 받았고 하나님의 은혜를 누렸으며 앞으로도 누구든지, 얼마든지 개역성경으로 구원받을 수 있

다고 믿습니다. 이것은 말씀보존학회를 보고 입장을 바꾼 것이 아니라, 맨 처음부터 그렇게 생각하여 명문화한 내용입니다.^{2 3}

또한 저는 제가 담임한 교회만 교회이고 다른 교회는 교회가 아니라고 한 적이 없습니다. 지난 8년 동안 저는 성도들에게 “우리만 교회라고 하는 것은 이단이다. 우리에게 부족한 것이 무언인지 살피고 고치는 성도와 교회가 되어야 한다.”라고 가르쳐 왔고 이것은 저의 목회 철학에 처음부터 기록했습니다.⁴

말씀보존학회는 이와 더불어 렉크만 박사의 극단적인 세대주의를 파급시켜 왔습니다. 이에 기초해서 구약과 신약 시대의 구원 방법이 다르다고 가르쳐 왔고 구약 시대에는 ‘믿음 + 행위’로 구원받는다든 교리를 주장해 왔습니다. 저는 처음부터 이것이 옳지 않다고 믿으며 모든 시대에서 사람은 ‘오직 믿음으로, 하나님의 은혜로만’ 구원받음을 천명해 왔습니다.

물론 이것으로 인해 그들로부터 많은 비난을 받았습니다. 이들의 이러한 과도하고 극단적인 교리가 평범한 그리스도인들과 목회자들의 반감을 불러온 것 또한 사실입니다.⁵

끝으로 이송오 대표를 비롯해서 거기 속한 사람들의 부적절한 언사 역시 많은 분들의 감정을 자극하였습니다. 저는 단 한 번도 말씀보존학회를 방문한 적도 없고 이송오 대표를 만난 적도 없습니다. 다만 20년 전 전에 이송오 대표는 제게 전화를 해서 입에 담을 수 없는 욕설을 한 적이 있습니다. 그 이후로 “과연 그리스도인이 저렇게 할 수 있는가?” 하는 생각이 항상 제 뇌리를 떠나지 않았습니다.

2. 글 '개역성경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왼쪽)

3. 영상 '개역성경(개역 개정)으로는 구원받지 못하나요?'(가운데)

4. 나의 목회 철학(오른쪽)

5. 렉크만(P. Ruckman)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35번 글 참고)



4. 마무리하면서

저는 지금까지 말씀보존학회가 왜 대형 교단들을 통해 이단으로 의결(결의)되었는지를 보여 드렸습니다. 물론 대형 교단들의 결의가 항상 옳다는 가정은 절대 할 수 없습니다. 단 그분들의 연구 보고서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과 근본적인 침례성도의 믿음을 알리는 일에서 말씀보존학회의 불찰과 거기서부터 비롯된 흠정역에 대한 오해와 혼동을 살펴보고, 이런 착시 현상을 교묘히 이용한 공격자들의 악한 거짓 고소에 해당하는 일들을 저와 동역자들은 전혀 하지 않았다는 것을 알리고자 했습니다. 저희에게 흠이 없다는 뜻이 아닙니다. 최소한 저런 이유의 정죄와는 전혀 무관하다는 것입니다.

어쨌든 과거에 킹제임스 성경을 전하려는 몇몇 사람들의 과도함 때문에 심각한 오해의 씨앗이 한국 교회에 뿌려진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여러분! 조금만 눈을 돌려 넓은 세상을 보십시오. 4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킹제임스 성경은 영미권을 중심으로 가장 많이 인쇄되고 읽힌 탁월한 성경입니다. 현재 한국의 대형 교단 신학 대학교와 대학원에서 학생들이 공부하고 논문을 쓸 때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물론 한국어로 번역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을 여러 다른 성경과 함께 참고하고 있습니다.


킹제임스 성경을 완전한 하나님의 말씀으로 믿는 침례성도(Baptist)와 침례교회(Baptist church)의 믿음은 한국의 일반 교회 성도들에게는 아직 생소할지도 모릅니다. 그러나 미국 및 한국의 독립침례교회 대부분 성도와 목사님들이 유사한 믿음으로 믿음 생활을 하며 교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참고로 미국의 경우 근본적인 독립침례교회들이 전체 침례교회의 15-20% 정도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현재 제가 사랑침례교회에서 전하는 조직 신학 교리는 미국의 근본적이고 복음적인 신학교인 댈러스, 남침례, 밥존스, 펜사콜라 크리스천, 탈봇, 무디 신학교 등에서 가르치는 것과 거의 똑같습니다. 참고로 제가 설교하고 가르

친 것은 모두 사랑침례교회 웹사이트와 유튜브에 있습니다.⁶

곰곰이 생각해 보면 킹제임스 성경이 보존된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믿음은 한국의 많은 보수적인 교회들이 성경 무오(無誤)의 믿음을 가지고 있는 것과 전혀 다르지 않습니다.

다만 우리는 그 무오한 성경이 막연한 신념이나 공상을 통해서만 존재하거나 사본학적 연구를 통해 조금씩 복원해 가는 것이 아니라 현재 우리 손에 들려진 킹제임스 성경이라고 믿는 것뿐입니다. 물론 성경은 각자의 판단에 따라 자유롭게 취사선택하면 될 일입니다. 우리는 이러한 믿음을 강압적으로 전할 마음이 터럭만큼도 없습니다.

말씀보존학회의 불찰에 의해 뿌려진 악한 편견이나 갑자기 등장한 한두 사람의 해괴하고 악의적이며 비상식적인 선동 때문에 선량한 성도들과 그들이 사용하는 성경이 오해받는 일은 없었으면 합니다. 

6. 조직 신학 교재: 윌밍턴 박사



말씀보존학회와는 어떤 관계입니까?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질문 63〉

질문: ‘그리스도 예수안에’ 출판사에서 발행한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과 말씀보존학회의 한글 킹제임스 성경과는 어떤 차이가 있으며 ‘그리스도 예수안에’와 말씀보존학회는 어떤 관계입니까?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 질문 63〉

대답: 두 성경의 차이점에 대해 알기를 원하면 본 사이트에 들어 있는 공개 질의서를 참조하기 바랍니다. 추후에 ‘한글 킹제임스 성경 분석’이라는 제목의 책자를 발간하려고 합니다.

두 번째 질문에 대해서는 ‘그리스도 예수안에’와 말씀보존학회가 아무 관계가 없음을 밝히는 바입니다.

본서의 역자는 미국 유학 생활을 하면서 1986년경에 처음으로 미국의 Chick 출판사(www.chick.com)를 통해 킹제임스 성경에 대해 알게 되었고 그 뒤 1992년 2월에 귀국해서 킹제임스 성경을 알리는 일을 시작했습니다. 바로 그 무렵에 말씀보존학회라는 단체가 있다는 이야기와 함께 그 단체의 설립자인 이송오씨가 매우 과격한 사람이라는 소문을 들었습니다.

그러던 차에 한번은 저와 영어 성경 공부를 하던 학생들이 원서 몇 권을 구입하러 말씀보존학회에 갔다가 판매하는 직원에게 저와 함께 영어 성경 공부를 한다고 이야기했는데 갑자기 이송오씨가 나오더니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책상 위로 내던지면서 너희가 영어 성경을 최종 권위로 믿으면 이 구절을 한번 해석해 보라고 하며 화를 냈다는 말을 전해 들었습니다. “참으로 이상한 사람이 다 있구나!” 생각하고 그때는 그냥 지나갔습니다.

그 당시 저는 렉크만과 편지를 주고받으며 킹제임스 성경 문제를 의논하였고 또 그분은 자기의 모든 책을 번역해도 좋다고 허락해 주었습니다. 그런데 이송오씨가 렉크만과 접촉하면서 자기가 철저히 킹제임스 성경을 믿는 사람이라고 주장하였다 하기에 렉크만에게 진실을 알려야 하겠다는 생각이 들어 미국에 학회 참석차 갔다가 하루 시간을 내서 펜사콜라를 방문해서 렉크만을 만났습니다.

그때에 이송오씨가 만든 새 성경을 보여 주고 거기 있는 한국 여자분에게 새 성경 표지 안에 적혀 있는 대로 그 성경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 아니라 ‘공인 본문’ - 말씀보존학회는 이를 그리스어 표준 원문이라 부름 - 에서 번역되었음을 보여 주고 돌아왔습니다. 저는 단순히 그 사실만을 지적했으며 다른 어떤 이야기도 하지 않았습니다. 서로 대화를 나눌 만한 시간도 거의 없었고 그날 저녁에 그의 교회로 가서 펜사콜라 성경 학교(Pensacola Bible Institue, PBI) 강의를 두 시간 들었을 뿐입니다.

그런데 렉크만의 성경 학교 즉 PBI는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것처럼 대단한 곳이 아니었습니다. 직장에 갔다 온 사람들이 저녁때 모여 성경을 배우는 그런 곳이었습니다. 한국의 여러 교회에서 밤에 운영하는 무인가 신학교 같은 곳이었습니다. 저는 결코 인가받은 신학교를 다녀야 훌륭한 목사나 전도자가 된다고 믿지 않습니다. 하나님의 부르심만 있으면 누구든지 목회할 수 있으며 얼마든지 훌륭한 사역을 할 수 있다고 믿습니다. 그때에 저는 PBI의 많

은 학생들이 - 제가 갔을 때는 150명 정도였음 - 어려운 가운데 낮에는 일하며 밤에는 주의 말씀을 공부하고 사랑하는 것을 제 눈으로 확인했으며 그로 인해 감사를 드렸습니다. 그런데 마치 PBI가 엄청난 학교인 것처럼 말씀보존학회가 주장하는 것은 사실이 아님을 알려 드리고 싶습니다.

그런데 그 방문 이후에 하루는 사무실로 전화가 와서 받았더니 다짜고짜 쌍욕이 쏟아져 나왔습니다. “이 ××, 너 혼 좀 나 볼래, 니네 학교 이사장이 조○○이지. 한번 가서 너를 쫓아내라고 이야기할까?” 등등 이송오씨는 상식적으로 이해할 수 없는 말을 쏟아내었습니다. 하도 기가 막혀 개(?)가 짖나 보다 하고 더 이상 반응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그 이후에도 계속해서 자기가 출간하는 월간지에 제 이름을 올려 마치 제가 엄청난 이단인 것 같은 인상을 심어 주었습니다. 그 뒤에도 이송오씨는 너무나 많은 형제들에게 입에 담지 못할 더러운 말을 구사하여 여러 사람들의 얼굴을 찌푸리게 했습니다. 그래도 저희에게는 대안이 없었으므로 마음속으로 “대안이 나올 때까지 굳게 참자.”고 다짐했습니다.

그런데 2000년 8월 저희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이 출간된 이후로는 단 한 번도 잡지 등을 통해 저나 다른 사람들 - 대개는 양심이 허락하지 않으므로 더 이상 말씀보존학회에 남아 있을 수 없어 그곳을 떠난 용기 있고 훌륭한 형제들 - 을 비판하거나 욕하는 것을 본 적이 없습니다.

들리는 소문에 의하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을 비판하면 오히려 역작용이 나서 자기 잡지나 한글 킹제임스 성경을 읽는 사람들이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으로 돌아서지 않을까 염려했다고 합니다. 어찌 되었든지 대안이 나온 이후에 더 이상 무례하고 비상식적인 글이나 상소리를 접하지 않게 되어 너무 기뻐합니다.

이것이 말씀보존학회와 저와의 모든 관계입니다. 지금까지의 말씀보존학회의 언행을 종합하자면 성경의 유명한 구절을 바꾸어 다음과 같이 요약할 수

있을 것입니다.

말씀보존학회는 오래 참지 아니하며 친절하지 아니하며 말씀보존학회는 시기 하며 말씀보존학회는 자랑하며 우쭐대며 무례히 행동하며 자기 것을 추구하며 쉽게 성내며...

한글 킹제임스 성경은 그동안 여러 차례 개정되었습니다(아마 여섯 차례가 넘는 것으로 기억됨). 그들의 주장대로 그 성경이 최종 권위라면 이미 지난 10년 사이에 최종 권위가 여섯 차례나 바뀌었습니다. 그들은 '최종'이 무엇을 뜻하는지 잘 모르는 것 같습니다.

자기들이 무엇을 출간하고 자기들이 그것을 최종 권위라 주장하는 것 자체가 역사상 유례를 찾아볼 수 없는 희극 아닙니까? 그런 억지 주장을 편 뒤 그 최종 권위를 막 뜯어고치는 일을 하고 있으니 그 최종 권위는 언제나 최종이 될는지 참으로 아무도 알 수 없습니다.

끝으로 그들은 한글 킹제임스 성경이 바른 대본인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기초로 번역되었다고 주장하는데 만일 그것이 사실이라면 그 성경도 우리에게 주어진 바른 성경 중 하나라고 저는 생각합니다. 물론 어느 것을 선택하느냐 하는 것은 독자들이 결정할 문제입니다. 추후에 바른 성경에 대한 정의를 내리도록 하겠습니다.

언젠가 한번은 진신을 알리는 글을 써야겠다고 생각했습니다. 혹시 이 글이 부담이 되지 않을까 염려가 되기도 합니다. 아마 이런 종류로는 마지막이 되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냥 부담 갖지 말고 읽어 주시기 바랍니다. 🙏

영어 단어 win은 ‘이겨 오다’인가?

지난 20년 이상 어떤 사람들이 이상한 말을 쓰는 것을 보았습니다. 예를 들어 잠언 11장 30절을 보겠습니다.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나무니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로우니라.

The fruit of the righteous is a tree of life; and he that winneth souls is wise.

이 구절을 영어로 보면 soul을 win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아마 중학생 정도면 win이라는 단어를 영어 시간에 배울 것입니다. 영한사전에서 보듯이 이 단어의 1차적 의미는 이기다가 맞습니다.

1. (경쟁·경기 따위에서) 이기다

• ~ the election (a contest) 선거 (콘테스트) 에 이기다.

He won the election.

이 경우 우리말 번역은 선거에서 ‘이기다’이지 선거를 ‘이기다’나 ‘이겨 오다’가 아닙니다.

2. 상을 타는 경우

He won the Nobel prize.

그는 노벨상을 탔다고 해야지 노벨상을 이겼다가 이겨 왔다고 하면 안 됩니다. 상을 탔다는 말은 경쟁해서 이겼다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그냥 상을 탔다고 해야 합니다.

3. win의 세 번째 용례 '노력해서) 손에 넣다, 얻다, 확보하다'

- ~ fame 명예를 얻다
- ~ security [a livelihood] 안전을 [생계를] 확보하다
- By his discovery he won himself honors [honors for himself]. 그는 발견에 의해서 명예를 얻었다.

이 경우 명예를 '이기다'나 '이겨 오다', 안전을 '이기다'나 '이겨 오다'로 하면 말이 안 됩니다. 이것은 오역입니다.

4. 네 번째 용례 '친구 (결혼 상대) 를 얻다; (적을) 만들다; ...의 지지를 (애정을, 결혼 승낙을) 얻다'

- ~ a friend 친구를 얻다.

이 경우 친구를 이기거나 이겨 오면 안 됩니다. 이렇게 같은 win이라도 우리 말에 여러 용례가 있으므로 용례에 따라 합당하게 번역해야 합니다.

자, 그러면 잠언 11장 30절의 win은 위의 4가지 용례 중 어떤 용례에 해당할까요?

이 구절의 win은 세 번째나 네 번째 용례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혼들을 얻는 자는 지혜롭다고 해야 맞습니다. 그런데 이상하게 말씀보존학회는 이것을 다

음과 같이 번역하였습니다.

말씀보존학회 한글 킹제임스 : 의로운 자의 열매는 생명의 나무니, 혼을 이겨오는
자는 현명하니라.

도대체 ‘이겨온다’는 말이 우리말에 어디 있습니까?

이것은 참으로 **졸역**입니다. 그런데 이상하게도 이것만이 옳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이것이 바로 세뇌 현상입니다. 번역은 수용 언어를 쓰는 사람들이 사용하는 그 언어의 용례에 맞아야 합니다.

성경은 심지어 수용 언어의 표준말 어법에도 맞아야 합니다. 성경이 모든 것의 표준 잣대이기 때문입니다. 대체 우리말에 ‘이겨오다’가 어디에 있습니까?

다시는 이런 말을 사용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이런 번역은 좋고 아름다운 한국말을 망치는 것이며 킹제임스 성경 신자들에게 수치를 안겨 주는 것입니다. 주변 사람들로부터 ‘실력이 이 정도밖에 안 되느냐?’는 손가락질을 받게 됩니다.

참고로 미국 사람들은 전도해서 사람을 지옥에서 구원해 내는 것을 soul winning이라고 말합니다. 행2:41을 보면 오순절 날 베드로의 설교를 듣고 3,000혼가량이(명이 아니라 혼이) 지옥에서 구원을 받습니다.

그때에 그의 말을 기쁘게 받아들인 자들이 침례를 받으니 바로 그날 삼천 혼가량이 그들에게 더해졌더라.

잠언과 사도행전의 winning soul 구절들을 그대로 인용해서 그들은 전도하러 가자는 것을 soul winning하러 가자고 말합니다. 전도보다는 soul winning이라는 말이 더 강력한 말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으로 혼들을 얻는(지옥에서 구출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P.S. 그런데 여기서 더 나아가 혼들을 싸워 이겨 온다고 하는 분들도 있습니다. 앞으로 말이 안 되는 이런 말은 안 쓰면 좋겠습니다. 아름다운 우리말을 추하게 만드니까요. 🙏

히브리서 2장 14절, 히브리서 12장 23절 단복수 번역

오늘은 영어와 원어의 차이, 그리고 이로 인한 단수 복수 문제를 살펴보겠습니다. 며칠 전에 외국에 사시는 한 분이 디도서 1장 1절 번역에 대해 질문을 하셨습니다.

하나님의 종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사도인 바울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의 믿음에 따라, 하나님의 성품을 따르는 진리를 인정함에 따라

Paul, a servant of God, and an apostle of Jesus Christ, according to the faith of God's elect, and the acknowledging of the truth which is after godliness;

질문의 핵심은 the faith of God's elect와 관련한 것입니다.

“God's elect가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단수)입니까, 하나님께서 선택하신 자들(복수)입니까?”

이분은 제임스 닉스 목사님의 설교를 들곤 하며 최근에는 그분이 소개한 다른 미국 목사님의 설교를 들었는데 이분은 the faith of God's elect의 elect가 단수이며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로 보아야 한다고 주장하였다고 하면서 그

분의 설교가 맞는 것 같다고 하며 질문하셨습니다. 즉, 이것을 예수 그리스도의 믿음으로 보아야 한다는 것이었습니다(갈2:20과 매칭이 되게).

사실 영어로는 elect라는 단어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이 어렵습니다. 그래서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사용하는 슈퍼 바이블의 원어 분해를 보았습니다.

elect: 1588 ejklektov” eklektos {ek-lek-tos’}

- 1586에서 유래; ‘뽑힌’, (함축적으로) ‘마음에 드는’, 택함을 받은, 선출된 <막 13:20>형. chosen; **남성 복수**

즉, elect라는 말은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러므로 선택하신 자들이 되어야 맞습니다. 이런 데가 히브리서 12장 23절에도 있습니다.

하늘에 기록된, 처음 난 자들의 총회와 교회와 모든 자들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완전하게 된 의인들의 영들과

To the general assembly and church of the firstborn, which are written in heaven, and to God the Judge of all, and to the spirits of just men made perfect,

저 역시 킹제임스 성경을 지지하는 어떤 목사님이 이 구절의 the firstborn을 처음 난 자들(복수)이 아니라 처음 난 자(단수)로 보아야 하며 처음 난 자 혹은 처음 난 분이 바로 예수님이라고 하는 것을 보았습니다.

역시 슈퍼 바이블의 공인 본문을 가서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firsborn: 4416 prwtotovko” protokos {pro-tot-ok’-os}

- 4413과 5088의 대체어에서 유래; 문자적으로 혹은 상징적으로 ‘먼저 태어남’(일반적으로 명사로서), 처음 난 <롬 8:29; 골 1:15>형. firstborn; **남성 복수**

이 단어 역시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2011년 400주년 기념판과 2021년 마제스티 에디션은 단복수에 관한 이런 점에서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마제스티 에디션에서는 영어로 볼 때 단수 복수가 애매모호한 단어들을 모두 원어로 가서 확인하여 원어가 단수면 단수, 복수면 복수로 표기하였습니다.

영어는 원어를 넘어설 수 없습니다. 그리고 우리가 단수 복수를 구분하기 어렵다고 해도 영어 번역은 완벽합니다. 그렇게 써야 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나라나 미국 독자들이 영어만 가지고 단복수를 제대로 구분하지 못하고 강해를 하면 이런 문제가 생길 수 있습니다.

히브리서 2장 14절을 가지고 구체적인 예를 하나 들겠습니다.

2011년 400주년 기념판: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같은 것의 일부를 취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Forasmuch then as the children are partakers of flesh and blood, he also himself likewise took part of the same; that through death he might destroy him that had the power of death, that is, the devil;

여기에는 살과 피가 나옵니다. 그런데 영어 중간에 the same이 나옵니다. 이것을 400주년 기념판에서는 ‘같은 것’이라고 단수로 번역하였습니다.

원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the same: 846 *aujtov*” *autos* {*ow-tos*}

- 불변사 *au*<아무> 【아마 일정한 ‘방향 없는’ 바람의 개념으로 109의 어간과 유사】 (‘뒤편’)에서 유래; (재귀 대명사) ‘자신’, 3인칭(홀로 혹은 1438과 합성어로)으로 사용, 역시 기타 인칭(본래적 의미로는 인칭 대명사와 함께)

으로 사용, 848과 비교 <마 3:11; 눅 3:23; 행 10:26>대. self, him, it, her, the same; a)강조적 용법; 자신(self) b)인칭 대명사의 3인칭; 그, 그녀, 그것 c)한정적인 용법; 동일한, 바로 그 (the same), **중성 복수**

즉, 여기의 the same은 중성 복수로서 살과 피 두 개를 말합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복수로 표현하였습니다.

마제스티 에디션: 그런즉 자녀들은 살과 피에 참여한 자들이므로 그분도 마찬가지로 친히 같은 것들에 참여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죽음을 통해 죽음의 권능을 가진 자 곧 마귀를 멸하시고

베드로전서 3장 18절도 마찬가지입니다.

400주년판: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하여 한 번 고난을 받으사 의로운 자(단수)로서 불의한 자(단수)를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며 성령으로 말미암아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로 데려가려 하심이라.

For Christ also hath once suffered for sins, the just for the unjust, that he might bring us to God, being put to death in the flesh, but quickened by the Spirit:

영어로만 보면 the just, the unjust가 단수인지 복수인지 구분하기 어렵지만 원어로는 분명하게 전자는 남성 단수, 후자는 남성 복수로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마제스티 에디션에서는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마제스티: 그리스도께서도 죄들로 인해 한 번 고난받으사 의로운 자(단수)로서 불의한 자들(복수)을 대신하셨으니 이것은 그분께서 육체 안에서 죽임을 당하셨으나 성령에 의해 살아나셔서 우리를 하나님께 데려가려 하심이라.

또한 ‘성령으로 말미암아’보다는 ‘성령에 의해’가 더 뜻이 명확해서 그렇게 고쳤습니다.

이번 마제스티 에디션에서는 이런 식으로 the에 형용사가 붙어 있는 명사들을(시편, 잠언 등 시가서에 매우 많음, the wise, the rich, the poor, the wicked 등등) 일일이 확인하여 가능한 한 단수와 복수를 구분해서 표현하였습니다.

다시 말씀드립니다.

우리가 보기에 영어로 단수와 복수 구분이 어려워도 영어 번역은 완벽합니다.

그러나 우리가 영어만 보고 번역하거나 설교하다 보면 단수와 복수로 인한 혼동이 생길 수 있으므로 원어의 도움을 받아야 이런 부분을 정확하게 번역할 수 있습니다. 이런 문제가 가능하면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마제스티 에디션은 가능한 한 단수 복수를 명확하게 표기하려고 노력하였습니다.

우리 주 예수님의 은혜가 풍성히 넘치기를 기도합니다.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사도행전 2장 38절 등에서 행위 구원을 가르치는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행위 구원을 가르친다고 오해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결코 아닙니다! 신약 성경의 전체 주제는 사람이 행위가 아니라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는다(의롭다고 인정받는다)는 것입니다.

너희가 믿음을 통해 은혜로 구원을 받았나니 그것은 너희 자신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니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것은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함이라(엡2:8-9).

그러므로 우리가 믿음으로 의롭다고 인정받아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하나님과의 화평을 누리는다(롬5:1).

그런데 성경에는 마치 행위(특별히 물 침례나 세례)가 있어야 구원을 받는 것처럼 보이게 하는 구절이 몇 군데 있습니다.

1. 마가복음 16장 16절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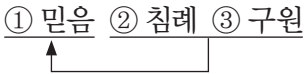
믿고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을 것이나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으리라(막16:16).

그냥 믿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하면 아무 문제가 없을 텐데 믿는 것과 구원 사이에 침례를 받는 것이 들어 있습니다. 물론 이것은 물 침례가 되겠지요.

그러다 보니 어떤 사람들은 여기에 걸려 넘어져서 앞의 ‘믿고’를 읽지 않거나 신경을 쓰지 않고는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로 오해하기도 합니다.

이 구절의 뒤에는 믿지 않는 자는 정죄를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침례를 받고 안 받고’가 후반부에는 빠져 있습니다. 분명히 마가복음 16장 16절에는 물 침례를 받는 자는 구원을 받는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믿고**”가 들어 있습니다.

이 구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성경 전체와 이 부분의 요점은 믿음이 침례와 구원의 근거이며, 믿음과 침례가 구원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①이 ②③의 근거이고, ①②가 ③의 근거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믿음 이후에 침례를 받는 것과 구원이 뒤따라옵니다.

이런 구절을 접할 때 우리는 통합적으로 성경을 보고 해석해야 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당연히 구원을 받고 구원에 대한 증언으로 물 침례도 받을 것입니다.

한편 이것은 마태복음 28장 19-20절과 일맥상통합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민족들을 가르치고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그들에게 침례를 주며 무엇이든지 내가 너희에게 명령한 모든 것을 그들에게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보라, 내가 세상의 끝까지 항상 너희와 함께 있느니라, 하시니라. 아멘.

여기서도 예수님께서서는 제자들에게 민족들을 가르치라고 명령하십니다. 그리고 물 침례를 주라고 하십니다. 그러면 사람이 물 침례받으면 구원을 받을

까요? 당연히 아니지요. 가르침을 받아 믿음을 갖게 되어 구원받은 사람들만 침례를 받을 것입니다.

이런 것이 마16:16; 마28:19-20에 함축되어 들어 있습니다.

2. 사도행전 22장 16절

바울과 관련된 구절을 하나 더 보겠습니다. 하나님의 사람 아나니아의 말입니다.

이제 네가 왜 주저하느냐? 주의 이름을 부르며 일어나 침례를 받고 네 죄들을 씻어 버리라, 하더라(행22:16).

여기도 뒷부분만 보면 침례를 받아 죄들을 씻는 것으로 오해될 가능성이 있습니다. 그런데 맨 앞에 ‘주의 이름을 부르며’라는 주요 조건이 들어 있습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인정하고 부르면 그는 구원을 받습니다. 여기에는 믿음과 회개가 다 들어 있습니다.

누구든지 주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받으리라(롬10:13).

이 구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② 침례 ③ 죄들의 사면



성경 전체와 이곳의 요점은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이 침례와 죄들의 사면의 근거이며,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과 침례가 죄들의 사면의 근거가 아니라는 것입니다. 이 역시 ①이 ②③의 근거이고, ①②가 ③의 근거가 아닙니다.

주의 이름을 부르는 것 이후에 침례와 죄들의 사면이 있지 주의 이름을 부르

는 것과 침례를 받는 것, 이 두 가지를 해야 구원받는 것이 아닙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성경에는 모순이 없습니다.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서 신약 성경의 구원관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문맥에 맞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3. 사도행전 2장 38절

이와 관련해서 사도행전 2장 38절에는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Then Peter said unto them, Repent, and be baptized every one of you in the name of Jesus Christ for the remission of sins, and ye shall receive the gift of the Holy Ghost.

여기도 자세히 보지 않고 대충 보면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는 것’으로 오해할 수 있습니다. 그래서 침례교회의 여러 선한 목사님들 중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번역해서 물 침례를 통해 구원받는 것처럼 만들었느냐고 이의를 제기합니다. 이렇게 번역한 이유는 이것이 올바른 번역이기 때문입니다.

여기도 세 가지가 나열되어 있습니다.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이 구절의 구조는 다음과 같습니다.

① 회개, ② 침례, ③ 죄들의 사면

실제로 그리스어 구조를 보면 “회개하라”가 주동사로 되어 있고 “침례를 받아”라는 보조 동사로 되어 있으므로 죄들의 사면이 “회개하라”에 걸려 있는 것으로 볼 수 있습니다.

위에서 설명한 두 구절과 마찬가지로 여기서도 ① 회개(물론 믿음이 동반된)가 ② 침례와 ③ 죄들의 사면의 근거이지, ① 회개와 ② 침례가 ③ 죄들의 사면의 근거가 아닙니다.

즉, 회개하고 나서 그 뒤에 침례와 죄들의 사면이 뒤따라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 ‘회개 + 물 침례’가 죄들의 사면의 근거가 아닙니다. 이런 구절들을 대하면서 신약 성경의 구원관이라는 차원에서 전체 문맥에 맞게 이해하면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그런데 이런 개념을 이해하지 않고 행2:38을 오역이라고 하면 문제가 생깁니다. 행위로 되는 것이 아니므로 다음과 같이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습니다.

회개하고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죄들의 사면 때문에)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얼핏 보면 이것이 침례교 교리에 맞는 것 같지만 그리스 말이나 영어의 구조와는 전혀 맞지 않습니다.

‘for the remission of sins’라는 구는 신약 성경에 총 5회 나오며 동일한 그리스어 ‘에이스’(eis)가 ‘for’로 번역된 4구절, 즉 마26:28; 막1:4; 눅3:3; 행2:38을 보면 여기서의 ‘for’가 모든 곳에서 동일하게 ‘위하여’의 의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러므로 영어와 원어를 무시하면서 침례교 교리를 지키려고 하는 것은 결코 해서는 안 될 일입니다.

대개 피터 러크만과 그의 추종자들(대개는 킹제임스 성경의 이중 영감을 믿는 사람들)이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라고 번역하는 것을 선호하지만 그것은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이것을 그런 식으로 번역하려면 다음처럼 해야 더 정직한 것입니다.

죄들의 사면으로 인해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으라.

그러나 이렇게 하면 구원 교리가 깨지므로 안 됩니다. 회개하지도 않았는데 죄들의 사면이 있다고 하면 말이 안 되기 때문입니다.

이러다 보니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하려는 사람들은 ‘예수님의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하려고 예수님을 슬쩍 집어넣어 해석합니다. 그러나 38절에는 ‘너희 각 사람’이라는 말이 나오므로 여기에 예수님을 넣으면 안 됩니다.


그때에 베드로가 그들에게 이르되, 회개하고 너희 각 사람이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침례를 받아 죄들의 사면을 얻으라. 그러면 너희가 성령님을 선물로 받으리니

즉, ① 회개, ② 침례, ③ 죄들의 사면, 이 세 가지는 모두 개개인에게 해당되는 것이지 ① 회개, ② 침례만 개개인에게 해당되고 ③ 죄들의 사면은 예수님이 하신 것이라는 논리는 성립되지 않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구절들을 대할 때 가장 좋은 선택지는 그리스어, 영어 등에 있는 것처럼, 지금 흠정역 마제스티 번역처럼 물 흐르듯이 자연스럽게 번역하고 이런 구절들을 통합적으로 설명해 주는 것입니다.

이런 구절을 가지고 물 침례를 받아야 구원을 받는다고 누가 주장하면 잘 설명해 주고 그래도 믿지 않으면 그런 분에게서 조용히 물러나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오해될 수 있는 성경의 증거 세 가지를 보여 주어도 안 믿기로 작정한다면 그 이상 무슨 대화를 할 수 있을까요?

우리는 어떤 특정 교리나 교파의 주장을 관철하기 위해 문맥에 벗어나게 번역하는 일은 결코 할 수 없습니다. 알면서도 그리하면 그것에 관하여 하나님의 심판을 면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진리를 대적하는 어떤 일도 할 수 없고 진리를 위해서만 할 수 있노라(고후13:8). 

히브리서 2장 4절 물음표, 영어가 안 되는데 왜 영어 성경을 읽으려고 할까?

며칠 전에 어떤 분이 이메일을 보냈습니다. 내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여쭙볼 말씀이 있어서요.

히브리서 2:4 원문 물음표는 어떻게 해석이 되는 것입니까? 평서문인지 의문문인지 잘 모르겠습니다.

히2:4, God also bearing them witness, both with signs and wonders, and with divers miracles, and gifts of the Holy Ghost, according to his own will?

평안하세요. 감사합니다.

그래서 다음과 같이 답을 드렸습니다.

네, 물음표는 2장 3절에 있습니다. 영어는 3, 4절이 길게 한 문장이지만 우리 말은 그렇게 못해요.

3 How shall we escape, if we neglect so great salvation; which at the first began to be spoken by the Lord, and was confirmed unto us by them that heard him;

4 God also bearing them witness, both with signs and wonders, and with divers miracles, and gifts of the Holy Ghost, according to his own will?

3 우리가 이렇게 큰 구원을 소홀히 여기면 어찌 피할 수 있겠느냐? 이 구원은 처음에 주께서 말씀하기 시작하신 것이요 그분의 말씀을 들은 자들이 우리에게 확증한 것인데

4 하나님께서도 자신의 뜻에 따라 표적들과 이적들과 다양한 기적들과 성령님의 선물들로 그들에 대하여 증언하셨느니라.

보시다시피 영어에는 4절 끝에 물음표가 있고 우리말 번역에는 3절 초반에 물음표가 있습니다. 영어를 보면 3절 중간에 if 문장이 있고 그 끝에 구원에 대한 설명이 which부터 시작되어 4절까지 쪽 이어집니다. 물론 우리말에서는 3절에서 문장을 나누고 설명하는 길밖에 없습니다.

우리말과 영어의 구조가 많이 다르므로 번역할 때는 종종 이런 일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우리말 성경을 읽으면 이 구절들을 이해하는 데 아무 문제가 없는데 왜 영어를 보면서 4절에 물음표가 없다고 하는지 궁금해서 간단하게 물었습니다.

“이제는 이런 것 신경 쓰지 않고 읽어도 되지 않나요?”

그랬더니 그분이 이렇게 답을 보내왔습니다.

“신경을 쓰는 게 아니라 워낙 영어를 모르니 답답해서요.”

이에 나는 다음과 같이 답하였습니다.

“그러면 한국말만 읽으세요. 영어가 안 되는데 왜 영어를 보려 하나요. 감사합니다.”


나는 결코 그분을 폄하하거나 조롱할 의도가 없습니다. 그런데 영어가 안 되는데 왜 굳이 영어를 보려 하는지 사실 이해가 되지 않습니다. 아마도 ‘영어 그대로!’를 주장하는 사람들(특히 목사들)에게 세뇌되어 이런 일이 생긴 것은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번역의 정의와 의미를 다시 한번 생각해 보면 좋을 것 같습니다. 한국 성도들의 99.9퍼센트는 영어를 전혀 보지 않고 한국어 성경만을 읽습니다. 저도 30년 전에는 거의 영어 성경을 읽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지금도 특별한 경우가 아니면 우리말로만 성경을 읽습니다. 영어와 대조해서 읽으면 성경이 제대로 읽히지 않습니다. 물론 번역과 교정을 할 때에는 당연히 영어를 보아야 하지만 일상생활을 하면서 묵상과 경건 생활을 위해서는 우리말 성경만 읽습니다. 사실 이렇게 해야 정상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읽으면서 그것이 확실한지 아닌지 알기 위해 그리스어 공인 본문을 옆에 두고 대조해서 읽는 사람은 미국에서도 거의 없습니다. 우리말로 주어진 성경을 우리말로 마음껏 읽을 수 있는 것이 얼마나 큰 복인지 모릅니다. 영어를 모르면서도 영어와 대조해서 성경을 읽는다는 것은 시간 낭비이고 불필요한 일이라 생각됩니다.

이 땅에 킹제임스 성경이 들어온 지 30년이 지났고 많은 교정을 거쳐 우리말로 번역된 킹제임스 성경이 나왔습니다. 마음껏 쭉쭉 읽기 바랍니다. 그래야 성경이 제 기능을 발휘합니다.

오늘은 영어에 함몰되어 시간을 낭비하는 분들이 있을까 봐 간단히 적었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부패시키는 많은 사람들 같지 아니하고 도리어 순전함에서 난 자같이 하나님에게서 난 자같이 하나님의 눈앞에서 그리스도 안에서 말하노라(고후2:17). 

[막 1:4]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올바른 번역이 아니지 않습니까?

요즘 어떤 분들이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의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가 오역이라고 하면서 문제를 제기하기에 간략히 답을 씁니다.

대답: 아닙니다. 지금 그대로가 정확한 번역이며 혹시 오해하는 분이 있으면 목사나 교사가 침례에 대해 잘 설명해 주면 됩니다.

마가복음 1장 4절은 다음과 같습니다.

John did baptize in the wilderness, and preach the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를 선포하며

위에서 보듯이 문제로 부각된 이 구문의 영어 원문은 ‘baptism of repentance for the remission of sins’입니다. 이것은 성경에 총 2번 나오며(막1:4; 눅3:3) 침례자 요한과 관련되어 단순히 ‘회개의 침례’(baptism of

repentance)라고 기록된 곳 또한 두 군데 있습니다(행13:24; 행19:4).

침례자 요한은 광야에서 혜성처럼 나타나 회개하라고 외쳤습니다.

그 당시에 침례자 요한이 와서 유대 광야에서 선포하여 이르되, 너희는 회개하라.
하늘의 왕국이 가까이 왔느니라, 하였으니(마3:1-2).

그의 메시지는 전체가 회개에 대한 것이었습니다(눅3:1-18).

그때에 그가 자기에게 침례를 받으러 나오는 무리에게 이르되, 오 독사들의 세대에, 누가 너희에게 경고하여 다가오는 진노를 피하게 하더냐? 그러므로 회개에 합당한 열매를 맺고 너희 속으로, 우리에게는 아브라함이 우리 아버지로 있다, 하고 말하기 시작하지 말라. 내가 너희에게 이르노니 하나님께서는 이 돌들로도 아브라함에게 자손들을 일으키실 수 있느니라(눅3:7-8).

침례자 요한이 회개의 침례를 선포했다는 것은 누구나 다 아는 사실입니다. 여기서 회개의 침례란 회개의 징표로 그가 침례를 주었다는 것을 뜻합니다.

그런데 이 구문의 'for'라는 단어 때문에 번역의 문제가 발생합니다. 사실 'for'도 'of'만큼이나 간단하면서도 번역이 어려운 단어입니다. 여기서 'for'로 번역된 그리스어는 'eis'로 이 단어는 주로 장소를 가리키는 'to' 혹은 'into' 등으로 번역되었으며 마10:10 등에서 '너희의 여행을 위해'(for your journey) 등에서는 목적을 나타내기 위해 사용되었습니다. 따라서 지금처럼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기 위하여(혹은 위한)'로 번역하는 것은 앞뒤 문맥으로 보아 당연합니다.

그런데 주로 피터 릭크만의 영향을 받은 사람들이 여기서의 'for'를 '때문에 혹은 인하여'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데는 그 나름대로 이유가 있습니다. 지금처럼 번역하면 "침례를 통해 죄들의 사면이 이루어지며 따라서 침례 중생

교리가 생긴다.”라는 것이 지금의 번역을 반대하는 사람들의 주장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자기들의 주장을 합리화하기 위해 이 구절에서 고의로 ‘회개의’를 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침례’라고 읽으면서 마치 흠정역 성경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침례를 가르친다(즉 침례 중생 교리를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사람들을 오도합니다.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OOO 침례를 선포하며

또 흠정역 성경이 개역성경처럼 침례 중생을 가르친다고 말하면서 개역성경을 인용합니다.

개역: 세례 요한이 이르러 광야에서 죄 사함을 받게 하는 회개의 세례를 전파하니

개역성경은 이 구절을 매우 잘 번역하였습니다. 아무 문제가 없습니다. 개역성경이 바르게 번역한 것은 바르다고 인정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렉크만의 이상한 교리를 지지하기 위해 말씀보존학회처럼 번역하는 것이 문제입니다.

한강: 요한이 광야에서 침례를 주고, 죄들을 사함받은 것으로 인하여 회개의 침례를 전파하니

문제는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이 무엇이나 하는 것입니다. 자세히 보면 영어의 ‘for’는 ‘repentance’를 수식하지 ‘baptism’을 수식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것은 회개이지 침례가 아닙니다. 그러므로 이것을 길게 풀어서 쓰면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로 말미암은(혹은 회개에 기초한) 침례’가 됩니다. 따라서 성경을 바꾸지 않고도 얼마든지 바르게 교리를 설명할 수 있습니다.

대부분의 주석들도 동일한 것을 말합니다.¹

매튜 풀: 회개가 그의 가장 중요한 메시지였으며 회개의 징표가 바로 침례였다.
존 길: 침례를 받기 전에 먼저 회개가 있어야 했다. 회개가 있어야 침례를 주었다.

물론 여기서 또 렉크만의 기발한 교리를 들고나와 구약 시대의 짐승 희생물로 인해 죄들이 사면되었으므로 여기를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이들이 있는데 앞뒤 문맥은 그런 것을 지지하지 않으며 또한 성경의 용례 또한 그것을 지지하지 않습니다.

마태복음 26장 28절에 보면 ‘for the remission of sins’의 용례가 나오며 여기의 ‘for’도 같은 그리스 말입니다.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려고 많은 사람을 위해 흘린 내 피 곧 새 상속 언약 (New Testament)의 피니라.

여기를 ‘죄들의 사면으로 인하여’로 번역하면 되겠습니까? 그렇게 되면 예수님의 피로 인한 죄들의 사면이 가려지지 않습니까?

저희는 렉크만의 비상한 생각을 이해할 만한 능력이 없어서 그냥 평범하게 문맥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이해할 뿐이며 대부분의 사람들도 저희와 같다고 믿습니다. 그러므로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의 침례’는 바른 번역이며 이 구절이 ‘침례 중생’ 교리를 가르치지 않음은 설명을 통해 이루어질 수 있습니다. 그래서 교사와 목사가 있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에서 unto의 용례를 보면 ‘무엇을 위하여’가 있으며 사전에는 구체적으로 1582년 신약 성경의 마가복음 1장 4절을 예로 듭니다.



1. 마가복음 1장 4절 주석

OED Unto의 용례

- b. A. III. 8. b. With a view to; for the purpose of; for.
- 1582 N. T. (Rhem.) Mark i. 4 Preaching the baptisme of penance vnto remission of sinnes.

여기의 unto가 바로 킹제임스 성경의 for와 같은 말입니다. 그래서 이것은 ‘죄들의 사면을 얻게 하는 회개’로 번역되어야지 ‘죄들의 사면으로 인한 회개’로 번역되면 안 됩니다.

끝으로 개역성경과 대부분의 현대 역본들은 주님의 만찬을 보여 주는 마 26:28 등에서 ‘새’(New)라는 중요 단어를 삭제했습니다. 즉, 이들은 아직도 신약 시대가 열리지 않았고 여전히 구약, 즉 ‘Old Testament’ 시대가 진행되고 있다고 주장합니다.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천주교에서는 여전히 제사를 드리고 제사장이 있으므로 이런 시스템이 없는 신약 시대의 도래를 싫어합니다. 그래서 그들은 서기관들을 동원하여 예수님께서 친히 선언하신 신약(새상속 언약) 시대를 부인합니다. ☹

창 1:28은 재창조 이론(갭 이론)을 말하지 않나요? 티모티 모튼의 <결길로 빠진 재창조>

한 분이 재창조 관련 글(밑에 있음)을 보내서 답을 주기 위해 한때 리크만 박사의 신봉자였다가 성경을 보고 갭 이론을 버린 티모티 모튼(Timothy S. Morton)의 책을 소개하였습니다. 89쪽짜리 책의 제목은 『결길로 빠진 재창조』(The Genesis Gap Sidetrack: Is There a “Gap” Between Genesis 1:1 and 1:2?)이고 여기서 저자는 재창조가 왜 안 되는지를 역사와 사전과 성경의 구절들을 근거로 조목조목 이야기합니다.

혹시 이에 대해 의문이 있는 분들은 아마존에서 책이나 킨들 파일을 구매해서 한번 읽어 보기 바랍니다.¹

재창조가 왜 안 되는지 모튼이 말하는 명백한 이유 한 가지만 말씀드립니다. 계시록 21장에 보면 천년 왕국이 끝나고 하나님께서 새 하늘과 새 땅을 만드시는 기사가 나옵니다. 계시록 21장 1절은 다음과 같이 말합니다.

And I saw a new heaven and a new earth: for 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 were passed away; and there was no more sea.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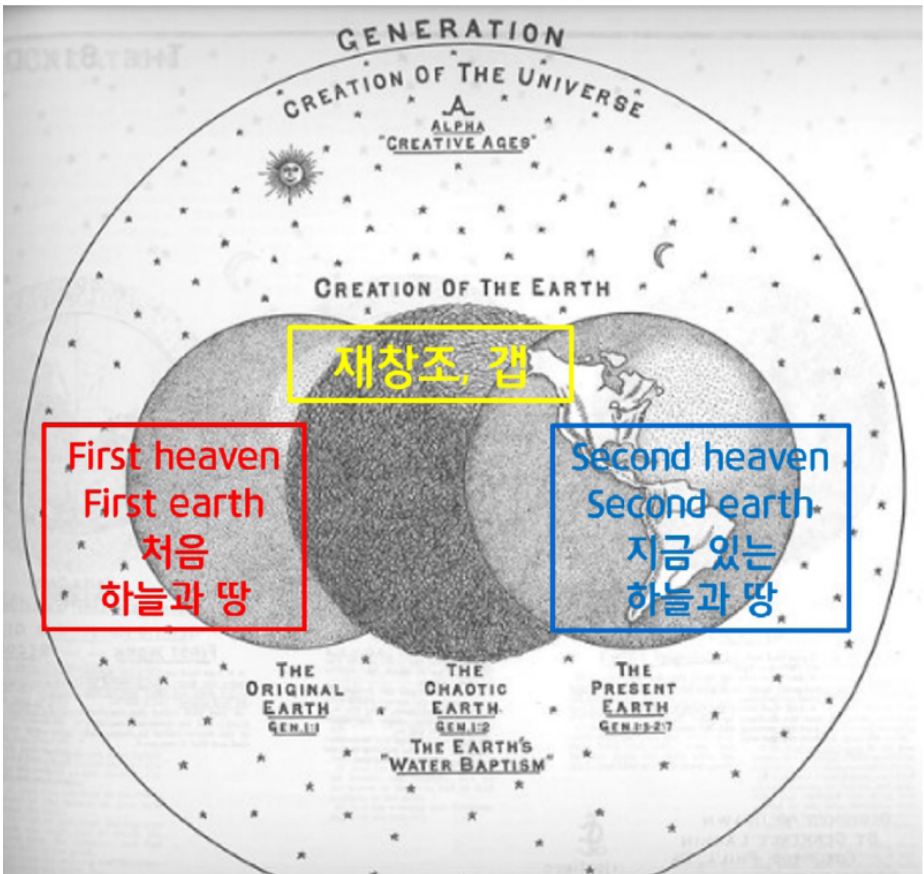


1. 『결길로 빠진 재창조』(모튼)

내가 새 하늘과 새 땅을 보았으니 이는 처음 하늘과 처음 땅이 사라졌고 바다도 다시는 있지 아니하였기 때문이더라.

여기서 보듯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the first heaven and the first earth)입니다.

다음 그림이 보여 주듯이 만일 재창조가 맞는다면 지금 존재하고 있는 하늘과 땅은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the second heaven and the second earth)이 되어야만 합니다.



라킨의 재창조 도표: 첫 번째 하늘과 첫 번째 땅, 재창조 이후 지금 존재하는 두 번째 하늘과 두 번째 땅

모튼은 이런 것을 스스로 성경을 찾아서 발견하고 릭크만과 그의 재창조를 과감히 버렸습니다.

어느 것이 옳은지는 독자들이 판단하기 바랍니다. 지금 미국에서 근본주의자들(신학교) 가운데 재창조를 믿는 사람은 거의 없습니다. 여하튼 모튼의 책은 이런저런 증거들을 가지고 결길로 나간 재창조 이론(가정)의 잘못된 점들을 보여 주고 있으니 참조하기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마제스티 에디션 KJV 흠정역과 KJV 영어 성경을 같이 보면서 성경을 읽고 있는데 창세기 1장 28절 말씀이 번역이 잘못된 것 같아 문의드립니다.

KJV Genesis 1:28 And God blessed them, and God said unto them, Be fruitful, and multiply, and replenish the earth, and subdue it: and have dominion over the fish of the sea, and over the fowl of the air, and over every living thing that moveth upon the earth.

— and replenish the earth

이 부분은 “땅을 다시 채우라.” 이렇게 번역하는 게 맞는 것 같은데 마제스티 에디션 성경에는 이 부분을 “땅을 가득 채우라.”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혹시 오타가 있는 게 아닌가 해서요. 감사합니다!

※ 최근에 한 분이 모튼의 책을 우리말로 번역하였고 킵바이블에 있으니 누구든지 QR 코드 링크에서 다운로드해서 보기 바랍니다.² 📄



2. 결길로 빠진 재창조, 창세기 1장 2절, 28절

딤후전 3:16의 godliness는 경건이 아니라 하나님의 성품이다: 하나님이 경건인가?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는 godly, ungodly같은 말이 여러 번 나옵니다. 이것들은 참으로 번역하기 어려운 단어 중 하나입니다.

- godly 15회(시4:3-요삼6), godliness 15회(딤후전2:2-벧후3:11), 총 30회
- ungodly 27회(삼하22:5-유18), ungodliness 4회(롬1:18-딤후2:12), 총 31회

이렇게 이 단어들은 형용사나 명사로 영어 킹제임스 성경에 총 61회 나옵니다. 기존 성경(개역 등)에는 이것들이 경건하다, 불경건하다, 악인 등으로 번역되어 있습니다. 이 단어들에 god이 들어 있으므로 우리는 이것들이 하나님의 성품 혹은 속성과 관계가 있음을 짐작해 볼 수 있습니다. 그러나 기존 성경에는 몇 군데에만 하나님의 뜻대로 등으로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옥스퍼드 영어 사전(OED)에서 godly를 보면 다음과 같이 되어 있습니다.

- Of or pertaining to God; coming from God; divine; spiritual. Obs. exc. arch. (하나님에게 속한, 하나님에게서 오는, 신적인...)

한영사전은 이 말을 ‘신을 공경하는, 고어: 하나님에게 속한, 신성한’ 등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러니까 원래대로 하면 godly는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등의 뜻을 가지고 있습니다.

흠정역 성경은 이미 61회의 반수 이상을 그렇게 번역하였고 개역성경도 몇 군데 그렇게 하였습니다. 고후7:10은 그 예를 보여 줍니다.

For godly sorrow worketh repentance to salvation not to be repented of: but the sorrow of the world worketh death.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은 회개를 이루어 다시 돌이킬 수 없는 구원에 이르게 하지만 세상의 근심은 사망을 이루느니라.

개역성경도 마찬가지로 번역하였습니다. 자, 그런데 진짜 문제는 딤편3:16에서 발생합니다.

KJB: And without controversy great is the mystery of godliness: God was manifest in the flesh, justified in the Spirit, seen of angels, preached unto the Gentiles, believed on in the world, received up into glory.

논쟁의 여지가 없이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는 위대하도다. 하나님께서 육체 안에 나타나시고 성령 안에서 의롭다 인정받으시고 천사들에게 보이시고 이방인들에게 선포되시고 세상에서 사람들이 믿는 분이 되시고 들려서 영광으로 들어가셨느니라.

개역: 크도다 경건의 비밀이여 그렇지 않다 하는 이 없도다...

이 구절은 하나님께서 사람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셨다가 모든 것을 마치고 승천하신 것을 기록하고 있으며 하나님의 이 모든 일을 한마디로 ‘the mystery of godliness’라고 말합니다.

킹제임스 성경은 여기서 the mystery of godliness를 하나님의 성품의 신비라고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성품이란 됴됨이를 뜻합니다. 즉, 킹제임스 성경은 하나님의 이런 됴됨이가 큰 신비라고 말합니다. 그런데 개역 성경은 이것을 경건의 비밀이 크다고 번역합니다.

여기서 주의해야 할 것이 있습니다. 우리말에서 ‘경건’은 ‘경건하다’의 어근이지 경건 자체가 명사가 아닙니다. ‘거룩하다’의 ‘거룩’도 마찬가지입니다. 많은 분들이 거룩이 명사인 줄로 착각하고 하나님의 거룩을 추구하라고 외칩니다. 이게 한국 교회의 슬픈 현실입니다.

문법이나 한국어 용례도 모르는 목사들이 수두룩합니다. 거룩은 거룩하다의 어근이지 거룩 자체가 명사가 아닙니다.

자, 여러분은 경건(혹은 경건함)이 무엇을 뜻한다고 생각합니까? 경건하다는 말은 국어사전에 ‘공경하며 삼가고 엄숙하다’를 뜻하는 것으로 나와 있습니다. 그러면 엄숙함이 위대한 신비일까요? 대체 무엇이 엄숙하다는 말인가요?

이렇게 말이 안 되는 번역을 가지고 100년 이상 지내다 보니 이 위대한 말씀의 의미를 아는 사람이 한국에는 많지 않습니다.

이것은 하나님인 예수님의 성육신, 십자가 처형, 구원자와 주와 그리스도가 되신 것, 승천하신 것 등을 총괄하는 말로 표현되어야 합니다. 그 말이 바로 **godliness**입니다. 즉 하나님의 성품, 하나님의 됴됨이입니다. 이 중요한 말을 경건으로 번역하는 것은 결코 하나님의 뜻이 아닙니다.

개역성경은 그렇다 쳐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성경들은 바르게 이것을 번역해야 하지 않을까요?

한글킹제임스: 경건의 신비

표준역: 경건의 신비

근본역: 경건의 신비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데 어쩌면 다 개역성경을 그대로 복사했는지 알 수가 없습니다. 더욱이 표킹은 고후7:10도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이 아니라 ‘경건한 슬픔’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사람이 경건하게 슬퍼하면 구원을 받을까요? 이런 곳은 godly를 하나님의 뜻대로 하는 근심으로 번역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뒤의 세상의 근심과 대비가 되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sorrow는 슬픔만을 뜻하지 않습니다. 옥스퍼드 사전을 가서 그 뜻을 보면 다양합니다.

- 고통
- 고통의 원인
- 근심
- 슬픔

우리는 godly를 바르게 번역해야 합니다. 시1:1을 보도록 합시다.

Blessed is the man that walketh not in the counsel of the ungodly, nor standeth in the way of sinners, nor sitteth in the seat of the scornful.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고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조롱하는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는 사람은 복이 있나니

여기의 ungodly를 단순히 악인, 불경건한 자들로 번역하면 안 됩니다. 구원 받은 성도라도 하나님을 따르지 않는 자들의 계획대로 걷지 아니하는 사람만 복을 받기 때문입니다. 이런 식으로 가능한 한 영어의 뉘앙스를 살려서 번역하지 않으면 godly, ungodly의 의미를 알 수 없습니다.

또한 딤후6:5를 보면 gain is godliness라는 말이 나옵니다. 이것은 딤후6:6에 나오는 동일한 표현, 즉 godliness is gain을 도치문으로 적은 것입니다.

여하튼 이런 데서도 이득이 경건이라고 적으면 말이 안 됩니다. 이득이 경건이라는 말이 우리말에 있나요? 이런 말을 평생에 한 번이라도 들은 적이 있나요?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하는(즉, 예수님 믿으면 무조건 잘 산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피하라는 말입니다. ‘이득이 경건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피하라고 하면 말이 되나요? 이득이 경건이라는 말은 일단 경건이라는 명사가 우리말에 없으니 틀린 말이고 그런 표현 자체는 우리말에서 한 번도 쓰이지도, 발견되지도 않는 것입니다.

그렇게 써 놓고 영어 킹제임스 성경대로 번역했다고 하면 누가 거기에 동조할까요? 미국 사람, 영국 사람이 다 그렇게 보지 않는데요.

그들은 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이 있는데 이런 자들을 피해야 한다고 이해합니다. 이런 데 나오는 godliness는 그런 뜻이고 여기의 문장은 도치문입니다. ㄹ

도치를 살리면 우리말이 안 되는 사례: 디모데전서 6장 5-6절

정상문과 도치문의 번역

영어에 다음과 같은 두 개의 문장이 있습니다.

A is B.

B is A.

이러면 둘 중 하나는 정상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도치문입니다.

국어사전에 도치문은 다음과 같이 나와 있습니다.

- 도치문: 정상적인 어순을 뒤바꾸어 놓은 문장. 흔히 문장 성분의 강조를 위하여 쓰는데, ‘보고 싶어요, 나의 어머니가.’ 따위이다.

1611년 킹제임스 성경은 마침표, 쉼표, 느낌표, 물음표 등을 빼고는 심지어 인용 부호도 사용하지 않았습니다. 원어 성경도 당연히 그렇습니다.

그래서 무언가를 강조할 때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괄호나 도치문을 사용하였습니다.

괄호 사용의 예: 고후5:6-8

6 그러므로 우리는 항상 확신에 차 있으며 우리가 몸 안에서 집에 거하는 동안에는 주로부터 떨어져 있는 줄을 아노니

7 (우리는 믿음으로 걷고 보는 것으로 걷지 아니하노라.)

8 내가 말하노니 우리는 확신에 차 있으며 오히려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이렇게 괄호를 사용하면 7절이 강조될 수밖에 없습니다.

또한 도치문은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애가 3장 22-23절

주의 긍휼로 말미암아 우리가 소멸되지 아니하였으니 그분의 동정심은 끝이 없도다. 그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신실하심은 크시니이다.

... They are new every morning: great is thy faithfulness.

끝 문장 great is thy faithfulness는 원래 thy faithfulness is great로 쓰는 것이 정상이지만 강조를 위해 도치문으로 바뀌었습니다. 이것을 영어 그대로 번역한다고 ‘크시니이다, 주의 신실하심은’으로 하면 매우 이상함을 보게 될 것입니다.

마15:28에도 비슷한 것이 있습니다.

오 여자여, 네 믿음이 크도다.

great is thy faith.

영어 성경대로 번역해야 한다고 주장하는 사람들이 이것을 ‘크도다, 네 믿음이’로 번역하면 말이 안 될 것입니다. 구약 성경에 보면 David the King이라는 말이 14번 나옵니다. 이것은 다윗 왕으로 번역되었습니다. 그리고 King

David는 32번 나옵니다. 이것도 도치를 그대로 살리려면 왕 다윗으로 해야 하지만 그렇게 번역한 성경은 없습니다. 이것도 역시 위의 David the King처럼 다 다윗 왕으로 번역하였습니다. 그 이유는 우리말에서는 왕 다윗으로 쓰는 경우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이런 예를 통해 우리는 영어의 도치문을 그대로 살리면 우리말 번역이 심히 부자연스러운 데가 많으므로 수천 군데의 도치문이 우리말에서는 정상적인 문장으로 번역되었음을 알 수 있습니다.

디모데전서 6장에는 A is B, B is A, 이 두 문장이 5절과 6절에 연달아 나옵니다. 영어를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5절: Perverse disputings of men of corrupt minds, and destitute of the truth, supposing that gain is godliness: from such withdraw thyself.

6절: But godliness with contentment is great gain.

5절과 6절에서 이런저런 것을 다 빼면 핵심 문장은 다음과 같이 짧게 축약이 됩니다.

5절: gain is godliness.

6절: godliness is gain.

이 둘은 전형적인 A is B, B is A 형태의 두 문장입니다. 따라서 둘 중 하나는 정상 문장이고 다른 하나는 강조를 위한 도치 문장입니다. 영어를 볼 줄 아는 분이라면 곧장 눈치챌겠지만 여기서는 6절의 **godliness is gain**이 정상 문장입니다. 그래서 6절은 흠정역에서 다음과 같이 번역되었습니다.

6절: 그러나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니

즉, godliness is gain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이득이다’로 번역되었습니다

다.

자, 그런데 5절이 문제가 됩니다. 5절은 도치문이니까 도치를 살리면 gain is godliness.가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다.'로 번역되어야 합니다.

우리말에서 이런 식으로 쓴 글을 보셨나요? 이득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라는 말은 우리말에서 사용되는 형식이 아닙니다. 따라서 이런 말은 번역을 할 때 위에서 했듯이 도치문을 정상 문장을 바꾸어서 해야 합니다. 그러면 6절처럼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다로 나옵니다. 이러면 5절, 6절이 동일한 것을 말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것을 살려서 5절 전체를 번역하면 다음과 같습니다.

마음이 부패하고 진리가 없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의 비뚤어진 언쟁이 생기나니 너는 그러한 자들로부터 떠나라.

여기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이라고 생각하는 사람들이란 믿음 생활을 하면 - 즉, 예수님만 믿으면 - 만사가 형통한다는 기복 신앙인들을 말합니다. 바울은 디모데에게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이 이득인가요? 이것 하나만 두고 보면 대부분의 경우 답이 Yes일 것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면 당연히 천국에 가서 영원한 삶을 사니 이득입니다.

그러나 여기서는 그런 문맥이 아닙니다. 여기서 바울은 하나님을 믿으면서 거룩하게 살면 모든 일이 잘된다고 주장하는 악한 자들이 있다고 말합니다.

우리는 그런 자들에게서 떠나야 합니다. 그리고 6절에서 바울은 세상의 눈으로 볼 때 조금 못 살아도 자기가 가진 것에 만족하면서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득이 된다고 말합니다.

바로 이것이 2구절이 보여 주려는 핵심입니다.

심지어 개역, 공동 번역 등도 이런 취지로 이해하고 바르게 번역하였습니다.

개역: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경건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경건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물론 경건은 틀린 말입니다. 하나님을 따르는 것 혹은 믿음 생활하는 것이 옳은 말입니다. 경건은 명사가 아니라 경건하다의 어근이므로 경건 자체를 명사로 쓰는 것은 옳지 않습니다. 그래서 개역을 조금 바꾸면 흠정역과 같은 뜻으로 이해가 됩니다.

개역: 5 마음이 부패하여지고 진리를 잃어 버려 하나님을 따르는 것을 이익의 방도로 생각하는 자들의 다툼이 일어나느니라 6 그러나 자족하는 마음이 있으면 하나님을 따르는 것은 큰 이익이 되느니라

그런데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것들을 보면 5절이 참으로 이상하게 되어 있습니다.

한킹: 이익이 경건이다.

표킹: 이득이 경건이다.

근킹: 이득이 경건이다.

앞에서 지적했듯이 이런 표현은 우리말에 없습니다. 또한 경건은 명사가 아닙니다. 도치를 살려야 한다고 이렇게 이상하게 번역하고는 오히려 오히려 번역한 흠정역 성경을 비방하고 나무라는 사람들이 있으니 참으로 어이가 없습니다. 영어의 도치문을 우리말로 그대로 옮기면 대개의 경우 문장이 이상하거나 뜻이 통하지 않습니다. 우리말에는 그런 도치문의 용례가 거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거의 모든 성경들이 영어나 원어를 번역할 때 도치문이라 해도 정상적

인 문장으로 번역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뜻이 통하고 우리말 용례에 맞기 때문입니다.

도치를 살려야 한다고 주장하는 분들의 번역을 보기 바랍니다. 아마 그들도 수천 군데에서 도치를 정상으로 해서 번역했을 것입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할 때 우리는 우리나라 말의 문법과 용례에 맞게 번역해야 합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의 말을 들어보기 바랍니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 없이 깊은 우물 옆에 서 있는 아이들과 같다.

이런 것을 무사히고 “나는 한 소년입니다.”, “비둘기가 날자 그녀(비둘기)의 발에서 먼지가 떨어졌다”, “제단으로 가서 그(제단)의 발들을 닦으라”, “저기 있는 한 꽃을 가져와라”라는 식으로 번역하고는 그것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한 것이라고 주장하면 한마디로 어처구니가 없는 것입니다.

참고로 어처구니에 대해 말씀드립니다. ‘어처구니’라는 말이 원래 맷돌의 손잡이를 일컫는 말이라는 설이 있다. 즉, 흔히 난감한 상황에서 쓰는 관용 표현 ‘어처구니가 없다.’라는 말은, 맷돌의 손잡이가 없어 문제가 생겼을 때 사용하는 말이라는 것이다.

손잡이가 없으니 어떻게 맷돌을 돌리겠습니까? ☹



어처구니

킹제임스 성경을 근본적으로 개악(改惡)한 근본역

얼마 전에 어떤 사람들이 킹제임스 성경 번역이라고 하면서 ‘근본역’이라는 것을 냈다고 합니다.

지인 중에 한 분이 이것을 알려 주시면서, 번역의 수준을 보니 학생들을 사용하여 번역한 것 같다는 평을 주면서 그 예로 다음 몇 가지를 알려 주셨습니다.

1. 예수님의 고향을 가버나움으로 바꾸어 버림(눅4:23)

근본역: 이에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여, 너 자신을 고치라, 한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우리가 들어왔던 것을 무엇이든 네 고향인 이곳 가버나움에서도 행하라, 하고 내게 말할 것이라, 하시더라.

지금 이것은 눅4:16이 기술하듯이 예수님의 고향인 나사렛에서 일어난 사건을 보여 줍니다. 그런데 위에서 보듯이 근본역은 예수님의 고향을 가버나움으로 근본적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다음에서 보듯이 이 세상의 모든 성경은 그분께서 가버나움에서 한 모든 일

을 여기, 즉 그분의 고향인 나사렛에서도 하라고 말합니다.

KJV: And he said unto them, Ye will surely say unto me this proverb, Physician, heal thyself: whatsoever we have heard done in Capernaum, do also here in thy country.

NIV: Jesus said to them, "Surely you will quote this proverb to me: 'Physician, heal yourself! Do here in your hometown what we have heard that you did in Capernaum.'"

개역: 예수께서 저희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반드시 의원아 너를 고치라 하는 속담을 인증하여 내게 말하기를 우리의 들은 바 가버나움에서 행한 일을 네 고향 여기서도 행하라 하리라

카톨릭: 예수님께서서는 그들에게 이르셨다. "너희는 틀림없이 '의사야, 네 병이나 고쳐라.' 하는 속담을 들며, '네가 카파르나움에서 하였다고 우리가 들은 그 일들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해 보아라.' 할 것이다."

흠정역: 그분께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분명히, 의사야, 너 자신을 고치라, 하는 이 격언을 내게 말하며 *이르기를*, 네가 가버나움에서 행하였다고 우리가 소문으로 들은 모든 것을 여기 네 고향에서도 행하라, *하리라*, 하시고

2. 포도주 혹은 포도즙(wine)을 포도 음료(grape drink)로 바꾸어 버림

흠정역, 개역, 공동 등 이 세상 모든 성경(창9:20-21): 노아가 농부가 되기 시작하여 포도원을 세우고 포도주(wine)를 마신 뒤 취해 자기 장막 안에서 덮지 않은 채 있었더니

노아는 포도주를 마시고 취하였습니다. 너무나 상식적인 사실입니다. 그래서 성경은 술을 금합니다. 그런데 근본을 자랑하는 근본역은 이것을 통째로 포도 음료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근본역: 그가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하여, 그가 자기 장막 안에서 몸을 덮지 않고 있었더라.

포도 음료를 마시고 취하는 사람이 있나요? 구글이나 네이버에 가서 포도 음료로 검색하면 어떤 것이 나오나요? 썬키스트, 델몬트 등 물에다 포도주스를 섞은 제품들이 나오지 않습니까?

음료는 마실 수 있는 모든 액체를 뜻하지만, 그 앞에 명사나 형용사가 붙으면 뜻이 한정됩니다. 청량음료, 탄산음료, 오렌지 음료, 사과 음료, 포도 음료 등 앞에 명사가 붙으면 모두 알코올 성분을 함유하지 않은 음료가 됩니다. 성경은 보편적인 상식을 가지고 번역해야 합니다. 초등학교, 중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는 말을 사용해야 합니다.



웰치스 포도 음료

근본역은 술을 먹지 말라는 것을 강력하게 보여 주는 잠20:1도 바꾸어 버렸습니다.

흠정역, 개역 등 모든 성경(잠20:1): 포도주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독주는 날뛰게 하는 것이므로 누구든지 그것들에 의해 속는 자는 지혜롭지 아니하니라.

근본역: 포도 음료는 조롱하게 하는 것이요,...

포도 음료를 마시면 사람을 조롱하게 될까요?

근본역은 잠31:4도 이렇게 번역하였습니다.

근본역: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왕에게 합당하지 아니하니라.

왕이 포도 음료를 마시는 것이 왜 합당하지 않을까요? 이 세상의 모든 성경들은 왕이 포도주(즉, 술)를 마시지 말라고 합니다. 정신을 흐리게 하기 때문입니다. 잠23:31도 마찬가지입니다.

흠정역: 너는 포도주가 붉거나 잔에서 제 빛깔을 내거나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에 그것을 바라보지 말라.

이것은 포도주가 발효되면서 거품이 올라가는 것을 묘사합니다. Gill 주석: sparkles in the glass, sparkle의 뜻: 거품이 일다. 그런데 근본역은 이런 것을 전혀 보여 주지 않습니다.

근본역: 너는 포도 음료가 붉을 때... 그것이 스스로 똑바로 움직일 때 쳐다보지도 말지어다.

포도 음료는 영원히 두어도 발효하지 않으므로 스스로 똑바로 움직이지 않습니다. 참으로 기가 막힌 것은 에베소서 5장 18절에서 발견됩니다. 이것은 근본역 부실 공사의 끝판왕입니다.

흠정역, 개역 등 모든 성경: 술 취하지 말라. 그것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히려 성령으로 충만할지니라.

근본역: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 거기에는 과도함이 있나니 오직 성령으로 충만하라.

KJB: And be not drunk with wine, wherein is excess; but be filled with the Spirit;

포도 음료를 과하게 마시지 말라는 말씀이 성경 어디에 있습니까? 이것은 성경 번역이 아니라 반역입니다. 그들은 또한 ‘과하게’라는 말을 임의로 추가하였습니다. 영어든 원어든 어디에 ‘과하게’라는 말이 있습니까? 이렇게 단어를 임의로 추가하는 것은 마귀가 하는 일이 아닐까요?

또 그들은 ‘충만하라’라는 말을 썼는데 이것은 우리말 문법에 맞지 않습니다. ‘충만하다’는 형용사이므로 ‘충만하라’의 형태로 쓸 수 없습니다.

“너 예빠라”라고 하면 말이 될까요?

이것은 명령문이므로 우리말에서는 ‘...르지니라’를 쓰면 동사, 형용사 모두 명령문으로 쓸 수 있습니다.

이들은 분명히 wine이라는 단어가 1차적으로 포도즙임을 알고 있으면서도 자기들의 특정 신학을 유지하기 위해 고의로 포도 음료라고 번역한 것 같습니다. winepress라는 단어를 보기 바랍니다.

흠정역: 그분의 입에서 예리한 검이 나오므로 그분께서 그 검으로 민족들을 치시고 친히 쇠막대기로 그들을 다스리시며 또 친히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winepress)을 밟으시리라(계19:15).

근본역: ... 그분께서 전능자 하나님의 맹렬한 진노의 포도즙 틀(winepress)을 밟으시느니라.

근본역도 분명히 winepress를 포도즙 틀이라고 번역하였습니다. 그러고는 다른 모든 곳에서 wine을 포도 음료(grape drink)로 했으니 이것은 심각한 오역이고 더욱이 음료를 임의로 추가한 것입니다.

근본역은 술을 마시면 안 된다는 하나님의 경고를 사람들에게 선포할 근거를 다 제거해 버렸습니다. 그런 차원에서 이것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닙니다. 개역, 카톨릭 성경만도 못하지 않습니까?

3. 대언, 대언자를 예언, 예언자로 바꾸어 버림

근본역은 성경에서 매우 중요한 단어 중 하나인 ‘대언하다’(prophecy), ‘대언자’(prophet)를 ‘예언하다’, ‘예언자’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대언하다’, ‘대언자’에 해당하는 히브리어 및 그리스어는 ‘누구를 위해 대신 말하다’를 뜻합니다. 성경이 성경 단어의 뜻을 알려 주므로 성경을 보겠습니다.

흥정역: 주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보라, 내가 너를 파라오에게 신이 되게 하였으니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라(출7:1).

이 부분은 개역성경도 똑같습니다.

개역: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이르시되 볼지어다 내가 너로 바로에게 신이 되게 하였은즉 네 형 아론은 네 대언자가 되리니

하나님은 이미 출4:16에서 다음과 같이 말씀하셨습니다,

그가 백성을 향해 네 대변인(spokesman)이 되리니 그가 곧 그가 너에게 입을 대신할 것이요, 너는 그에게 하나님을 대신하리라.

앞뒤 문맥상 출4:13-16을 보기 바랍니다. 여기에 대변인(spokesman)이 나옵니다. 청와대나 백악관에서 대통령을 위해 대신 말하는 사람이 바로 대변인(spokesman)입니다. 그래서 prophet은 대언자이지 예언자가 아닙니다.

그러면 이제 출7:1을 근본역으로 보기 바랍니다.

근본역: ... 네 형 아론은 너의 예언자가 되리라.

아론이 모세의 예언자가 된 적이 있습니까?

이런 식으로 하다 보니 근본역은 고린도전서 14장의 대언하는 선물을 모두 예언으로 바꾸어 버렸습니다. 그러면 교회에서 예언해야 할까요? 산 기도 가고 예언받으러 가야 할까요?

이런 번역은 옳지도 않고 한마디로 성경의 뜻을 변개하는 것입니다. 영어 옥스퍼드 사전이 무어라고 말합니까? **대언자(Prophet)**의 첫 번째 의미는 ‘하나님을 위해(혹은 대신해서) 말하는 사람’이라고 하지 않습니까?

- OED: I.1.a One who speaks for God or for any deity, as the inspired revealer or interpreter of his will; one who is held or (more loosely) who claims to have this function; an inspired or quasi-inspired teacher.

이 외에도 근본역에서는 오역과 부실함이 수도 없이 발견됩니다.

고후13:1, 내가 이제 세(3) 번째 너희에게 가려 하노라.

고후13:2, 내가 두(2) 번째 미리 말하노라.

우리나라 책들에서 ‘두(2) 번째’, ‘세(3) 번째’라고 쓴 글을 본 적이 있습니까? 이것은 우리말이 아닙니다.

히3:10, 그들이 항상 잘 못 행하고

‘잘 못 행하다’라니 이게 무슨 말이고 문법입니까? 초등학교 아이들도 이렇게 쓰지 않을 것입니다.

저에게 이런저런 자료들을 보내고 몇 가지를 분석해 준 분의 총평은 다음과 같습니다.

“근본역 번역자들에게서는 understanding(명철, 이해력)이 사라져 버렸다.”

여러분도 원하시면 한번 읽어 보시기 바랍니다. 통일성이 없고 읽힘성이 떨어져서 쪽쪽 읽어나갈 수가 없습니다. 계속해서 글이 막히나….

끝으로 그들이 흠정역 성경을 한 글자만 빼고 그대로 복사한 것을 보기 바랍니다(딤후3:16-17).

흠정역: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근본역: 모든 성경기록은 하나님의 영감에 의해 주어진 것으로 교리와 책망과 바로잡음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것은 하나님의 사람이 완전하게 되어 모든 선한 일들에 철저히 갖추어지게 하려 함이라.

카피했다는 것을 피하기 위해 그들은 ‘모든 선한 일’ 대신 ‘모든 선한 일들’로 바꾸어 놓았습니다. 그러나 이런 경우 우리말에서는 ‘모든 선한 일’이 읽기에 더 좋습니다. 두 구절을 이렇게 똑같이 번역하는 것은 누가 보아도 정직하지 않은 일입니다.

‘순수한 공적 번역’이라는 미명하에 순진한 사람들을 홀리는 사람들이 다시는 이 땅에 나타나지 않으면 좋겠습니다. 15년 이상 번역했다는 것이 이 정도 니 참으로 개탄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

근본역의 부실한 번역과 과도한 한자어 사용, 그리고 노력 부족

성경을 번역하려면 많은 노력을 기울여야 합니다. 집중해서 읽고 또 읽고, 비교하고 또 비교해야 합니다.

15년에 걸쳐 킹제임스 성경을 번역했다는 근본역을 이번에 잠시 살펴보니 몇몇 목사들이 그 긴 기간에 무슨 일을 했는지 잘 알 수가 없습니다.

1. 명백한 오역

호세아서 14장 9절을 보면 다음과 같습니다.

흠정역: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일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 그것들을 알겠느냐?

Who is wise, and he shall understand these things? prudent, and he shall know them?

근본역: 누가 지혜가 있어 이런 것들을 깨닫겠느냐? 누가 분별이 있어서 그가 그 것들을 깨닫겠느냐?

여기에는 앞에 ‘understand’가 나오고 그 뒤에 ‘know’가 나옵니다. 이런 단어들은 중학생도 다 아는 것들입니다. 흠정역, 개역, 카톨릭 성경 등 모든 성경이 앞의 ‘understand’는 ‘깨닫다’로, 뒤의 ‘know’는 ‘안다’로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15년 이상 번역했다는 근본역은 둘 다 ‘깨닫다’로 번역하였습니다. 참으로 믿기지 않는 일입니다. 이런 구절에서는 앞의 ‘who’와 그다음의 ‘he’가 같은 존재이므로 ‘he’를 ‘그가’로 번역하면 오히려 뜻이 이상하게 됩니다. 그래서 흠정역처럼 번역해야 합니다. 그런데 근본역은 앞은 흠정역처럼 하고 뒤역시 동일한 형태의 글인데도 ‘그가’를 넣었습니다.

이것을 보면 역자들이 영어 구문을 전혀 대조하지 않았음을 알 수 있습니다. 우리말 운율 같은 것은 안중에도 없었던 것 같습니다. 앞에는 ‘있어’, 뒤에는 ‘있어서’로 해서 통일성을 찾을 수 없습니다. 그래서 여러 사람들이 나누어서 번역한 뒤 제대로 여러 사람들이 여러 차례 돌아가며 읽지 않고 통일도 하지 않고 그냥 모아서 출간한 것 같습니다.

2. 수많은 한자어

근본역에는 수도 없이 한자어를 많이 사용하고 한글 옆에 한자어를 병기하였습니다. 마27:27을 보면 common hall이란 말이 나옵니다. 흠정역은 ‘공동 집회장’이라고 쉽게 번역하였습니다. 그런데 근본역은 개역과 동일하게 ‘관정’이라고 하였습니다. 중고등학교 아이들 중에 관정을 알 사람이 있을까요? 그런데 관정의 한자어도 제대로 쓰지 않았습니다.

- 개역: 관정(官庭), 이 官庭은 ‘관가의 뜰’이라는 뜻입니다.
- 근본역: 관정(官廷), 이 官廷은 ‘고을의 수령’을 나타내는 말입니다.

근본역에 따르면 빌라도가 예수님을 고을 수령에게 데려간 것으로 보입니다.

이 외에도 어려운 한자어는 수도 없이 많으며 다음은 몇 가지 예입니다.

- 행27:19: 배의 삭구
- 유다서 7: 응벌
- 출25:30 등: 진설 빵
- 수20:5, 9: 불식간, 부지 중
- 사9:6: 기묘자
- 겔4:3: 공성퇴
- 학1:4: 판벽하여 꾸민 집
- 피조물: 국립국어연구원 사전에도 안 나오는 말, 올바른 말은 창조물임.

3. 기타 문법에 맞지 않는 것들

- 형용사와 동사를 구분하지 못한 사례들: 그들이 잠잠하였다(행11:18). ‘잠잠하다’는 형용사라 이렇게 동사처럼 쓸 수 없음
- 크레테가 아니라 크레타가 표준말이다(딤훈1:5).
- 주께서 가까우시니라(빌4:5), ‘가까이 계시느니라’는 돼도 ‘가까우시니라’는 이 경우 우리말이 아니다.
- ‘힘입다’ 앞에는 ‘를’이 아니라 ‘에’가 와야 합니다. ‘여러분의 성원에 힘입어...’ 이런 식으로(‘성원을 힘입어’가 아니라).
- 막3:22 통치자를 힘입어, 이런 것은 우리말에 맞지 않는다.
- 병행 구절인 눅11:19를 가서 보면 ‘말미암아’로 썼다. 이것은 4복음서 대조를 하지 않았음을 보여 준다.
- 내가 주께로부터 남자를 얻었다(창4:1). “...께로”부터라는 말은 우리나라 말이 아니다. 개역성경 부실 공사의 잔재이다. ‘주로부터’, ‘주에게서’로 써야 한다.

4. 결어

이제 이 정도로 하고 나중에 다른 분들이 정리해서 올릴 것입니다.

성경을 번역하는 것은 자유지만 중고등학교 학생들도 알 수 있게, 문법에 맞게 번역해야 합니다. 에라스무스, 틴데일, 루터 등 성경 번역자들의 소원은 아이들도 성경을 읽고 구원받는 것이었습니다. 그래서 그들은 그런 성경을 내기 위해 평민들의 글로 쉽게 성경을 번역하였습니다.

다음은 에라스무스의 말입니다.

나는 매우 연약한 여인이라도 복음서와 사도 바울의 서신서를 스스로 읽고 깨닫기를 바라며... 그런 말씀들이 모든 나라의 언어로 번역되어 스코틀랜드와 아일랜드 사람뿐만 아니라 터키 사람이나 이슬람 사람들이 읽을 수 있었으면 하고 바란다. 나는 또한 쟁기질하는 소년이 쟁기질을 하면서 하나님의 말씀을 노래하고, 옷을 짜는 사람이 옷 짜는 기계 소리에 맞추어 이 말씀들을 흥얼거리며, 여행하는 사람이 이 말씀들을 통해 여행의 무료함을 달랠 수 있기를 바란다... 우리는 다른 공부를 한 것으로 인해 후회할지도 모른다. 그러나 죽음이 다가올 때 성경 말씀을 읽는 사람은 참으로 행복한 사람이다. 이 귀한 말씀은 우리에게 직접 말씀하시고, 병을 고치시고, 죽으셨다 다시 일어나신 그리스도의 형상을 보여주며, 그분이 바로 우리 옆에 있음을 깨닫게 해 준다. (「Famine in the Lord」, Norman Ward, p.38)

무슨 책이든 번역을 제대로 하지 않으면 번역이 오히려 반역이 됩니다.

킹제임스 성경 역자들은 서문에서 번역에 대해 다음과 같은 명문을 남겼습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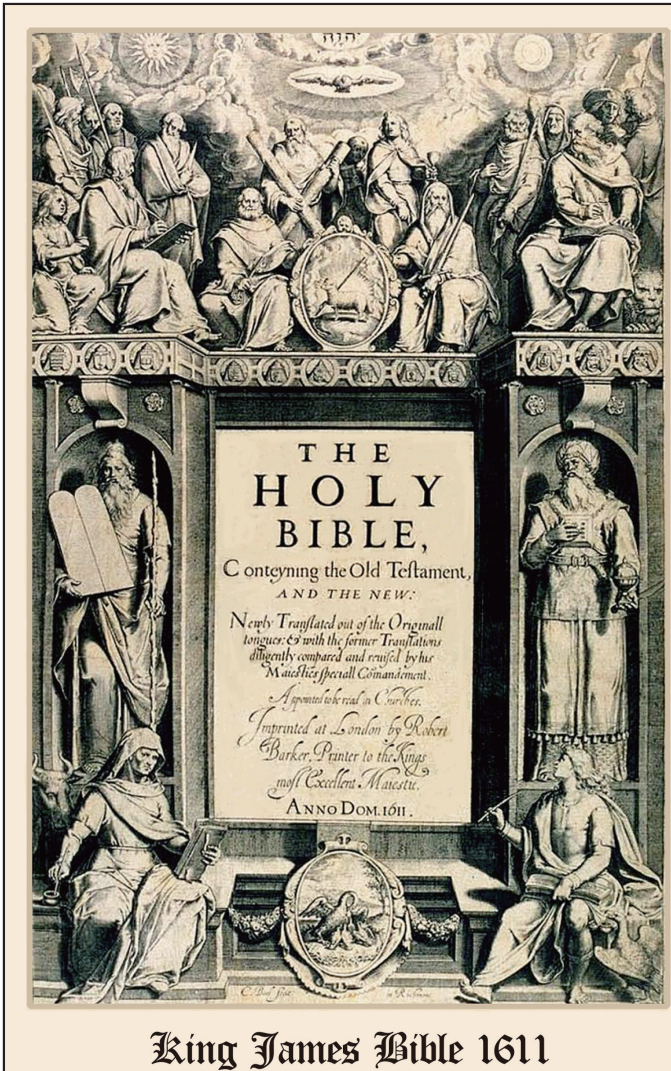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 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

은,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 내고 물을 길어 그것으로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요4:12) 야곱의 그 (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하나님의 은혜와 화평이 성경을 사랑하는 모든 분들에게 강력하게 임하기를 기도합니다.

샬롬

패스터. 



성경의 내용 번역은 물론 신학 용어 번역에 있어 만인이 수긍할 수 있는 기본 역본이 없다면 상당한 혼돈과 분파를 초래할 것이다. 그런데 다행히 킹제임스 역본이라는 결출한 역본이 있어서 1611년 이래 수백 년 동안 성경 역본과 신학의 기본 용어를 제공하는, 만인이 수긍하고 공인하는 기본 자료로서의 역할을 수행하여 왔는바 이 점에 있어서 킹제임스 역본의 공헌은 잊히지 아니할 것이다. 상술하면 킹제임스 역본은 영어는 물론 세계 각 나라 언어로 성경이 번역될 때 참고가 되는 제1의 통일 자료로서 활용되고 있기 때문이다. 이는 영어의 세계적 발흥과 아울러 킹제임스 역본의 내적 우수성이 동시에 작용한 결과이다. -톰슨대역 한영성경(기독지혜사, 부록 1, p. 4, 1989).

추천 참고도서

●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한영대역, 스테디, 큰글자, 박사, 신약성경 등) 그리스도예수안에(www.KeepBible.com)
2.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킹제임스 성경 답변서(구 '킹제임스 성경에 관한 100가지 질문과 대답') S. 김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킹제임스 성경 입문서(구 '킹제임스 성경 길라잡이') B. 버튼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5. 킹제임스 성경 변호 E. 힐즈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6. 킹제임스 성경의 4중 우수성 D. 웨이트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7. 킹제임스 성경의 영광 T. 홀랜드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8. 개역성경분석 정동수 저, 그리스도예수안에(사랑침례교회 무료 요청)
9. 바른 성경과 바른 사본을 찾아서 K. 파이퍼 저, 이황로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10. 신약분석성경(한/헬/영 대역판)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1. 뉴바이블 송종섭 저, 신약원어연구소
12. 우리말 성경 연구 나채운 저, 기독교문사
13. New Age Bible Versions, Gail Riplinger(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4. Final Authority, William P. Grady(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5. Did the Catholic Church Give Us the Bible?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천주교

1.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R. 존스 저, 정동수 박노찬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천주교의 유래 R. 우드로우 저,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3.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M. 로이드 존스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4. 무엇이 다른가? F. 리테나워 저, 생명의말씀사
5. 교황 대신 예수를 선택한 49인의 신부들 R. 베넷 & M. 버킹엄 저, 이길상 역, 아가페
6. 종교에 매이지 않은 그리스도인 F. 리테나워 저, 정창영 역, 생명의말씀사
7. 무모한 신앙과 영적 분별력 맥아더 저, 안보현 역, 생명의말씀사
8. 로마 카톨릭 사상평가 로레인 비트너 저, 이송훈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9. 천주교도 기독교인가? 유선호 저, 하늘기획
10. A Woman Rides the Beast Dave Hunt(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1. Babylon Religion David W. Daniels(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12. Queen of All Jim Tetlow(www.Chick.com 혹은 www.amazon.com)

● 뉴에이지 운동

1. 천사와 UFO 바로 알기(구 '천사는 있다', 'UFO는 있다') 정동수 편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뉴에이지 신비주의 - 이교주의와 뉴에이지 운동의 현재 김태한 저, 라이트하우스

4. 뉴에이지 운동(IVP소책자57) D. 그릇하이즈 저, 김기영 역, 한국기독교학생회출판부(IVP)
5. 뉴에이지 운동(비교종교시리즈7) 론 로우즈 저, 은성
6. 뉴에이지에 대한 연구와 대책(울타리 문화교재시리즈6) 낮은울타리

● 오순절 은사 운동

1. 오순절 은사 운동 바로 알기 W. 유인 외, 정동수 역, 그리스도예수안에
2. 무질서한 은사주의 존 맥아더 저, 이용중 역, 부흥과개혁사
3. 사단은 성도를 어떻게 속이는가? 제시 펜 루이스 저, 전의우 역, 기독교문서선교회
4. 방언 정말 하늘의 언어인가?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 창조와 진화

1. 1318 창조과학 A to Z 김재욱 저, 생명의말씀사
2. 창세기연구(상,하) 헨리 M.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3. 기원 과학 한국창조과학회, 두란노
4. 놀라운 창조 이야기 듀안 기쉬 저, 국민일보
5. 밝혀진 만물 기원과 창조 신비(창조과학시리즈1) 데니스 피터슨, 나침반
6. 숨겨진 공룡의 비밀 듀안 기쉬, 서용연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7. 자연과학과 기원 이용상 외 저, 한국창조과학회
8. 한 손에 잡히는 창조과학 이은일 저, 두란노
9. 가재 신비한 공룡의 세계로 폴 테일러 저, 송지윤 역, 꿈을이루는사람들
10. 고대 한자 속에 감추어진 창세기 이야기 벨슨 외 저, 전광호, 우제태 역, 기독교출판공동체
11. 심판대의 다윈 제2판 : 지적설계논쟁 필립 E. 존슨 저, 이승엽 이수현 역, 까치
12. 젊은 지구 J. 모리스 저, 홍기범 조정일 역, 한국창조과학회
13. 창세기에 답이 있다(구 '신앙 대 신념') 켄 함 & 폴 테일러 저, 한국창조과학회
14. 재창조는 없다 정동수 외, 그리스도예수안에(근간)

● 기타

1. 설교와 설교자 마틴 로이드 존스 저, 정근두 역, 복있는사람
2. 설교자는 불꽃처럼 타올라야 한다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3. 청중을 하나님 앞에 세우는 설교자 김남준 저, 생명의말씀사
4. 영혼을 인도하는 이들에게 주는 글 호라티우스 보나 저, 생명의말씀사
5. 월빙턴 종합성경연구 1,2,3 H. L. 월빙턴 저, 박광철 역, 생명의 말씀사
6. 하나님이 주신 보장된 삶 빌 길햄 저, 유상훈 역, 도서출판NCD엔시티
7. 성경은 해답을 가지고 있다 헨리 모리스 저, 전도출판사
8. 마케팅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9. 심리학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10. 엔터테인먼트에 물든 부족한 기독교 옥성호 저, 부흥과개혁사

개역성경에서 삭제된 구절들

	성경 구절	개역성경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1	마17:21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종류는 기도와 금식에 의하지 않고서는 나가지 아니 하느니라, 하시니라.
2	마18:11	(없음)	사람의 아들은 잃어버린 것을 구원하려고 왔느니라.
3	마23:14	(없음)	서기관들과 바리새인들, 위선자들이여, 너희에게 화가 있을지어다! 너희가 과부 들의 집을 삼키고 위장하려고 길게 기도하니 그러므로 너희가 더 큰 정죄를 받으리라.
4	막9:44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5	막9:46	(없음)	거기서는 그들의 벌레도 죽지 아니하고 불도 꺼지지 아니하느니라.
6	막11:26	(없음)	그러나 너희가 용서하지 아니하면 하늘에 계신 너희 아버지께서도 너희 범법 들을 용서하지 아니하시리라, 하시니라.
7	막15:28	(없음)	이로써, 그는 범법자들과 함께 계수되었다. 하고 말하는 성경기록이 성취되 었더라.
8	눅17:36	(없음)	두 남자가 들에 있을 터인데 하나는 붙잡혀 가고 다른 하나는 남겨지리라, 하시니라.
9	눅23:17	(없음)	(이는 그 명절이 되면 필히 빌라도가 반드시 한 사람을 그들에게 놓아주어야 하기 때문이었다.)
10	행8:37	(없음)	빌립이 이르되, 만일 그대가 마음을 다하여 믿으면 받을 수 있느니라, 하매 내 시가 응답하여 이르되, 예수 그리스도께서 하나님의 아들이심을 내가 믿노라, 하고는
11	행15:34	(없음)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라는 거기에 그대로 머무는 것을 기뻐하였으며
12	행28:29	(없음)	그가 이 말들을 하매 유대인들이 떠나 자기들끼리 큰 논쟁을 벌이더라.
13	롬16:24	(없음)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너희 모두와 함께 있기를 원하노라, 아멘.
14	요일 5:6~7	6 ... 물과 피로 임 하였고 7 증거하는 이는 성령이시니 성령은 진리니라	6 이분은 물과 피로 오신 분이시니 곧 예수 그리스도시니라... 증언하시는 분 은 성령이시니 이는 성령께서 진리이시기 때문이라, 7 하늘에 증언하는 세 분 이 계시니 곧 아버지와 말씀과 성령님이시라, 또 이 세 분은 하나이시니라. (개역성경은 7절을 빼고 원래 6절의 전반부는 6절에, 후반부는 7절에 넣음.)

표준새번역, 공동번역, NV, NASB 등도 위의 구절들을 빼거나 또는 원래 없는 것처럼 괄호나 각주 처리함.

하늘과 땅은 없어지겠으나 내 말들은 없어지지 아니하리라. (마24:35)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 소개



성경바로보기



요한계시록



9 788995 158784



03230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www.KeepBible.com NAVER 성경자킴이

ISBN 978-89-951587-8-4

동서출판 그리스도 예수안에

값 8,000원

개역성경 분석

〈표준새번역·공동번역·NV·NASB 등 포함〉

성경은 단 두 종류뿐이다!!

당신의 성경은 확실한 하나님의 말씀인가?

육체 밖에서 **욥기 19:26** 육체 안에서

(없음) **사도행전 8:37** (있음)

집승의 혼 **전도서 3:21** 집승의 영

삼위일체 삭제 **요한일서 5:7-8** 삼위일체 하나님 있음

계명성 **이사야 14:12** 루시퍼

해골 **누가복음 23:33** 갈보리

당신의 성경, 어느 쪽인가?

왜 킹제임스 성경인가?



킹제임스 흠정역



마제스티 에디션

한영대역 관주성경 스테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작은 성경 비교 신약 성경



1611년 킹제임스 바이블
인류 역사 최고의 성경!

(없음)이 없는 하나님의 말씀!

거대 로마 카톨릭 교회의 권력 하에서 중세 암흑시대를 살았던 민초들은 성경을 읽을 수 없었지만, 성경을 번역한 죄로 화형당한 선조들의 기도가 응답되어, 왕의 명령에 의해 탄생한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습니다. 지난 400년 동안 세상을 비추는 **진리의 빛 1611년 킹제임스 영어 성경**. 이제 우리에게도 하나님의 온전한 말씀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이 있습니다.

영어 킹제임스 성경은

- 원어의 단어들을 그대로 일대일 대응시켜 번역한 성경입니다.
- 지난 400년 동안 한 번의 개정도 없이 순수하게 보존된 성경입니다.
- 영어권에서 모든 성경과 모든 신학 서적의 표준이 된 성경입니다.
- 전세계 모든 성경 중에서 가장 많이 판매되고 읽히고 번역된 성경입니다.

우리말 킹제임스 흠정역 성경은

- 1611년 영어 킹제임스 성경을 충실하게 번역한 성경입니다.
- 읽기 쉽고 이해하기 쉬우며 운율이 유지되어 영감을 불러 일으킵니다.
- 용어 색인이 가능하도록 모든 중요 단어를 통일하였습니다.
- 역사성과 현실성을 인정하여 번역하였습니다.
- 원어와 영어의 감동 그대로를 전달하는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 **마제스티 에디션**은 30년 동안 번역/교정하여 완성한 성경입니다.



총판 : 생명의말씀사 www.lifebook.co.kr

본 출판사는 생명의말씀사 온라인서점에서 8대 성경 출판사로 곁이며, 흠정역 성경은 첫 출간 때부터 베스트 성경으로 자리잡았습니다.

바른 신앙을 위한 크리스천의 필독서!

성경 바로 보기 라킨 외/ 정동수 역

그림과 도표 등 알기 쉬운 자료들이 컬러로 수록된 책. 라킨의 책과 부록들로 성경 신자의 필수 지식을 담아 성경에 대한 정확한 이해를 돕는 책. 세대주의(경류)에 관한 책 합본.

구원 바로 알기 정동수

누구나 꼭 알아야 할 영혼 구원의 이유와 방법과 바른 구원에 관한 진리를 쉽게 설명한 책으로 불신자는 물론 구원의 개념이 명확치 않은 모든 크리스천을 위한 내용. 강의 MP3포함.

천주교 시리즈 3권 우드로우, 릭 존스, 로이드 존스 외

천주교의 유래/ 천주교는 기독교와 완전히 다릅니다/ 마틴 로이드 존스의 천주교 사상 평가

로마 가톨릭 교회에 대해 철저히 파헤치는 책으로 기원과 교리는 물론 장차 일어날 마지막 때의 일까지 알게 해주는 책. 3권 중 한 권만으로도 그 심각성과 문제점을 잘 알 수 있다.

킹제임스 시리즈 3권 사무엘 킵, 버트 외

킹제임스 성경의 역사/ 답변서/ 입문서

역사 : 성경의 기록과 보존 과정, 번역 과정, 번역상의 문제와 오류 등을 짚어 준다./ 답변서 : 100가지 질문과 답을 통해 킹제임스 성경의 오해를 풀고 왜 오류가 없는지 밝힌다./ 입문서 : 길잡이 역할, 흥정적 사용자들의 생생한 체험담 수록.

예수님의 피 바로 알기 레이시 외

레이시 목사, 디한 박사 등의 책이 합본으로 담긴 책. 피의 성분과 성경적 원리를 통한 구원의 놀라운 설리를 담은 책. 예수님 피의 복음이 왜 필요인지 알려주는 책.

천국과 지옥 바로 알기 레이시

레이시 목사의 천국 지옥에 관한 저서 2권 합본. 철저히 성경으로 천국과 지옥에 대한 잘못된 개념 설명, 놀라움과 두려움을 넘어 희망과 소망을 주며 전도에 대한 위급함을 일깨우는 책.

천사와 UFO 바로 알기 정동수

천사와 네티림, 마귀의 천사들의 땅속 음모와 미확인 비행물체에 대해 속 시원히 풀어주는 흥미로운 책.

오순절 은사운동 바로 알기 유인 외

유인 목사의 저서와 부록들로 구성된 사도행전을 오해해서 생기는 은사운동의 양상과 폐해를 파헤치고, 체험 주의 은사운동의 신비함을 추구하는 이들에게 참된 믿음을 알려 주는 책.

행위 종교와 은혜 복음 짚은 외/ 고정인 역

모든 것을 끝낸 복음과 행위로 이루어가는 불완전한 종교를 대비하여 구원의 영원성과 완결성을 일러스트와 함께 설명한 책.

성경의 역사: 아담 속의 등불 핀토/ 정동수 역

성경의 언어, 성경의 영감, 그리고 성경의 보존. 하나님의 말씀 성경이 우리의 손에 오기까지의 설리 등 성경의 모든 역사와 바른 성경의 뿌리, 기타 역본들의 실체를 한눈에 보여 주는 책.

이슬람교 바로 알기 클라우드 외/ 박용찬 외 역

테러와 우상숭배의 종교 이슬람의 정체 및 마지막 때의 역할을 분석한 책. 한국 이란인교회 이만석 목사의 글 등 부록에 수록.

죽음의 공포 극복하기 잭 맥엘로이

불신자들과 확신 없는 교인들에게 다른 종교들을 모두 비교해 기독교와의 차이점을 알리면서, 영혼을 온전히 살릴 수 있는 바른 주 예수 그리스도뿐임을 변증한 책.

세상을 바꾼 책 킹제임스 성경(1611)

그리스도예수안에 편저/ 김용목 외 역

영어성경의 역사와 함께 킹제임스 성경의 탄생 과정을 소개한 다큐멘터리 영화를 지면으로 볼 수 있도록 소개한 책.

왜 안 하는가? 정동수

사도신경, 주기도문, 축도, 새벽기도, 통성기도, 구약의 십일조, 일천 번째, 열린 예배와 록 음악, 방언/신유, 축사 등을 신약교회에서 하지 않는 이유를 설명한 책.

요한계시록 바로 알기 김재욱/ 정동수 책임감수

유대인의 역사, 세계 정세, 다니엘서 해석, 배교 현황 등을 통해 말세의 징조를 돌아보고 시각 자료를 통해 시대를 분별할 수 있도록 한 책. 바른 성경 해석과 비침침 등 중말론 총정리!

재림과 휴거 시리즈 2권 모리스, 정동수 외

역사와 영원의 파노라마/ 바로 알기

창조과학의 아버지 헨리 모리스 박사가 성경을 추적한 종말 분석서와 재림과 휴거에 관한 기본 지식을 모은 두 권의 시리즈.

에스라성경사전/지도 2권 정동수 외

성경을 바르게 공부하는 데 필요한 용어 색인 사전, 낱말 풀이 사전, 다양한 지도 및 선도 등을 제공한다.

킹제임스 흥정역

한영대역/ 스티디 바이블/ 큰글자 성경

다른 한국어 성경들은 물론, 기타 킹제임스 한글 번역본들과도 비교할 수 없는 가장 정확한 번역본 흥정역! 이미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증인이 되고 있다. 한영대역은 영문 원본과 대조할 수 있고, 스티디 바이블은 에스라 성경사전과 지도 및 선도 등을 포함하고 있다. 큰글자 성경과 작은 성경도 있다.

박사 성경

현대 역본 성경들이 안고 있는 문제의 핵심은 번역의 대본인 본문이 킹제임스 성경, 루터 성경 등과 다르다는 데 있다. 박사 성경은 NIV같이 소수 사본에 근거한 신약 성경에서 구체적으로 어떤 것들이 잘못되었는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에 표시하여 누구라도 문제를 쉽게 볼 수 있게 하였다.

비교 성경

이것은 한글 킹제임스 흥정역 성경, 개역성경, 영어 킹제임스 성경(KJV), NIV 신약 성경을 4개의 열에 병행해서 배열하여 누구라도 쉽게 4개의 성경을 비교/분석할 수 있게 한 성경이다.

개역성경분석

한국 사람들이 가장 많이 사용해 온 개역성경이 신학적으로 어떤 문제들을 가지고 있는지 보여 주고 왜 킹제임스 성경이 하나님의 바른 말씀인가를 보여 준다.

번역이란

창문을 열어 빛이 들어오게 하는 작업이다. 번역은 껍질을 까서 우리가 열매를 먹도록 해주며 휘장을 젖혀서 우리가 지성소를 들여다보게 해 준다. 번역은, 야곱이 우물 아귀에서 돌을 굴러 내고 물을 길어 그것으로 라반의 양 떼들에게 물을 주었던 것처럼(창29:10), 우물의 뚜껑을 열어 우리가 물로 나가게 해 준다. 참으로 보통 사람들의 말로 성경이 번역되지 않는다면 배우지 못한 사람들은 두레박이나 물길을 그릇이 없이(요4:12) 야곱의 그(깊은) 우물 옆에서 있는 아이들과 같고 이사야서에 언급된 사람, 즉 봉인된 책을 넘겨받아 읽을 것을 요구 받는 사람과 같을 것이다. ‘원하건대 이것을 읽으라, 하면 그가 이르기를, 그것이 봉인 되었으므로 내가 읽을 수 없노라, 할 것이요(사29:11)’.

- 비둘기, 나귀, 개미 등은 여자이고 등잔대, 언약궤, 까마귀 등은 남자인가?
- 표준 킹제임스 번역자의 이실직고: 표준역 영어 본문은 1769년 케임브리지판이 아니다.
- And를 거의 다 '그리고'로 번역해야 한다는 부적절한 주장
- 영감과 보존과 번역, 그리고 원본, 사본, 역본의 관계
- 사람을 살해하는 섬뜩하고 공포스러운 하나님?
- 케임브리지 출판사의 공식 답변: 1769년 표준 케임브리지판은 없다.
- 원어 성경의 도움 없이 영어 킹제임스 성경만으로 정확한 번역이 가능한가?
- 피터 렉크만의 극단적 세대주의를 경계해야 한다!
- 나는 말씀보존학회의 친구가 아니라 적이다
- 킹제임스 성경을 근본적으로 개악(改惡)한 근본역
- 근본역의 부실 번역과 한자어 사용, 노력 부족



KEEP BIBLE
무료 PDF 책



킹제임스 찬정역
성경 소개



목회자·신대원생
무료 성경 증명



무료 설교
강해 노트

성경론
비매물